

Islamic Center



137-46 Itaewon1-Dong, Yongsan-Gu,
Seoul South Korea(140-858)
Tel 0082-2-794-0968 Email:
islaminkorea@yahoo.com
www.islaminkorea.or.kr
www.islaminkorea.net



*"In the name of God
Most Gracious Most Merciful"*

무함마드 언행록을 통해서 본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최영길 편저

도서출판 알림

서 문

공자 왈 맹자 왈 하면서 문자를 인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식인으로 대접받고 박식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동양의 유교문화가 있다면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꾸란(Quran)을 말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言行錄 ; Al- Hadith)을 인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박식한 지식인으로 대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부처나 모세, 그리고 예수가 그들의 교인들에게 미친 영향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무슬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랭킹 100인』의 저자 마이클 H. 하트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언행록은 이슬람법(Shariah)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법원(法源)이자 아랍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약 50만 편에 달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중 1895편을 4부로 나누어 제1권에서는 359편 까지만 다루고 나머지는 앞으로 발간될 2, 3, 4, 5권에서 다루려고 한다.

본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알라(Allah)는 태초에 우주만물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 하나님(God), 즉 창조주 명칭에 대한 아랍어 표현이다. 영어로는 가드(God)라 부르고 한글로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각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지구촌 대부분의 언어에는 창조주에 대한 표현과 명칭이 들어 있다. 그리고 언행록 본문 끝에 언급되고 있는 부카리(Al-Bukhari), 무슬림(Muslim), 티리미지(Al-Tirmizi), 바이하키(Al-Bayhaqi), 아흐마드(Ahmad), 아부 다우드(Abu Dawd), 이븐 마자(Ibn Majah), 니싸이(Al-Nisai) 등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적을 수집하여 기록한 저명한 학자들의 이

를 내지는 별명이다. 그리고 차례의 H.1 ~ H.359는 본서에 소개된 무함마드 언행록의 일련 번호 1에서 359까지를 가리킨다.

끝으로 KIHF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고용팔 사장님과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후원하여준 WAMY, LG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최성진님께 감사드리며 한글오자를 교정하느라 수고한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김홍수군에게 본서의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2008년 2월 1일
편집자

차 례

*서 문	3
1. 마음과 의지	13
○일체유심조(H.1) ○마음과 부활(H.2) ○지도자의 성전축구와 부응(H.3) ○사정으로 성전에 불참한 자의 보상(H.4) ○자선보다 가족(H.5) ○자선과 상속(H.6) ○마음과 행실(H.7) ○성전하는 자의 세 부류(H.8) ○살인의 마음을 가진 자는 지옥(H.9) ○사원에서 예배는 25배 축복(H.10) ○착한 마음과 실천은 7백의 보상(H.11) ○선행의 결과(H.12)	
2. 반성과 회개	24
○하루 70번의 회개(H.13) ○하루 100번의 회개(H.14) ○회개하는 자의 기쁨(H.15) ○회개와 펼쳐진 손(H.16) ○회개의 수락(H.17) ○회개는 죽기 전에(H.18) ○회개의 문(H.19) ○1백명의 살인과 회개(H.20) ○진실과 변명(H.21) ○간통한 여인의 진실한 고백(H.22)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H.23) ○천국에 들어가는 살인자(H.24)	
3. 자제와 인내	47
○청결은 신앙의 절반(H.25)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내(H.26) ○재앙과 인내 그리고 축복(H.27) ○죽음과 고통 그리고 천국(H.28) ○운명과 정명(H.29) ○나병환자를 치료하는 자의 보상(H.30) ○충격은 인내로(H.31) ○인내하는 자의 보상(H.32) ○인내하는 자의 보상은 순교자의 보상(H.33) ○시련과 인내(H.34) ○간질병과 인내(H.35) ○인내 그리고 가해자를 위한 기도(H.36) ○아픔과 죄의 사면(H.37) ○작은 죄들이 낙엽 떨어지듯(H.38) ○은총과 시련(H.39) ○삶과 죽음(H.40) ○개종을 거부한 자의 운명(H.41) ○인내한 자에 대한 자비(H.42) ○보상은 시련을 겪은 자의 것(H.43) ○임종을 지켜보는 자의 보상(H.44) ○강자는 인내하는 자(H.45) ○아우빌라(주여, 보호하여 주소서 H.46) ○복수를 포기하는 자에게 천국의 아내가(H.47) ○분노하지 말라(H.48) ○시련과 인내 그리고 사면(H.49) ○홍분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뜨지 말 것(H.50) ○책임완수와 은총간구(H.51) ○차별대접과 인내(H.52) ○적과 대치했을 때의 인내(H.53)	

4. 진실 71
 - 진실과 선행 그리고 천국(H,54) ○진실은 평안, 거짓은 불안(H,55)
 - 진실할 것(H,56) ○진실을 추구하는 자의 보상(H,57) ○전리품은 약자와 가난한 자의 것(H,58) ○진실한 거래자에게는 축복이(H,59)
 5.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75
 -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H,60)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선행으로 치유(H,61) ○인내와 승일, 고생과 성공(H,62) ○아무리 작은 것도 죄는 죄(H,63)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보호받을 권리 있어(H,64) ○세 사람의 시험(H,65)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H,66) ○가장 훌륭한 자(H,67)
 - 아내의 개선을 위해(H,68)
 6. 세상의 유혹과 여성의 유혹 85
 - 가장 명예스러운 자(H,69) ○주의 할 것은 세상 유혹과 여성의 유혹(H,70) ○알라 하나님께 간구(H,71) ○더 좋은 것을 수행(H,72)
 - 천국에 가는 조건(H,73)
 7. 믿음과 의지 88
 -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H,74) ○유한한 것은 무한한 존재에 간구해야(H,75) ○보호자는 알라 하나님(H,76) ○천국은 은유한 자의 것(H,77) ○구세주는 알라 하나님(H,78) ○알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H,79)
 - 모든 것을 알라 하나님께 의탁할 때(H,80)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H,81) ○외출할 때의 기도(H,82) ○보호자는 오직 알라 하나님 뿐(H,83)
 - 형제 덕분에(H,84)
 8. 바른 길 98
 - 이슬람이란(H,85) ○구세주는 오직 알라 하나님 뿐(H,86)
 9. 우주 만물에 대한 명상100
 10. 선행은 빠를수록 좋은 것101
 - 선행은 서둘러서(H,87) ○재물은 불안의 원인(H,88) ○순교자는 천국에(H,89) ○자선은 필요할 때(H,90) ○누가 나의 이 칼을 잡겠는가?(H,91)
 - 참을성과 인내(H,92) ○일곱 가지와 자선(H,93) ○군대의 깃발은 알라 하나님과 사도를 사랑하는 자에게(H,94)
 11. 고심분투106
 - 알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H,95) ○알라 하나님의 사랑(H,97)
- 6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건강과 풍요를 잃는 자(H,98) ○신앙생활 강화(H,99)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표현(H,100) ○욕망과 지옥, 노동과 천국(H,101) ○꾸란의 가르침대로(H,102) ○나쁜 행위(H,103) ○고인과 업적(H,104) ○천국과 지옥은 가까이(H,105) ○많이 었드려 예배(H,106) ○추가예배와 위상(H,107) ○장수와 선행(H,108) ○결심과 변심(H,109) ○위선자의 자선(H,110) ○업적으로 계산(H,111)

12. 황혼기의 선행118

○나이 60이 될 때까지(H,112) ○사도에게 죽음이 가까웠을 때(H,113) ○죽기 전에(H,114) ○사도의 죽음과 계시(H,115) ○죽은 상태로 부활(H,116)

13. 다양한 선행의 길122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자선(H,117) ○나쁜 일을 못하도록 말리는 것도 자선(H,118) ○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는 것도 선행(H,119) ○합법적 방법에 의한 성욕의 충족은 보상이(H,120)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선행(H,121) ○고운 말 한마디도 저선(H,122) ○조석으로 사원에 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거처가(H,123) ○염소 정강이에 붙은 살 만큼의 선물(H,124) ○겸손도 믿음의 일종(H,125) ○목마른 동물에게 물을 주는 자에게도 보상이(H,126) ○가로수를 절단하는 자(H,127)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자(H,128) ○예배를 위한 세수의 효과(H,129)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였다면(H,130) ○죄 사함을 받는 등급(H,131) ○천국에 가는 예배(H,132) ○중병과 보상(H,133) ○모든 선행은 자선(H,134) ○나무를 심는 자와 농장주인의 자선(H,135) ○사원을 향한 발걸음(H,136) ○덕망을 보이는 것도 선행(H,137) ○40 종류의 덕행(H,138) ○종려나무 열매 하나도 자선(H,139) ○감사의 표현도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H,140)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도 자선(H,141)

14. 경제적인 신앙생활137

○사랑받는 예제는 정해진 시간에(H,142) ○일상생활속에서의 예배(H,143) ○지나친 종교생활의 피해(H,144) ○적당한 종교생활의 미덕(H,145) ○피곤할 때는 예배보다 휴식을(H,146) ○졸릴 때는 예배보다 수면이 우선(H,147) ○적당한 신앙생활(H,148) ○신앙생활과 가족부양(H,149) ○신앙생활과 아내의 남편에 대한 권리(H,150) ○일상생활속에서 알라 하나님 생각(H,151) ○건강을 우선으로 한 신앙생활(H,152)

15. 덕행과 신앙생활 149

○자의적 예배를 잊었다면 새벽예배와 정오예배 사이에 보완(H,153) ○피곤할 때는 밤중의 자의적 예배는 피할 것(H,154) ○낮 동안의 12라카아로 밤중 자의적 예배 대신(H,155)

16. 사도의 전통 준수151
 ○나의 전통준수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H.156) ○나의 후계자 칼리프들의 전통도 준수(H.157) ○나의 전통을 준수한 자는 천국으로(H.158) ○식사는 오른 손으로(H.159) ○예배와 일직선의 대열(H.160) ○취침 때의 소등(H.161) ○알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과 지식은 대지에 떨어지는 비와 같은 것(H.162) ○나와 여러분은 불을 집혀놓은 사람(H.163) ○손으로 음식을 먹은 후 손가락을 빨 것(H.164) ○이교를 만든 교주에 대한 예수의 증거(H.165)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돌을 던지지 말 것(H.166) ○카으바 신전의 흑석은 돌에 불과(H.167)
17. 신법 준수160
 ○알라 하나님의 법 준수(H.168)
18. 이설과 이단 금지163
 ○이설은 배척(H.169) ○이슬람의 개혁과 혁신은 방황(H.170)
19. 덕행과 선행의 장려166
 ○덕행과 선행에 동참(H.171) ○카인의 살해와 책임(H.172)
20. 선행의 권장과 촉구169
 ○선행을 유도한 자의 보상(H.173) ○선행을 촉구한 자와 나쁜 일로 유도한 자(H.174) ○한 사람이라도 알라 하나님께로 초대한 자의 보상(H.175) ○돌려받지 않을 때의 보상(H.176)
21. 선행에 대한 협력173
 ○성전에 협력만 해도(H.177) ○둘 중 성전에 불참한 자에게도 보상이(H.178) ○아이가 순례에 참여했을 때(H.179) ○위임 사항을 충실히 수행한 후 환원한 자에게도 보상이(H.180)
22. 조연과 충고175
 ○믿음의 바탕은 진실(H.181) ○충고와 맹세(H.182) ○신앙인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것(H.183)
23. 덕행의 권장과 악행 금지177
 ○마음으로라도(H.184) ○믿음의 씨앗(H.185)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지도자의 명령(H.186) ○신법을 준수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H.187) ○이슬

- 람법을 준수하는 자와 역행하는 자(H.188) ○부패와 악이 범람하면(H.189)
○길은 길의 권리가 있어(H.190) ○금반지를 낀 남자(H.191) ○가장 나쁜
지도자(H.192) ○선행촉구 악행금지(H.193) ○가장 훌륭한 성전(H.194) ○
가장 훌륭한 성전(H.195) ○진리추구와 구원(H.196) ○박해자를 보고 제지
하지 않는 자(H.197)
24.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187
○타인에게 선행을 촉구하고 나쁜 짓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는 자
의 말로(H.198)
25. 기탁 받은 것은 주인에게로189
○세 종류의 위선자(H.199) ○신뢰와 신임(H.200) ○업적이 적은 사람
(H.201) ○부채청산과 유산분배(H.202)
26. 잔인함과 인색함 금지198
○인색함이 멸망(H.203) ○염소 뿔의 권리(H.204) ○고별순례와 신성한 것
(H.205) ○남은 것을 빼앗는 자의 말로(H.206) ○적의 그릇이 가득할 때까지
(H.207) ○억압받는 자의 소리에 경청(H.208) ○책임의 심판(H.209) ○피
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H.210) ○피해를 주지 않는 자(H.211) ○부적절한
망토(H.212) ○생명과 재산과 명예는 신성(H.213) ○거짓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의 말로(H.214) ○공직자는 업무의 계산서 제출해야(H.215) ○흙
친 시트와 망토(H.216) ○부채는 감면의 대상이 아님(H.217) ○국빈자란
(H.218) ○토론에 능숙한 자(H.219) ○불법살인(H.220) ○공금 착복(H.221)
27.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210
○형제에는 건물의 골조와 같은 것(H.222) ○피해가 되지 않게(H.223) ○이
슬람의 사랑(H.224)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H.225) ○자식들에게의
입맞춤(H.226)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H.227) ○함동예배
집전과 홀로 예배 때의 꾸란 암기(H.228) ○좋아하면서도 피한 이유(H.229)
○지속적인 단식 금지(H.230) ○꾸란을 길게 암송하여 어린애와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말 것(H.231) ○새벽예배와 알라 하나님의 보호(H.232) ○형제
가 형제를 해치지 않는다(H.233)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지 않는다(H.234)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H.235) ○온전한 무슬림이란(H.236) ○부정
과 박해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형제를 돕는 일(H.237) ○5가지 권리와 6가
지 의무(H.238) ○7가지 의무사항과 7가지 금지사항(H.239)
28. 무슬림의 부족한 점 감싸기219
○잘못을 덮어주는 자에 알라 하나님의 배려(H.240) ○밤의 일을 노골적으
로 말하는 자(H.241) ○간통한 하녀(H.242) ○타인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기

도는 삼가야(H.243)

29.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배려221
 ○알라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는다(H.244) ○지식탐구를 떠나는 자의 보상(H.245)
30. 선행을 위한 건의223
 ○선행을 위한 건의와 보상(H.246)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는 건의(H.247)
31. 화해조성224
 ○화해조성도 자선(H.248) ○화해를 조성하는 자의 말(H.249) ○채권자와 채무자의 화해조성(H.250) ○어떤 상황을 알리고자 할 때(H.251)
32. 약자와 빈자에 대한 축복228
 ○천국은 약자와 빈자의 것(H.252) ○빈자가 더 훌륭함(H.253) ○천국과 지옥의 토록(H.254) ○몸이 비대한 자의 말로(H.255) ○사원을 돌 본 피부가 새까만 여성(H.256) ○문전박대를 받은 자(H.257) ○천국의 입국이 거절된 부자들(H.258) ○요람에서 말을 한 세 아이(H.259)
33.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235
 ○간구하는 자들의 요구 배려(H.260)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H.261) ○고아를 돌보는 자와 천국(H.262) ○고아를 돌보는 자와 천국(H.263) ○가난한 자란(H.264) ○나이든 여성과 불우한 자를 위해 일하는 자의 등급(H.265) ○초대받고 참석하지 않는 자는 사도를 거역한 것(H.266) ○두 여자를 양육한 자의 보상(H.267) ○딸들을 양육한 것은 지옥의 방패(H.268) ○천국은 딸들을 양육자의 것(H.269) ○여성과 고아에 대한 배려(H.270) ○약자들을 도와야(H.271) ○도움을 받은 자는 약자를 도와야(H.272)
34. 여성과 아내의 권리242
 ○여성들에게 친절 할 것(H.273) ○아내를 구타하면서 동침하는 자(H.274) ○여성에게 나쁜 마음 금지(H.275) ○아내에게 친절해야(H.276) ○남편에 대한 아내의 권리(H.277) ○가장 훌륭한 무슬림은 아내를 아끼는 자(H.278) ○아내의 불만 대상이 된 남편은 나쁜 사람(H.279)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내(H.280)
35. 남편의 권리247
 ○아내가 잠자리를 거절했을 때(H.281) ○남편의 외출 중 가정방문 불허

(H.282) ○여성은 남편과 자식에 대한 보호자(H.283)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H.284) ○남편은 아내에게 누우라고 할 수 있어(H.285) ○남편이 만족한 아내는 천국에(H.286) ○천국의 아내(H.287) ○남편에게 해가 되는 원인(H.288)

36. 아내와 가족을 위한 지출251

○아내와 가족을 위한 지출이 가장 큰 보상(H.289) ○가족을 위해 지출한 돈이 가장 좋은 재물(H.290) ○자식을 위해 지출한 돈과 보상(H.291) ○아내의 입에 넣어준 것과 보상(H.292)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도 자선(H.293) ○먹을 것을 주다가 중단하는 것은 죄(H.294) ○베푸는 자에게 내려오는 천사(H.295) ○주는 손이 더 훌륭함(H.296)

37. 축복받는 지출과 자선255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베풀어야(H.297)

38. 자녀 가정교육257

○지도자의 자녀교육(H.298) ○식사예절 교육(H.299) ○부부는 자식에 대한 보호자(H.300) ○7살과 10살이 되었을 때부터(H.301) ○7살이 되었을 때부터(H.302)

39. 이웃의 권리260

○이웃의 권리(H.303) ○이웃을 위해 국물을 더 부을 것(H.304) ○이웃의 불상사에 무관심 한 자(H.305)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 것(H.306) ○이웃간의 왕래(H.307)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H.308) ○이웃에게 친절(H.309) ○선물은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H.310)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H.311)

40. 효도와 친척간의 유대264

○효도와 알라 하나님의 사랑(H.312) ○부모를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지 아니하면(H.313) ○효도와 친척간의 우호(H.314) ○혈연관계를 단절하는 자의 말로(H.315) ○가장 큰 대접을 받을 사람은 어머니(H.316) ○불효자와 천국(H.317) ○친척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한 자(H.318) ○친척들에게 베풀어야(H.319) ○친척들에게 유산분배(H.320) ○부모 공양은 성전(H.321) ○친척들과 단절한 자(H.322) ○혈육관계(H.323) ○친척들에게 베풀어야(H.324) ○어머니에게 친절(H.325) ○친척을 배려하는 자와 보상(H.326) ○친척간의 우애(H.327) ○친족관계(H.328) ○친척에 대한 의무와 지옥(H.329) ○친척에 대한 임무(H.330) ○친척과 천국(H.331) ○친척에 대한 배려와 두 가지 보상(H.332) ○아버지 권유에 의한 아내와 이혼(H.333) ○어머니 권유에 의한 이혼(H.334) ○외숙모는 어머니의 위치(H.335)

41. 불효와 친척간의 단절 금지279
 ○가장 큰 죄(H,336) ○큰 죄 가운데 하나(H,337) ○큰 죄 가운데 하나(H,338) ○친척과의 단절과 천국(H,339) ○불효 금지(H,340)
42. 부모 친구에 대한 예절283
 ○가장 고상한 행위(H,341) ○최상의 덕행(H,342) ○고인이 된 부모를 위한 일(H,343) ○아내의 친구에 대한 배려(H,344) ○봉사(H,345)
43. 사도 가문에 대한 존경288
 ○사도 가문 존중(H,346) ○사도 가문을 존중하는 것은(H,347) ○
44. 학자와 지식인 존경291
 ○꾸란 암기와 전통에 능통한 지식인에 대한 존경(H,348) ○지식인이 나 가까이(H,349) ○나 가까이 있을 사람은 지식인(H,350) ○연장자부터(H,351) ○꾸란 암기에 능통한 자부터(H,352) ○연장자에게 먼저(H,353) ○노인과 꾸란 암기자와 해설자를 존중(H,354)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자(H,355) ○상황에 따라 대접(H,356) ○꾸란을 따르는 자(H,357) ○예언자 전통을 지키는 자(H,358)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른을 존경한다면(H,359)

제1장 마음과 의지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مَا أَمِرُوا إِلَّا لِيَعْبُدُوا اللَّهَ مُخْلِصِينَ لَهُ الدِّينَ
حُنَفَاءَ وَيُقِيمُوا الصَّلَاةَ ، وَيُؤْتُوا الزَّكَاةَ ، وَذَلِكَ دِينُ الْقَيِّمَةِ
[البينة : ٥] وَقَالَ تَعَالَى : لَنْ يَنْتَالَ اللَّهُ لُحُومَهَا وَلَا دِمَاؤَهَا وَلَكِنْ يَنْتَالُهُ
التَّقْوَى مِنْكُمْ [الحج : ٣٧] وَقَالَ تَعَالَى : قُلْ إِنْ تَخْشَوْنَ مَا فِي
صُدُورِكُمْ أَوْ تُبْذَرُوهُ يَعْلَمَهُ اللَّهُ [آل عمران : ٢٩]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에게 명령이 있었노라. 참마
음으로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헌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이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백성들
의 종교이니라.】 (3:30)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기와 피는
알라 하나님께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너희의 경건함만 그분에게 이
르니라. ...】 (22:30)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러 가로되 알
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나 드러내는 모든 것
을 아시니라. ...】 (3:29)

١ - وَعَنْ أَمِيرِ الْمُؤْمِنِينَ أَبِي حَفْصٍ عُمَرَ بْنِ الْخَطَّابِ بْنِ نُفَيْلٍ
بْنِ عَبْدِ الْعَزْزِيِّ بْنِ رِيَّاحِ بْنِ عَبْدِ اللَّهِ بْنِ قُرْطٍ بْنِ رَزَاحِ بْنِ عَدِيٍّ
ابْنِ كَعْبِ بْنِ لُؤَيٍّ بْنِ غَالِبِ الْغُرَثِيِّ الْعَدَوِيِّ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إِنَّمَا الْأَعْمَالُ بِالنِّيَّاتِ ،
وَأِنَّمَا لِكُلِّ امْرِئٍ مَا نَوَى فَمَنْ كَانَتْ هِجْرَتُهُ إِلَى اللَّهِ وَرَسُولِهِ
فَهِجْرَتُهُ إِلَى اللَّهِ وَرَسُولِهِ ، وَمَنْ كَانَتْ هِجْرَتُهُ لِدُنْيَا يُصِيبُهَا ، أَوْ
امْرَأَةٍ يَنْكِحُهَا فَهِجْرَتُهُ إِلَى مَا هَاجَرَ إِلَيْهِ ، مُتَّفَقٌ عَلَى صِحَّتِهِ .

رواهُ إماما المُحدِّثين : أبو عبد الله مُحَمَّدُ بْنُ إِسْمَاعِيلَ بْنِ إِبْرَاهِيمَ
ابنِ الْمُغِيرَةِ ابنِ بَرْدِزْبَةَ الْجُعْفِيُّ الْبُخَارِيُّ ، وَأَبُو الْحُسَيْنِ مُسْلِمُ بْنُ
الْحَجَّاجِ بْنِ مُسْلِمٍ الْقُشَيْرِيُّ النَّيْسَابُورِيُّ رَضِيَ اللَّهُ عَنْهُمَا فِي صَحِيحَيْهِمَا
الَّذِينَ مِمَّا أَصَحُّ الْكُتُبِ الْمُصَنَّفَةِ .

1.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실로 모든 것은 마음의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도를 만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자는 알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도를 만나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을 얻고 싶거나 결혼하고 싶은 여성을 갖고 싶은 의지가 있는 자는 그가 뜻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 (Bukhari and Muslim).

이맘 나와위(Imam Nawawi)는 부카리(Imam Abu Abdullah Muhammad Bukhari)와 무슬림(Imam Abu Husain Muslim) 두 학자가 위의 본문을 최상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두 권의 문헌에서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٢- وَعَنْ أُمِّ الْمُؤْمِنِينَ أُمِّ عَبْدِ اللَّهِ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غْزُو جَيْشُ الْكُفَّةِ فَلَئِنْ كَانُوا يَبِيدُكُمْ مِنَ الْأَرْضِ يَخْسَفُ بِأَوَّلِهِمْ وَأَخِيرِهِمْ». قَالَتْ: قُلْتُ: يَا رَسُولَ اللَّهِ، كَيْفَ يَخْسَفُ بِأَوَّلِهِمْ وَأَخِيرِهِمْ وَفِيهِمْ أَسْوَاقُهُمْ وَمَنْ لَيْسَ مِنْهُمْ؟! قَالَ: «يَخْسَفُ بِأَوَّلِهِمْ وَأَخِيرِهِمْ، ثُمَّ يُبْعَثُونَ عَلَى نِيَابَتِهِمْ، مُتَّفَقٌ عَلَيْهِ هَذَا لَفْظُ الْبُخَارِيِّ».

2.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이샤(Aishah)가 전하고 있다. “군대가 카으바 신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바이다 메디나 평원에 이르게 되면 땅이 그 군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강제로 그 군대에 동원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어야하느냐고 부인 아이샤가 묻자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군대에 소속된 모두가 사라질 것

이나 심판의 날에는 각자 마음속에 간직했던 뜻에 따라 부활 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ا هجرة بعد الفتح ، ولكن جهاد ونية ، وإذا استنفرتم
فانفروا ، متفق عليه »

3.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이샤(Aishah)가 전하고 있다. “메카가 정복되면 이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Imam)가 성전을 촉구할 때는 그것에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۴ - وعن أبي عبد الله جابر بن عبد الله الأنصا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نا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غزاة فقال : « إن
بالمدينة لرجالاً مايرئهم مسيراً ، ولا قطعنهم وأدياً إلا كانوا معكم
حبسهم المرض ، وفي رواية : « إلا تركوكم في الأجر ، رواه مسلم »
ورواه البخاري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رجعتنا من غزوة
نبوك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 إن أقواماً خلفتنا بالمدينة
ماسلكننا شعباً ولا وادياً إلا وهم معنا ، حبسهم العذر »

4.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자베르(Jabir bin Abdullah)가 전하고 있다. “한 전투에서 예언자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디나에는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행군을 하고 어느 계곡을 가로질러가든지 간에 여러분과 정신을 함께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아파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른 전언에서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들도 보상을 함께 나누어가졌다.” (Muslim)

이맘 부카리는 아나스(Anas)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 말씀을 인용

하고 있다. “우리는 타북(Tabbuk)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예언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우리와 함께 출전하지도 않고 산을 넘지도 않은 일부 메디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과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유가 있어 우리와 함께 참전을 못했을 뿐입니다.”

۵ - وَعَنْ أَبِي يَزِيدَ مَعْنٍ بْنِ يَزِيدَ بْنِ الْأَخْنَسِ رَضِيَ اللَّهُ عَنْهُمْ، وَهُوَ وَأَبُوهُ وَجَدَهُ صَحَابِيُونَ، قَالَ : كَانَ أَبِي يَزِيدَ أَخْرَجَ دَتَانِيرَ يَتَمَدَّقُ بِهَا فَوَضَعَهَا عِنْدَ رَجُلٍ فِي الْمَسْجِدِ فَجِئْتُ فَأَخَذْتُهَا فَأَتَيْتُ بِهَا، فَقَالَ : وَاللَّهِ مَا لِيَاكَ أَرَدْتُ، فَخَاصَمْتُهُ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 لَكَ مَا تَوَيْتَ يَا يَزِيدُ، وَلَكَ مَا أَخَذْتُ يَا مَعْنُ، »
رواه البخاري

5. 마안(Ma'an bin Yazid bin Al-Akhnas)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예언자의 교우이며 그는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께서 자선사업 목적으로 챙겨둔 돈을 사원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 가서 그 돈을 돌려받아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이 돈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예언자를 찾아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야지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뜻을 두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안은 그것을 되돌려 받아올 자격이 있습니다.” (Bukhari).

۶ - وَعَنْ أَبِي إِسْحَاقَ سَعْدِ بْنِ أَبِي وَقَّاصٍ مَالِكِ بْنِ أَهْتَبِ بْنِ عَبْدِ مَنَافٍ بْنِ زُهْرَةَ بْنِ كِلَابِ بْنِ مُرَّةَ بْنِ كَعْبِ بْنِ لُؤَيٍّ الْقُرَشِيِّ الزُّهْرِيِّ رَضِيَ اللَّهُ عَنْهُ، أَحَدِ الْعَشْرَةِ الْمَشْهُودِ لَهُمْ بِالنَّحْتِ، رَضِيَ اللَّهُ

عَنْهُمْ ، قَالَ : « جَاءَنِ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عُودِي عَامَ حَجَّةِ الْوُدَّاعِ مِنْ وَجَعِ اشْتِدَّ بِي فَ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إِنِّي قَدْ بَلَغَ بِي مِنَ الْوَجَعِ مَا تَرَى ، وَأَنَا ذُو مَالٍ وَلَا بَرْتَنِي إِلَّا ابْنَتِي لِي ، أَفَأَتَصَدَّقُ بِثُلُثِي مَالِي ؟ قَالَ : لَا قُلْتُ : فَالْشَّطْرُ يَا رَسُولَ اللَّهِ ؟ فَقَالَ : لَا ، قُلْتُ : فَالْثُلُثُ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الْثُلُثُ وَالْثُلُثُ كَثِيرٌ - أَوْ كَبِيرٌ - إِنَّكَ أَنْ تَذَرَ وَرَثَتَكَ أَغْنِيَاءَ خَيْرٌ مِنْ أَنْ تَذَرَهُمْ عَالَةً يَتَكَفَّفُونَ النَّاسَ ، وَإِنَّكَ لَنْ تُنْفِقَ نَفَقَةً تَبْتَغِي بِهَا وَجْهَ اللَّهِ إِلَّا أَجَرْتَ عَلَيْهَا حَتَّى مَا تَجْعَلَ فِي فِي امْرَأَتِكَ قَالَ : فَ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أَخْلَفْتُ بَعْدَ أَصْحَابِي ؟ قَالَ : إِنَّكَ لَنْ تُخْلَفَ فَتَعْمَلْ عَمَلًا تَبْتَغِي بِهِ وَجْهَ اللَّهِ إِلَّا أَزْدَدَتْ بِهِ دَرَجَةً وَرِفْعَةً ، وَلَعَلَّكَ أَنْ تُخْلَفَ حَتَّى يَنْتَفِعَ بِكَ أَقْوَامٌ وَيُضَرَّ بِكَ آخَرُونَ . اللَّهُمَّ أَمْنٌ لِأَصْحَابِي مَجْرَتَهُمْ ، وَلَا تَرُدَّهُمْ عَلَى أَعْقَابِهِمْ ، لَكِنَّ الْبَنَاسُ سَعْدُ بْنُ خَوْلَةَ « بَرْتَنِي لَ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 مَاتَ بِمَكَّةَ . مَتْفَنٌ عَلَيْهِ

6. 싸우드(Sa'd bin Abi Waqqas)는 천국에 들어갈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은 한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심각한 중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을 때 예언자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시기는 예언자께서 고별순례를 한 그 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 사도여,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중병에 걸려있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돈과 재물이 있으며 저의 유일한 상속자는 딸자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삼분의 일을 자선사업으로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의 일을 제의하고 그것도 수락되지 않아 이번에는 삼분의 일을 제의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삼분의 일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가난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먹을 구걸하지 않도록 자식들을 여유 있게 만들어주

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신이 알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비록 아내의 입에 넣어준 밥 한 수저까지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또 질문했습니다. : 사도여, 저의 동료들이 메카를 떠날 때 저는 남게 됩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셨습니다. : 당신은 분명히 남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신앙인들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을 하였고 또 불신자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알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 알라 하나님여, 저의 교우들의 이주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어 그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나 이주하지 못하고 메카에 남아 그곳에서 사망한 가련한 자 싸으드 빈 카울라(Sa'd bin Khaulah)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Bukhari and Muslim).

۷ - وَعَنْ أَبِي هُرَيْرَةَ عَنِ عَبْدِ الرَّحْمَنِ بْنِ صَخْ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اللَّهَ لَا يَنْظُرُ إِلَى أَجْسَامِكُمْ ، وَلَا إِلَى صُورِكُمْ ، وَلَكِنْ يَنْظُرُ إِلَى قُلُوبِكُمْ وَأَعْمَالِكُمْ » ، رواه مسلم

7.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체와 외모를 보지 않고 다만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를 관찰하실 뿐입니다.” (Muslim)

۸ - وَعَنْ أَبِي مُوسَى عَنِ عَبْدِ اللَّهِ بْنِ قَيْسٍ الْأَشْعَ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أَ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نِ الرَّجُلِ يُقَاتِلُ شَجَاعَةً ، وَيُقَاتِلُ حَمِيَّةً وَيُقَاتِلُ رِيَاءً ، أَيُّ ذَلِكَ فِي سَبِيلِ اللَّ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قَاتَلَ لِيَتَكُونَ كَلِمَةً اللَّهُ هِيَ الْعُلْبَاءُ فَهُوَ فِي سَبِيلِ اللَّهِ » مُتَّفَقٌ عَلَيْهِ

8.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알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하는 자 중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싸운 자와 자신을 보호하고 명예를 위해 싸운 자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싸운 자 중에서 누가 알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한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기 위해 싸운 자가 알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한 자라고 예언자는 대답하셨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٩ - وَعَنْ أَبِي بَكْرَةَ ثُمَيْعِ بْنِ الْحَارِثِ الثَّقَفِ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انْتَقَى الْمُسْلِمَانِ بَسِيْفَتَيْهِمَا فَالْقَاتِلُ وَالْمَقْتُولُ فِي النَّارِ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 هَذَا الْقَاتِلُ فَمَا بِالْمَقْتُولِ ؟ قَالَ : « إِنَّهُ كَانَ حَرِيصًا عَلَى قَتْلِ صَاحِبِهِ » متفق عليه

9.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부 바크라 싸까피(Abu Bakrah Al-Thaqafi)가 전하고 있다. “두 신앙인이 칼을 가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피살되었다면 살해자와 피살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질문하였습니다. : 사도여, 살해자는 이해가 가는데 피살자도 지옥에 가게 됩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셨습니다. : 그도 그의 동료를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١٠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صَلَاةُ الرَّجُلِ فِي جَمَاعَةٍ تَزِيدُ عَلَى صَلَاتِهِ فِي سُوقِهِ وَبَيْتِهِ بِضْعًا وَعِشْرِينَ دَرَجَةً » وَذَلِكَ أَنَّ أَحَدَهُمْ إِذَا تَوَضَّأَ فَأَحْسَنَ الْوُضُوءَ . ثُمَّ أَتَى الْمَسْجِدَ لَا يُرِيدُ إِلَّا الصَّلَاةَ ، لَا يَنْهَرُهُ إِلَّا الصَّلَاةُ . لَمْ يَخْطُ خُطْوَةً إِلَّا رُفِعَ لَهُ بِهَا دَرَجَةٌ . وَحُطَّ عَنْهُ بِهَا خَطِيئَةٌ حَتَّى يَدْخُلَ الْمَسْجِدَ . فَلِذَا دَخَلَ الْمَسْجِدَ كَانَ فِي الصَّلَاةِ مَا كَانَتْ الصَّلَاةُ هِيَ تَحْبِسُهُ ، وَالْمَلَائِكَةُ يُصَلُّونَ عَلَى أَحَدِكُمْ مَا دَامَ فِي مَجْلِسِهِ الَّذِي صَلَّى فِيهِ يَقُولُونَ : اللَّهُمَّ ارْحَمْهُ ، اللَّهُمَّ اغْفِرْ لَهُ ، اللَّهُمَّ تَبَّ عَلَيْهِ . مَا لَمْ يُوْذَرْ فِيهِ ، مَا لَمْ يُحْدَثْ فِيهِ » متفق عليه ، وَهَذَا لَفْظُ مُسْلِمٍ .

10.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사원에서 합동으로 행하는 예배는 가정이나 시장터에서 행하는 예배보다 스물다섯 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청결하게 씻고(Udu) 예배할 목적으로 사원으로 간다면 그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그의 위상은 하나 둘 상승되고 그가 사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죄는 하나 둘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에 참석한 자로 간주되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청결한 상태로 있게 되면 천사들이 그의 구원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 알라 하나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소서.” (Bukhari and Muslim).

۱۱ - وَعَنْ أَبِي الْعَبَّاسِ عَبْدِ اللَّهِ بْنِ عَبَّاسٍ بْنِ عَبْدِ الْمُطَّلِبِ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مَا يَرَوِي عَنْ رَبِّهِ، تَبَارَكَ وَتَعَالَى قَالَ: «إِنَّ اللَّهَ كَتَبَ الْحَسَنَاتِ وَالسَّيِّئَاتِ ثُمَّ بَيَّنَّ ذَلِكَ: فَمَنْ هَمَّ بِحَسَنَةٍ فَلَمْ يَعْمَلْهَا كَتَبَهَا اللَّهُ تَبَارَكَ وَتَعَالَى عِنْدَهُ حَسَنَةً كَامِلَةً، وَإِنْ هَمَّ بِهَا فَعَمِلَهَا كَتَبَهَا اللَّهُ عَشْرَ حَسَنَاتٍ إِلَى سَبْعِمِائَةٍ ضِعْفٍ إِلَى أَضْعَافٍ كَثِيرَةٍ، وَإِنْ هَمَّ بِسَيِّئَةٍ فَلَمْ يَعْمَلْهَا كَتَبَهَا اللَّهُ عِنْدَهُ حَسَنَةً مِلَّةً، وَإِنْ هَمَّ بِهَا فَعَمِلَهَا كَتَبَهَا اللَّهُ سَبْعِينَ وَاحِدَةً، مُتَقَى عَلَيْهِ

11. 예언자가 알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압둘라 빈 압바스 (Abdullah bin Abbas)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정의하시고 그것에 관한 등급을 밝히셨습니다. : 좋은 일을 하려고 착한 마음만 가졌어도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내리시며,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열에서 칠백 배 그 이상으로 보상을 내리십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나쁜 마음을 가졌다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내리시나 만일 그것을 실행하였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사악한 것으로 기록하십니다.” (Bukhari and Muslim).

١٢ - وعن أبي عبد الرحم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 بن الخطاب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انطلقت ثلاثة نفر ميمّن كان قبلكم حتى آواهم الميّم إلى غار فدخلوه ، فانحدرت صخرة من الجبل فسدّت عليهم الغار ، فقالوا : إنه لا ينجيكُم من هذه الصخرة إلا أن تدعوا الله بصالح أعمالكم . قال رجل منهم : اللهم كان لي أبوان شيخان كبيران ، وكنت لا أغنيق قبلهما أهلاً ولا مالا . فتأى بي طلب الشجر يوماً فلم أريح عليهما حتى ناما فحلبت لهما غبوقهما فوجدتهما نائمين ، فكرهت أن أوقظهما وأن أغنيق قبلهما أهلاً أو مالا . فلبثت - والقدح على يدي - أنتظر استيقاظهما حتى برق الفجر والصبية يتضاغون عند قدمي - فاستيقظا فشربا غبوقهما . اللهم إن كنت فعلت ذلك ابتغاء وجهك ففرج عنا ما نحن فيه من هذه الصخرة ، فانفرجت شيئاً لا يستطيعون الخروج منه . قال الآخر : اللهم إنه كانت لي ابنة عم كانت أحب الناس إليّ ، وفي رواية : « كنت أحبها كأشد ما يحب الرجال النساء ، فأردتها على نفسها فامتنعت مني حتى ألفت بها سنة من السنين فجاءتني فأعطيتها عشرين ومائة دينار على أن تخلي بيّني وبين نفسها ففعلت ، حتى إذا قدرت عليها ، وفي رواية : « فلما قعدت بين رجلينها ، قالت : اتق

اللهَ وَلَا تَفُضَّ الْخَاتَمَ إِلَّا بِحَقِّهِ ، فَاَنْصَرَفْتُ عَنْهَا وَهِيَ أَحَبُّ النَّاسِ إِلَيَّ
وَتَرَكْتُ الذَّمَّ الَّذِي أُعْطِيتُهَا ، اللَّهُمَّ إِنْ كُنْتُ فَعَلْتُ ذَلِكَ ابْتِغَاءَ
وَجْهِكَ فَافْرُجْ عَنَّا مَا نَحْنُ فِيهِ ، فَاَنْفَرَجَتِ الصَّخْرَةُ غَيْرَ أَنَّهُمْ
لَا يَسْتَطِيعُونَ الْخُرُوجَ مِنْهَا . وَقَالَ الثَّالِثُ : اللَّهُمَّ اسْتَأْجَرْتُ أَجْرَاءَ
وَأَعْطَيْتُهُمْ أَجْرَهُمْ غَيْرَ رَجُلٍ وَاحِدٍ تَرَكَ الَّذِي لَهُ وَذَهَبَ ، فَتَمَرَّتْ
أَجْرُهُ حَتَّى كَثُرَتْ مِنْهُ الْأَمْوَالُ ، فَجَاءَنِي بَعْدَ حِينٍ فَقَالَ : يَا عَبْدَ
اللهِ أَدُّ إِلَيَّ أَجْرِي ، فَقُلْتُ : كُلُّ مَا تَرَى مِنْ أَجْرِكَ : مِنَ الْإِبِلِ وَالْبَقَرِ
وَالْغَنَمِ وَالرَّقِيقِ . فَقَالَ : يَا عَبْدَ اللهِ لَا تَسْتَهْزِئْ بِي ! فَقُلْتُ :
لَا أَسْتَهْزِئُ بِكَ ، فَأَخَذَهُ كُلَّهُ فَاسْتَأَقَهُ فَلَمْ يَتْرُكْ مِنْهُ شَيْئًا ، اللَّهُمَّ
إِنْ كُنْتُ فَعَلْتُ ذَلِكَ ابْتِغَاءَ وَجْهِكَ فَافْرُجْ عَنَّا مَا نَحْنُ فِيهِ ،
فَاَنْفَرَجَتِ الصَّخْرَةُ فَخَرَجُوا بِمَشُونٍ ، مُتَفِقٌ عَلَيْهِ

12.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압둘라 빈 우마르(Abdullah bin Umar)가 전하고 있다. “여행 중에 있던 세 사람이 폭풍우를 맞아 동굴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바위가 굴러와 동굴의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좋은 일을 한 것으로 알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였습니다. : 주여, 저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으로 저의 자녀들은 물론 가족들에 앞서 부모님께 우유를 갖다 드리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푸른 나무들을 찾기 위해 멀리 갔다가 길을 잃고 부모님이 잠드신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밤중에 우유를 짜서 부모님에게 가져갔을 때 이미 부모님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모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우유를 드시기 전에 저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그 우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우유를 달라고 저의 다리를 붙들고 울었지만 저는 부모님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이 잠

에서 깨어나 우유를 드셨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으니 이 바위로 인해 곤궁에 빠져있는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그러자 그 바위가 약간만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이 기도하였습니다. : 주여, 저에게는 한 조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조카를 유혹하였지만 그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하여 그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녀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여 접근하여왔습니다. 저는 저와 잠자리를 함께한다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120디나르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동침에 들어가려하자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약속을 불법적으로 위반하지 마시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서 떨어졌으며 제가 그녀에게 준 돈도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면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그러자 바위가 약간 움직였을 뿐 저희가 빠져나갈 수 있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간구하였습니다. : 저는 몇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그의 뿔을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얼마 후 그 노동자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알라 하나님의 종이며, 저의 임금을 돌려주시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기 보이는 낙타들이며 가축, 염소, 종들 및 그 밖에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알라 하나님의 종이며,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 나는 너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자 그는 아무 것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면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그러자 우리가 빠져나갈 만큼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Bukhari and Muslim).

제2장 반성과 회개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تُوبُوا إِلَى اللَّهِ جَمِيعاً أَيُّهَا الْمُؤْمِنُونَ لَعَلَّكُمْ تُفْلِحُونَ
[النور: ٣١] وقال تعالى : اسْتَغْفِرُوا رَبَّكُمْ ثُمَّ تُوبُوا إِلَيْهِ [هود: ٣]
وقال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تُوبُوا إِلَى اللَّهِ تَوْبَةً نَصُوحاً [التحريم: ٨]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믿는 자들이여, 모두가 알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라】 (24:31),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께 회개하라. ...】 (11:3), 【믿는 자들이여, 알라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라. ...】 (66:8)

١٣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وَاللَّهِ إِنِّي لَا أَسْتَغْفِرُ اللَّهَ وَأَتُوبُ إِلَيْهِ فِي الْيَوْمِ أَكْثَرَ مِنْ سَبْعِينَ مَرَّةً » رَوَاهُ الْبُخَارِيُّ

13.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루에도 70 번 이상 알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회개합니다.” (Bukhari).

١٤ - وَعَنْ الْآخِرِ بْنِ يَسَّارٍ الْمُزَنِ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ا أَيُّهَا النَّاسُ تُوبُوا إِلَى اللَّهِ وَاسْتَغْفِرُوهُ فَإِنِّي أَتُوبُ فِي الْيَوْمِ مِائَةَ مَرَّةٍ » رَوَاهُ مُسْلِمٌ

14. 예언자께서 추종자들에게 충고한 말씀을 아기르 빈 야사르 무자니(Aghirr bin Yasar Muzani)가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여, 알라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그리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시오. 나는 하루에 100번을 회개합니다.” (Muslim).

١٥ - وَعَنْ أَبِي حَمْزَةَ أَنَسِ بْنِ مَالِكٍ الْأَنْصَارِيِّ خَدِيمِ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إِنَّ اللَّهَ أَفْرَحُ بِتَوْبَةِ عَبْدِهِ مِنْ أَحَدِكُمْ سَقَطَ عَلَى بَعِيرِهِ وَقَدْ أَضَلَّهُ فِي أَرْضٍ فَلَاةٍ» متفق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لَقَدْ أَشَدُّ فَرَحًا بِتَوْبَةِ عَبْدِهِ حِينَ يَتُوبُ إِلَيْهِ مِنْ أَحَدِكُمْ» كَانَ عَلَى رَاحِلَتِهِ بِأَرْضٍ فَلَاةٍ ، فَانْفَلَتَتْ مِنْهُ وَعَلَيْهَا طَعَامُهُ وَشَرَابُهُ فَأَيِسَ مِنْهَا ، فَأَتَى شَجَرَةً فَاضْطَجَعَ فِي ظِلِّهَا ، وَقَدْ أَيِسَ مِنْ رَاحِلَتِهِ ، فَبَيَّنَمَا هُوَ كَذَلِكَ إِذْ هُوَ بِهَا قَائِمَةٌ عِنْدَهُ ، فَاخْتَدَّ بِخَطَامِهَا ثُمَّ قَالَ مِنْ شِدَّةِ الْفَرَحِ : اللَّهُمَّ أَنْتَ عَبْدِي وَأَنَا رَبُّكَ أَخْطَأُ مِنْ شِدَّةِ الْفَرَحِ ،

15.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예언자에게 시중을 들었던 아나스 빈 말리크(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낙타를 잃고 찾아낼 자 보다는 회개하는 자에게서 더 큰 기쁨을 갖습니다.” (Bukhari and Muslim).

무슬림 학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황량한 사막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실은 낙타를 타고 가던 사람이 낙타를 잃었습니다. 그는 낙타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근처에서 낙타를 발견하고 낙타의 고삐를 붙잡고 너무나 좋아서 그 기쁨을 말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 알라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큰 말실수를 했습니다. : 주여, 당신은 나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말실수는 하였지만 용서와 관용을 간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기 때문에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그의 회개를 더욱 좋아하셨습니다.”

١٦ - وَعَنْ أَبِي مُوسَى عَبْدِ اللَّهِ بْنِ قَيْسٍ الْأَشْعَ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إِنَّ اللَّهَ تَعَالَى يَبْسُطُ يَدَهُ بِاللَّيْلِ لِيَتُوبَ النَّاسُ»

مُسَيِّءُ النَّهَارِ ، وَيَبْسُطُ يَدَهُ بِالنَّهَارِ لِيَتُوبَ مُسَيِّءُ اللَّيْلِ حَتَّى تَطْلُعَ
الشَّمْسُ مِنْ مَغْرِبِهَا ، رَوَاهُ مُسْلِمٌ

16.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알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낮에 지은 죄를 밤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밤에 당신의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또한 밤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태양이 저서 떠오를 때까지, 즉 부활의 날까지 낮 동안에 당신의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Muslim).

١٧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تَابَ قَبْلَ أَنْ تَطْلُعَ الشَّمْسُ مِنْ مَغْرِبِهَا تَابَ اللَّهُ عَلَيْهِ ، رَوَاهُ مُسْلِمٌ

17.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진 후 떠오를 때까지, 즉 심판의 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Muslim).

١٨ - وَعَنْ أَبِي عَبْدِ الرَّحْمَ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 بْنِ الْخَطَّابِ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 اللَّهَ عَزَّ وَجَلَّ يَقْبَلُ تَوْبَةَ الْعَبْدِ مَا لَمْ يَغْرُغِرْ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18.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압둘라 빈 우마르(Abullah bin Umar)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숨이 넘어가지 아니한 인간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Tirmizi)

١٩ - وَعَنْ زَيْدِ بْنِ حُبَيْشٍ قَالَ : أَتَيْتُ صَفْوَانَ بْنَ عَسَّالٍ رَضِيَ اللَّهُ عَنْهُ أَسْأَلُهُ عَنِ الْمَسْحِ عَلَى الْخُفَّيْنِ فَقَالَ : مَا جَاءَ بِكَ يَا زَيْدُ ؟

فَقُلْتُ : ابْتِغَاءَ الْعِلْمِ ، فَقَالَ : إِنَّ الْمَلَائِكَةَ تَنْصَعُ أَجْنِحَتَهَا لِطَالِبِ الْعِلْمِ رِضَاءً بِمَا يَطْلُبُ ، فَقُلْتُ : إِنَّهُ قَدْ حَكَ فِي صَدْرِي الْمَسْحُ عَلَى الْخُفَّيْنِ بَعْدَ الْغَائِطِ وَالْبَوْلِ ، وَكُنْتُ امْرَأً مِنْ أَصْحَابِ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جِئْتُ أَسْأَلُكَ : هَلْ سَمِعْتَهُ يَذْكُرُ فِي ذَلِكَ شَيْئاً ؟ قَالَ : نَعَمْ ، كَانَ يَأْمُرُنَا إِذَا كُنَّا سَفَرًا - أَوْ مُسَافِرِينَ - أَنْ لَا تَنْزِعَ خِفَاتِنَا ثَلَاثَةَ أَيَّامٍ وَلَيَالِيَهُنَّ إِلَّا مِنْ جَنَابَةٍ ، لَكِنْ مِنْ غَائِطٍ وَبَوْلٍ وَتَوَمُّرٍ . فَقُلْتُ : هَلْ سَمِعْتَهُ يَذْكُرُ فِي الْهَوَى شَيْئاً ؟ قَالَ : نَعَمْ كُنَّا مَعَ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سَفَرٍ ، فَبَيْنَا نَحْنُ عِنْدَهُ إِذْ نَادَاهُ أَعْرَابِي بِصَوْتٍ لَهُ جَهْوَرِي : يَا مُحَمَّدُ ، فَأَجَابَ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نَحْوًا مِنْ صَوْتِهِ : هَاؤُمُ ، فَقُلْتُ لَهُ : وَيْحَكَ اغْضُضْ مِنْ صَوْتِكَ فَإِنَّكَ عِنْدَ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قَدْ نُهِيتَ عَنْ هَذَا ! فَقَالَ : وَاللَّهِ لَا أَغْضُضُ . قَالَ الْأَعْرَابِي : الْمَرْءُ يُحِبُّ الْقَوْمَ وَلَمَّا يَلْحَقْ بِهِمْ ؟ 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الْمَرْءُ مَعَ مَنْ أَحَبَّ يَوْمَ الْقِيَامَةِ ، فَمَا زَالَ يُحَدِّثُنَا حَتَّى ذَكَرَ بَابًا مِنَ الْمَغْرِبِ مَسِيرَةَ عَرَضِهِ أَوْ بَسِيرِ الرَّكِيبِ فِي عَرَضِهِ أَرْبَعِينَ أَوْ سَبْعِينَ عَامًا . قَالَ سُفْيَانُ أَحَدُ الرُّوَاةِ : قَبْلَ الشَّامِ خَلَقَهُ اللَّهُ تَعَالَى يَوْمَ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مَفْتُوحًا لِلنُّوْبَةِ لَا يُغْلَقُ حَتَّى تَطْلُعَ الشَّمْسُ مِنْهُ ، رَوَاهُ التِّرْمِذِيُّ وَغَيْرُهُ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

19. 지르 빈 후바이쉬(Zirr bin Hubais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프완(Safwan bin 'Assal)을 찾아가 예배를 위해 몸을 씻을 때 물 묻은 손으로 구두 등을 쓰다듬는 것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물었다. : 지르 형제, 무슨 일로 왔습니까? 나는 지식을 얻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 천사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가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와 기꺼이 날개를 퍼지요. 나는 물었다. :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돌아온 후에도 물 묻은 손으로 구두의 등을 쓰다듬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가서 예언자의 교우인

당신에게 묻고 싶어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소? 그가 대답했다. : 그래요, 함께 여행 중에 있을 때 3일 동안은 구두를 벗지 않고 구두 등을 물기 묻은 손으로 쓰다듬으면 된다고 했소. 그러나 아내와 동침을 한 후의 경우는 아니라고 했소. 그 기간 동안 대소변이나 잠을 잔 경우에는 구두 등이나 양말 신은 발등을 쓰다듬으면 충분하다고 하셨소. 나는 또 질문하였다. : 사랑을 했을 경우에는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았소? 그가 대답했다. : 그래요. 예언자와 함께 여행 중에 있었지요. 교양이 없는 한 아랍인이 통명스럽게 큰 소리로, 무함마드여, 라고 예언자를 불렀소. 예언자께서도 그와 같은 목소리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요. 나는 그 아랍인에게, '말하는 예법이 없군요. 예언자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시오. 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소.' 라고 충고했어요. 그는 나의 말에, '나는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대꾸했다. 또 그 아랍인이 예언자에게 말을 꺼냈다. :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들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후 그는 우리에게 그 말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서쪽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문을 언급했어요. 그 문의 넓이는 탈 것에 오른 자가 40년 혹은 70년에 걸쳐 갈 수 있는 넓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여러 전언자 중 수피안(Sufian)이 덧붙이고 있다. : 이 문은 시리아 지역을 향하고 있는데 알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 만들었습니다. 그 문은 회개를 위해 열려져 있으며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를 때까지, 즉 심판의 날까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Tirmizi and others).

٢٠ - وَعَنْ أَبِي سَعِيدٍ سَعْدِ بْنِ مَالِكِ بْنِ سَيَّانٍ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نَبِيَّ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كَانَ فِيمَنْ كَانَ قَبْلَكُمْ رَجُلٌ قَتَلَ تِسْعَةً وَتِسْعِينَ نَفْسًا ، فَهَلَّ عَنْهُ أَهْلُ الْأَرْضِ ، فَدُلَّ عَلَى رَأْسِهِ ، فَأَتَاهُ فَقَالَ : إِنَّهُ قَتَلَ تِسْعَةً وَتِسْعِينَ نَفْسًا ، فَهَلَّ لَهُ مِنْ

تَوْبَةٍ؟ فَقَالَ: لَا، فَتَقْتَلُهُ فَتَكْمُلُ بِهِ مِائَةً، ثُمَّ سَأَلَ عَنْ أَعْلَمَ أَهْلِ
الْأَرْضِ، فَدُلَّ عَلَى رَجُلٍ عَالِمٍ فَقَالَ: إِنَّهُ قَتَلَ مِائَةَ نَفْسٍ فَهَلْ
لَهُ مِنْ تَوْبَةٍ؟ فَقَالَ: نَعَمْ، وَمَنْ يَحُولُ بَيْنَهُ وَبَيْنَ التَّوْبَةِ؟ انْطَلِقْ
إِلَى أَرْضٍ كَذَا وَكَذَا، فَإِنَّ بِهَا أَتَمَّ يَعْبُدُونَ اللَّهَ تَعَالَى فَاَعْبُدِ اللَّهَ مَعَهُمْ،
وَلَا تَرْجِعْ إِلَى أَرْضِكَ فَإِنَّهَا أَرْضُ سُوءٍ، فَانْطَلِقْ حَتَّى إِذَا نَصَفَ الطَّرِيقَ
أَتَاهُ الْمَوْتُ، فَاخْتَصَمَتْ فِيهِ مَلَائِكَةُ الرَّحْمَةِ وَمَلَائِكَةُ الْعَذَابِ. فَقَالَتْ
مَلَائِكَةُ الرَّحْمَةِ: جَاءَ تَائِبًا مُقْبِلًا يَقْلِبُهُ إِلَى اللَّهِ تَعَالَى، وَقَالَتْ مَلَائِكَةُ
الْعَذَابِ: إِنَّهُ لَمْ يَعْمَلْ خَيْرًا قَطُّ، فَأَتَاهُمْ مَلَكٌ فِي صُورَةِ آدَمِيٍّ
فَجَعَلُوهُ بَيْنَهُمْ - أَيَّ حَكَمًا - فَقَالَ: قِسُّوا مَا بَيْنَ الْأَرْضَيْنِ فَإِلَى
أَيَّتَهُمَا كَانَ أَدْنَى فَهُوَ لَهُ، فَقَاسُوا فَوَجَدُوهُ أَدْنَى إِلَى الْأَرْضِ الَّتِي
أَرَادَ، فَتَقَبَّضَتْهُ مَلَائِكَةُ الرَّحْمَةِ، مَتَّ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في الصحيح: «فَكَانَ إِلَى الْقُرْبَةِ الصَّالِحَةِ أَقْرَبَ بِشِيرٍ،
فَجُعِلَ مِنْ أَهْلِهَا» وفي رواية في الصحيح: «فَأَوْحَى اللَّهُ تَعَالَى إِلَى هَذِهِ
أَنْ تَبَاعِدِي، وَإِلَى هَذِهِ أَنْ تَقْرَبِي»، وَقَالَ: قِسُّوا مَا بَيْنَهُمَا،
فَوَجَدُوهُ إِلَى هَذِهِ أَقْرَبَ بِشِيرٍ فَغَفِرَ لَهُ». وفي رواية: «فَتَأَى بِصَدْرِهِ
نَحْوَهَا».

20.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아부 싸이드 쿠드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 시대 이전에 99명의 사람을 살해한 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을 등진 승려라는 말을 듣고 살인자는 그 승려를 찾아가 자신이 99명의 사람을 살해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승려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명을 더 살해하여 100명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학자라는 말을 듣고 그는 바로 그 학자를 찾아가 자신이 100명의 사람을 살해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자는 있다고 대답하면서 그와 회개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땅에는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합류하여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일이 많은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시오.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그는 그 곳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 살인자를 누가 데려갈 것인지 자비를 담당하는 천사와 별을 내리는 천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알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자비를 담당하는 천사가 말하자, 그는 좋은 행위를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징벌을 담당하는 천사가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모습을 한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두 천사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습니다. 중재의 천사는 두 천사에게 두 지역의 거리를 재어 그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천사가 거리를 측정하여 본 결과 그는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쪽으로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자비를 담당하는 천사가 그 살인자를 데려갔습니다.”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에 따르면 그는 한 뼘 정도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와 있어 그들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언에서는 그가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고을 근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 부류에 들게 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언에서는 알라 하나님께서 양쪽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양 쪽 사이를 재어보라.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에서 양쪽으로 길이를 재어보았더니 그는 선량한 사람들의 고을 쪽으로 더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았다.” 이런 전언도 있다. 그의 마음은 그곳을 향해 더 가까이 있었다.

٢١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كَعْبٍ بْنِ مَالِكٍ ، وَكَانَ قَائِدَ كَعْبٍ رَضِيَ اللَّهُ عَنْهُ مِنْ بَنِيهِ حِينَ عَمِيَ قَالَ : سَمِعْتُ كَعْبَ بْنَ مَالِكٍ رَضِيَ اللَّهُ عَنْهُ يُحَدِّثُ بِحَدِيثِهِ حِينَ تَخَلَّفَ عَ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غَزْوَةٍ

تَبُوكَ . قَالَ كَعْبٌ : لَمْ أَتَخَلَّفَ عَنْ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ي غَزْوَةِ غَزَاةٍ قَطُّ إِلَّا فِي غَزْوَةِ تَبُوكَ ، غَيْرَ أَنِّي قَدْ تَخَلَّفْتُ فِي غَزْوَةِ بَدْرٍ ، وَلَمْ يَمَاتِبْ أَحَدٌ تَخَلَّفَ عَنْهُ ، إِنَّمَا خَرَجَ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الْمُسْلِمُونَ يُرِيدُونَ عِيرَ قُرَيْشٍ حَتَّى جَمَعَ اللَّهُ تَعَالَى بَيْنَهُمْ وَبَيْنَ عَدُوِّهِمْ عَلَى غَيْرِ مِيعَادٍ . وَلَقَدْ شَهِدْتُ مَعَ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لَيْلَةَ الْعَقَبَةِ حِينَ تَوَاقَعْنَا عَلَى الْإِسْلَامِ ، وَمَا أَحِبُّ أَنْ لِي بِهَا مَشْهَدٌ بَدْرٍ ، وَإِنْ كَانَتْ بَدْرٌ أَذْكَرَ فِي النَّاسِ مِنْهَا .

وَكَانَ مِنْ خَبَرِي حِينَ تَخَلَّفْتُ عَنْ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ي غَزْوَةِ تَبُوكَ أَنِّي لَمْ أَكُنْ قَطُّ أَقْوَى وَلَا أَيْسَرَ مِنِّي حِينَ تَخَلَّفْتُ عَنْهُ فِي تِلْكَ الْغَزْوَةِ ، وَاللَّهِ مَا جَمَعْتُ قَبْلَهَا رَاحِلَتَيْنِ قَطُّ حَتَّى جَمَعْتُهُمَا فِي تِلْكَ الْغَزْوَةِ ، وَلَمْ يَكُ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رِيدُ غَزْوَةً إِلَّا وَرَى بِغَيْرِهَا حَتَّى كَانَتْ تِلْكَ الْغَزْوَةُ : فَغَزَ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حَرٍّ شَدِيدٍ . وَاسْتَقْبَلَ سَفَرًا بَعِيدًا وَمَقَارًا ، وَاسْتَقْبَلَ عَدَدًا كَثِيرًا . فَجَلَّى لِلْمُسْلِمِينَ أَمْرَهُمْ لِيَتَأَهَّبُوا أَهْبَةً غَزَوِيهِمْ فَأَخْبَرَهُمْ بِوَجْهِهِ الَّذِي يُرِيدُ ، وَالْمُسْلِمُونَ مَعَ رَسُولِ اللَّهِ كَثِيرٌ وَلَا يَجْمَعُهُمْ كِتَابٌ حَافِظٌ « يُرِيدُ بِذَلِكَ الدُّيُونَ » قَالَ كَعْبٌ : فَقُلَّ رَجُلٌ يُرِيدُ أَنْ يَتَغَيَّبَ إِلَّا ظَنَّ أَنَّ ذَلِكَ سَيَخْفَى بِهِ مَا لَمْ يَنْزِلْ فِيهِ وَحْيٌ مِنَ اللَّهِ ، وَغَزَ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تِلْكَ الْغَزْوَةَ حِينَ طَابَتِ الثَّمَارُ وَالظُّلَالُ فَأَنَا إِلَيْهَا أَصْعَرُ فَتَجَهَّزَ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الْمُسْلِمُونَ مَعَهُ ، وَطَفِيقْتُ أَغْدُو لِيَكُنِيَ اتَّجَهَّزَ مَعَهُ ، فَأَرْجِعُ وَلَمْ أَقْضِ شَيْئًا ، وَأَقُولُ فِي نَفْسِي : أَنَا قَادِرٌ عَلَى ذَلِكَ إِذَا أَرَدْتُ ، فَلَمْ يَزَلْ يَتِمَادَى بِي حَتَّى اسْتَمَرَ بِالنَّاسِ الْجِدُّ ، فَأَصْبَحَ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غَادِيًا وَالْمُسْلِمُونَ مَعَهُ ، وَلَمْ أَقْضِ مِنْ جِهَازِي شَيْئًا ، ثُمَّ غَدَوْتُ فَرَجَعْتُ وَلَمْ أَقْضِ شَيْئًا ، فَلَمْ يَزَلْ يَتِمَادَى بِي حَتَّى أَسْرَعُوا وَتَفَارَطَ الْغَزْوُ . فَهَمَمْتُ أَنْ أُرْتَحِلَ فَأَذْكَرُكَهُمْ ، فَيَا لَيْتَنِي

فَعَلْتُ ، ثُمَّ لَمْ يُقَدَّرْ ذَلِكَ لِي ، فَطَلَفْتُ إِذَا خَرَجْتُ فِي النَّاسِ بَعْدَ خُرُوجِ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حْزُنُنِي أَنِّي لَا أَرَى لِي أُسْوَةً ، إِلَّا رَجُلًا مَعْمُومًا عَلَيْهِ فِي النَّفَاقِ : أَوْ رَجُلًا يَمُنُّ عَذَرَ اللَّهِ تَعَالَى مِنَ الضُّعْفَاءِ ، وَلَمْ يَذْكُرْنِ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حَتَّى بَلَغَ تَبُوكَ ، فَقَالَ وَهُوَ جَالِسٌ فِي الْقَوْمِ يَتَبُوكُ : مَا فَعَلَ كَعْبُ بْنُ مَالِكٍ ؟ فَقَالَ رَجُلٌ مِنْ بَنِي سَلِمْ : يَا رَسُولَ اللَّهِ حَبَسَهُ بُرْدَاهُ . وَالنَّظَرُ فِي عِطْفَيْهِ . فَقَالَ لَهُ مُعَاذُ بْنُ جَبَلٍ رَضِيَ اللَّهُ عَنْهُ : يَشْسَ مَا قُلْتَ ! وَاللَّهِ يَا رَسُولَ اللَّهِ مَا عَلِمْنَا عَلَيْهِ إِلَّا خَيْرًا ، فَسَكَ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بَيْنَا هُوَ عَلَى ذَلِكَ رَأَى رَجُلًا مُبِيضًا يَزُولُ بِهِ السَّرَابُ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كُنْ أَبَا خَيْثَمَةَ ، فَلَإِذَا هُوَ أَبُو خَيْثَمَةَ الْأَنْصَارِيُّ وَهُوَ الَّذِي تَصَدَّقَ بِصَاعِ التَّمْرِ حِينَ لَمَزَهُ الْمُنَافِقُونَ . قَالَ كَعْبٌ : فَلَمَّا بَلَغْتَنِي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دْ تَوَجَّهَ قَافِلًا مِنْ تَبُوكَ حَضَرْتَنِي بِشْيَ ، فَطَلَفْتُ أَنْذَكُرُ الْكَذِبَ وَأَقُولُ : يَمَ أَخْرُجُ مِنْ سَخَطِهِ غَدًا وَأَسْتَعِينُ عَلَى ذَلِكَ بِكُلِّ ذِي رَأْيٍ مِنْ أَهْلِي ، فَلَمَّا قِيلَ : إِ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دْ أَظَلَّ قَادِمًا زَاحَ عَنِّي الْبَاطِلُ حَتَّى عَرَفْتُ أَنِّي لَمْ أَنْجُ مِنْهُ بِشْيَ أَبَدًا ، فَاجْتَمَعْتُ صِدْقَهُ ، وَأَصْبَحَ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دِمًا ، وَكَانَ إِذَا قَدِمَ مِنْ سَقَرٍ بَدَأَ بِالسَّجْدِ فَرَكَعَ فِيهِ رَكْعَتَيْنِ ثُمَّ جَلَسَ لِلنَّاسِ ، فَلَمَّا فَعَلَ ذَلِكَ جَاءَهُ الْمُخْلِفُونَ يَتَنَذِرُونَ إِلَيْهِ وَيَحْلِفُونَ لَهُ ، وَكَانُوا يَضُمُّونَ رَجُلَيْنِ رَجُلًا فَقِيلَ مِنْهُمْ عَلَانِيَتَهُمْ وَبَاطِنَهُمْ وَاسْتَغْفَرَهُ لَهُمْ وَوَكَّلَ سَرَائِرَهُمْ إِلَى اللَّهِ تَعَالَى حَتَّى جِئْتُ . فَلَمَّا سَلَّمْتُ تَبَسَّمَ تَبَسُّمَ الْمُغْضَبِ ثُمَّ قَالَ : تَعَالَى ، فَجِئْتُ أُمْنِي حَتَّى جَلَسْتُ بَيْنَ يَدَيْهِ ، فَقَالَ لِي : مَا خَلَقَكَ ؟ أَلَمْ تَكُنْ قَدْ ابْتِغَيْتَ ظَهْرَكَ ! قَالَ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إِنِّي وَاللَّهِ لَوْ جَلَسْتُ عِنْدَ غَيْرِكَ مِنْ أَهْلِ الدُّنْيَا لَرَأَيْتُ أَنِّي سَأَخْرُجُ مِنْ سَخَطِهِ بَعْدَ لَقْدٍ أُعْطِيتُ جَدَلًا ، وَلَكِنِّي وَاللَّهِ لَقَدْ عَلِمْتُ لَتِينَ حَدَّثْتُكَ

اليَوْمَ حَدِيثٌ كَذِبٌ تَرْضَى بِهِ عَنِّي لَيُوشِكَنَّ اللهُ يُسْخِطُكَ عَلَيَّ، وَإِنْ
حَدَّثْتُكَ حَدِيثَ صِدْقٍ تَجِدُ عَلَيَّ فِيهِ إِنِّي لَا رَجُو فِيهِ عُمْبَى اللهُ
عَزَّ وَجَلَّ ، وَاللهُ مَا كَانَ لِي مِنْ عَذْرٍ ، وَاللهُ مَا كُنْتُ قَطُّ أَفْوَى وَلَا
أَبْسَرَ مِنِّي حِينَ تَخَلَّفْتُ عَنْكَ .

قال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مَا هَذَا فَقَدْ صَدَقَ ، فَقُمْ
حَتَّى يَقْضِيَ اللهُ فِيكَ » وَسَارَ رَجَالٌ مِنْ بَنِي سَلِيمَةَ فَاتَّبَعُونِي ، فَقَالُوا
لِي : وَاللهِ مَا عَلِمْنَاكَ أَذْنَبْتَ ذَنْبًا قَبْلَ هَذَا ، لَقَدْ عَجَزْتَ فِي أَنْ
لَا تَكُونَ اعْتَدَرْتَ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مَا اعْتَدَرَ إِلَيْهِ الْمُخَلَّفُونَ
فَقَدْ كَانَ كِتَابُكَ ذَنْبَكَ اسْتَغْفَارُ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لَكَ .
قال : فَوَاللهِ مَا زَالُوا يُؤْتِبُونَنِي حَتَّى أَرَدْتُ أَنْ أَرْجِعَ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أَكْذِبَ نَفْسِي ، ثُمَّ قُلْتُ لَهُمْ : هَلْ لَقِيتُ هَذَا مَعِيَ مِنْ
أَحَدٍ ؟ قَالُوا : نَعَمْ لَقِيتُهُ مَعَكَ رَجُلَانِ قَتَلَا مِثْلَ مَا قُلْتَ ، وَقِيلَ لَهُمَا
مِثْلُ مَا قِيلَ لَكَ ، قَالَ قُلْتُ : مَنْ هُمَا ؟ قَالُوا : مُرَّارَةُ بْنُ الرَّبِيعِ
الْعَمَرِيُّ ، وَهَيْلَالُ بْنُ أُمَيَّةَ الْوَاقِفِيُّ ؟ قَالَ : فَذَكَرُوا لِي رَجُلَيْنِ صَالِحَيْنِ
قَدْ شَهِدَا بَدْرًا فِيهِمَا أَسْوَةٌ . قَالَ : فَمَضَيْتُ حِينَ ذَكَرُوهُمَا لِي وَتَهَ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نْ كَلَامِنَا أَيُّهَا الثَّلَاثَةُ مِنْ بَيْنِ مَنْ
تَخَلَّفَ عَنْهُ ، قَالَ : فَاجْتَنَبْنَا النَّاسُ - أَوْ قَالَ - تَغَيَّرُوا لَنَا - حَتَّى
تَنَكَّرْتُ لِي فِي نَفْسِي الْأَرْضُ ، فَمَا هِيَ بِالْأَرْضِ الَّتِي أَعْرِفُ ، فَلَبِثْنَا
عَلَى ذَلِكَ خَمْسِينَ لَيْلَةً . فَأَمَّا صَاحِبَايَ فَاسْتَكْنَا وَقَعَدَا فِي بَيْتِنَاهُمَا
يَبْكِيَانِ ، وَأَمَّا أَنَا فَكُنْتُ أَشَبَّ الْقَوْمِ وَأَجْلَدُهُمْ ، فَكُنْتُ أَخْرُجُ
فَأَشْهَدُ الصَّلَاةَ مَعَ الْمُسْلِمِينَ ، وَأَطُوفُ فِي الْأَسْوَاقِ وَلَا يُكَلِّمُنِي أَحَدٌ ،
وَأَتِ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أَسَلِّمُ عَلَيْهِ ، وَهُوَ فِي مَجْلِسِهِ بَعْدَ
الصَّلَاةِ ، فَأَقُولُ فِي نَفْسِي : هَلْ حَرَّكَ شَفَتَيْهِ بِرَدِّ السَّلَامِ أَمْ لَا ؟ ثُمَّ
أَصَلِّي قَرِيبًا مِنْهُ وَأَسَارِقُهُ النَّظَرَ ، فَلِذَا أَقْبَلْتُ عَلَى صَلَاتِي نَظَرَ إِلَيَّ ،
وَإِذَا التَّمْتُ تَحْوَهُ أَعْرَضَ عَنِّي ، حَتَّى إِذَا طَالَ ذَلِكَ عَلَيَّ مِنْ جَفْوَةٍ
الْمُسْلِمِينَ مَشَيْتُ حَتَّى تَمَوَّزْتُ جِدَارَ حَائِطِ أَبِي قَتَادَةَ وَهُوَ ابْنُ

عَمِّي وَأَحَبُّ النَّاسِ إِلَيَّ ، فَسَلَّمْتُ عَلَيْهِ فَوَاللهِ مَا رَدَّ عَلَيَّ السَّلَامَ ،
فَقُلْتُ لَهُ : يَا أَبَا قَتَادَةَ أَنْشُدْكَ بِاللَّهِ هَلْ تَعَلَّمَنِي أَحَبُّ اللَّهِ وَرَسُو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سَكَتَ ، فَعُدْتُ فَنَاشِدْتُهُ فَسَكَتَ ، فَعُدْتُ فَنَاشِدْتُهُ
فَقَالَ : اللَّهُ وَرَسُولُهُ أَعْلَمُ . فَنَاضَتْ عَيْنَايَ ، وَتَوَلَّيْتُ حَتَّى تَسَوَّرْتُ
الْجِدَارَ ، فَبَيْنَمَا أَنَا أَمْشِي فِي سُوقِ الْمَدِينَةِ إِذَا نَبْطِي مِنْ نَبْطِ أَهْلِ
الشَّامِ يَمْنُ قَدِمَ بِالطَّعَامِ يَبِيعُهُ بِالْمَدِينَةِ يَقُولُ : مَنْ يَدُلُّ عَلَى
كَعْبِ بْنِ مَالِكٍ ؟ فَطَفِقَ النَّاسُ يَشِيرُونَ لَهُ إِلَيَّ حَتَّى جَاءَنِي فَدَقَّ
إِلَيَّ كِتَابًا مِنْ مَلِكِ غَسَّانَ ، وَكُنْتُ كَاتِبًا . فَقَرَأْتُهُ فَإِذَا فِيهِ : أَمَّا
بَعْدُ فَإِنَّهُ قَدْ بَلَغَنَا أَنَّ صَاحِبَكَ قَدْ جَفَاكَ ، وَلَمْ يَجْعَلْكَ اللَّهُ بِدَارِ
هُوَانٍ وَلَا مَضْبِغَةٍ ، فَالْحَقَّ بِنَا نُوَاسِكَ فَقُلْتُ حِينَ قَرَأْتُهَا : وَهَذِهِ
أَيْضًا مِنَ الْبَلَاءِ فَتَبَيَّنْتُ بِهَا التَّنُورَ فَسَجَرْتُهَا ، حَتَّى إِذَا مَضَتْ
أَرْبَعُونَ مِنَ الْخَمْسِينَ وَاسْتَلْبِثْتُ الْوَحْيَ إِذَ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أْتِينِي ، فَقَالَ : إِ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أْمُرُكَ أَنْ
تَعْتَزَلَ امْرَأَتَكَ ، فَقُلْتُ : أَطْلُقُهَا ، أَمْ مَاذَا أَفْعَلُ ؟ قَالَ : لَا بَلَّ اعْتَزَلْهَا
فَلَا تَقْرَبْنَهَا ، وَأَرْسَلَ إِلَيَّ صَاحِبِي بِمِثْلِ ذَلِكَ . فَقُلْتُ لَا مَرَأَتِي : الْخُفْيِ
بِأَهْلِكَ فَكُونِي عِنْدَهُمْ حَتَّى يَقْضِيَ اللَّهُ فِي هَذَا الْأَمْرِ ، فَجَاءَتِ امْرَأَةُ
هَيْلَالِ بْنِ أُمَيَّةَ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تْ لَهُ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هَيْلَالَ بْنِ أُمَيَّةَ شَيْخٌ ضَائِعٌ لَيْسَ لَهُ خَادِمٌ ، فَهَلْ تَكْرَهُ أَنْ أَخْدُمَهُ ؟
قَالَ : لَا ، وَلَكِنْ لَا يَقْرَبَنَّكَ . فَقَالَتْ : إِنَّهُ وَاللَّهِ مَا يَهِي مِنْ حَرَكَةٍ إِلَيَّ
شَيْءٍ ، وَوَاللَّهِ مَا زَالَ يَبْكِي مُنْذُ كَانَ مِنْ أَمْرِهِ مَا كَانَ إِلَى يَوْمِهِ هَذَا .
فَقَالَ لِي بَعْضُ أَهْلِي : لَوْ اسْتَأْذَنْ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امْرَأَتِكَ ، فَقَدْ أَذِنَ لِمَرْأَةِ هَيْلَالِ بْنِ أُمَيَّةَ أَنْ تَخْدُمَهُ ؟ فَقُلْتُ :
لَا اسْتَأْذِنُ فِيهَ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مَا يُدْرِينِي مَاذَا يَقُو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ا اسْتَأْذَنْتَهُ فِيهَا وَأَنَا رَجُلٌ شَابٌّ ! فَلَبِثْتُ

بِذَلِكَ عَشْرَ لَيَالٍ ، فَكَمُلَ لَنَا خَمْسُونَ لَيْلَةً مِنْ حِينَ نَهَى عَنْ
كَلَامِنَا .

ثُمَّ صَلَّيْتُ صَلَاةَ الْفَجْرِ صَبَاحَ خَمْسِينَ لَيْلَةً عَلَى ظَهْرِ بَيْتٍ مِنْ
بُيُوتِنَا ، فَبَيْنَمَا أَنَا جَالِسٌ عَلَى الْمَعَالِ الَّتِي ذَكَرَ اللَّهُ تَعَالَى مِنَّا ، قَدْ
ضَاقَتْ عَلَيَّ نَفْسِي وَضَاقَتْ عَلَيَّ الْأَرْضُ بِمَا رَحُبَتْ ، سَمِعْتُ صَوْتَ
صَارِخٍ أَوْفَى عَلَى سَلْعٍ يَقُولُ بِأَعْلَى صَوْتِهِ : يَا كَعْبُ بْنُ مَالِكٍ
أَبَشِيرْ ، فَخَرَرْتُ سَاجِدًا ، وَعَرَفْتُ أَنَّهُ قَدْ جَاءَ فَرَجٌ . فَكَادَ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نَّاسَ بِتُوبَةِ اللَّهِ عَزَّ وَجَلَّ عَلَيْنَا حِينَ صَلَّى صَلَاةَ الْفَجْرِ
فَلَدَّ هَبَ النَّاسُ يُبَشِّرُونَنَا ، فَلَدَّ هَبَ قَبِيلُ صَاحِبَتِي مُبَشِّرُونَ ، وَرَكَضَ
رَجُلٌ إِلَيَّ قَرَمًا وَسَمِعْتُ سَاعٍ مِنْ أَسْلَمَ قَبِيلِي وَأَوْفَى عَلَى الْجَبَلِ ،
وَكَانَ الصَّوْتُ أَسْرَعَ مِنَ الْفَرَسِ ، فَلَمَّا جَاءَنِي الَّذِي سَمِعْتُ صَوْتَهُ
يُبَشِّرُنِي نَزَعْتُ لَهُ تُوبَتِي فَكَسَوْتُهُمَا لِإِيَّاهُ بِبِشَارَتِهِ ، وَاللَّهِ مَا أُمْلِكُ
غَيْرَهُمَا يَوْمَئِذٍ ، وَاسْتَعَرْتُ ثَوْبَيْنِ فَلَبِسْتُهُمَا وَأَنْطَلَقْتُ أَنَا وَمِ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تَلَقَّانِي النَّاسُ فَوْجًا فَوْجًا يُهَنِّئُونِي بِالتَّوْبَةِ
وَيَقُولُونَ لِي : لِيَتَّهِنِكَ تَوْبَةُ اللَّهِ عَلَيْكَ ، حَتَّى دَخَلْتُ الْمَسْجِدَ فَلَمَّ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جَالِسٌ حَوْلَهُ النَّاسُ ، فَقَامَ طَلْحَةُ بْنُ
عُبَيْدٍ اللَّهُ رَضِيَ اللَّهُ عَنْهُ يُهْرُولُ حَتَّى صَافَحَنِي وَهَتَّأَنِي ، وَاللَّهِ مَا قَامَ رَجُلٌ
مِنَ الْمُهَاجِرِينَ غَيْرُهُ ، فَكَانَ كَعْبُ لَا يَنْسَاهَا لِيَطْلُحَةَ . قَالَ كَعْبُ :
فَلَمَّا سَلَّمْتُ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وَهُوَ يَبْرُقُ وَجْهُهُ مِنْ
السُّرُورِ : أَبَشِيرُ بِخَيْرٍ يَوْمٍ مَرَّ عَلَيْكَ مَذٌّ وَلَكِنَّكَ أَمْلِكُ ، فَقُلْتُ : أَمِنْ
عِنْدِكَ يَا رَسُولَ اللَّهِ أَمْ مِنْ عِنْدِ اللَّهِ ؟ قَالَ : لَا بَلْ مِنْ عِنْدِ اللَّهِ عَزَّ وَجَلَّ ،
وَ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ا سُرَّ اسْتَنَارَ وَجْهُهُ حَتَّى كَأَنَّ وَجْهَهُ
قِطْعَةُ قَمَرٍ ، وَكُنَّا نَعْرِفُ ذَلِكَ مِنْهُ ، فَلَمَّا جَلَسْتُ بَيْنَ يَدَيْهِ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مِنْ تَوْبَتِي أَنْ أَنْخَلِجَ مِنْ مَالِي صَدَقَةً إِلَى اللَّهِ وَإِلَى

رَسُولِ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مْسِكْ عَلَيْكَ بَعْضَ مَا لَكَ
 فَهُوَ خَيْرٌ لَكَ ، فَقُلْتُ : إِنِّي أَمْسِكُ سَهْمِي الَّذِي بَحْتَبِر . وَ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اللَّهَ تَعَالَى إِنَّمَا أَنْجَانِي بِالْعَدَقِ . وَإِنْ مِنْ تَوْبَتِي أَنْ لَا أُحْدِثَ
 إِلَّا صِدْقًا مَا بَقِيْتُ ، فَوَاللَّهِ مَا عَلِمْتُ أَحَدًا مِنَ الْمُسْلِمِينَ أَبْلَاهُ اللَّهُ تَعَالَى
 فِي صِدْقِ الْحَدِيثِ مُنْذُ ذَكَرْتُ ذَلِكَ لِ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حْسَنَ
 مِمَّا أَبْلَانِي اللَّهُ تَعَالَى . وَاللَّهُ مَا تَعَمَّدْتُ كَذِبَةً مُنْذُ قُلْتُ ذَلِكَ لِ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لَى يَوْمِي هَذَا ، وَإِنِّي لَا رَجُو أَنْ يَحْفَظَنِي اللَّهُ تَعَالَى
 فِيمَا بَقِيَ ، قَالَ : فَأَنْزَلَ اللَّهُ تَعَالَى : لَقَدْ نَابَ اللَّهُ عَلَى النَّبِيِّ
 وَالْمُهَاجِرِينَ وَالْأَنْصَارِ الَّذِينَ اتَّبَعُوهُ فِي سَاعَةِ الْعُسْرَةِ - حَتَّى
 بَلَغَ : إِنَّهُ بِهِمْ رَمُوفٌ رَحِيمٌ . وَعَلَى الثَّلَاثَةِ الَّذِينَ خَلَفُوا حَتَّى إِذَا
 ضَاغَتْ عَلَيْهِمُ الْأَرْضُ بِمَا رَحُبَتْ - حَتَّى بَلَغَ : اتَّقُوا اللَّهَ وَكُونُوا مَعَ
 الصَّادِقِينَ [التوبة : ١١٧ ، ١١٩] قَالَ كَعْبٌ : وَاللَّهِ مَا أَنْعَمَ اللَّهُ عَلَيَّ مِنْ
 نِعْمَةٍ قَطُّ بَعْدَ إِذْ هَدَانِي اللَّهُ لِلْإِسْلَامِ أَعْظَمَ فِي نَفْسِي مِنْ صِدْقِ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 لَا أَكُونَ كَذَبْتُهُ ، فَأَمْلِكَ كَمَا هَلَكَ الَّذِينَ
 كَذَبُوا ، إِنَّ اللَّهَ تَعَالَى قَالَ لِلَّذِينَ كَذَبُوا حِينَ أَنْزَلَ الْوَحْيَ شَرًّا مَا قَالَ
 لِأَحَدٍ ، فَقَالَ اللَّهُ تَعَالَى : سَيَحْلِفُونَ بِاللَّهِ لَكُمْ إِذَا انْقَلَبْتُمْ إِلَيْهِمْ
 لِيُعْرِضُوا عَنْهُمْ فَأَعْرِضُوا عَنْهُمْ إِنَّهُمْ رِجْسٌ وَمَا وَاهُمْ جَهَنَّمَ
 بَعْدَ إِيمَانِهِمْ كَانُوا بِكُفْرِهِمْ لَكُمْ يَعْرِضُونَ لِيُعْرِضُوا عَنْهُمْ فَإِنْ تَوَضَّعُوا
 عَنْهُمْ فَإِنَّ اللَّهَ لَا يَرْضَى عَنِ الْقَوْمِ الْفَاسِقِينَ [التوبة : ٩٥ ، ٩٦] .
 قَالَ كَعْبٌ : كُنَّا خَلْفْنَا أَيُّهَا الثَّلَاثَةُ عَنْ أَمْرِ أَوْلِيكَ الَّذِينَ قَبِلَ
 مِنْهُمْ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حِينَ حَلَفُوا لَهُ ، فَبَيَّعَهُمْ وَاسْتَغْفَرَ
 لَهُمْ ، وَأَرْجَأَ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مْرَنَا حَتَّى قَضَى اللَّهُ تَعَالَى فِيهِ بِذَلِكَ ؛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عَلَى الثَّلَاثَةِ الَّذِينَ خَلَفُوا) وَلَيْسَ الَّذِي ذَكَرَ مِمَّا خَلَفْنَا
 تَحَلُّفُنَا عَنِ الْغَزْوِ ، وَإِنَّمَا هُوَ تَخْلِيْفُهُ إِيَّانَا وَإِرْجَاؤُهُ أَمْرَنَا عَمَّنْ حَلَفَ
 لَهُ وَاعْتَدَرَ إِلَيْهِ فَقَبِلَ مِنْهُ . متفق عليه . وفي رواية :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خرج في غزوة تبوك يوم الخميس ، وكان يحب أن يخرج يوم
الخميس ، وفي رواية : « وكان لا يقدم من سفر إلا نهاراً في الضحى
فإذا قدم بدأ بالمسجد ف صلى فيه ركعتين ثم جلس فيه »

21. 압둘라 빈 카압(Abdullah bin Ka'ab)은 눈이 멀게 된 아버지의 안내자가 되었다. 사도가 타북 원정대를 인솔할 때 그의 부친 카압 빈 말리크(Ka'ab bin Malik)는 사도 뒤에 있으면서 사건 전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가 원정길에 나설 때 타북 원정 외에는 사도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나는 사도가 참전한 바드르 전투에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에 대한 별을 받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사도와 무슬림들은 싸울 의도가 없이 오직 꾸라이쉬 부족의 대상(隊商)을 감시하기 위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이 예기지 않았던 싸움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나는 아까바(Aqabah)의 밤에 사도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까바의 밤에 사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과, 비록 바드르의 명예가 중요하여 바드르에서 사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우리는 아까바에서 이슬람을 굳게 지키겠다고 준엄하게 선서했었다. 내가 타북 원정 때 사도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설명했으면 한다. 이 당시 나는 건강했고 상당한 재물도 갖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두 마리의 낙타도 있었다. 사도는 원정을 결심할 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당시 날씨가 지독하게 뜨거웠지만 사도는 원정에 나섰다. 풀도 없고 물도 없는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지루한 장거리 행진이었고 적군의 숫자는 많았다. 그리하여 사도는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무슬림들에게 경고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사도와 함께 원정을 나갈 각오를 한 무슬림 숫자도 적지는 않았다. 사도를 동행하는 모든 열사들의 이름을 적기에는 기록부의 지면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러나 성전 참여를 원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는 한 그들의 불참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도가 원정에 나섰을 때에는 나무의 과일들이 이미

무르익었고 나무 그들도 짙어져 있었다.

사도와 그리고 자원한 추종자들은 원정 준비에 바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원정 준비를 하기 위해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돌아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충분해. 내가 원할 때면 준비할 수 있어.’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무슬림들은 이미 자신들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사도는 추종자들과 함께 전선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출발을 위해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나 혼자라도 출발을 해서 그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운명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사도께서 출정한 후 나는 모범이 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가 마을을 배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위선자로 보거나 나이가 많아 또는 질환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허약한 자로 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도께서는 타북에 도착할 때까지 나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셨다. 타북에서의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다. “카압에게 어떤 일이 있었소?” 바니 쌀리마 부족 출신의 한 남자가 말했다. “사도여, 카압은 그의 의상과 명예를 핑계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아즈(Mu'az bin Jabal)는 카압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말하는 밀고자를 비난하였다. “사도여, 저희는 카압에게서 그 어떤 잘못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 이 때 사도께서는 사막에서 하얀 옷을 걸치고 약간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그는 안사리 출신의 아부 카이사마(Abu Khaisamah)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가 소량의 종려나무 열매를 기증했을 때 위선자들은 그를 거지로 취급하였다.

카압이 말하기를, 사도께서 타북으로부터 메디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번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질책으로부터 벗어나보려는 마음으로 거짓 핑계를 꾸며대기로 하였다. 나의 가족에게도 좋은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도께서 곧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거짓 핑계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사도께서 도착했다. 사도께서는 여행에서 돌아오면 먼저 사원을 찾아 두 번의 절(Raka'atani)을 한 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습관이 있으셨다.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도 앞으로 나와 맹세하면서 변명들을 털어놓았다. 이들 대다수는 팔십이 넘는 노인들이었다. 사도께서는 그들의 사유와 새로운 맹세를 수락하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라 하나님께 말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자 사도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사도의 노여움이 엿보였다. 사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앞으로 나가 그분 앞에 앉았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을 꺼내셨다. “무엇 때문에 남게 되었소? 말을 구입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도여, 알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만일 제가 사도님 말고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대면하고 있다면 저는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으로 당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당신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지금은 당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일로 저에게 화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당신께서 저에게 화를 내신다면 위대하신 알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변명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 원정에 참가하지 못했을 때 보다 지금의 제가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세며 더 여유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말을 듣고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말했소. 당신의 경우는 알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니 이제 일어나 가보시오.” 바니 쌀리마 부족의 몇 사람이 나를 따라 사원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소. 그런데 왜 당신은 원정에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에게 변명하지 아니했소? 당신의 죄는 이미 사도님의 기도에서 용서받지 않았소?” 그들은 내가 사도에게 돌아가 거짓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나의 경우와 비슷한 다른 경우가 있는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무라라(Murarah bin Al-Rabi'a Al-'Amiri)와 힐랄(Hilah bin Umayyiah Al-Waqifi)이 그런 경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훌륭한 분으로 바드르 전투에 참가하여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 후로 사도께서는 우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말라고 무슬림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피하거나 우리를 모르는 척 하였어요. 나는 마치 이국땅에 와 있는 외국인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이러한 분위기는 50일이나 계속되었지요. 나의 두 동료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세상을 등지고 집안에 처박혀 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셋 중에서 가장 젊고 몸이 튼튼해서 외출도 하고 무슬림들과 어울려 예배도 드리고 시장 거리를 거닐기도 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배를 마치고 사원에 앉아 계시는 사도 앞에 나타나 인사를 하면 나의 인사에 뭐라고 응답하시기 위해 입술을 움직이실까? 아니면 반응이 없으실까 알고 싶어졌다. 그분 옆에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그분께서 보는지 그분을 훑쳐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나를 피하셨다. 나는 나에 대한 무슬림들의 굳은 태도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이러한 기분으로 어느 날 나의 조카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 아부 까타다를 찾아가 그의 정원 담벼락에 올라가 그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부 까타다,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나는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래도 친구는 말이 없었다. 나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까지 말을 걸자 그가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과 사도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메디나 시장을 거닐고 있을 때 시리아에서 온 한 농사꾼이 곡식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카압(Ka'ab bin Malik)의 거처를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를 가리켰다. 그러자 그 농부가 나

에게 다가와서 가산(Ghasan)의 왕이 보낸 편지를 나에게 전달했다. 나는 글을 쓰는 서기였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이 교제하고 있는 사도가 당신을 부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소.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불명예스러운 대우와 냉대를 받도록 하지 않았소. 우리에게로 오시오. 우리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이것 역시 나에게 또 다른 시련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오십일 중에서 사십일 지나고 우리에게 아무런 신성한 소식이 없자 사도의 하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전했다. “사도께서 당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내와 이혼을 하라는 뜻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지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단지 아내와 동침을 멀리하란 말이지요.” 사도께서는 나의 두 친구에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시를 내리셨다. 나는 아내에게 친정집으로 가서 알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릴 때까지 있으라고 했다. 힐랄의 아내가 사도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사도여, 힐랄은 자신을 돌 볼 수 없는 노인으로 하인을 둘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지 제가 그를 위해 봉사한다면 사도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남편이 당신과 동침만 하지 않는다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늙은 노인이라 움직일 힘도 없는데 성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후로 그는 지금까지 울고만 지냅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이 힐랄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의 아내들이 자신들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사도에게 허락을 받아달라고 제의하였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러한 일로 사도를 귀찮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는 힐랄과 달리 아직 젊다고 말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

세상사를 멀리하고 아침예배를 보면서 열흘이 지나 오십일이 되었다.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앉아 있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묘사한 것과는 달리 세상은 나에게 좋아보였고 작아보였다. 갑자기 쌀라(Sala') 산 정상에서 누군가가 목청을 높여 부르는 소리가 들렸

다. “카압이여, 행복하시오.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소.” 이 소리를 듣고 나는 즉시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나를 위한 위로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수락하셨다는 것을 사도께서 새벽예배 때 사람들에게 알렸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같았다. 몇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의 두 친구에게로 갔다.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의 집을 향해 달렸다. 아슬람(Aslam) 부족의 한 사람이 언덕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나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도착하여 나를 축하하였고 나는 그에게 나의 옷 두벌을 선물하였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에게 옷을 주고 나니 나는 입을 옷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옷을 빌려서 입고 사도에게 경의를 표시하기로 하였다. 사도님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나에게 축하를 보냈다. 내가 사원에 도착했을 때 사도님께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앉아계셨다. 그 중에서 딸라(Talhah bin Ubaidullah)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달려오더니 나의 손을 잡고 나에게 축하를 보냈다. 메카 이주자들 중에서 그토록 나를 따뜻하게 맞아 준 사람은 딸라 뿐이었다. 나는 그가 보여준 친절과 환대를 결코 잊지 않았다.

카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사도님께 인사를 하였을 때 그분께서는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다.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지내온 모든 세월이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라.” 나는 질문을 하였다. “사도여, 이 은총은 당신의 존귀함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물론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사도님의 기쁨은 그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분의 얼굴에서 달처럼 빛이 반사될 때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분께 말씀을 드렸다. “저의 회개를 받아준 대가로 자선사업을 위해 저의 모든 재산을 알라 하나님과 사도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재산의 일부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카이바르 지역에 나의 몫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도여, 알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진실을 보시고 저를 구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 저의 여생 동안 진실만 말하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도님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에게 가장 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사도님께 맹세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단 한번도 제 마음에 거짓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메카 이주민들과 고난의 시기에 그를 따랐던 메디나 후원자들에게 관용을 베푸셨노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리가 이탈한 후에도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실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세 사람에게도 넓은 지구가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영혼이 괴로워할 때 관용을 베푸셨노라 … 그들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고 그 분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런 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이 회개하도록 하셨노라.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대하시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라. 믿는 자들이여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자들과 함께하라.】 (9:117-119)

카압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슬람의 축복을 내리신 이후로 그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사도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로 멸망한 자들처럼 되지 않은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에서 거짓말 하는 자들을 엄하게 비난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갈 때 그들은 알라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을 외면해도 되노라. 그러니 그들을 홀로 두라. 실로 그들은 불결한 자들이니 그들이 거할 곳은 지옥이요 그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니라. 저들 위선자들은 맹

세하며 너희 무슬림이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할지라도 알라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백성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노라.】(9:95-96)

카압이 말하고 있다. 사도 앞에서 이유를 말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우리 세 사람의 경우는 문제로 남아 있다가 사도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맹세를 수락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사도님께서서는 우리의 문제를 알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미루셨던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세 사람에게도 ...그들의 영혼이 괴로워할 때 관용을 베푸셨노라.】(9:118)

이것은 우리가 성전을 피하여 남아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님 앞에서 맹세한 사람들의 경우를 해결하여 그들의 사유를 받아들일 때까지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연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사도님께서 목요일 타복 원정에 나셨다. 그분께서는 목요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또 다른 전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정오가 되기 전 대낮에 원정에서 돌아오곤 하셨다. 돌아오자마자 사원으로 가서 추가예배로 두 번의 절을 한 후 그곳에 앉아 계시곤 하였다.” (Bukhari and Muslim).

٢٢- وَعَنْ أَبِي نُجَيْدٍ - بِضَمِّ النَّوْنِ وَفَتْحِ الْجِيمِ - عِمْرَانَ بْنِ الْحُصَيْنِ الْخُزَاعِيِّ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امْرَأَةً مِنْ جُهَيْنَةَ أَتَ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هِيَ حُبْلَى مِنَ الزُّنَا ، فَقَا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أَصَبْتُ حَدًّا فَأَقِمْنِي عَلَيَّ ، فَدَعَانِيُ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لَيْتَهَا فَقَالَ : أَحْسِنِ لِنَفْسِكَ ، فَإِذَا وَضَعْتَ فَاتْنِي ، فَفَعَلَ فَأَمَرَهَا نَبِيُّ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شُدَّتْ عَلَيْهَا نِيَابُهَا ، ثُمَّ أَمَرَ بِهَا فَرُجِمَتْ ، ثُمَّ صَلَّى عَلَيْهَا . فَقَالَ لَهُ عُمَرُ : تُصَلِّي عَلَيْهَا يَا رَسُولَ اللَّهِ وَقَدْ زَنَتْ ؟ قَالَ : لَقَدْ تَابَتْ تَوْبَةً لَوْ قُسِمَتْ بَيْنَ سَبْعِينَ مِنْ أَهْلِ الْمَدِينَةِ لَوَسِعَتْهُمْ ، وَهَلْ وَجَدْتَ أَفْضَلَ مِنْ أَنْ جَادَتْ بِنَفْسِهَا لِلَّهِ عَزَّ وَجَلَّ ؟ ! ، رَوَاهُ مُسْلِمٌ

22. 이므란 빈 후세인(Imran bin Al-Husain)이 전하고 있다. 주하이나(Juhainah) 부족의 한 여성이 간통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도를 찾아와 자신의 간통죄를 고백하면서 꾸란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사도는 그녀를 그녀의 보호자에게 보내면서 그녀를 잘 보살피되 아이를 출산한 후 그녀를 되돌려보내라고 하였다. 보호자는 사도의 지시대로 하고나서 그녀를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녀의 몸은 그녀의 옷으로 단단히 감싸졌다. 그리고 그녀는 투석에 의해 형장에서 사라졌다.

사도는 그녀를 위해 장례기도를 집전하였다.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여, 간통죄로 죽은 그녀를 위해 장례기도를 집전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사도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녀는 회개하였어요. 그녀의 회개는 메디나 도시의 70명에게 아니 그곳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될 정도였지요.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하고 더 고차원적인 회개는 없어요.” (Muslim).

۲۳ - وَ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وْ أَنَّ لِابْنِ آدَمَ وَادِيًا مِنْ ذَهَبٍ أَحَبَّ أَنْ يَكُونَ لَهُ وَادِيَانِ ، وَلَنْ يَمْلَأَ فَاهُ إِلَّا التُّرَابُ ، وَيَتُوبُ اللَّهُ عَلَى مَنْ تَابَ ، مَتَّفَقٌ عَلَيْهِ

2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금으로 가득 찬 계곡을 갖고 있다하여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두 개의 계곡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그가 죽을 때 그의 입이 흙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실 뿐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٤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يَضْحَكُ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إِلَى رَجُلَيْنِ يَقْتُلُ أَحَدُهُمَا الْآخَرَ
يَدْخُلَانِ الْجَنَّةَ ، يُقَاتِلُ هَذَا فِي سَبِيلِ اللَّهِ فَيُقْتَلُ ، ثُمَّ يَتُوبُ اللَّهُ
عَلَى الْقَاتِلِ فَيُسَلِّمَ فَيُسْتَشْهَدُ ، مَغْفِرٌ عَلَيْهِ . »

24. 사도가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상대방을 살인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피살된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알라 하나님을 위해 피살되어 천국에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자 살인자는 이슬람을 수락하고 알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가 피살된 후 천국에 들어갑니다.” (Bukhari and Muslim).

제3장 자제와 인내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صْبِرُوا وَصَابِرُوا [آل عمران : ٢٠٠] وقال تعالى : وَكَتَبَلُونَكُمْ بِشْتِيٍّ مِنَ الْخَوْفِ وَالْجُوعِ وَنَقْصٍ مِنَ الْأَمْوَالِ وَالْأَنْفُسِ وَالثَّمَرَاتِ وَبَشِّرِ الصَّابِرِينَ [البقرة : ١٥٥] وقال تعالى : إِنَّمَا يُوفَّى الصَّابِرُونَ أَجْرَهُمْ بِغَيْرِ حِسَابٍ [الزمر : ١٠] وقال تعالى : وَلَمَنْ صَبَرَ وَغَفَرَ إِنَّ ذَلِكَ لَمِنْ عَزْمِ الْأُمُورِ [الشورى : ٤٣] وقال تعالى : اسْتَعِينُوا بِالصَّبْرِ وَالصَّلَاةِ إِنَّ اللَّهَ مَعَ الصَّابِرِينَ [البقرة : ١٥٣] وقال تعالى : وَكَتَبَلُونَكُمْ حَتَّى تَعْلَمَ الْمُجَاهِدِينَ مِنْكُمْ وَالصَّابِرِينَ [محمد : ٣١] وَالْآيَاتُ فِي الْأَمْرِ بِالصَّبْرِ وَبَيَانِ فَضْلِهِ كَثِيرَةٌ مَعْرُوفَةٌ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이여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함에 경쟁하라. ...】 (3:200) 【알라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기아로 재물을 축내고 생명을 잃게 하여 그리고 과실 수확을 축내어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주실 것이니라.】 (3:155) 【일려 가로되 믿음을 가진 나의 종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라. 보상은 현세에서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만 있느니라. 그리고 알라 하나님의 대지는 넓으니라.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들은 계산 없는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39:10) 【인내하고 용서하는 자 실로 그는 의지가 굳은 자 이니라.】 (42:43) 【믿는 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을 간구하라. 실로 알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라.】 (2:153) 【나는 너희 중에서 누가 알라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는 지를 시험할 것이요 누가 거짓말쟁이고 진실한 자인지에 대하여 너희를 시험할 것이니라.】 (47:31)

٢٥ - وَعَنْ أَبِي مَالِكٍ الْحَارِثِ بْنِ عَاصِمٍ الْأَشْعَ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طُّهُورُ شَطْرُ الْإِيمَانِ ، وَالْحَمْدُ لِلَّهِ
 تَمْلَأُ الْمِيزَانَ ، وَسُبْحَانَ اللَّهِ وَالْحَمْدُ لِلَّهِ تَمْلَأَانِ - أَوْ تَمْلَأُ - مَا بَيْنَ
 السَّمَوَاتِ وَالْأَرْضِ ، وَالصَّلَاةُ نُورٌ ، وَالصَّدَقَةُ بُرْهَانٌ ، وَالصَّبْرُ ضِيَاءٌ ،
 وَالْقُرْآنُ حُجَّةٌ لَكَ أَوْ عَلَيْكَ . كُلُّ النَّاسِ يَغْدُو ، فَبَايَعُ نَفْسَهُ
 فَمُعْتِقُهَا ، أَوْ مُبِقِهَا » ، رواه مسلم .

2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말리크 아쉬아리(Abu Malik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청결은 신앙의 절반입니다. 알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울을 가득 채웁니다(Alhamdulillah). 알라 하나님을 찬양하고(Subhanallah) 알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Alhamdulillah) 하늘과 땅 사이를 축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예배는 빛입니다. 자선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인내는 빛과 같습니다. 꾸란은 당신의 편이거나 당신의 반대편입니다. 각자의 인간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팔 준비를 하거나 영혼을 해방시키는 준비를 하거나 영혼을 잃게 하는 준비를 합니다.” (Muslim).

٢٦ - وَعَنْ أَبِي سَعِيدٍ سَعْدِ بْنِ مَالِكِ بْنِ سِنَانٍ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مَا : أَنَّ نَاسًا مِنَ الْأَنْصَارِ سَأَلُو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أَعْطَاهُمْ .
 ثُمَّ سَأَلُوهُ فَأَعْطَاهُمْ . حَتَّى نَقِدَ مَا عِنْدَهُ . فَقَالَ لَهُمْ : حِينَ أَنْفَقَ
 كُلُّ شَيْءٍ بِيَدِهِ : « مَا يَكُنْ عِنْدِي مِنْ خَيْرٍ فَلَنْ أَدْخِرَهُ عَنْكُمْ ، وَمَنْ
 يَسْتَعْفِفْ يُعِفَّهُ اللَّهُ ، وَمَنْ يَسْتَغْنِ يُغْنِهِ اللَّهُ ، وَمَنْ يَتَصَبَّرْ يُصْبِرْهُ
 اللَّهُ . وَمَا أُعْطِيَ أَحَدٌ عَطَاءً خَيْرًا وَأَوْسَعَ مِنْ الصَّبْرِ » متفقٌ عليه

26. 메디나 안사리 출신의 몇 사람이 사도에게 부탁한 것을 아부 싸이드 쿠드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그들은 사도에게 요청했고 그에 사도는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또 요구하자 사도께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시고 나서 말씀하셨

다. “나에게 무엇이 있을 때에는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기억하시오, 순결을 원하는 자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부를 원하는 자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인내를 원하는 자 있다면 그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인내만큼 훌륭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۲۷ - وَعَنْ أَبِي يَحْيَىٰ صُهَيْبِ بْنِ سِنَانَ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عَجَبًا لِأَمْرِ الْمُؤْمِنِ إِنَّ أَمْرَهُ كُلَّهُ لَهُ خَيْرٌ، وَلَيْسَ ذَلِكَ إِلَّا لِلْمُؤْمِنِ : إِنْ أَصَابَتْهُ سَرَّاءُ شَكَرَ فَكَانَ خَيْرًا لَهُ ، وَإِنْ أَصَابَتْهُ ضَرَّاءُ صَبَرَ فَكَانَ خَيْرًا لَهُ ، رَوَاهُ مُسْلِمٌ

2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수하입 빈 씨난(Suhaib bin Sinan)이 전하고 있다. “신앙인의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의 모든 일은 그에게 축복입니다. 그러한 것은 신앙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는 감사해하고 어떤 재앙이 닥치면 인내하고 그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Muslim).

۲۸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لَمَّا ثَقُ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جَعَلَ يَتَغَشَّاهُ الْكَرْبُ فَقَالَتْ فَاطِمَةُ رَضِيَ اللَّهُ عَنْهَا : وَآكْرَبُ أَبْنَاءَهُ . فَقَالَ : «لَيْسَ عَلَيَّ أَبِيكَ كَرَبٌ بَعْدَ الْيَوْمِ ، فَلَمَّا مَاتَ قَالَتْ : يَا أَبَتَاهُ أَجَابَ رَبًّا دَعَاهُ ، يَا أَبَتَاهُ جَنَّةُ الْفِرْدَوْسِ مَا وَاهُ ، يَا أَبَتَاهُ إِلَى جِبْرِيلَ نَتْنَعَاهُ ، فَلَمَّا دَفِنَ قَالَتْ فَاطِمَةُ رَضِيَ اللَّهُ عَنْهَا : أَطَابَتْ أَنْفُسُكُمْ أَنْ تَحْتُوا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تُّرَابَ ؟ رَوَاهُ الْبُخَارِيُّ

28. 사도께서 중병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그분의 딸 파티마(Fatimah)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내용을 아나스(Anas)가 전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런 고통이 오다니.” 그러자 아버지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오늘 이후부터는 너의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거야.”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딸이 말했다. “아버지, 당신은 주님의 부름에 응하셨습니다. 아버지, 천국이 당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죽음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알렸습니다.” 시신이 안장되자 파티마가 말했다. “흠에 묻히는 사도여, 편안히 잠드소서.” (Bukhari).

۲۹ - وَعَنْ أَبِي زَيْدٍ أَسَمَةَ بْنِ زَيْدٍ بْنِ حَارِثَةَ مَوْ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حَبِيبِ وَأَبْنِ حَبِيبٍ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أُرْسِلْتُ بِنْتُ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إِنَّ ابْنِي قَدْ احْتَضَرَ فَأَشْهَدُنَا ، فَأَرْسَلَ يُقْرِئُ السَّلَامَ وَيَقُولُ : « إِنَّ اللَّهَ مَا أَخَذَ ، وَلَهُ مَا أُعْطِيَ ، وَكُلُّ شَيْءٍ عِنْدَهُ بِأَجَلٍ مُّسَمًّى ، فَلْتَصْبِرْ وَلْتَحْتَسِبْ » ، فَأَرْسَلَتْ إِلَيْهِ تُقِيمُ عَلَيْهِ لِيَأْتِيَنَهَا . فَقَامَ مَعَهُ سَعْدُ بْنُ عُبَادَةَ ، وَمُعَاذُ بْنُ جَبَلٍ ، وَأَبْنُ ابْنِ كَعْبٍ ، وَزَيْدُ بْنُ ثَابِتٍ ، وَرَجَالٌ رَضِيَ اللَّهُ عَنْهُمْ ، فَرَفَعَ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صَّبِيَّ ، فَأَقْعَدَهُ فِي حِجْرِهِ وَتَقَفَتْهُ ، فَقَاصَتْ عَيْنَاهُ ، فَقَالَ سَعْدُ : يَا رَسُولَ اللَّهِ مَا هَذَا ؟ فَقَالَ : « هَذِهِ رَحْمَةٌ جَعَلَهَا اللَّهُ تَعَالَى فِي قُلُوبِ عِبَادِهِ » ، وَفِي رَوَايَةٍ : « فِي قُلُوبِ مَنْ شَاءَ مِنْ عِبَادِهِ وَإِنَّمَا يَرْحَمُ اللَّهُ مَنْ عِبَادِهِ الرَّحَاءَ » ، مُتَّفَقٌ عَلَيْهِ .

29. 우사마(Usamah bin Zaid)가 전하고 있다. 그는 노예 출신으로 신뢰받은 사도의 교우였다. 사도의 딸이 자식의 임종이 다가오자 우사마를 사도에게 보냈다. 사도는 딸의 평안을 물으면서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앓아가시는 것도 그분의 것이며 그분께서 주시는 것도 그분의 것이라. 모든 것은 그분께서 정하여 놓은 기간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인내하고 그분의 은총과 보상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라.” 딸은 알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보고 싶다고 애걸하였다. 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싸아드(Sa'ad bin 'Ubadah), 무아즈(Mu'az bin Jabal), 우바이(Ubai bin Ka'ab), 자이드(Zaid bin Sabit)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수행원

들을 대동하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사도가 그곳에 도착하여 아이를 넘겨받아 자신의 무릎에 놓았다. 죽음의 고통으로 그 어린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싸아드가 이렇게 말했다. “사도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마음속에 두신 자비라.”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내리시는 자비이니라.” (Bukhari and Muslim).

٣٠ - وَعَنْ صُهَيْبٍ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وَكَانَ مَلِكٌ فَمِنْ كَانَ قَبْلَكُمْ ، وَكَانَ لَهُ سَاحِرٌ ، فَلَمَّا كَبُرَ قَالَ
لِلْمَلِكِ : إِنِّي قَدْ كَبُرْتُ فَأَبْعَثْ إِلَيَّ غُلَامًا يَعْلَمُ السَّحْرَ ، فَبَعَثَ إِلَيْهِ
غُلَامًا يَعْلَمُهُ ، وَكَانَ فِي طَرِيقِهِ إِذَا سَلَكَ رَاهِبٌ ، فَقَعَدَ إِلَيْهِ وَسَمِعَ
كَلَامَهُ فَأَعْجَبَهُ ، وَكَانَ إِذَا أَتَى السَّاحِرَ مَرًّا بِالرَّاهِبِ وَقَعَدَ إِلَيْهِ ، فَلَمَّا
أَتَى السَّاحِرَ ضَرَبَهُ ، فَشَكَكَ ذَلِكَ إِلَى الرَّاهِبِ فَقَالَ : إِذَا خَشِيتَ السَّاحِرَ
فَقُلْ : حَبَسَنِي أَهْلِي ، وَإِذَا خَشِيتَ أَمْلَكَ فَقُلْ : حَبَسَنِي السَّاحِرُ .
فَبَيَّنَمَا هُوَ عَلَى ذَلِكَ إِذْ أَتَى عَلَى دَابَّةٍ عَظِيمَةٍ قَدْ حَبَسَتِ النَّاسَ
فَقَالَ : الْيَوْمَ أَعْلَمُ السَّاحِرُ أَفْضَلُ أَمْ الرَّاهِبُ أَفْضَلُ ؟ فَأَخَذَ حَجَرًا
فَقَالَ : اللَّهُمَّ إِنْ كَانَ أَمْرُ الرَّاهِبِ أَحَبَّ إِلَيْكَ مِنْ أَمْرِ السَّاحِرِ فَاقْتُلْ
هَذِهِ الدَّابَّةَ حَتَّى يَمُوتَ النَّاسُ ، فَرَمَاهَا فَتَقَتَّلَهَا وَمُتَّى النَّاسُ ، فَأَتَى
الرَّاهِبَ فَأَخْبَرَهُ . فَقَالَ لَهُ الرَّاهِبُ : أَيُّ بُنْيَ أَنْتَ الْيَوْمَ أَفْضَلُ مِنِّي ،
قَدْ بَلَغَ مِنْ أَمْرِكَ مَا أَرَى ، وَإِنَّكَ سَتُبْتَلَى ، فَإِنْ ابْتُلِيتَ فَلَا تَدُلْ
عَلَيَّ ، وَكَانَ الْغُلَامُ يُبْرِيءُ الْأَكْمَةَ وَالْأَبْرَصَ ، وَيُدَاوِي النَّاسَ مِنْ
سَائِرِ الْأَدْوَاءِ . فَسَمِعَ جَلِيسٌ لِلْمَلِكِ كَانَ قَدْ عَمِيَ ، فَأَتَاهُ يَهْدِيًا
كَثِيرَةً فَقَالَ : مَا مَهْنًا لَكَ أَجْمَعُ إِنْ أَنْتَ شَفَعْتَنِي ، فَقَالَ : إِنِّي
لَا أَشْفِي أَحَدًا ، إِنَّمَا يَشْفِي اللَّهُ تَعَالَى ، فَإِنْ آمَنْتَ بِاللَّهِ تَعَالَى دَعَوْتُ اللَّهَ
فَشَفَاكَ ، فَأَمَّنَ بِاللَّهِ تَعَالَى فَشَفَاهُ اللَّهُ تَعَالَى ، فَأَتَى الْمَلِكَ فَجَلَسَ
إِلَيْهِ كَمَا كَانَ يَجْلِسُ فَقَالَ لَهُ الْمَلِكُ : مَنْ رَدَّ عَلَيْكَ بَصْرَكَ ؟ قَالَ :
رَبِّي . قَالَ : وَلَكَ رَبٌّ غَيْرِي ؟ قَالَ : رَبِّي وَرَبُّكَ اللَّهُ ، فَأَخَذَهُ فَلَمْ
يَزَلْ يُعَدِّدُهُ حَتَّى دَلَّ عَلَى الْغُلَامِ ، فَجِيءَ بِالْغُلَامِ فَقَالَ لَهُ الْمَلِكُ :

أَيُّ بُنْيَ قَدْ بَلَغَ مِنْ سِحْرِكَ مَا تُبْرِئُ الْأَكْمَةَ وَالْأَبْرَصَ وَتَفْعَلُ وَتَفْعَلُ
 فَقَالَ : إِنِّي لَا أَشْفِي أَحَدًا ، إِنَّمَا يَشْفِي اللَّهُ تَعَالَى ، فَأَخَذَهُ فَاغْتَمَسَ فِي الْيَمِّ
 بِعَدْبِهِ حَتَّى دَلَّ عَلَى الرَّاهِبِ ، فَجِيءَ بِالرَّاهِبِ فَقِيلَ لَهُ : ارْجِعْ عَنْ
 دِينِكَ ، فَأَبَى ، فَدَعَا بِالْمِنْشَارِ فَوَضَعَ الْمِنْشَارَ فِي مَفْرَقِ رَأْسِهِ ، فَشَقَّهُ
 حَتَّى وَقَعَ شِقَاؤُهُ ، ثُمَّ جِيءَ بِمَلِكٍ قَبِيلَ لَهُ : ارْجِعْ عَنْ دِينِكَ
 فَأَبَى ، فَوَضَعَ الْمِنْشَارَ فِي مَفْرَقِ رَأْسِهِ ، فَشَقَّهُ بِهِ حَتَّى وَقَعَ شِقَاؤُهُ ،
 ثُمَّ جِيءَ بِالْغُلَامِ فَقِيلَ لَهُ : ارْجِعْ عَنْ دِينِكَ فَأَبَى ، فَدَقَّقَهُ إِلَى نَقَرٍ
 مِنْ أَصْحَابِهِ فَقَالَ : اذْهَبُوا بِهِ إِلَى جَبَلٍ كَذَا وَكَلِّمُوا صَاعِدُوا بِهِ الْجَبَلَ ،
 فَإِذَا بَلَغْتُمْ ذِرْوَتَهُ فَإِنْ رَجَعَ عَنْ دِينِهِ إِلَّا فَاطْرَحُوهُ ، فَذَهَبُوا بِهِ
 فَصَعِدُوا بِهِ الْجَبَلَ فَقَالَ : اللَّهُمَّ اكْفِنِيهِمْ بِمَا شِئْتَ ، فَزَجَفَ بِهِمُ
 الْجَبَلَ فَسَقَطُوا ، وَجَاءَ بِمَنْشِي إِلَى الْمَلِكِ ، فَقَالَ لَهُ الْمَلِكُ : مَا فَعِلَ
 بِأَصْحَابِكَ ؟ فَقَالَ : كَفَّانِيهِمْ اللَّهُ تَعَالَى ، فَدَقَّقَهُ إِلَى نَقَرٍ مِنْ أَصْحَابِهِ
 فَقَالَ : اذْهَبُوا بِهِ فَاخْلُوهُ فِي قُرْمُورٍ وَتَوَسَّلُوا بِهِ الْبَحْرَ ، فَإِنْ رَجَعَ عَنْ
 دِينِهِ إِلَّا فَاذْفُوهُ ، فَذَهَبُوا بِهِ فَقَالَ : اللَّهُمَّ اكْفِنِيهِمْ بِمَا شِئْتَ ،
 فَانْكَفَّتْ بِهِمُ الْمَغِيَّةُ فَغَرِقُوا ، وَجَاءَ بِمَنْشِي إِلَى الْمَلِكِ . فَقَالَ لَهُ
 الْمَلِكُ : مَا فَعِلَ بِأَصْحَابِكَ ؟ فَقَالَ : كَفَّانِيهِمْ اللَّهُ تَعَالَى . فَقَالَ لِلْمَلِكِ
 إِنَّكَ لَسْتَ بِقَاتِلِي حَتَّى تَفْعَلَ مَا أَمُرُكَ بِهِ . قَالَ : مَا هُوَ ؟ قَالَ : تَجْمَعُ
 النَّاسَ فِي صَعِيدٍ وَاحِدٍ ، وَتَصْلُبُنِي عَلَى جِدْعٍ ، ثُمَّ تَخَذُ سَهْمًا مِنْ كَيْنَاتِي ،
 ثُمَّ تَضَعُ السَّهْمَ فِي كَبِدِ الْقَوْسِ ثُمَّ قُلْ : بِسْمِ اللَّهِ رَبِّ الْغُلَامِ ثُمَّ
 ارْمِي ، فَإِنَّكَ إِذَا فَعَلْتَ ذَلِكَ قَتَلْتَنِي . فَجَمَعَ النَّاسَ فِي صَعِيدٍ وَاحِدٍ ،
 وَصَلَبَهُ عَلَى جِدْعٍ ، ثُمَّ أَخَذَ سَهْمًا مِنْ كَيْنَاتِي ، ثُمَّ وَضَعَ السَّهْمَ فِي
 كَبِدِ الْقَوْسِ ، ثُمَّ قَالَ : بِسْمِ اللَّهِ رَبِّ الْغُلَامِ ، ثُمَّ رَمَاهُ فَوَقَعَ السَّهْمُ
 فِي صُدْغِهِ ، فَوَضَعَ يَدَهُ فِي صُدْغِهِ فَمَاتَ . فَقَالَ النَّاسُ : آمَنَّا بِرَبِّ
 الْغُلَامِ ، فَأَتَى الْمَلِكُ فَقِيلَ لَهُ : أَرَأَيْتَ مَا كُنْتَ تَحَذَرُ قَدْ وَاللَّهِ نَزَلَ
 بِكَ حَذَرُكَ . قَدْ آمَنَ النَّاسُ . فَأَمَرَ بِالْأُخْدُودِ بِأَفْوَاهِ السُّكَّكِ فَخُذَّتْ
 وَأُضْهِرَ فِيهَا النَّبْرَانُ وَقَالَ : مَنْ لَمْ يَرْجِعْ عَنْ دِينِهِ فَأَقْعِمُوهُ فِيهَا
 أَوْ قِيلَ لَهُ : افْتَحِمِ ، فَفَعَلُوا حَتَّى جَاءَتِ امْرَأَةٌ وَمَعَهَا صَبِيٌّ لَهَا ،

فَتَمَاحَصَّتْ أَنْ تَقَعَ فِيهَا ، فَقَالَ لَهَا الْغُلَامُ : يَا أُمَّاهُ اصْبِرِي فَإِنَّكَ مَعِيَ
الْحَقُّ ، رَوَاهُ مُسْلِمٌ

3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수하입(Suhaib)이 전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 중에 마술사를 둔 한 왕이 있었다. 나이가 들자 마술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한 청년을 보내주십시오. 그에게 마술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왕은 한 청년을 보냈고 그는 그에게 마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술을 배우는 한 과정으로 승려와 함께 하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그는 승려 옆에 앉아 그의 말씀을 청취했다. 그는 승려의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 승려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마술사에게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마술사는 그를 때렸다. 이 청년은 이 사실을 승려에게 알렸다. 그러자 승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술사가 두려울 때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의 가족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이 두렵거든 이렇게 말해요. ‘마술사가 저를 붙잡아두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한 마리의 큰 짐승이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청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마술사가 더 훌륭한지 아니면 승려가 더 훌륭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는 돌 하나를 주어들고 이렇게 말했다. ‘주여, 승려의 품행이 마술사의 품행보다 더 마음에 드신다면 이 동물을 살해하게 하여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서 그는 그 돌로 짐승을 죽이고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청년은 이 사실을 승려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승려는 이렇게 말했다. ‘청년, 오늘은 자네가 나보다 훌륭하네. 자네는 이제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니 자네가 해를 입을 수도 있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나의 소재를 밝히지 말게.’

그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나 문둥병 및 그 밖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장님이 된 왕실 자문에

게 전해졌다. 그는 많은 선물을 갖고 이 청년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의 병을 치료하여 준다면 이 모든 선물은 당신의 것이요.’
 그 청년이 대답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알라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서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서하자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는 궁정으로 돌아가 평상시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왕이 물었다. ‘누가 그대의 시력을 회복시켰소?’ 그 자문관이 대답했다. ‘저의 알라 하나님께서요.’ 다시 왕이 물었다. ‘그대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소?’ 그가 대답했다. ‘저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폐하를 지켜주시는 알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그를 체포하여 고문을 하면서 그 청년의 이름을 밝히고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체포하여 잡아오도록 하였다. 붙잡혀 온 그 청년에게 왕은 이렇게 말했다. ‘청년,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과 다른 질병들을 치료할 정도로 너의 마술이 뛰어나단 말이나?’ 그 청년이 대답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알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그 청년을 고문하여 승려의 거처를 알아내 그를 체포하여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가 왕 앞에 끌려오자 왕은 그에게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승려는 거절하였다. 왕은 톱을 가져오게 한 후 그것으로 승려의 머리를 두 동강으로 잘라 버렸다. 그 이후 왕의 자문관에게 사람을 보내 이전의 종교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 역시 거절하였고 그의 머리도 두 동강이가 났다. 이번에는 청년이 앞으로 끌려나와 그의 종교를 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역시 거절하였다. 왕은 그 청년을 신하들에게 맡기면서 그를 산으로 데려가 정상에 다다르게 된 후에도 그가 개종하지 아니하면 그를 던져버리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는 기도하였다. ‘주여, 당신이 원하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산을 흔들었다. 신하들은 땅바닥에 넘어졌다.

청년이 죽지 않고 왕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너를 동행한 나의 신하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그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저를 구하여주셨습니다.’ 그 후 왕은 그를 다른 신하들에게 넘기면서 그를 돛단배에 태워 바다로 데리고 나가 그의 종교를 버리라고 하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는 기도하였다. ‘주여, 당신이 원하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그 배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침몰하여 신하들이 익사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왕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 왕이 물었다. ‘너를 동행한 나의 신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저를 구하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였다. ‘폐하께서는 제가 말한대로 하지 않고서는 저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나?’ 청년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 집합시키고 종려나무 줄기에 나를 매다시오. 그런 후 나의 화살집에서 화살 하나를 꺼내 그것을 활 가운데 놓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청년의 주님이신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한 후 나에게 화살을 쏘시오. 그렇게 하면 폐하께서 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나는 종려나무 가지에 매달렸다. 왕은 그의 화살집에서 화살 하나를 꺼내 그의 활에 놓고서 이렇게 말했다. ‘이 청년의 주님이신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왕은 활을 쏘았고 그 화살은 그의 관자를 관통시켰다. 그 청년은 그의 두 손을 그의 관자에 얹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갔다. ‘이것 봐! 왕이 염려했던 것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이 청년의 주님을 믿는다고 선서하지 않았는가?’ 왕은 길 양쪽으로 참호를 파라고 하였다. 참호 파기가 완료되자 그 안에 불이 지펴졌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이 지펴진 참호에 던져지거나 뛰어든도록 하겠다고 선포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다. 한 소년과 함께 한 여성이 불속으로 던져질 순간이었다. 이때 그 소년과 함께 온 어머니가 불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때 그 소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는 바른 길에

계십니다.’ (Muslim).

۳۱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مَرَّ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امْرَأَةٍ تَبْكِي عِنْدَ قَبْرِ فَقَالَ : « اتَّقِي اللَّهَ وَاصْبِرِي » فَقَالَتْ : إِلَيْكَ عَنِّي ، فَإِنَّكَ لَمْ تُصَبِّ بِمُصِيبَتِي وَلَمْ تَعْرِفْهُ ، فَقِيلَ لَهَا : إِنَّهُ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أَتَتْ بَابَ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لَمْ تَجِدْ حِينَئِذٍ بُوَابِينَ ، فَقَالَتْ : لَمْ أَعْرِفْكَ ، فَقَالَ : « إِنَّمَا الصَّبْرُ عِنْدَ الصَّدْمَةِ الْأُولَى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 تَبْكِي عَلَى صَبِيٍّ لَهَا » .

31.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사도께서 아들을 잃고 아들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여성을 우연히 지나면서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인내하시오.” 그러자 그 여성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 “나 좀 그냥 내버려두세요. 당신은 내가 겪은 고충을 몰라요.” 어느 누가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그분은 사도야.” 그녀는 즉시 예언자 집으로 갔다. 문지기가 없어 그녀는 곧장 집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도가 대답했다. “슬픔으로 인한 첫 번째 충격은 인내입니다. 그것은 알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Bukhari).

۳۲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يَقُولُ اللَّهُ تَعَالَى : مَا لِعِبْدِي الْمُؤْمِنِ عِنْدِي جَزَاءٌ إِذَا قَبِضْتُ صَفِيَّةً مِنْ أَهْلِ الدُّنْيَا ثُمَّ احْتَسَبَهُ إِلَّا الْحَنَّةَ » رواه البخاري

3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때 인내하며 나의 뜻에 따르는 나의 종 신앙인을 위해 천국보다 더 좋은 보상을 나는 갖고 있지 않느니라.” (Bukhari).

۳۳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هَا سَأَلَ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نِ الطَّاعُونَ ، فَأَخْبَرَهَا أَنَّهُ كَانَ عَذَابًا يَبْعَثُهُ اللَّهُ تَعَالَى عَلَى مَنْ يَشَاءُ ، فَجَعَلَهُ اللَّهُ تَعَالَى رَحْمَةً لِلْمُؤْمِنِينَ ، فَلَيْسَ مِنْ عَبْدٍ يَقَعُ فِي الطَّاعُونَ فَيَمُوتُ فِي بَلَدِهِ صَابِرًا مُحْتَسِبًا يَعْلَمُ أَنَّهُ لَا بُدَّ لَهُ إِلَّا مَا كَتَبَ اللَّهُ لَهُ إِلَّا كَانَ لَهُ مِثْلُ أَجْرِ الشَّهِيدِ ، رواه البخاري

33. 아이샤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그녀가 사도에게 흑사병에 관해 질문하였을 때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신성한 징벌이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만일 신앙인이 이 전염병에 걸려 고향에 머물면서 인내심을 갖고 알라 하나님께 적절한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순교자가 받는 것과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Bukhari).

۳۴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إِنَّ اللَّهَ عَزَّ وَجَلَّ قَالَ : إِذَا ابْتَلَيْتُ عَبْدِي بِحَبِيبَةٍ فَصَبَرَ عَوَّضْتُهُ مِنْهُمَا الْجَنَّةَ » يُرِيدُ عَيْنِيهِ ، رواه البخاري

34.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곳(눈)에 시련을 내릴 때 그가 참고 인내한다면 나는 그에게 천국으로 보상할 것이니라.” (Bukhari).

۳۵ - وَعَنْ عَطَاءِ بْنِ أَبِي رَبَاحٍ قَالَ : قَالَ لِي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 أَلَا أُرِيكَ امْرَأَةً مِنْ أَهْلِ الْجَنَّةِ ؟ فَقُلْتُ : بَلَى ، قَالَ : هَذِهِ الْمَرْأَةُ السَّوْدَاءُ أَتَتْ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تْ : إِنِّي أُصْرَعُ ، وَإِنِّي أَتَكَشَّفُ ، فَأَدْعُ اللَّهَ تَعَالَى لِي قَالَ : « إِنَّ شَفْتَ صَبَرْتَ وَكَلَّكَ الْجَنَّةُ ، وَإِنْ

ثَبَّتَ دَعْوَتُ اللَّهِ تَعَالَى أَنْ يُعَافِيكَ ، فَقَالَتْ : أَصْبِرْ ، فَقَالَتْ : إِنِّي
أَتَكَشَّفُ ، فَادْعُ اللَّهَ أَنْ لَا أَتَكَشَّفَ ، فَدَعَا لَهَا . مَتَّفَقٌ عَلَيْهِ

35. 아파 (Ata bin Abi Rabah)는 이븐 압바스가 그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을 보여줄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래요. 피부색깔이 검은 한 여성이 사도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사도여, 저는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저의 몸이 노출 됩니다. 사도여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여인에게서 이 병으로 고통이 오면 인내하세요. 그러면 천국을 얻을 거예요. 혹은 여인을 위해 내가 기도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줄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발작이 일어날 때 저의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사도께서는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였다. (Bukhari and Muslim).

٣٦ - وَعَنْ أَبِي عَبْدِ الرَّحْمَنِ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أَنِّي أَنْظَرُ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حْكِي نَبِيًّا مِنَ الْأَنْبِيَاءِ ،
صَلَّوَاتُ اللَّهِ وَسَلَامُهُ عَلَيْهِمْ ، ضَرَبَهُ قَوْمُهُ فَأَدْمَوْهُ وَهُوَ يَمْسَحُ الدَّمَ
عَنْ وَجْهِهِ ، يَقُولُ : اللَّهُمَّ اغْفِرْ لِقَوْمِي فَإِنَّهُمْ لَا يَعْلَمُونَ ،
مَتَّفَقٌ عَلَيْهِ

36.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마치 사도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분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심하게 상처를 입고 피가 많이 흘러 얼굴의 피를 닦아야만 되는 한 예언자의 생애에 관하여 얘기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을 구타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Bukhari and Muslim).

٣٧ - وَعَنْ أَبِي سَعِيدٍ وَ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ا يُصِيبُ الْمُسْلِمَ مِنْ نَصَبٍ وَلَا وَصَبٍ وَلَا هَمٍّ وَلَا حُزْنٍ وَلَا أَذًى وَلَا غَمٍّ ، حَتَّى الشَّوْكَةِ يُشَاكُهَا إِلَّا كَفَّرَ اللَّهُ بِهَا مِنْ خَطَايَاهُ » متفق عليه

3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와 아부 싸이드(Abu Sa'id)가 전하고 있다. "신앙인이 어떤 아픔이나 병, 근심과 걱정, 불행, 상처와 슬픔, 하물며 가시 하나에 찔려 아픔을 느낀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의 작은 죄를 지워주십니다." (Bukhari and Muslim).

۳۸ - وَ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دَخَلْتُ عَلَ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هُوَ يُوعَكُ فَ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إِنَّكَ تُوعَكُ وَعَكَأَ شَدِيداً قَالَ : « أَجَلٌ لِي أَوْعَكَ كَمَا يُوعَكَ رَجُلَانِ مِنْكُمْ » ، قُلْتُ : ذَلِكَ أَنْ لَكَ أَجْرَيْنِ ؟ قَالَ : « أَجَلٌ ذَلِكَ كَذَلِكَ مَا مِنْ مُسْلِمٍ يُصِيبُهُ أَذًى ، شَوْكَةٌ فَمَا فَوْقَهَا إِلَّا كَفَّرَ اللَّهُ بِهَا سِتِّينَ ، وَحُطَّتْ عَنْهُ ذُنُوبُهُ كَمَا تَحُطُّ الشَّجَرَةُ وَرَقَاتُهَا » متفق عليه .

38.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나는 열병을 앓고 사도를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도여, 당신의 몸은 지금 고열입니다.” 사도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지금 내 몸의 열은 두 사람의 열과 같아요.” 나는 말했다. “그러시면 당신께서는 두 배의 보상을 받으시겠군요.” 사도가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을 덧붙이셨다. “신앙인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상처를 입었다 해도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죄들을 지워줄 거예요. 그의 작은 죄들은 마치 나무에서 잎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거예요.” (Bukhari and Muslim).

۳۹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مَنْ يُرِدِ اللَّهُ بِهِ خَيْراً يُصِيبْ مِنْهُ » : رواه البخاري

3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실 때 그에게 어느 정도의 시련을 주십니다.” (Bukhari).

٤٠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ا يَتَمَتَّعُ أَحَدُكُمْ الْمَوْتَ لَضَرِّ أَصَابِهِ ، فَإِنْ كَانَ لَا بُدَّ فَاعْلَمْ
فَلْيَقُلْ : اللَّهُمَّ أَحْبِبْنِي مَا كَانَتْ الْحَيَاةُ خَيْرًا لِي وَتَوَقَّضِي إِذَا كَانَتْ
الْوَفَاةُ خَيْرًا لِي ، مَغْنً عَلَيْهِ

4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불행에 의한 고통으로 죽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그 삶이 곤경에 빠진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삶이 더 좋은 것이라면 저를 더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죽음이 더 좋은 것이라면 저를 데려가 주소서.” (Bukhari and Muslim).

٤١ - وَعَنْ أَبِي عَبْدِ اللَّهِ خَبَّابِ بْنِ الْأَرْتِ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شَكَّوْنَا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هُوَ مُتَوَسِّدٌ بُرْدَةً لَهُ فِي ظِلِّ الْكَعْبَةِ ،
فَقُلْنَا : أَلَا تَسْتَنْصِرُ لَنَا أَلَا تَدْعُو لَنَا ؟ فَقَالَ : قَدْ كَانَ مِنْ قَبْلِكُمْ
يُؤْخَذُ الرَّجُلُ فَيُحْفَرُ لَهُ فِي الْأَرْضِ فَيُجْعَلُ فِيهَا ، ثُمَّ يُؤْتَى بِالْمُنْشَارِ
فَيُوضَعُ عَلَى رَأْسِهِ فَيُجْعَلُ نَصْفَيْنِ ، وَيُمَشَّطُ بِأَمْشَاطِ الْحَدِيدِ مَا دُونَ
تَلْحِيهِ وَعَظْمِيهِ ، مَا يَبْصُرُهُ ذَلِكَ عَنْ دِينِهِ ، وَاللَّهُ لَيُبَيِّنَنَّ اللَّهُ هَذَا الْأَمْرَ
حَتَّى يَسِيرَ الرَّكِيبُ مِنْ صَنْعَاءَ إِلَى حَضْرَمَوْتَ لَا يَخَافُ إِلَّا اللَّهَ وَالذُّنْبَ
عَلَى غَنَمِهِ ، وَلَكِنَّكُمْ تَسْتَعْجِلُونَ ، رَوَاهُ الْبُخَارِيُّ
وَفِي رَوَايَةٍ : « وَهُوَ مُتَوَسِّدٌ بُرْدَةً وَقَدْ لَقِينَا مِنَ الْمُشْرِكِينَ شِدَّةً ».

41. 캅바브(Khabbab bin Al-Arat)가 전하고 있다. 우리는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사도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때 그분은 카으바 신전 그늘진 곳에서 침대의 덮개를 베개로 삼아

누워 있었다. 우리는 물었다. “왜 당신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 앞 세대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불잡혀가 구덩이에 갇힌 때 톱에 의해 그의 머리가 두 동강이 났지요. 그리고 그의 살과 뼈는 쇠 빗으로 빗겨 나갔지요. 그가 그의 종교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 못했었어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이슬람을 도와 그의 임무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탈 것에 몸을 싣고 예멘의 사나아에서 하드라마우트까지 가는 그는 알라 하나님과 그의 양들을 공격해 올 늑대 외에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Bukhari).

٤٢ - و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لما كان يوم حنين أثر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ناساً في القيسية : فأعطى الأقرع بن حابس مائة من الإبل ، وأعطى عبيدة بن حصن مثل ذلك ، وأعطى ناساً من أشرف العرب وآثرهم يومئذ في القيسية . فقال رجل : والله إن هذه قيسية ما عدل فيها ، وما أريد فيها وجهه الله . فقلت : والله لا أخبر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اتيت فآخبرته بما قال ، فتعبر وجهه حتى كان كالصرف . ثم قال : فمَن يعدل إذا لم يعدل الله ورسوله ؟ ثم قال : يرحم الله موسى قد أودى بأكثر من هذا فصبر . فقلت : لا جرم لا أرفع إليه بعدهما حديثاً . متفق عليه

42.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후나인에 전투에서 사도께서는 새로운 신앙인들이 이슬람에 호의를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더 많이 분배하셨다. 아끄라아(Aqra'a bin Habis)와 우아이나(U'ainah bin Hisn)에게 각각 일백 마리의 낙타를 주셨고 일부 아랍 부족의 지도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다. 한 남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분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사도는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과 사도가 아니라면 누가 정의를 실현하겠소?” 말을 계속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때 그는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했소. 그러나 인내하였소.” 이 말을 듣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그분에게 다시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지.” (Bukhari and Muslim).

٤٣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ذَا أَرَادَ اللَّهُ بِعَبْدِهِ خَيْرًا عَجَّلَ لَهُ الْعُقُوبَةَ فِي الدُّنْيَا ، وَإِذَا أَرَادَ اللَّهُ
بِعَبْدِهِ الشَّرَّ أَمْسَكَ عَنْهُ بِذَنْبِهِ حَتَّى يُوَافِيَ بِهِ يَوْمَ الْقِيَامَةِ » .
وَ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عِظَمَ الْجَزَاءِ مَعَ عِظَمِ الْبَلَاءِ ،
وَإِنَّ اللَّهَ تَعَالَى إِذَا أَحَبَّ قَوْمًا ابْتَلَاهُمْ ، فَمَنْ رَضِيَ فَلَهُ الرِّضَا ، وَمَنْ
سَخِطَ فَلَهُ السَّخَطُ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4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할 때 현세에서 그로 하여금 약간의 역경을 겪게 하시지요. 당신의 종에게 불운을 주시려 할 때 현세에서 그에게 여러 batzuls를 주고 심판의 날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지요." 역시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한 보상은 큰 시련을 겪은 자의 것이지요.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시험하시기를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시련을 이겨내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요. 그러나 시련을 피하려하는 자는 그분의 분노를 사지요." (Tirmizi).

٤٤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انَ ابْنُ لَآبِي طَلْحَةَ رَضِيَ اللَّهُ
عَنْهُ يَشْتَكِي ، فَخَرَجَ أَبُو طَلْحَةَ ، فَقُبِضَ الصَّبِيُّ ، فَلَمَّا رَجَعَ أَبُو طَلْحَةَ
قَالَ : مَا فَعَلَ ابْنِي ؟ قَالَتْ أُمُّ سُلَيْمٍ وَهِيَ أُمُّ الصَّبِيِّ : « مَوَّأَسَكُنْ مَا كَانَ ،
فَقَرَّبْتُ إِلَيْهِ الْعِشَاءَ فَتَمَعَنِّي ، ثُمَّ أَصَابَ مِنْهَا ، فَلَمَّا فَرَغَ قَالَتْ : وَارُوا

الصَّبِيِّ ، فَلَمَّا أَصْبَحَ أَبُو طَلْحَةَ أَتَ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أَخْبَرَهُ ،
فَقَالَ : « أَعَرَسْتُمُ اللَّيْلَةَ ؟ » قَالَ : نَعَمْ ، قَالَ : « اللَّهُمَّ بَارِكْ لَهَا » ،
فَوَلَدَتْ غُلَامًا ، فَقَالَ لِي أَبُو طَلْحَةَ : احْمِلْهُ حَتَّى تَأْتِيَ بِهِ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بَعَثَ مَعَهُ بِتَمْرَاتٍ ، فَقَالَ : « أَمَعَهُ شَيْءٌ ؟ » قَالَ :
نَعَمْ ، تَمْرَاتٌ ، فَأَخَذَهَا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مَضَغَهَا ، ثُمَّ أَخَذَهَا
مِنْ فِيهِ فَجَعَلَهَا فِي فِي الصَّبِيِّ . ثُمَّ حَنَكَهُ وَسَمَّاهُ عَبْدُ اللَّهِ . متفق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للبخاري : قال ابنُ عُبَيْنَةَ : فَقَالَ رَجُلٌ مِنَ الْأَنْصَارِ :
فَرَأَيْتُ نِسْفَةَ أَوْلَادِ كُلِّهُمْ قَدْ قَرَأُوا الْقُرْآنَ ، يَعْنِي مِنَ أَوْلَادِ عَبْدِ اللَّهِ
الْمَوْلُودِ .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مَاتَ ابْنُ لَأَبِي طَلْحَةَ مِنْ أُمِّ سُلَيْمٍ ، فَقَالَتْ
لَأَهْلِهَا : لَا تُحَدِّثُوا أَبَا طَلْحَةَ بِابْنِهِ حَتَّى أَكُونَ أَنَا أَحَدُهُمْ ، فَجَاءَ
فَقَرَّبَتْ إِلَيْهِ عَشَاءً فَأَكَلَ وَشَرِبَ ، ثُمَّ تَصَنَّعَتْ لَهُ أَحْسَنَ مَا كَانَتْ
تَصْنَعُ قَبْلَ ذَلِكَ ، فَوَقَعَ بِهَا ، فَلَمَّا أَنْ رَأَتْ أَنَّهُ قَدْ شَبِعَ وَأَصَابَ مِنْهَا
قَالَتْ : يَا أَبَا طَلْحَةَ ، أَرَأَيْتَ لَوْ أَنَّ قَوْمًا أَعَارَوْا عَارِيَتَهُمْ أَهْلَ بَيْتِ
إِبْنِكَ عَارِيَتَهُمْ ، أَلَيْسَ أَنْ يَمْنَعُوهُمْ ؟ قَالَ : لَا ، فَقَالَتْ : فَاحْتَسِبْ
ابْنَكَ . قَالَ : فَغَضِبَ ، ثُمَّ قَالَ : تَرَكَتَنِي حَتَّى إِذَا تَلَطَّخْتُ ثُمَّ
أَخْبَرْتَنِي بِابْنِي ، فَانْطَلَقَ حَتَّى أَتَ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أَخْبَرَهُ
بِمَا كَانَ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بَارَكَ اللَّهُ فِي لَيْلَتِكُمْ » ،
قَالَ : فَحَمَلَتْ ، قَالَ : وَ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سَفَرٍ وَهِيَ
مَعَهُ ، وَ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ا أَتَى الْمَدِينَةَ مِنْ سَفَرٍ
لَا يَطْرُقُهَا طَرُوقًا قَدَتُوا مِنَ الْمَدِينَةِ ، فَضَرَبَتْهَا الْمُخَاضُ ،
فَاحْتَبَسَ عَلَيْهَا أَبُو طَلْحَةَ ، وَانْطَلَقَ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يَقُولُ أَبُو طَلْحَةَ : إِنَّكَ لَتَعْلَمُ يَا رَبُّ أَنَّهُ يُعْجِبُنِي أَنْ أَخْرُجَ
مَعَ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ا خَرَجَ ، وَأَدْخُلَ مَعَهُ إِذَا دَخَلَ ، وَقَدْ
احْتَبَسْتُ بِمَا تَرَى ، تَقُولُ أُمُّ سُلَيْمٍ : يَا أَبَا طَلْحَةَ مَا أَجِدُ الَّذِي

كُنْتُ أَجِدُ، أَنْطَلِقُ ، فَأَنْطَلِقُنَا، وَضَرَبَهَا الْمَخَاضُ حِينَ قَدِمَا فَوَلَدَتْ
غُلَامًا . فَقَالَتْ لِي أُمِّي : يَا أَنَسُ لَا يَرْضِعُهُ أَحَدٌ حَتَّى تَغْدُوَ بِهِ عَلَ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لَمَّا أَصْبَحَ احْتَمَلْتُهُ فَأَنْطَلَقْتُ بِهِ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ذَكَرَ تَمَامَ الْحَدِيثِ

44.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아부 탈하(Abu Talhah)에게 병든 자식이 있었다. 아버지는 외출을 해야만 했고 그 동안에 아들은 죽고 말았다. 아버지가 외출에서 돌아와 아내에게 아들의 소식을 물었다. 아이의 어머니 움무 술라임(Um Sulaim)이 대답했다. “전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저녁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저녁을 아내와 함께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마침내 아내는 남편에게 장례 준비를 해달라는 말을 꺼냈다. 아침이 되어 아부 탈하는 사도를 찾아가 그 사건의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어제 저녁에 함께 있었나요?” 그렇다고 탈하가 대답했다. 사도께서 기도하셨다. “주여, 그 둘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 후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탈하가 나(아나스)에게 신생아를 안히고 사도에게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 그는 얼마의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갔다. 사도께서 물으셨다. “그에게 어떤 것이라도 있소?” 아부 탈하가 대답했다. “예, 약간의 종려나무 열매가 있어요.” 사도께서 열매 하나를 가져가 입에 넣어 씹어 그 아이의 입속에 넣은 후 축복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압둘라(Abdullah)로 지으셨다. (Bukhari and Muslim).

부카리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븐 우야이나(Ibn Uyainah)가 이야기하고 있다. 안사리 출신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압둘라의 아홉 명의 아들 모두가 꾸란을 암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와 관련하여 무슬림의 전언은 이렇다. 움무 술라임 아내에게서 얻은 아부 탈하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아부 탈하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말

아요. 내가 직접 이야기 하겠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남편 저녁상을 차렸다. 남편은 식사도 하고 음료수도 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일상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몸단장을 하고 남편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아부 딸하, 무엇을 빌려주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오려 할 때 차용인, 즉 빌려간 사람은 그것을 막을 수 있나요?” 남편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와 관련하여 아내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에게 일어난 것에 대하여 알라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것은요?” 이 말을 듣고 딸하는 당황하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잠자리를 함께 할 때까지도 아들의 소식에 대해 나를 바보로 만들었군요.” 그리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를 찾아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보낸 밤에게 알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아내는 임신을 하였다.

그 후 사도는 여행길에 올랐고 딸하와 그의 아내도 함께 하였다. 사도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밤을 타고 메디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들이 메디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피로가 쌓여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딸하는 아내와 함께 처지게 되었고 사도는 발걸음을 계속하셨다. 아부 딸하는 기도하였다. “주여, 당신만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외출할 때 그리고 외출에서 돌아오실 때 제가 얼마나 더 사도를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움무 술라임이 말했다. “아부 딸하, 저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서둘러 가요.” 그리하여 그들은 서둘러 돌아왔고 메디나 근처에 도달하여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였다. 아나스가 말을 계속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사도에게 이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아이에게 젖을 빨려서는 안된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나는 아이를 안고 갔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٤٥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يْسَ الشَّدِيدُ بِالصُّرْعَةِ ، إِنَّمَا الشَّدِيدُ الَّذِي يَمْلِكُ نَفْسَهُ عِنْدَ الْغَضَبِ » متفق عليه

4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상대자를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강자가 아니에요. 강자란 화가 났을 때 자신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자이지요.” (Bukhari and Muslim).

٤٦ - وَعَنْ سُلَيْمَانَ بْنِ صُرَ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نْتُ جَالِبًا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رَجُلَانِ يَسْتَبْئِرَانِ ، وَاحِدُهُمَا قَدْ احْمَرَّتْ وَجْهُهُ . وَانْتَفَحَتْ أَوْدَاجُ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ي لَا أَعْلَمُ كَلِمَةً لَوْ قَالَتْهَا لَذَهَبَ عَنْهُ مَا يَجِدُ ، لَوْ قَالَ : أَ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 ذَهَبَ مِنْهُ مَا يَجِدُ . فَقَالُوا لَهُ : إِ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تَ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 متفق عليه

46. 술레이만(Sulaiman bin Surad)이 전하고 있다. 사도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넘어지면서 심한 말싸움을 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그의 목 정맥이 부어올랐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알고 있는 문구(예배)를 만일 그가 반복할 수 있다면 그는 현재 그의 위치에서 벗어날 것이요. 만일 그가, ‘알라 하나님여, 저주스러운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Auzu billahi mina shaitani rajim).’ 라고 말한다면 그는 현재 그의 위치에서 벗어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주스러운 사탄으로부터 알라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시오.” (Bukhari and Muslim).

٤٧ - وَعَنْ مُعَاذِ بْ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كَتَمَ غَيْظًا ، وَهُوَ قَادِرٌ عَلَى أَنْ يُنْفِذَهُ ، دَعَاهُ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عَلَى رُؤُوسِ الْخَلَائِقِ يَوْمَ الْقِيَامَةِ حَتَّى يُخَيَّرَهُ مِنْ الْحُورِ الْعِينِ مَا شَاءَ » ،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4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무아즈(Mu'az bin Anas)가 전하고 있다. “복수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자제하는 자가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활의 날 모든 피조물에 앞서 눈이 새까만 후르아인의 여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Abu Dawood and Tirmizi).

٤٨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رَجُلًا قَالَ لِ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وْصِنِي ، قَالَ : « لَا تَغْضَبْ ، فَتَرُدَّ دَمِيرَارًا ، قَالَ : « لَا تَغْضَبْ ، رواه البخاري

4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사도를 찾아와 충고를 부탁하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화내지 마시오.”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화내지 마시오.” (Bukhari).

٤٩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ا يَزَالُ الْبَلَاءُ بِالْمُؤْمِنِ وَالْمُؤْمِنَةِ فِي نَفْسِهِ وَوَلَدِهِ وَمَالِهِ حَتَّى يَلْقَى اللَّهَ تَعَالَى وَمَا عَلَيْهِ خَطِيئَةٌ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4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신앙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것을 비롯한 자식, 재물 등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신앙인이 알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와 관련된 그 신앙인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요.” (Tirmizi).

• - وَ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دِمَ عُبَيْدَةُ بْنُ حِصْنٍ
فَنَزَلَ عَلَى ابْنِ أَخِيهِ الْحُرِّ بْنِ قَبَسٍ ، وَكَانَ مِنَ النَّفَرِ الَّذِينَ يُدْنِيهِمْ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 وَكَانَ الْغُرَّةُ أَصْحَابَ مَجْلِسِ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وَمُشَاوَرَتِهِ كَهُولًا كَانُوا أَوْ شُبَّانًا ، فَقَالَ عُبَيْدَةُ لَابْنِ أَخِيهِ : يَا ابْنَ
أَخِي لَكَ وَجْهٌ عِنْدَ هَذَا الْأَمِيرِ فَاسْتَأْذِنْ لِي عَلَيْهِ ، فَاسْتَأْذَنَ فَأَذِنَ
لَهُ عُمَرُ . فَلَمَّا دَخَلَ قَالَ : هَيْ يَا ابْنَ الْخَطَّابِ ، فَوَاللَّهِ مَا تُعْطِينَا
الْجَزَلَ وَلَا تَحْكُمُ فِينَا بِالْعَدْلِ ، فَغَضِبَ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حَتَّى
هَمَّ أَنْ يُوقِعَ بِهِ ، فَقَالَ لَهُ الْحُرُّ : يَا أَمِيرَ الْمُؤْمِنِينَ إِنَّ اللَّهَ تَعَالَى قَالَ
لِنَبِيِّ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خُذِ الْعَفْوَ وَأْمُرْ بِالْعُرْفِ وَأَعْرِضْ عَنْ
الْجَاهِلِينَ [الْأَعْرَافُ : ١٩٨] وَإِنَّ هَذَا مِنَ الْجَاهِلِينَ ، وَاللَّهُ مَا جَاوَزَهَا
عُمَرُ حِينَ تَلَاهَا ، وَكَانَ وَقَافًا عِنْدَ كِتَابِ اللَّهِ تَعَالَى . رواه البخاري

50.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우아이나(Yuainah bin Hisn)가 메디나에 와서 그의 조카 후르(Hurr bin Qais)에게서 머물렀다. 후르는 우마르(Umar)와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그가 주재하는 회의에 동참하는 명예도 가진 인물이었다. 꾸란을 암송하는 자들이 성인이거나 젊은이들을 불문하고 우마르의 회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우아이나가 후르에게 부탁을 했다. ‘사랑하는 조카여, 너는 신앙인들의 통치자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내가 그분을 뵈을 수 있도록 그분의 허락을 받아줄 수 있겠는가?’ 마침내 후르는 우마르의 허락을 얻어냈다.

우아이나는 우마르에게 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카탑의 아들 우마르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우마르는 화가 치밀어 그를 구타하려고 했다. 이때 후르가 말했다. ‘신앙인들의 통치자여,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에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며 무지한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하셨습니다.(7:199). 이 분 후르는 무지한 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후르가 이 말을 되풀이 하자 우마르

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알라
하나님의 책 꾸란을 따랐다.” (Bukhari).

٥١ - وَ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هَا سَتَكُونُ بَعْدِي أُمَّةٌ وَأُمُورٌ تُشْكِرُونَهَا ! قَالُوا : يَا رَسُولَ
اللَّهِ فَمَا تَأْمُرُنَا ؟ قَالَ : تُؤَدُّونَ الْحَقَّ الَّذِي عَلَيْكُمْ ، وَتَسْأَلُونَ اللَّهَ الَّذِي
عَلَيْكُمْ ، متفق عليه

5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마스우드(Ibn Mas'ud)가 전하고
있다. “나 이후에는 차별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요.” 한 교우가 물었다. “사도여,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여러
분의 책임을 완수하면서 알라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시오.”
(Bukhari and Muslim).

٥٢ - وَعَنْ أَبِي بَحْتَّى أُسَيْدِ بْنِ حُضَيْرٍ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جُلًا مِنَ
الْأَنْصَارِ 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أَلَا تَسْتَعْمِلُنِي كَمَا اسْتَعْمَلْتَ فُلَانًا فَقَالَ :
« إِنَّكُمْ سَتَلْفُونَ بَعْدِي أُمَّةً ، فَاصْبِرُوا حَتَّى تَلْقَوْنِي عَلَى الْخَوْضِ »
متفق عليه

52. 우싸이드(Usayd bin Huzair)가 전하고 있다. 안사리 출신의
한 신앙인이 사도에게 요구를 하였다. “사도여, 왜 당신은 어떤 사람
을 채용하는 것처럼 저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차별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천국에 있는
카우싸르(Kausar) 샘에서 만날 때까지 인내하시오.” (Bukhari and
Muslim).

٥٣ - وَعَنْ أَبِي إِبْرَاهِيمَ عَبْدِ اللَّهِ بْنِ أَبِي أَوْفَى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بعض أيامه النبي لقي فيها العدو ، انتظر حتى
 إذا مالت الشمس قام فيهم فقال : «يا أيها الناس لا تتمنوا لقاء
 العدو ، واسألوا الله العافية ، فإذا لقيتموهم فاصبروا ، وأعلموا
 أن الجنة تحت ظلال السيوف» ثم 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اللهم
 منزل الكتاب ومجري السحاب وهازم الأحزاب ، اهزمهم
 وانصرنا عليهم» متفق عليه وبالله التوفيق .

53. 압둘라(Abdullah bin Abi Aufa)가 전하고 있다. 어느 원정에
 서 사도께서는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서있는 상태에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싸움을 유발시키지 말고 보호와 안
 전을 알라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그러나 적과 대치할 때는 인내하면
 서 천국이 검의 그림자 밑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오.” 그런 후 사
 도께서 기도하셨다. “주여, 성서를 내리신 분이여, 구름을 이동시키
 는 분이시여, 당파들을 파괴하는 분이시여, 저들을 물리쳐 저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 (Bukhari and Muslim).

제4장 진 실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وَكُونُوا مَعَ الصَّادِقِينَ
[التوبة : ١١٩] وقال تعالى : وَالصَّادِقِينَ وَالصَّادِقَاتِ [الأحزاب : ٣٥]
وقال تعالى : فَلَوْ صَدَقُوا اللَّهَ لَكَانَ خَيْرًا لَهُمْ [محمد : ٢١]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이여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정직한 자들과 함께하라 ...】 (9:119) 【실로 진실한 남자 신앙인들과 진실한 여자 신앙인들에게 ...】 (33:35) 【그들은 알라 하나님께 진실하였다면 축복이 그들의 것이었을 것이라 ...】 (47:21)

• 54 - قَالَ قَالَ 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إِنَّ الصَّدْقَ يَهْدِي إِلَى النَّبَرِ وَإِنَّ الْبِرَّ يَهْدِي إِلَى الْجَنَّةِ ، وَإِنَّ
الرَّجُلَ لَيَصْدُقُ حَتَّى يُكْتَبَ عِنْدَ اللَّهِ صِدْقًا ، وَإِنَّ الْكَذِبَ يَهْدِي إِلَى
الْفُجُورِ ، وَإِنَّ الْفُجُورَ يَهْدِي إِلَى النَّارِ ، وَإِنَّ الرَّجُلَ لَيَكْذِبُ حَتَّى
يُكْتَبَ عِنْدَ اللَّهِ كَذِبًا ، متفق عليه

5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진실은 선행이요 선행은 천국으로 통하지요. 진실을 말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 진실한 자로 기록되지요. 거짓은 악이요 악은 지옥으로 통하지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 거짓말쟁이로 기록되지요." (Bukhari and Muslim).

• 55 - الثَّانِي : عَنْ أَبِي مُحَمَّدٍ الْحَسَنِ بْنِ عَلِيٍّ بْنِ أَبِي طَالِبٍ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حَفِظْتُ مِنْ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دَعَا مَا تَرِيكَ

إلى مَالِ بْنِ أَبِي عَمْرٍاءَ ، فَإِنَّ الصَّدَقَ طُمَأْنِينَةٌ ، وَالْكَذِبَ رَيْبَةٌ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صحيح .

55. 하산(Al-Hasan bin Ali)은 사도로부터 배운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의심이 되는 것은 두고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은 집착하시오. 진실은 평안이지만 거짓은 불안이지요.” (Tirmizi).

٥٦ - الثَّالِثُ : عَنْ أَبِي سُفْيَانَ صَخْرِ بْنِ حَرْبٍ . رَضِيَ اللَّهُ عَنْهُ . فِي حَدِيثِهِ الطَّوِيلِ فِي قِصَّةِ هِرَقْلَ . قَالَ هِرَقْلُ : قَمَازَا يَا مُرُكُمُ - يَغْيِ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قَالَ أَبُو سُفْيَانَ : قُلْتُ : يَقُولُ : « اَعْبُدُوا اللَّهَ وَحْدَهُ لَا تُشْرِكُوا بِهِ شَيْئًا ، وَاتَّركُوا مَا يَقُولُ آبَاؤُكُمْ » ، وَيَا مُرْنَا بِالصَّلَاةِ ، وَالصَّدَقِ ، وَالْعَفَافِ . وَالصَّلَاةُ مُتَقَرُّ عَلَيْهِ

56. 아부 수피안(Abu Sufyan Sakhr bin Harb)이 전하고 있다. 헤라클리우스에 대한 긴 이야기다. 헤라클리우스가 말했다.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아부 수피안이 대답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만을 숭배할 것, 그분에게 아무 것도 비유하지 말 것, 조상들이 했던 말을 귀담아듣지 말 것, 예배를 드릴 것, 진실할 것, 정숙할 것 그리고 친인척과 유대를 강화하라고 가르치십니다.” (Bukhari and Muslim).

٥٧ - الرَّابِعُ : عَنْ أَبِي ثَابِتٍ . وَقَيْلٍ : أَبِي سَعِيدٍ . وَقَيْلٍ : أَبِي الْوَلِيدِ . سَهْلِ بْنِ حَنْظَلٍ . وَهُوَ بَدْرِيٌّ .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قَالَ : « مَنْ سَأَلَ اللَّهَ ، تَعَالَى ، الشَّهَادَةَ بِصِدْقِ بَلَّغَهُ اللَّهُ مَنْزِلَ الشَّهَدَاءِ . وَإِنْ مَاتَ عَلَى فِرَاشِهِ » رواه مسلم

5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흘(Sahl bin Huaif)이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 순교하겠다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지위로 격상시켜주십니다.” (Muslim).

٥٨ - الخامس : عَنْ أَبِي هُرَيْرَةَ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غَزَا نَبِيٌّ مِنَ الْأَنْبِيَاءِ صَلَوَاتُ اللَّهِ وَسَلَامُهُ عَلَيْهِمْ فَقَالَ لِقَوْمِهِ : لَا يَتَّبِعَنِي رَجُلٌ مَلَكَ بُضْعَ امْرَأَةٍ . وَهُوَ يُرِيدُ أَنْ يَبْتَنِي بِهَا وَلَمَّا بَنَى بِهَا . وَلَا أَحَدٌ بَنَى بِيُونًا لَمْ يَرْفَعْ سُقُوفَهَا . وَلَا أَحَدٌ اشْتَرَى غَنَمًا أَوْ خَلِيفَاتٍ وَهُوَ يَنْتَظِرُ أَوْلَادَهَا . فَغَزَا فِدَانًا مِنَ الْقَرْيَةِ صَلَاةَ الْعَصْرِ أَوْ قَرِيبًا مِنْ ذَلِكَ ، فَقَالَ لِلشَّمْسِ : إِنَّكَ مَا مُورَةٌ وَأَنَا مَا مُورٌ . اللَّهُمَّ احْبِسْهَا عَلَيْنَا . فَحَبِيسَتْ حَتَّى فَتَحَ اللَّهُ عَلَيْهِ ، فَجَمَعَ الْغَنَائِمَ . فَجَاءَتْ - يَعْنِي النَّارُ - لَنَا كُلُّهَا فَلَمْ تَطْعَمْنَا ، فَقَالَ : إِنَّ فِيكُمْ غُلُولًا . فَلْيُبَايِعْنِي مِنْ كُلِّ قَبِيلَةٍ رَجُلٌ ، فَلَزَقْتُ يَدَ رَجُلٍ بِيَدِهِ فَقَالَ : فِيكُمْ الْغُلُولُ ، فَلْيُبَايِعْنِي قَبِيلَتِكَ ، فَلَزَقْتُ يَدَ رَجُلَيْنِ أَوْ ثَلَاثَةٍ بِيَدِهِ فَقَالَ : فِيكُمْ الْغُلُولُ . فَجَاؤُوا بِرَأْسٍ مِثْلِ رَأْسِ بَقَرَةٍ مِنَ الدَّهَبِ ، فَوَضَعَهَا فَجَاءَتْ النَّارُ فَأَكَلَتْهَا ، فَلَمْ تَحِلْ الْغَنَائِمُ لِأَحَدٍ قَبْلَنَا ، ثُمَّ أَحَلَّ اللَّهُ لَنَا الْغَنَائِمَ لَمَّا رَأَى ضَعْفَنَا وَعَجْزَنَا فَأَحَلَّهَا لَنَا ، مَتَّفِقٌ عَلَيْهِ

5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초기 예언자들 중 한 분이 성전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했다. 결혼한 남자가 집을 갖고 싶은데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자, 혹은 집의 구조는 세웠으나 아직 지붕을 완료하지 못한 자, 혹은 배속에 새끼를 가진 염소나 암낙타를 구입하고서 새끼 출산을 기다리는 자는 나를 따라야한다고 연설한 후 그의 목적지인 마을을 향해 떠났다. 그는 해가 지기 조금 전에 그곳에 도착하여 태양을 보고 말했다. ‘그대가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그분으로부터 성전의 임무를 받았도다.’ 그는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말했다. ‘알라 하나님여, 저희를 위해 태양을 붙잡아주소서.’

알라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정복의 승리를 안겨 주셨다. 번제의 목적으로 전리품들이 수거되어 불에 던져졌으나 그것들은 소각되지 않았다. 그가 말하였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전리품의 일부를 횡령하였으니 이제 각 부족의 대표가 나와의 계약을 갱신합시다.’

이 과정에 한 사람이 예언자의 손을 치며 말했다. ‘여러분 부족 중에 누군가가 횡령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각 부족의 대표가 나와의 계약을 갱신합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손이 예언자의 손을 치자 예언자가 말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횡령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곧장 금송아지 머리와 닭은 머리를 가져와 전리품 가운데 놓았고 불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사도께서 말을 덧붙이셨다. ‘전리품은 우리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알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약자와 생활능력이 없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۵۹ - السَّادِسُ : عَنْ أَبِي خَالِدٍ حَكِيمِ بْنِ حِزَامٍ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بَيْعَانِ بِالْخِيَارِ مَا لَمْ يَتَفَرَّقَا ، فَإِنْ صَدَقَا
 وَبَيْنَا بُورِكَ لهُمَا فِي يَمِينِهِمَا ، وَإِنْ كَتَمَا وَكَذَبَا مُحِقَتْ بَرَكَةُ بَيْعِهِمَا
 مُتَّفَقٌ عَلَيْهِ .

5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킴(Hakim bin Hizam)이 전하고 있다. “거래자 쌍방은 쌍방이 결별하지 않는 한 선택이 가능하지요. 당사자가 진실을 말하고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밝힌다면 쌍방에게는 거래의 축복을 받을 것이나 쌍방이 거짓말을 하고 밝혀야 할 것을 감춘다면 거래의 축복은 지워지지요.” (Bukhari and Muslim).

제5장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الَّذِي يَرَاكَ حِينَ تَقُومُ وَتَقْلُبَكَ فِي السَّاجِدِينَ
 [الشعراء : ٢١٩] وقال تعالى : وَهُوَ مَعَكُمْ أَيْنَمَا كُنْتُمْ [الحديد : ٤]
 وقال تعالى : إِنَّ اللَّهَ لَا يَخْفَىٰ عَلَيْهِ شَيْءٌ فِي الْأَرْضِ وَلَا فِي السَّمَاءِ [آل
 عمران : ٣] وقال تعالى : إِنَّ رَبَّكَ لَبِالْمِرْصَادِ [الفجر : ١٤] وقال تعالى :
 يَعْلَمُ خَائِنَةَ الْأَعْيُنِ وَمَا تُخْفِي الصُّدُورُ [غافر : ١٩] والآياتُ فِي
 الْكِتَابِ كَثِيرَةٌ مَّعْلُومَةٌ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께서는 예배하기 위해 홀로
 서 있는 그대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대가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있을 때도 지켜보고 계시니라】 (26:218-219) 【그분께서는 태초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시며 현존해 계시되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57:4)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폐되지 못하니라.】 (3:5) 【실로 주님께서서는 항상
 감시하고 계시니라.】 (89:14) 【알라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기만하는 술
 책과 인간의 마음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40:19)

٦٠ - وَأَمَّا الْأَحَادِيثُ ، فَالْأَوَّلُ : عَنْ عُمَرَ بْنِ الْخَطَّابِ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بَيْنَمَا نَحْنُ جُلُوسٌ عِنْدَ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ذَاتَ
 يَوْمٍ إِذْ طَلَعَ عَلَيْنَا رَجُلٌ شَدِيدُ بَيَاضِ الثِّيَابِ ، شَدِيدُ سَوَادِ الشَّعْرِ ،
 لَا يُرَىٰ عَلَيْهِ أَثَرُ السَّفَرِ ، وَلَا يَعْرِفُهُ مِنَّا أَحَدٌ ، حَتَّى جَلَسَ إِلَى النَّبِيِّ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أَسْتَدْرَكَ بَيْنَهُ إِلَى رُكْبَتَيْهِ ، وَوَضَعَ كَفَّيْهِ عَلَى
 فَخْذَيْهِ وَقَالَ : يَا مُحَمَّدُ أَخْبِرْنِي عَنِ الْإِسْلَامِ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الإسلام أن ت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 و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وتقيم الصلاة ، وتؤتي الزكاة ، وتصوم رمضان ، وتحج البيت إن
استطعت إليه سبيلاً . قال : صدقت . فعجبنا له بسأله ويصدق
قال : فأخبرني عن الإيمان . قال : أن تؤمن بالله ، وملائكته ، وكتبه ،
ورسله ، واليوم الآخر ، وتؤمن بالقدر خيره وشره . قال : صدقت .
قال : فأخبرني عن الإحسان . قال : أن تعبد الله كأنك تراه ، فإن
لم تكن تراه فإنه يراك . قال : فأخبرني عن الساعة . قال : ما المسؤول
عنها بأعلم من السائل . قال : فأخبرني عن آياتها . قال : أن تليد
الامة رببتها ، وأن ترى الحفاة العرأة العالة رعاء الشاء يتطاولون
في البنيان . ثم انطلق ، فكتب ملياً ، ثم قال : يا عمر أتدري من
سأل ؟ قلت : الله ورسوله أعلم . قال : فإنه جبريل أتاكم يعلمكم
أمر دينكم . رواه مسلم .

60.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우
리가 사도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을 때 새하얀 옷을 입고 새까만 머
리에 여행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도 옆에 앉았다. 우리 중에 그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의 두 무릎을 사도의 두 무릎에 맞대고 그리고 그의 두 손은 그의
허벅지에 얹고서 사도에게 질문하였다. “무함마드여, 이슬람에 관하
여 전해주시오.” 그러자 사도가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 한 분 외
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
도라고 선서한 후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라마단의 단식
을 실천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성지순례를 가는 것을 두고 이슬람이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옳았소.” 우리
는 그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고서 또 답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당신이 옳았소 라고 말하는 그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또 물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말해주시오.” 사도께서 대

답했다. “알라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종말과 종든 곳든 정해진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옳았소.” 그가 물었다. “바른 실천방법(Ihsan)에 관하여 얘기하여 주세요.” 사도께서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을 섬기되 당신이 그분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섬기고 만일 당신이 그분을 직접 보지 못할 경우는 그분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시오.” 그 남자가 또 질문했다. “심판의 날에 관하여 얘기하여 주시오.” 사도가 대답하셨다.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자가 질문을 한 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요.” 그 남자가 또 물었다. “그것의 징조들에 관하여 얘기하여 주시오.” 사도가 대답하셨다. “하녀가 주인의 아이를 낳고, 맨발에다 벌거벗은 그리고 일전 한 푼 없는 가난한 목동들이 화려한 저택에서 사는 것을 볼 것이요.”

잠시 후 그 남자가 사라졌고 나는 잠시 그곳에 머물러있었다. 그때 사도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마르, 나에게 질문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요?” 나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과 사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자 사도가 말씀하셨다. “그는 바로 여러분에게 종교의 원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온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Muslim).

٦١ - الثَّانِي : عَنْ أَبِي ذَرٍّ جُنْدُبِ بْنِ جُنَادَةَ ، وَأَبِي عَبْدِ الرَّحْمَنِ مُعَاذِ بْنِ جَبَلٍ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عَنْ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قَالَ :
 «اتَّقِ اللَّهَ حَيْثُمَا كُنْتَ وَأَتْبِعِ السَّبِيحَةَ الْحَسَنَةَ تَمَحُّهَا، وَخَالِ النَّاسَ بِحُلِيِّ حَسَنٍ،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بِثُ حَسَنٌ .»

6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자르르(Abu Zarr bin Junadah)와 무아즈(Mu'az bin Jabal)가 전하고 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나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좋은 행위로 그것을 지우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선으로 대하시오.” (Tirmizi).

٦٢ - الثالث : عَنْ ابْنِ عَبَّاسٍ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 كُنْتُ خَلْفَ النَّبِيِّ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يَوْمًا فَقَالَ : « يَا غُلَامُ إِنِّي أَعَلَّمُكَ كَلِمَاتٍ : « أَحَقِّظِ اللَّهَ بِحِفْظِكَ ، أَحَقِّظِ اللَّهَ تَجِدَهُ تُجَاهَكَ إِذَا سَأَلْتَ فَاسْأَلِ اللَّهَ ، وَإِذَا اسْتَعَنْتَ فَاسْتَعِنْ بِاللَّهِ ، وَاعْلَمْ : أَنَّ الْأُمَّةَ لَوِ اجْتَمَعَتْ عَلَى أَنْ يَنْفَعُوكَ بِشَيْءٍ ، لَمْ يَنْفَعُوكَ إِلَّا بِشَيْءٍ قَدْ كَتَبَهُ اللَّهُ لَكَ ، وَإِنْ اجْتَمَعُوا عَلَى أَنْ يَضُرُّوكَ بِشَيْءٍ ، لَمْ يَضُرُّوكَ إِلَّا بِشَيْءٍ قَدْ كَتَبَهُ اللَّهُ عَلَيْكَ ، رُفِعَتِ الْأَقْلَامُ ، وَجَفَّتِ الصُّحُفُ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

وفي رواية غير الترمذي : « أَحَقِّظِ اللَّهَ تَجِدَهُ أَمَامَكَ ، تَعْرِفْ إِلَى اللَّهِ فِي الرَّخَاءِ يَعْرِفْكَ فِي الشَّدَقَةِ ، وَاعْلَمْ : أَنَّ مَا أَخْطَأَكَ لَمْ يَكُنْ لِيُضَيِّكَ ، وَمَا أَصَابَكَ لَمْ يَكُنْ لِيُخْطِئَكَ ، وَاعْلَمْ : أَنَّ النَّصْرَ مَعَ الصَّبْرِ ، وَأَنَّ الْفَرَجَ مَعَ الْكَرْبِ . وَأَنَّ مَعَ الْعُسْرِ يُسْرًا ،

62.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내가 사도의 뒤에 앉아 가고 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너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고 싶구나.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그분의 권리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네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 그분에게서 구하고, 네가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분께 간구하라. 그리고 명심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너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려고 해도 알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너에게 아무 것도 줄 수 없느니라. 그들 모두가 뭉쳐서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해도 알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너를 해칠 수 없노라.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었고 잉크는 말라버렸노라.” (Tirmizi).

그 밖의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 앞에서 그분을 발견할 것이라. 편안할 때 그분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분께서 너를 생각할

것이니라. 너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것이 너를 바르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너를 착한 의지로 안내한 것이 너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 네가 선을 행하도록 한 것이 너를 그릇되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라. 승리는 인내할 때 오는 것이요 변영은 시련 후에 오는 것이며 편안함은 어려움이 있는 후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٦٣ - الرَّابِعُ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 إِنَّكُمْ لَتَعْمَلُونَ أَعْمَالًا هِيَ أَدَقُّ فِي أَعْيُنِكُمْ مِنَ الشَّعْرِ ، كُنَّا نَعُدُّهَا عَلَى عَهْدِ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نَ الْمُؤَبَّاتِ ، رَوَاهُ الْبُخَارِيُّ . وَقَالَ : « الْمُؤَبَّاتُ ، الْمُهِلِكَاتُ . »

63. 아나스(Anas bin Malik)가 말했다. “종종 여러분은 한 개의 머리카락보다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있지만 사도 시절에 우리는 그것들을 치명적인 중대한 악이요 큰 죄로 간주했습니다.” (Bukhari).

٦٤ - الْخَامِسُ : عَنْ أَبِي هُرَيْرَةَ ،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قَالَ : « إِنَّ اللَّهَ تَعَالَى يَخَارُ ، وَغَبْرَةُ اللَّهِ ، تَعَالَى ، أَنْ يَأْتِيَهُ الْمَرْءُ مَا حَرَّمَ اللَّهُ عَلَيْهِ ، مَغْفِقٌ عَلَيْهِ . »

6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존중하시고 당신 스스로의 존중은 당신께서 금지한 행위에 빠진 사람에게 의해 야기되지요.” (Bukhari and Muslim).

٦٥ - السَّادِسُ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هُ سَ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إِنَّ ثَلَاثَةً مِنْ بَنِي إِسْرَائِيلَ : أَبْرَصَ ، وَأَفْرَعَ ، وَأَعْمَى ، أَرَادَ اللَّهُ أَنْ يَسْتَلِيَهُمْ ، فَبَعَثَ إِلَيْهِمْ مَلَكًا ، فَأَتَى الْأَبْرَصَ . »

فَقَالَ : أَيُّ شَيْءٍ أَحَبُّ إِلَيْكَ ؟ قَالَ : لَوْ أَنَّ حَسَنًا ، وَجِلْدًا حَسَنًا ، وَيَدَهُبُ عَنِّي الَّذِي قَدْ قَدَّرَنِي النَّاسُ ، فَمَسَحَهُ فَذَهَبَ عَنْهُ قَدَرُهُ وَأَعْطَانِي لَوْ أَنَّ حَسَنًا . قَالَ : فَأَيُّ الْمَالِ أَحَبُّ إِلَيْكَ ؟ قَالَ : الْإِبِلُ - أَوْ قَالَ الْبَقَرُ - شَكَ الرَّأْيِي - فَأَعْطَانِي نَاقَةً عُسْرَاءً ، فَقَالَ : بَارَكَ اللَّهُ لَكَ فِيهَا .

فَأَتَى الْأَمْرَعَ فَقَالَ : أَيُّ شَيْءٍ أَحَبُّ إِلَيْكَ ؟ قَالَ : شَعْرٌ حَسَنٌ ، وَيَدَهُبُ عَنِّي هَذَا الَّذِي قَدَّرَنِي النَّاسُ ، فَمَسَحَهُ فَذَهَبَ عَنْهُ ، وَأَعْطَانِي شَعْرًا حَسَنًا . قَالَ : فَأَيُّ الْمَالِ أَحَبُّ إِلَيْكَ ؟ قَالَ : الْبَقَرُ ، فَأَعْطَانِي بَقَرَةً حَامِلًا ، وَقَالَ : بَارَكَ اللَّهُ لَكَ فِيهَا .

فَأَتَى الْأَعْمَى فَقَالَ : أَيُّ شَيْءٍ أَحَبُّ إِلَيْكَ ؟ قَالَ : أَنْ يَرُدَّ اللَّهُ إِلَيَّ بَعْرِي فَأُبْعِرَ النَّاسَ ، فَمَسَحَهُ فَرَدَّ اللَّهُ إِلَيْهِ بَعْرَهُ . قَالَ : فَأَيُّ الْمَالِ أَحَبُّ إِلَيْكَ ؟ قَالَ : الْغَنَمُ ، فَأَعْطَانِي شَاةً وَالِدًا . فَأَنْتَجَ هَذَا وَوَلَدَ هَذَا ، فَكَانَ هَذَا وَادٍ مِنَ الْإِبِلِ ، وَهَذَا وَادٍ مِنَ الْبَقَرِ ، وَلِهَذَا وَادٍ مِنَ الْغَنَمِ .

ثُمَّ إِنَّهُ أَتَى الْأَبْرَصَ فِي صُورَتِهِ وَهَيْئَتِهِ ، فَقَالَ : رَجُلٌ مِسْكِينٌ قَدْ انْقَطَعَتْ بِي الْخِيَالُ فِي سَفَرِي ، فَلَا بَلَاحَ لِي الْيَوْمَ إِلَّا بِاللَّهِ ثُمَّ بَكَى ، أَسْأَلُكَ يَا الَّذِي أَعْطَاكَ الْوَنَ الْحَسَنَ ، وَالْجِلْدَ الْحَسَنَ ، وَالْمَالَ ، بَعِيرًا أَنْتَبِّحُ بِهِ فِي سَفَرِي ، فَقَالَ : الْحَقُّوفُ كَثِيرَةٌ . فَقَالَ : كَأَنِّي أَعْرِفُكَ ، أَلَمْ تَكُنْ أَبْرَصَ يَنْقُذُكَ النَّاسُ فَقِيرًا ، فَأَعْطَاكَ اللَّهُ ؟ ! فَقَالَ : إِنَّمَا وَرِثْتُ هَذَا الْمَالَ كَاطِرًا عَنْ كَاطِرٍ ، فَقَالَ : إِنْ كُنْتَ كَذَابًا فَصَبِّرْكَ اللَّهُ إِلَى مَا كُنْتَ .

وَأَتَى الْأَمْرَعَ فِي صُورَتِهِ وَهَيْئَتِهِ ، فَقَالَ لَهُ مِثْلَ مَا قَالَ لِهَذَا ، وَرَدَّ عَلَيْهِ مِثْلَ مَا رَدَّ هَذَا ، فَقَالَ : إِنْ كُنْتَ كَذَابًا فَصَبِّرْكَ اللَّهُ إِلَى مَا كُنْتَ .

وَأَتَى الْأَعْمَى فِي صُورَتِهِ وَهَيْئَتِهِ ، فَقَالَ : رَجُلٌ مِسْكِينٌ وَابْنُ

سَبِيلِ انْقَطَعَتْ بِي الْخِيَالُ فِي سَفَرِي ، فَلَا بِلَاغَ لِي الْيَوْمَ إِلَّا بِاللَّهِ ثُمَّ
 بِكَ ، أَسْأَلُكَ بِالَّذِي رَدَّ عَلَيْكَ بَصَرَكَ شَاءَ أَنْبَلُغُ بِهَا فِي سَفَرِي ؟ قَالَ :
 قَدْ كُنْتُ أَمْسَى فَرَدُّهُ إِلَيَّ بِصَرِي ، فَخُذْ مَا شِئْتَ وَدَعْ مَا شِئْتَ ،
 فَوَافِقْ مَا أَجْهَدُكَ الْيَوْمَ بِشَيْءٍ أَخَذْتَهُ مِنْ عِزِّ وَجَلِّ . قَالَ : أَمْسِكَ
 مَا لَكَ فَلَمَّا ابْتَلَيْتُمْ ، فَقَدْ رَضِيَ اللَّهُ عَنْكَ ، وَتَخَطَّ عَلَى صَاحِبَيْكَ ،
 مَغْنًى عَلَيْهِ

65. 사도로부터 들은 것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세 사람을 시험하기로 하셨다. 한 사람은 나병환자였고 다른 사람은 대머리였으며 또 한 사람은 장님이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하시어 그들에게 보내셨다. 천사는 먼저 나병환자를 찾아와 물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좋은 피부색깔에다 균형 잡힌 용모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병으로부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손으로 그의 몸을 만지자 그의 병은 사라지고 그의 피부색깔이 좋아졌다. 그리고 천사가 물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무엇이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낙타들과 소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임신 10개월 된 암낙타를 갖게 되었다. 천사가 말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머리 남자를 찾아가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아름다운 머리를 갖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탈모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손으로 재빨리 그의 머리를 만지자 그의 탈모병이 완치되고 보기 좋은 머리가 되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재물은 무엇이냐고 천사가 묻자 그는 소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새끼 송아지가 팔린 소 한 마리를 갖게 되었다. 천사가 말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님에게로 가서 물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무엇이에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나의 시력을 회복하여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천사가 손으로 장님의 눈을 만지자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천사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재물은 무엇이에요?” 라고 묻자 그는 염소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는 새끼 한 마리가 딸린 임신한 염소를 갖게 되었다.

이 짐승들은 곧 새끼들을 번식시켜 낙타로 가득한 계곡이 생기고, 소와 황소로 가득 한 계곡이 생기고 염소로 가득 한 계곡이 생겼다.

얼마 지나서 그 천사가 역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병환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가난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행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피부색깔과 균형 잡힌 몸매와 많은 재물을 주신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니 제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낙타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 사람은 호의를 베풀만한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행해야 할 의무가 많아요.” 천사가 말했다. “나는 일전에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당신은 나병환자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였고 그리고 가난했는데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던가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이 모든 재산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옛 시절로 돌아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대머리였던 사람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그 역시 나병환자였던 사람과 비슷한 대답을 하였다. 천사는 그에게도 동일한 말을 남겼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옛 시절로 돌아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천사는 역시 옛 모습을 하고 장님이었던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가난한 여행자입니다. 제가 갖고 재산은 돈이나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켜주신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니 당신께서 저에게 염소 한 마리

만 주시면 그 비용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남겨두세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저는 당신이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이 가지시오. 세 사람 여러분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요 당신의 두 동료들로 인하여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٦٦ - السَّابِعُ : عَنْ أَبِي بَعْلَى شَدَّادِ بْنِ أَوْسٍ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لْكَبِيرُ مَنْ دَانَ نَفْسَهُ ، وَعَمِلَ لِمَا بَعْدَ الْمَوْتِ ، وَالْعَاجِزُ مَنْ اتَّبَعَ نَفْسَهُ هَوَاهَا ، وَتَمَنَّى عَلَى اللَّهِ . .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66. 사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부 야을라 샤다드(Abu Ya'ala bin Shaddad)가 인용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이란 그의 육체적 욕망과 열정이 원하는 것을 감시하며 해로운 것을 자제하고 죽은 후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을 추구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란 자신의 갈망과 욕망에 복종하며 하찮은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기를 알라 하나님께 바라는 자라.” (Tirmizi).

٦٧ - الثَّامِنُ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حُسْنِ إِسْلَامِ الْمَرْءِ تَرْكُهُ مَا لَا يَنْفَعُهُ » حَدَّثَنَا
حَسَنٌ رَوَاهُ التِّرْمِذِيُّ وَغَيْرُهُ

6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이슬람이 훌륭한 사람은 현세에서 또는 내세에서 가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버리지요.” (Tirmizi).

٦٨ - التاسع : عَ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ا يُسْأَلُ الرَّجُلُ فِيمَ قَرَّبَ امْرَأَتَهُ » ، رواه أبو داود وغيره .

6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 아내에게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Abu Dawood and others).

제6장 세상의 유혹과 여성의 유혹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حَقَّ تَقَاتِهِ [آل عمران : ١٠٢] وقال تعالى : فَاتَّقُوا اللَّهَ مَا اسْتَطَعْتُمْ [التغابن : ١٦] وهذه الآية مبينة للمراد من الأولى . وقال الله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وَقُولُوا قَوْلًا سَدِيدًا [الأحزاب : ٧٠] وَالآيَاتُ فِي الْأَمْرِ بِالتَّقْوَى كَثِيرَةٌ مَعْلُومَةٌ ، وقال تعالى : وَمَنْ يَتَّقِ اللَّهَ يَجْعَلْ لَهُ مَخْرَجًا وَيَرْزُقْهُ مِنْ حَيْثُ لَا يَحْتَسِبُ [الطلاق : ٢ ، ٣] وقال تعالى : إِنْ تَتَّقُوا اللَّهَ يَجْعَلْ لَكُمْ فُرْقَانًا وَيُكَفِّرْ عَنْكُمْ سَيِّئَاتِكُمْ وَيَغْفِرْ لَكُمْ وَاللَّهُ ذُو الْفَضْلِ الْعَظِيمِ [الأفصاح : ٢٩] وَالآيَاتُ فِي الْبَابِ كَثِيرَةٌ مَعْلُومَةٌ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이여 바른 시각으로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 (3:102) 【최선을 다하여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 (64:16) 【믿는 자들이여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 (33:70) 【그분께서는 생각지도 아니했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라 ...】 (65:3)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을 주실 것이며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 알라 하나님께서는 크게 관대하신 분이시라.】 (8:29)

٦٩ - وَأَمَّا الْأَحَادِيثُ فَالْأَوَّلُ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يلَ : يَا رَسُولَ اللَّهِ مَنْ أَكْرَمُ النَّاسِ ؟ قَالَ : « أَتْقَاهُمْ » . فَقَالُوا : لَيْسَ عَنْ هَذَا نَسْأَلُكَ ، قَالَ : « فَيُؤَسِّفُ نَبِيُّ اللَّهِ بِنُجْبِيِّ اللَّهِ بِنُجْبِيِّ اللَّهِ بِنُجْبِيِّ اللَّهِ بِنُجْبِيِّ اللَّهِ ، قَالَ : لَيْسَ عَنْ هَذَا نَسْأَلُكَ ، قَالَ : « فَعَنْ مَعَادِنِ الْعَرَبِ نَسْأَلُونِي ؟ خِيَارُهُمْ فِي الْجَاهِلِيَّةِ خِيَارُهُمْ فِي الْإِسْلَامِ إِذَا فَتَهُوا ، مَتَّقُوا عَلَيْهِ

69.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질문을 받으셨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명예스럽고 존경받는 받는 누구이신가요?”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지요.” 교우들이 질문하였다. “저희가 당신에게 묻고 있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의 예언자 요셉일 수도 있지요. 그는 야곱의 자손이요, 야곱은 이삭의 자손이며, 이삭은 알라 하나님의 친구(Khalilullah)의 자손이지요.” 그들이 말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부 아랍인들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요? 이슬람 이전에 명예가 있었던 사람들로 그들이 이슬람의 지식을 알려고 한다면 이슬람에서도 역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Bukhari and Muslim).

٧٠ - الثَّانِي : عَنْ أَبِي سَعِيدٍ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 الدُّنْيَا حُلْوَةٌ خَفِيرَةٌ ، وَإِنَّ اللَّهَ مُسْتَخْلِفُكُمْ فِيهَا فَيَنْظُرُ كَيْفَ تَعْمَلُونَ ، فَاتَّقُوا الدُّنْيَا وَاتَّقُوا النَّسَاءَ ، فَإِنَّ أَوَّلَ فِتْنَةٍ بَنِي إِسْرَائِيلَ كَانَتْ فِي النِّسَاءِ » رَوَاهُ مُسْلِمٌ

7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싸이드 쿠드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이 땅은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당신의 대리자를 두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혹과 여성의 매력을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여성 때문이었지요.” (Muslim).

٧١ - الثَّالِثُ : 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انَ يَقُولُ : «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الْهُدَى وَالتَّقَى وَالْعِفَافَ وَالْغِنَى » رَوَاهُ مُسْلِمٌ

71. 압둘라(Abdullah bin Mas'ud)는 사도께서 기도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안내와 바른 신앙심과 순수함과 풍요로움을 당신께 간구합니다.” (Muslim).

٧٢ - الرَّابِعُ : عَنْ أَبِي طَرِيفٍ حَدَّثَنَا بَنِي حَاتِمٍ الطَّائِفِ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مَنْ حَكَّفَ عَلَى يَمِينِهِ ثُمَّ رَأَى أَنْتَقَى إِلَهُ مِنْهَا فَكَلِمَاتٍ اتَّقَوْنِي ، رَوَاهُ مُسْلِمٌ

72. 아디(Adi bin Hatim)가 이야기 하고 있다. 나는 사도가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맹세한 후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자는 더 좋은 것을 수행해야 하지요.” (Muslim).

٧٣ - الْخَامِسُ : عَنْ أَبِي أَمَامَةَ صُدِّي بْنِ عَجْلَانَ الْبَاهِلِ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خْطُبُ فِي حَجَّةِ الْوُدَّاعِ فَقَالَ : «اتَّقُوا اللَّهَ ، وَصَلُّوا خَمْسَكُمْ ، وَصُومُوا شَهْرَكُمْ ، وَأَدُّوا زَكَاةَ أَمْوَالِكُمْ ، وَأَطِيعُوا أَمْرَاءَكُمْ ، تَدْخُلُوا جَنَّةَ رَبِّكُمْ ، رَوَاهُ التِّرْمِذِيُّ ، فِي أَمْرِ كِتَابِ الصَّلَاةِ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73. 아부 우마마 바힐리(Abu Umamah Bahili)가 전하고 있다. 그는 사도께서 고별 순례에서 행한 연설을 들었는데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하고 라마단 달의 단식을 실천하여 이슬람세를 바치며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준비하여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Tirmizi).

제7장 믿음과 의지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لَمَّا رَأَى الْمُؤْمِنُونَ الْأَحْزَابَ قَالُوا : هَذَا مَا وَعَدَنَا
 اللَّهُ وَرَسُولُهُ ، وَصَدَقَ اللَّهُ وَرَسُولُهُ ، وَمَا زَادَهُمْ إِلَّا إِيمَانًا وَتَسْلِيمًا
 [الأحزاب : ٢٢] وقال تعالى : الَّذِينَ قَالُوا لَكُمْ لَتَمُنَّ بِاللَّهِ وَإِنَّا أَوْلَىٰ
 لَكُمْ فَأَخَسْتُوهُمْ فزَادَهُمْ إِيمَانًا وَقَالُوا :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انْقَلَبُوا بِنِعْمَةِ رَبِّهِمْ إِلَىٰ دِفْئِهِمْ فَبِئْسَ الْفِتْنَىٰ لِمَن يَحْمِلُ كِبَاسَهَا
 وَاللَّهُ ذُو فَضْلٍ عَظِيمٍ [آل عمران : ١٧٣ ، ١٧٤] ، وقال تعالى :
 وَتَوَكَّلْ عَلَى الْحَيِّ الَّذِي لَا يَمُوتُ [الفرقان : ٥٨] . وقال تعالى : وَعَلَى
 اللَّهِ فَلْيَتَوَكَّلِ الْمُؤْمِنُونَ [إبراهيم : ١١] . وقال تعالى : فَلَمَّا هَزَمُوا
 فَتَوَكَّلْ عَلَى اللَّهِ [آل عمران : ١٥٩] . والآيات في التَّوَكُّلِ كَثِيرَةٌ
 مَعْلُومَةٌ . وقال تعالى : وَمَنْ يَتَوَكَّلْ عَلَى اللَّهِ فَهُوَ حَسْبُهُ [الطلاق : ٣]
 أي : كافيه : وقال تعالى : إِنَّمَا الْمُؤْمِنُونَ الَّذِينَ إِذَا ذُكِرَ اللَّهُ وَجِلَتْ
 قُلُوبُهُمْ وَإِذَا تُلِيَتْ عَلَيْهِمْ آيَاتُهُ زَادَتْهُمْ إِيمَانًا وَعَلَىٰ رَبِّهِمْ
 يَتَوَكَّلُونَ [الأفال : ٢] والآيات في فضل التَّوَكُّلِ كَثِيرَةٌ مَعْرُوفَةٌ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이 연합군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알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약속한 것이거늘 알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말씀하셨노라. 이리하여 그들에게는 신앙심이 더해지고 알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더해갔노라.】 (33:22)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길 많은 군중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오나니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더욱 두터워지고 이렇게 말하노라. 우리는 알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나니 승리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돌아가노라. 그리하여 그들은 알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고 돌아왔으며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아니 했으니

이는 그들이 알라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 ...】(3:173-174)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의탁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라 ...】(25:58) 【... 믿는 자들은 오로지 알라 하나님께만 의탁해야 하노라.】(14:11) 【... 결정을 내렸을 때는 알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알라 하나님에게 강구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느니라.】(3:159) 【... 알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그분께서 그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니라 ...】(65:3) 【신앙인이란 알라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이며 알라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이니라.】(8:2)

٧٤ - فَلَاؤُلُ . 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لَّمَ : « عُرِضَتْ عَلَيَّ الْأُمَمُ ، فَرَأَيْتُ النَّبِيَّ وَمَعَهُ الرَّهْبَاطُ ، وَالنَّبِيَّ وَمَعَهُ الرَّجُلُ وَالرَّجُلَانِ ، وَالنَّبِيَّ وَلَيْسَ مَعَهُ أَحَدٌ إِذْ رُفِعَ لِي سَوَادٌ عَظِيمٌ فَظَنَنْتُ أَنَّهُمْ أُمِّي ، فَقِيلَ لِي : هَذَا مُوسَى وَقَوْمُهُ وَلَكِنَّ انْظُرْ إِلَى الْأَفْقِ ، فَتَنَظَّرْتُ فَإِذَا سَوَادٌ عَظِيمٌ ، فَقِيلَ لِي : انْظُرْ إِلَى الْأَفْقِ الْآخَرِ ، فَإِذَا سَوَادٌ عَظِيمٌ ، فَقِيلَ لِي : هَذِهِ أُمَّتُكَ ، وَمَعَهُمْ سَبْعُونَ أَلْفًا يَدْخُلُونَ الْجَنَّةَ بِغَيْرِ حِسَابٍ وَلَا عَذَابٍ ، ثُمَّ نَهَضَ فَدَخَلَ مَنْزِلَهُ ، فَخَاضَ النَّاسُ فِي أَوْلِيكَ الَّذِينَ يَدْخُلُونَ الْجَنَّةَ بِغَيْرِ حِسَابٍ وَلَا عَذَابٍ ، فَقَالَ بَعْضُهُمْ : فَلَعَلَّهُمُ الَّذِينَ صَحِبُو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قَالَ بَعْضُهُمْ : فَلَعَلَّهُمُ الَّذِينَ وَلِدُوا فِي الْإِسْلَامِ ، فَلَمْ يُشْرِكُوا بِاللَّهِ شَيْئًا - وَذَكَرُوا أَشْيَاءَ - فَخَرَجَ عَلَيْهِمْ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 مَا الَّذِي تَخُوضُونَ فِيهِ ؟ » فَأَخْبَرُوهُ فَقَالَ : « هُمْ الَّذِينَ لَا يَرْقُونَ ، وَلَا يَسْتَرْقُونَ ، وَلَا يَسْتَطِيرُونَ ، وَعَلَى رَبِّهِمْ يَتَوَكَّلُونَ ، فَقَامَ عُرْكَاشَةُ بْنُ مُحْصِنٍ فَقَالَ : ادْعُ اللَّهَ أَنْ يَجْعَلَ لِي مِنْهُمْ ، فَقَالَ : « أَنْتَ مِنْهُمْ » ثُمَّ قَامَ رَجُلٌ آخَرُ فَقَالَ : ادْعُ اللَّهَ أَنْ يَجْعَلَ لِي مِنْهُمْ فَقَالَ : « سَبَقَكَ بِهَا عُرْكَاشَةُ » ، مَثَقٌ عَلَيْهِ

7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내 꿈에서 여러 집단들이 나타났어요. 나는 조그마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한 예언자와,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예언자들과, 그리고 한 명도 거느리지 않고 있는 예언자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군중이 나타났어요. 나는 그들이 나의 백성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이들은 예언자 모세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지평선을 보세요.’ 나는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군중을 보았어요. 반대편 지평선을 보라고 해서 그쪽을 보았더니 역시 거대한 군중이 또 있었어요.

나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들은 당신의 추종자들로 그들 중에는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고생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7만 명이 있습니다.’ 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으며 추종자들은 심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도와 함께 하여 명예를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고, 무슬림으로 태어나 알라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않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부류가 있었다.

그때 사도께서 밖으로 방에서 나와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토론했는지 대답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마력을 부리지 않고 부적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을 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오직 주님에게 의탁하는 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우카사(Ukasha bin Muhsin)가 자리에서 일어나 알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도 그 부류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그들 중에 하나요.’ 다른 교우가 일어나 똑같은 요구를 하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우카사가 당신보다 앞서 있어요.’ (Bukhari and Muslim). (Bukhari).

٧٥ - الثَّانِي : 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يْسَأُ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انَ يَقُولُ : « اللَّهُمَّ لَكَ أَسْلَمْتُ وَبِكَ آمَنْتُ ، وَعَلَيْكَ تَوَكَّلْتُ ، وَإِلَيْكَ أُنَبِّتُ ، وَبِكَ خَاصَمْتُ . اللَّهُمَّ أَعُوذُ بِعِزَّتِكَ ، لَا إِلَهَ إِلَّا أَنْتَ أَنْ تُضِلَّنِي ، أَنْتَ الْحَيُّ الَّذِي لَا تَمُوتُ ، وَالْجِنُّ وَالْإِنْسُ يَمُوتُونَ ، مَتَّقْ عَلَيْهِ . وَهَذَا لَفْظُ مُسْلِمٍ وَاخْتَصَرَهُ الْبُخَارِيُّ .

75. 사도께서 자주 기도하신 말씀을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주여, 저는 당신에게 귀의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쪽으로 향하여 있고 저에 대한 당신의 심판에 복종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 외에는 숭배할 가치가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나니 제가 방황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인간도 진도 모두가 죽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Bukhari and Muslim).

٧٦ - الثَّالِثُ : 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يْسَأُ قَالَ : «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 ، قَالَهَا إِبْرَاهِيمُ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حِينَ أُلْقِيَ فِي النَّارِ ، وَقَالَهَا مُحَمَّدٌ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حِينَ قَالُوا : « إِنَّ النَّاسَ قَدْ جَمَعُوا لَكُمْ فَاخْشَوْهُمْ فَزَادَهُمْ إِيمَانًا وَقَالُوا :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 ، رَوَاهُ الْبُخَارِيُّ

وَفِي رِوَايَةٍ لَهُ 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 كَانَ آخِرَ قَوْلِ إِبْرَاهِيمَ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حِينَ أُلْقِيَ فِي النَّارِ :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 .

76.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불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알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만이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께서도 그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것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해갔다. 무슬림들도 그렇게 하였다. “주여, 저희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Bukhari).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가 불속에 던져질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주여, 저희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٧٧ - الرَّابِعُ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يَدْخُلُ الْجَنَّةَ أَقْرَامٌ أَفْئِدَتُهُمْ مِثْلُ أَفْئِدَةِ الطَّيْرِ » ، رواه مسلم .

7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천국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새들의 마음처럼 마음이 유순하고 온순한 자들이지요.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덕분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Muslim).

٧٨ - الْخَامِسُ : عَنْ جَابِرٍ رَضِيَ اللَّهُ عَنْهُ غَزَا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بْلَ تَجْدٍ ، فَلَمَّا قَتَ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تَلَ مَعَهُمْ ، فَأَذْرَكْتَهُمُ الْقَائِلَةَ فِي وَادٍ كَثِيرِ الْخِضَاءِ ، فَتَنَزَّ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تَفَرَّقَ النَّاسُ يَسْتَظِلُّونَ بِالشَّجَرِ ، وَتَنَزَّ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تَحْتَ سَمُرَةٍ ، فَعَلَّقَ بِهَا سَيْفَهُ ، وَنِمْنَا نَوْمَةً ، فَإِذَ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دْعُونَا ، وَإِذَا عِنْدَهُ أَعْرَابِيٌّ فَقَالَ : « إِنَّ هَذَا اخْتَرَطَ عَلَيَّ سَيْفِي وَأَنَا نَائِمٌ ، فَاسْتَبَقْتُ وَهُوَ فِي يَدِي صَكًا ، قَالَ : مَنْ يَمْتَعِكُ مِنِّي ؟ قُلْتُ : اللَّهُ - ثَلَاثًا ، وَلَمْ يُعَاقِبْهُ وَجَلَسَ .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 قَالَ جَابِرٌ : كُنَّا مَعَ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ذَاتِ الرِّقَاعِ ، فَإِذَا أَتَيْنَا عَلَى شَجَرَةٍ ظَلِيلَةٍ تَرَكْنَاهَا لِ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جَاءَ رَجُلٌ مِنَ الْمُشْرِكِينَ ، وَسَيْفُ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عَلَّقٌ بِالشَّجَرَةِ ، فَاخْتَرَطَهُ فَقَالَ : تَخَافُنِي ؟ قَالَ : لَا ، قَالَ : فَمَنْ يَمْنَعُكَ مِنِّي ؟ قَالَ : اللَّهُ ، .

وَفِي رِوَايَةِ أَبِي بَكْرٍ الْإِسْمَاعِيلِيِّ فِي صَحِيحِهِ : قَالَ : مَنْ يَمْنَعُكَ مِنِّي ؟ قَالَ : اللَّهُ ، قَالَ : فَسَقَطَ السَّيْفُ مِنْ يَدِهِ ، فَاخْتَارَ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سَّيْفَ فَقَالَ : مَنْ يَمْنَعُكَ مِنِّي ؟ ، فَقَالَ : كُنْ خَيْرَ تَعِيدٍ ، فَقَالَ : وَتَ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 وَأَنْتَ رَسُولُ اللَّهِ ؟ ، قَالَ : لَا ، وَتَكْنِي أَمَامَهُمْ أَنْ لَا أَقَاتِلَكَ ، وَلَا أَكُونَ مَعَ قَوْمٍ يُقَاتِلُونَكَ ، فَخَلَّى سَبِيلَهُ ، فَأَتَى أَصْحَابَهُ فَقَالَ : جِئْتُكُمْ مِنْ عِنْدِ خَيْرِ النَّاسِ .

78.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그는 네자드 지역 원정 때 사도를 수행하였다가 전투가 끝날 무렵 사도와 함께 돌아왔다. 일행은 한낮에 가시나무들로 가득한 계곡에 도착하여 사도께서는 잡목림 밑에서 자리를 잡았고 교우들은 그들을 찾아 이곳저곳 흩어져 앉았다. 사도께서는 칼을 나뭇가지에 걸었다. 우리가 눈을 붙이고 있을 때 사도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잠을 깨어 그분께로 가보았더니 한 사막 유목민이 사도 옆에 앉아 있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 유목민이 나를 향해 나의 칼을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그는 뽑은 칼을 손에 들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부터 누가 당신을 구하여 줄 수 있소?’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소. ‘알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하여 줄 것이요.’ 나는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했소.” 사도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앉아계셨다. (Bukhari and Muslim).

자베르가 전하고 있는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와 함께 자트 리까(Zat Al-Riqqa) 전투에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는 나무그늘을 발견하고 사도께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한 이교도가 그곳에 와 나무에 걸려있는 사도의 칼을 보고 사도에게 말을

꺼냈다.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사도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물었다. “나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사람이 있소?” 사도께서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계시오.”

아부 바크르 이스마일리(Abu Bakr Al-Isma'ili)의 전언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 후 즉시 칼이 그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자 사도께서 그것을 잡고서 말씀하셨다. “나로부터 누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그가 대답했다. “좋은 칼잡이가 되어주시오.” 사도가 그에게 물으셨다.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으며 내가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너는 확신하느냐?” 그는 이 사실을 거절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자에게도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리지요.” 사도께서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그는 그의 부족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장 훌륭한 사람 곁에 있다가 돌아왔소.”

٧٩ - السَّادِسُ : عَ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لَوْ أَنَّكُمْ تَتَوَكَّلُونَ عَلَى اللَّهِ حَتَّى تَوَكَّلِيهِ لَرَزَقَكُمْ كَمَا يَرْزُقُ الطَّيْرَ ، تَغْدُو خِمَاصًا وَتَرُوحُ بِطَانًا ، رَوَاهُ التِّرْمِذِيُّ ، وَقَالَ : حَدِيثٌ حَسَنٌ . »

79.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알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다면 그분께서는 새들에게 제공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들은 텅 빈 위를 가지고 아침에 나가 그것을 가득 채워 저녁에 돌아오지요.” (Tirmizi).

٨٠ - السَّابِعُ : عَنْ أَبِي عِمْرَانَ الْبَرَاءِ بْنِ حَازِبٍ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ا فُلَانُ إِذَا أَوَيْتَ إِلَى فِرَاشِكَ فَقُلْ : اللَّهُمَّ أَنْتَ نَفْسِي ، وَإِنَّكَ تَجَنَّبُ وَتَجَنَّبُ إِلَيْكَ ، وَتَوَكَّلْتُ وَتَوَكَّلْتُ »

أَمْرِي إِلَيْكَ ، وَالْجَنَاتُ ظَهْرِي إِلَيْكَ ، رَحْبَةٌ وَرَحْبَةٌ إِلَيْكَ ، لَا مَلْجَأَ
وَلَا مَنَاجَى مِنْكَ إِلَّا إِلَيْكَ ، أَمَنْتُ بِكِتَابِكَ الَّذِي أَنْزَلْتَ ، وَتَيْبِكَ
الَّذِي أَرْسَلْتَ ، فَإِنَّكَ إِنْ مِتَّ مِنْ لَيْلَتِكَ مِتَّ عَلَى الْفِطْرَةِ
وَإِنْ أَمُوتَ أَمُوتَ غَيْرًا ، مَتَّ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في الصحيحين عَنْ الْبَرَاءِ قَالَ : قَالَ لِ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ذَا أَتَيْتَ مَضْجِعَكَ فَتَوَضَّأْ وَضُوءَكَ لِلصَّلَاةِ ، ثُمَّ اضْطَجِعْ
عَلَى شِقِّكَ الْأَيْمَنِ وَقُلْ : وَذَكَرَ نَحْوَهُ ، ثُمَّ قَالَ : وَاجْعَلْهُنَّ تَعْرَ
مَا تَقُولُ

80. 바라아(Al-Barra bin 'Azib)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나에게 충고하셨어요. 저녁 잠자리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 자신을 당신에게 위탁합니다. 저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집중합니다. 저의 모든 일을 당신께 위임합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당신 없는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내려주신 성서를 믿고 당신이 보낸 당신의 사도를 믿습니다.” 만일 네가 이날 저녁에 죽게 된다면 너는 본성으로 죽는 것이 될 것이요 만일 네가 살아남는다면 더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Bukhari and Muslim).

٨١ - الثَّامِنُ : عَنْ أَبِي بَكْرٍ الصِّدِّيقِ رَضِيَ اللَّهُ عَنْهُ عَبْدِ اللَّهِ بْنِ عُمَانَ
نَ عَامِرِ بْنِ عُمَرَ بْنِ كَعْبٍ بْنِ سَعْدِ بْنِ تَيْمٍ بْنِ مُرَّةَ بْنِ كَعْبِ بْنِ
لُؤَيٍّ بْنِ غَالِبٍ الْقُرَشِيِّ التَّيْمِيِّ رَضِيَ اللَّهُ عَنْهُ - وَهُوَ وَأَبُوهُ وَأُمُّهُ صَحَابَةٌ ،
رَضِيَ اللَّهُ عَنْهُمْ - قَالَ : نَظَرْتُ إِلَى أَقْدَامِ الْمُشْرِكِينَ وَتَحَنُّنُ فِي الْغَارِ
وَهُمْ عَلَى رُؤُوسِنَا فَ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لَوْ أَنَّ أَحَدَهُمْ نَظَرَ تَحْتَ
قَدَمَيْهِ لَأَبْصَرَنَا . فَقَالَ : « مَا ظَنُّكَ يَا أَبَا بَكْرٍ بِالنَّبِيِّنَ اللَّهُ تَالِيَهُمَا
مَتَّقْ عَلَيْهِ

81. 아부 바크르 시디끼(Abu Ba kr Al-Siddqi bin Usman)가 전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우였다. “사도와 내가 사우르(Saur)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메카 사람들이 우리를 추적해 왔다. 나는 그들의 발이 동굴 위에 있는 것에 놀라서 말했다. 사도여, 한 사람이라도 그의 발밑을 내려다보고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께서 말했다. “아부 바크르, 우리는 알라 하나님과 함께 셋이 있소.” (Bukhari and Muslim).

٨٢ - التَّاسِعُ : عَنْ أُمِّ الْمُؤْمِنِينَ أُمِّ سَلَمَةَ ، وَاسْمُهَا هِنْدُ بِنْتُ أَبِي أُمَيَّةَ حَدِيثُهَا الْمَخْرُومِيَّةُ ،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انَ إِذَا خَرَجَ مِنْ بَيْتِهِ قَالَ : « بِسْمِ اللَّهِ ، تَوَكَّلْتُ عَلَى اللَّهِ ،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أَنْ أَضِلَّ أَوْ أَضَلَّ ، أَوْ أَزِلَّ أَوْ أُزِلَّ ، أَوْ أَظْلِمَ أَوْ أَظْلَمَ ، أَوْ أَجْهَلَ أَوْ يُجْهَلَ عَلَيَّ ، حَدِيثٌ صَحِيحٌ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وَغَيْرُهُمَا بِإِسْنَادٍ صَحِيحٍ . قَالَ التِّرْمِذِيُّ : حَدِيثٌ حَسَنٌ صَحِيحٌ ، وَهَذَا لَفْظُ أَبِي دَاوُدَ .

82. 신앙인들의 어머니 움무 살라마(Umm Salamah) 힌드(Hind bint Abi Umayy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외출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하셨지요. “나는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출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하지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달라고 간구해요. 발을 잘못 디디지 않고 한계를 넘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기도하지요. 피해를 주지도 않고 피해를 받지도 않게 하고 조롱하거나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Abu Dawood and Tirmizi).

٨٣ - الْعَاشِرُ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قَالَ - بِعَنِي إِذَا خَرَجَ مِنْ بَيْتِهِ - بِسْمِ اللَّهِ تَوَكَّلْتُ عَلَى اللَّهِ ، وَلَا حَوْلَ وَلَا قُوَّةَ إِلَّا بِاللَّهِ ، يَقَالُ لَهُ : هُدِيََتْ وَكُفِّيتَ وَوُقِّيَتْ ، وَتَنَحَّى عَنْهُ الشَّيْطَانُ » . رَوَاهُ أَبُو دَاوُدَ وَالتِّرْمِذِيُّ ، وَالنَّسَائِيُّ

وغيرهم . وقال الترمذي : حديث حسن ، زاد أبو داود : فيقول : - يَغْنِي الشَّيْطَانُ - لِشَيْطَانٍ آخَرَ: كَيْفَ لَكَ بِرَجُلٍ قَدْ هُدِيَ وَكُفِّي وَوُفِّي؟

8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출하고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죄에 빠진 위험에서 저를 구해줄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알라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분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사람은 바른 길로 안내를 받을 것이요 보호를 받을 것이며 사탄이 그를 피해갈 것입니다. (Abu Dawood, Tirmizi and Nisai).

아부 다우드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사탄이 다른 사탄에게 이렇게 말한다. 안내되고 보호를 받아 구제된 자를 너는 어떻게 정복하겠나?”

٨٤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انَ أَخَوَانِ عَلَى عَهْدِ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كَانَ أَحَدُهُمَا يَأْتِ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الْآخَرُ يَحْتَرِفُ . فَشَكَا الْمُحْتَرِفُ أَخَاهُ لِ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لَعَلَّكَ تُرْزَقُ بِهِ ، رَوَاهُ التِّرْمِذِيُّ بِإِسْنَادٍ صَحِيحٍ عَلَى شَرْطِ مُسْلِمٍ .

84.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사도 시절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한 형제는 사도에게 시중을 들고 다른 형제는 사도의 사업을 돌보았다. 어느 날 후자가 사도에게 생활비를 벌지 않는 전자의 형제에게 대해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지금 그 형제 덕분에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Tirmizi).

제8장 바른 길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فَاسْتَقِمْ كَمَا أَمَرْتُ [هود : ١١٢] وقال تعالى :
 إِنَّ الَّذِينَ قَالُوا رَبُّنَا اللَّهُ ثُمَّ اسْتَقَامُوا تَتَنَزَّلُ عَلَيْهِمُ الْمَلَائِكَةُ أَلَّا
 تَخَافُوا وَلَا تَحْزَنُوا وَأَبْشِرُوا بِالْجَنَّةِ الَّتِي كُنتُمْ تُوعَدُونَ ، نَحْنُ
 أَوْلِيَاؤُكُمْ فِي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فِي الْآخِرَةِ وَلَكُمْ فِيهَا مَا تَشْتَهُي أَنْفُسُكُمْ
 وَلَكُمْ فِيهَا مَا تَدَّعُونَ [فصلت : ٣٠ ، ٣٢]
 وقال تعالى : إِنَّ الَّذِينَ قَالُوا رَبُّنَا اللَّهُ ثُمَّ اسْتَقَامُوا فَ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أُولَئِكَ أَصْحَابُ الْجَنَّةِ خَالِدِينَ فِيهَا جَزَاءً بِمَا كَانُوا
 يَعْمَلُونَ [الأحقاف : ١٣ ، ١٤]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는 명령받은 바른 길을 걸으라 ...】 (11:112) 【우리의 주님은 알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 천사들이 내려와 말하길,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된 천국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너희의 보호자들이라. 너희는 그 안에서 너희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니라.】 (41:30-31) 【우리의 주님은 알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느니라. 그들은 천국의 주인들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46:13-14)

٨٥ - وَعَنْ أَبِي عَمْرٍو ، وَقِيلَ : أَبِي حَمْرَةَ سَفِيَّانَ بْنِ عَبْدِ اللَّ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قُلْ لِي فِي الْإِسْلَامِ قَوْلًا لَا أَسْأَلُ عَنْهُ
 أَحَدًا غَيْرَكَ . قَالَ : « قُلْ : آمَنْتُ بِاللَّهِ : ثُمَّ اسْتَقِيمَ » ، رواه مسلم

85. 수피안(Sufyan bin Abdullah)이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에게 말했어요. “사도여, 이슬람에 관하여 무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후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그에 관하여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후부터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십시오.” (Muslim).

۸۶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فَكْرِيُوا وَتَسَدَّدُوا ، وَاحْكُمُوا أَنَّهُ لَنْ يَنْجُوَ أَحَدٌ مِنْكُمْ بِعَمَلِهِ ، قَالُوا : وَلَا أَنْتَ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 « وَلَا أَنَا إِلَّا أَنْ يَتَغَمَّدَنِي اللَّهُ بِرَحْمَةٍ مِنْهُ وَتَفَضَّلَ » رَوَاهُ مُسْلِمٌ

8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이슬람의 원리들을 엄격하게 따르고 확고부동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사도인 당신조차도 그렇단 말인가요?” 사도께서 대답했다. “나도 안 되지요. 나를 감싸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알라 하나님뿐입니다.” (Muslim).

제9장 우주 만물에 대한 명상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إِنَّمَا أَعْظَمَكُم بَوَاحِدَةٍ أَنْ تَقُومُوا لِلَّهِ مِثْلَى خِثْلٍ بَازٍ
ثُمَّ تَتَفَكَّرُوا [سبا : ٤٦] . وقال تعالى : إِنَّ فِي خَلْقِ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إِخْتِلَافِ اللَّيْلِ وَالنَّهَارِ لَآيَاتٍ لِأُولِي الْأَلْبَابِ . الَّذِينَ يَذْكُرُونَ اللَّهَ
قِيَامًا وَقُعُودًا وَعَلَى جُنُوبِهِمْ وَيَتَفَكَّرُونَ فِي خَلْقِ السَّمَوَاتِ وَالْأَرْضِ
رَبَّنَا مَا خَلَقْتَ هَذَا بَاطِلًا سُبْحَانَكَ . الْآيَاتِ [آل عمران : ١٩٠، ١٩١] .
وقال تعالى : أَفَلَا يَنْظُرُونَ إِلَى الْإِبْلِ كَيْفَ خُلِقَتْ وَإِلَى السَّمَاءِ كَيْفَ
رُفِعَتْ وَإِلَى الْجِبَالِ كَيْفَ نُصِبَتْ وَإِلَى الْأَرْضِ كَيْفَ سُطِحَتْ فَذَكِّرْ
إِنَّمَا أَنْتَ مُذَكِّرٌ [الغاشية : ١٧ ، ٢١] . وقال تعالى : أَفَلَمْ يَسِيرُوا فِي
الْأَرْضِ فَيَنْظُرُوا . الْآيَةِ [الفتح : ١٠] . وَالآيَاتِ فِي الْبَابِ كَثِيرَةٌ .
وَمِنَ الْأَحَادِيثِ الْحَدِيثُ السَّابِقُ : « الْكَبِيرُ مَنْ دَانَ نَفْسَهُ »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충고하노라. 너희는 두 명씩 또는 한 명씩 알라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라 ...】 (34:36) 【하늘과 땅의 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것은 이해하는 자들을 위한 알라 하나님의 징표라.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알라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늘과 땅의 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노라.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무 뜻 없이 창조하지 아니 하셨나니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저희를 유황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3:190-191) 【낙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들은 숙고하지 않느뇨? 하늘은 어떻게 높이 올려졌으며 산들은 어떻게 고정되어 세워졌고 대지는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숙고하지 않느뇨? 경고하라 실로 그대는 경고자일 뿐이라.】 (88:17-21) 【그들은 지상을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지 못하느뇨 ...】 (47:10)

제10장 선행은 빠를수록 좋은 것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فَاسْتَبِقُوا الْخَيْرَاتِ [البقرة : ١٤٨] . وقال تعالى :
وَسَارِعُوا إِلَى مَغْفِرَةٍ مِّن رَّبِّكُمْ وَجَنَّةٍ عَرْضُهَا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أُعِدَّتْ لِلْمُتَّقِينَ [آل عمران : ١٣٣]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을 행함에 서로 경쟁하
라…】 (2:148) 【서둘러 주님께 회개함에 경쟁하라 천국은 하늘과 땅
처럼 넓으나 이는 정의에 사는 백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3:133)

٨٧ - قَالَ أَوَّلُ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بَادِرُوا بِالْأَعْمَالِ الصَّالِحَةِ ، فَيَتَنَاقَضُ اللَّيْلُ
الْمُظْلِمُ يُصْبِحُ الرَّجُلُ مُؤْمِنًا وَيُمْسِي كَافِرًا ، وَيُمْسِي مُؤْمِنًا وَيُصْبِحُ
كَافِرًا ، يَبِيعُ دِينَهُ بِعَرَضٍ مِنَ الدُّنْيَا » رواه مسلم

8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
고 있다. “좋은 일은 서둘러하시오. 캄캄한 밤처럼 일련의 해악이
곧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무슬림으로 아침을 맞이하여 배교
자가 되어 저녁을 맞이할 수 있고 신앙인으로 저녁을 맞이하여 배교
자가 되어 아침을 맞이할 사람도 있지요. 그는 속세를 얻기 위해 그
의 믿음을 팔 준비를 할 것입니다.” (Muslim).

٨٨ - الثَّانِي : عَنْ أَبِي سُرُوحَةَ - بِكسر السين المهملة - وفتحها -
عَقَبَةَ بْنِ الْحَارِثِ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صَلَّيْتُ وَرَأَ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الْمَدِينَةِ الْمَعْمُورَةِ ، فَسَلَّمَ ثُمَّ قَامَ مُسْرِعًا فَتَخَطَّى رِقَابَ النَّاسِ لَا
يَعْرِضُ حُجْرَ نِسَائِهِ ، فَفَزَعَ النَّاسُ مِنْ سُرْعَتِهِ ، فَخَرَجَ عَلَيْهِمْ ،
فَرَأَى أَنَّهُمْ قَدْ حَبَبُوا مِنْ سُرْعَتِهِ ، قَالَ : « ذَكَرْتُ شَيْئًا مِنْ نَبِيٍّ
عِنْدَنَا ، فَكَرِهْتُ أَنْ يَحْبِسَنِي ، فَأَمَرْتُ بِمُسْتَه » رَوَاهُ الْبُخَارِيُّ .
وَفِي رِوَايَةٍ لَهُ : « كُنْتُ خَلَفْتُ فِي الْبَيْتِ تَبْرَأَ مِنَ الْعَدُوِّ ، فَكَرِهْتُ
أَنْ أَبَيَّتَهُ ، . . . وَالتَّبَرُّ ، قَطَعَ ذَهَبٍ أَوْ فِضَّةً .

88. 우트바(Utbah bin Haris)가 전하고 있다. 나는 메디나에서 사도께서 집전한 한낮예배(Salatul Asr)에 함께 하였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는 자들의 사이로 빠져나가 한 부인의 방으로 가셨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가는 모습에 놀랐다. 사도께서 돌아와 서둘러 갔던 이유를 설명하셨다. “집에 두고 온 금불이 때문에 나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을 분배할 준비를 마쳤어요.” (Bukhari).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자선사업으로 쓰려고 둔 금불이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오늘 밤을 보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٨٩ - الثَّالِثُ : عَنْ جَابِ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جُلٌ لِ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وْمَ أَحُدٍ : أَرَأَيْتَ إِنْ قُتِلْتُ فَأَيْنَ أَنَا ؟ قَالَ : « فِي الْجَنَّةِ ، فَأَلْفَى ثَمَرَاتٍ كُنَّ فِي يَدِهِ . ثُمَّ قَاتَلَ حَتَّى قُتِلَ . مُتَّفَقٌ عَلَيْهِ

89.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우흐드 전투 날 한 남자가 사도에게 질문하였다. “지금 제가 이 전투에서 죽는다면 저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사도가 대답하셨다. “천국에요.” 그 남자는 그가 갖고 있던 종려나무 열매 몇 개를 던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전투에 뛰어들어 싸웠다. (Bukhari and Muslim).

٩٠ - الرَّابِع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جَاءَ رَجُلٌ إِلَ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 يَا رَسُولَ اللَّهِ : أَيُّ الصَّدَقَةِ أَكْبَرُ أَجْراً ؟ قَالَ : « أَنْ تَصَدَّقَ وَأَنْتَ صَاحِبٌ صَحِيحٌ تَخْشَى الْفَقْرَ ، وَتَأْمَلُ الْغِنَى ، وَلَا تُنْهَلُ حَتَّى إِذَا بَلَغْتَ الْحُلُقُومَ . قُلْتَ : لِفُلَانٍ كَذَا وَلِفُلَانٍ كَذَا ، وَقَدْ كَانَ لِفُلَانٍ مِثْلُكَ عَلَيْهِ »

90.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한 남자가 사도를 찾아와 자선이 가장 훌륭한 보상이 되느냐고 묻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건강할 때, 당신이 재물을 축적하고 싶은 욕망이 강할 때, 가난이 두려울 때,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을 때 베푸는 자선입니다. 죽음이 당신의 목구멍이 이르러, ‘얼마는 누구에게, 이것은 누구에게’ 라고 말하기 전에 자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의 자선을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٩١ - الْخَامِس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خَذَ سَبَقاً يَوْمَ أُحُدٍ فَقَالَ : « مَنْ يَأْخُذْ مِنِّي هَذَا ؟ فَبَسَطُوا أَيْدِيَهُمْ ، كُلُّ إِنْسَانٍ مِنْهُمْ يَقُولُ : أَنَا أَنَا . قَالَ : « فَمَنْ يَأْخُذُهُ بِحَقِّهِ ؟ فَأَحْجَمَ الْقَوْمُ ، فَقَالَ أَبُو دُجَانَةَ رَضِيَ اللَّهُ عَنْهُ : أَنَا أَخُذُهُ بِحَقِّهِ ، فَأَخَذَهُ فَفَلَقَنِي بِهِ هَامَ الْمُشْرَكِينَ . رَوَاهُ مُسْلِمٌ »

91.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우흐드 전투 날 사도께서 칼을 들고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이 칼을 갖겠는가?” 저요, 저요 하며 모두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그 칼에 대한 모든 의무를 수행하겠는가?” 군중은 주저하였다. 교우 아부 두자나(Abu Dujanah)가 말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칼을 갖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 칼로 상당수 우상숭배자들의 목을 베어버렸다. (Muslim).

٩٢ - السَّادِسُ : عن الزُّبَيْرِ بْنِ عَدِيٍّ قَالَ : أَتَيْنَا أَنَسَ بْنَ مَالِكٍ رَضِيَ اللَّهُ عَنْهُ فَشَكَّوْنَا إِلَيْهِ مَا نَلْقَى مِنَ الْحَجَّاجِ . فَقَالَ : « اصْبِرُوا فَإِنَّ لَا يَأْتِي زَمَانٌ إِلَّا وَالَّذِي بَعْدَهُ شَرٌّ مِنْهُ حَتَّى تَلْقَوْا رَبَّكُمْ » ، سَمِعْتُهُ مِنْ نَبِيِّكُمْ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رواه البخاري .

92. 주바이르(Zubair bin Adiyy)가 전하고 있다. 우리는 아나스(Anas bin Malik)에게 가서 우마위야조 시대의 잔인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보인 푸대접과 고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참고 인내하시오. 각 시대마다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이요. 나는 이 소식을 사도로부터 들었소.” (Bukhari).

٩٣ - السَّابِعُ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بادِرُوا بِالْأَعْمَالِ سَبْعًا ، هَلْ تَنْتَظِرُونَ إِلَّا فَقْرًا مُنْسِيًا ، أَوْ غِيًّا مُطْفِئًا ، أَوْ مَرَضًا مُفْسِدًا ، أَوْ هَرَمًا مُفْنِدًا ، أَوْ مَوْتًا مُجْهِزًا ، أَوْ الدَّجَالَ فَشَرٌّ غَائِبٌ يُنْتَظَرُ ، أَوْ السَّاعَةُ فَالسَّاعَةُ أَدْهَى وَأَمَرُّ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9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다음 일곱 가지 재앙 중 하나라도 당신을 괴롭히기 전에 좋은 일들을 하시오. 가난할 때까지 잊고 기다리겠습니까? 당신을 망치게 할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병들어 괴로워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제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갑자기 죽거나 적그리스도(Dajjal)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나쁜 것들이 그리고 종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 어렵고 더 견디기 어려운 때입니다.” (Tirmizi).

٩٤ - الثامن :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يوم خيبر :
 « لَا عَظِيمَيْنِ هَذِهِ الرَّأْيَةِ رَجُلَانِ يُحِبُّهُمَا اللَّهُ وَرَسُولُهُ ، يَفْتَحُ اللَّهُ عَلَى
 يَدَيْهِ ، قَالَ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 مَا أَحْبَبْتُ الْإِمَارَةَ إِلَّا يَوْمَئِذٍ ، فَتَسَاوَرْتُ
 لَهَا رَجَاءً أَنْ أَدْعَى لَهَا ، فَدَعَ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لِيَّ بْنَ أَبِي
 طَالِبٍ ، رَضِيَ اللَّهُ عَنْهُ ، فَأَعْطَاهُ إِيَّاهَا ، وَقَالَ : « امْشِرْ وَلَا تَلْتَفِتْ حَتَّى
 يَفْتَحَ اللَّهُ عَلَيْكَ » ، فَسَارَ عَلَى شَيْئٍ ، ثُمَّ وَقَفَ وَلَمْ يَلْتَفِتْ ، فَصَرَخَ :
 يَا رَسُولَ اللَّهِ ، عَلَى مَاذَا أَقَاتِلُ النَّاسَ ؟ قَالَ : « قَاتِلْهُمْ حَتَّى يَشْهَدُوا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 وَ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 فَإِذَا فَعَلُوا ذَلِكَ فَقَدْ
 مَنَعُوا مِنْكَ دِمَاءَهُمْ وَأَمْوَالَهُمْ إِلَّا بِحَقِّهَا ، وَحِسَابُهُمْ عَلَى اللَّهِ » ،
 رواه مسلم

94.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카이바르 전투 직전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알라 하나님과 사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군기(軍旗)를 줄 것이요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 우마르가 말했다. ‘나는 결코 사령관이 되겠다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 기회를 갖고 싶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알리(Ali bin Abi Talib)를 불러 군기를 그에게 넘겨주면서 말씀하셨다.’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알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알리가 약간 앞으로 나가 돌아보지 않고 멈추어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사도여, 제가 무엇을 위해 그들과 싸워야합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숭배의 가치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할 때까지 싸워라.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이슬람법 하에서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알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Muslim).

제11장 고심분투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الَّذِينَ جَاهَدُوا فِينَا لَنَهْدِيَنَّهُمْ سُبُلَنَا وَإِنَّ اللَّهَ لَمَعَ الْمُحْسِنِينَ** [العنكبوت : ٦٩] . وقال تعالى : **وَاعْبُدْ رَبَّكَ حَتَّىٰ يَبَاتِكَ الْبَقِيَّةُ** [الحجر : ٩٩] . وقال تعالى : **وَاذْكُرْ اسْمَ رَبِّكَ وَتَبَتَّلْ إِلَيْهِ تَبْتِيلًا** [الزمل : ٨] : أي انقطع إليه . وقال تعالى : **فَ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خَيْرًا يَرَهُ** [الزلزلة : ٧] . وقال تعالى : **وَمَا تَقْدُمُوا لَأَنفُسِكُمْ مِنْ خَيْرٍ تَجِدُوهُ عِنْدَ اللَّهِ هُوَ خَيْرٌ وَأَعْظَمُ أَجْرًا** [الزمل : ٢٠] . وقال تعالى : **وَمَا تُنْفِقُوا مِنْ خَيْرٍ فَلِإِنَّ اللَّهَ يَدْرِي**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나는 틀림없이 나의 길에서 노력하는 자들을 나의 길로 인도하리라.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라.】 (29:69) 【확실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대는 주님만을 경배하라.】 (15:99) 【그대 주님의 이름을 상기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73:8) 【티끌만한 선을 행한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요.】 (99:7) 【…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바친 것은 알라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되나니 …】 (73:20) 【…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선으로 베푸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니라.】 (2:273)

عَلَيْهِ : وَمَا يَزَالُ عَبْدِي يَتَقَرَّبُ إِلَيَّ بِالتَّوَافُلِ حَتَّى أَحِبَّهُ ، فَإِذَا أَحَبَّهُ كُنْتُ سَمْعَهُ الَّذِي يَسْمَعُ بِهِ ، وَبَصَرَهُ الَّذِي يُبْصِرُ بِهِ ، وَيَدَهُ الَّتِي يَبْتَطِشُ بِهَا ، وَرِجْلَهُ الَّتِي يَمْشِي بِهَا ، وَإِنْ سَأَلَنِي أُعْطِيَتْهُ ، وَكَثِيرٌ اسْتَعَاذَنِي لِأَعِذَّتُهُ ، رَوَاهُ الْبُخَارِيُّ

9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적대시하는 자는 나와 싸우는 자라. 나의 종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즉 내가 규정한 의무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접근해 오고, 내가 좋아하는 추가예배를 통해서 계속하여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라. 내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들 때 나는 그의 귀가 되어 들어줄 것이요, 그의 눈이 되어 보아줄 것이며, 그의 손이 되어 잡아줄 것이요, 그의 발이 되어 걸어줄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면 줄 것이요, 나에게 보호를 요청하면 보호하여 줄 것이라.” (Bukhari).

٩٦ - الثانی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ما يرويه عن ربه عز وجل قال : « إِذَا تَقَرَّبَ الْعَبْدُ إِلَيَّ شِبْرًا تَقَرَّبْتُ إِلَيْهِ ذِرَاعًا ، وَإِذَا تَقَرَّبَ إِلَيَّ ذِرَاعًا تَقَرَّبْتُ مِنْهُ بَاعًا ، وَإِذَا أَتَانِي يَمْشِي أَتَيْتُهُ مَرْوَكَةً » رَوَاهُ الْبُخَارِيُّ

9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이 나를 향해서 손 한 뼘을 내밀면 나는 그에게 한 팔 길이를 달려가며, 그가 나를 향해서 한 팔 길이를 펼치면 나는 그에게 두 팔 길이를 달려가고, 그가 나에게 걸어서 오면 나는 그에게 달려서 가노라.” (Bukhari).

٩٧ - الثالث : 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نِعْمَتَانِ مَغْبُونٌ فِيهِمَا كَثِيرٌ مِنَ النَّاسِ : الصَّحَّةُ ، وَالْفَرَاغُ » رَوَاهُ الْبُخَارِيُّ

9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 은혜, 즉 건강과 풍요를 잃습니다.” (Bukhari).

٩٨ - الرابع : 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ان يقوم من الليل حتى تتفطر قدماه ، فقلت له : لم تفعل هذا يا رسول الله ، وقد غفر الله لك ما تقدم من ذنبك وما تأخر ؟ قال : « أفلا أحب أن أكُونَ عَبْدًا شَكُورًا ؟ » متفق عليه . هذا لفظ البخاري ، ونحوه في الصحيحين من رواية المغيرة بن شعبه .

98. 아이샤(Aishah)가 전하고 있다. 밤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 서 있다보니 사도의 두 발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말했지요. “사도여,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도 용서하셨는데 왜 그렇게도 오래 서서 예배를 하시나요?”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요.” (Bukhari and Muslim).

٩٩ - الخامس : 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ها قالت : «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ا دخل العشر أحيا الليل ، وأيقظ أمته ، وجد وشدة الميزر ، متفق عليه »

99. 아이샤(Aishah)가 전하고 있다. “라마단 월말 동안 사도께서는 밤을 지새우며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깨워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크게 강화하셨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١٠٠ - السادس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مؤمن القوي خير وأحب إلى الله من المؤمن الضعيف ولا كل خير . احرم من كل ما ينفعك ، واستغن بآله ولا تمنجز . وإن أصابك شيء فلا تقل : لو أني فعلت كان كذا وكذا ، ولكن قل : قد فعلت »

**قُلْ : قَدَرَ اللَّهُ ، وَمَا شَاءَ فَعَلَ ، فَإِنْ لَوْ تَفْتَحُ مَصَلَّ الشَّيْطَانِ ،
رواه مسلم**

10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보다 강한 신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오.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청하되 포기하지 마시오. 만일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이며, 그분의 뜻이야!’ 라고 말하시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라는 표현은 사탄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Muslim).

**١٠١ - السابع : عن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حُجِبَتْ النَّارُ بِالشَّهَوَاتِ ، وَحُجِبَتِ الْجَنَّةُ بِالْمَكَارِهِ ، مَقْفُ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 حُفَّتْ ، بَدَلْ ، حُجِبَتْ ، وَهُوَ بِمَعْنَاهُ ، أَيْ : بَيْتُهُ وَبَيْتُهَا هَذَا الْحِجَابُ ، فَكَذَا فَعَلَهُ وَتَحَلَّتْ .**

10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지옥은 세속적인 욕망 뒷편에 숨어 있고 천국은 근면한 노동 뒷편에 가려져 있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١٠٢ - الثامن : عن أبي عبد الله حَدَّثَنَا بْنُ الْيَمَانِ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صَلَّيْتُ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ذَاتَ لَيْلَةٍ ، فَافْتَتَحَ الْبَقَرَةَ ،
فَقُلْتُ بِرُكْعٍ هِنْدَ الْمَاتَةِ ، ثُمَّ مَفَى ، فَقُلْتُ بِمُعَلِّي بِهَا فِي رُكْعَةٍ ،
فَمَفَى ، فَقُلْتُ بِرُكْعٍ بِهَا ، ثُمَّ افْتَتَحَ النِّسَاءَ ، فَقَرَأَهَا ، ثُمَّ افْتَتَحَ
آلَ هِمْرَانَ فَقَرَأَهَا ، يَقْرَأُ مُتَرَسِّلًا إِذَا مَرَّ بِآيَةٍ فِيهَا تَسْبِيحٌ سَبْعَ :**

وَإِذَا أَمَرَ بِسُؤَالٍ سَأَلَ ، وَإِذَا أَمَرَ بِتَعَوُّذٍ تَعَوَّذَ ، ثُمَّ رَكَعَ فَجَعَلَ يَقُولُ :
 «سُبْحَانَ رَبِّيَ الْعَظِيمِ ، فَكَانَ رُكُوعُهُ تَخَوُّاً مِنْ قِيَامِهِ ثُمَّ قَالَ : «سَمِعَ
 اللَّهُ لِمَنْ حَمِيدَهُ ، رَبَّنَا لَكَ الْحَمْدُ ، ثُمَّ قَامَ قِيَاماً طَوِيلًا قَرِيباً بِمَا رَكَعَ ،
 ثُمَّ سَجَدَ فَقَالَ : «سُبْحَانَ رَبِّيَ الْأَعْلَى ، فَكَانَ سُجُودُهُ قَرِيباً مِنْ
 قِيَامِهِ ، رَوَاهُ مُسْلِمٌ

102. 후자이파(Huzafah bin Yaman)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밤 나는 사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사도께서는 바까라(Surat Baqqrah) 장을 암기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사도께서 100절정도 암기 하고서 허리 굽힘 단계(Ruku')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계속하여 꾸란을 암기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 허리 굽힘, 허리 세움(Qiyam), 부복(Sajdah), 앉음의 네 단계 동안에 바까라 장 전체를 암기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하여 아알 이므란(Surat Al Imran) 장을 암기하고 또 니싸아(Surat Nisa) 장을 계속하여 암기하셨다. 그분의 발음은 깨끗하고 분명했다. 알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절을 읽을 때는 알라 하나님을 찬양 하셨으며, 그분의 자비를 간구하라는 문구를 읽을 때는 자비를 간구 하였고, 보호를 구하라는 문구를 읽을 때는 보호를 간구하셨다. 그리고 나서야 허리 굽힘 단계로 들어가, '위대하신 주님이시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 라는 문구를 읽으셨다. 허리 굽힘에서 허리 세움 단계로 넘어가면서,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여,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읽으셨다. 그런 후 부복 자세로 들어가, '가장 높이 계시는 주님이시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 라고 하셨는데 부복은 허리 세움과 동일했다.(Muslim).

١٠٢ - التاسع : 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صَلَّيْتُ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لَيْلَةً ، فَأَطَالَ الْقِيَامَ حَتَّى مَضَتْ بِأَمْرِ سَوْءٍ ، قِيلَ : وَمَا مَضَتْ بِهِ ؟ قَالَ : مَضَتْ أَنْ أَجْلِسَ وَأَدْعَهُ . مَغْفِرٌ عَلَيْهِ .

103.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밤 나는 사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분께서 허리 세움(Qiyam) 자세로 오래 서 있을 때 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분께 질문했다. “무엇이 나쁜 행위인가요?”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앞게 만들어 예배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١٠٤ - العاشر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يَنْتَبِعُ الْمَيِّتَ ثَلَاثَةٌ : أَهْلُهُ وَمَالُهُ وَعَمَلُهُ ، فَيَرْجِعُ اثْنَانِ وَيَبْقَى وَاحِدٌ : يَرْجِعُ أَهْلُهُ وَمَالُهُ ، وَيَبْقَى عَمَلُهُ ، مَغْنً عَلَيْهِ . »

10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가 무덤까지 따라가지요. 그 세 가지는 가족과 재물과 업적인데, 그 중 두 가지는 돌아오고 한 가지만 고인을 따라가지요. 즉 가족과 재물은 돌아오고 업적만 고인을 따라가지요.” (Bukhari and Muslim).

١٠٥ - الحادي عشر : 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جَنَّةُ أَقْرَبُ إِلَى أَحَدِكُمْ مِنْ شِرَاكِ تَعْلِيهِ وَالنَّارُ مِثْلُ ذَلِكَ » رواه البخاري

10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마스우드(Ibn Mas'ud)가 전하고 있다. “천국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발 끈 보다 더 가까이 있고 지옥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Bukhari).

١٠٦ - الثاني عشر : عن أبي فراس ربيعة بن كعب الأسلمي عن أبيه ع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مِنْ أَهْلِ الصَّفَ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 كُنْتُ أَبِيتُ مَعَ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تَأْتِيهِ يَوْضُؤُهُ ، »

وَحَاجَتِهِ فَقَالَ : « سَلْتَنِي ، فَقُلْتُ : أَسْأَلُكَ مُرَافَقَتَكَ فِي الْجَنَّةِ .
فَقَالَ : « أَوْ غَيْرَ ذَلِكَ ؟ » ، قُلْتُ : هُوَ ذَلِكَ قَالَ : « فَأَعِنِّي عَلَى تَفْسِيحِ
بِكَثْرَةِ السُّجُودِ » ، رَوَاهُ مُسْلِمٌ

106. 아비 파라스 라비아(Abi Faras Rabi'a bin K'ab)가 전하고 있다. 그는 사도의 하인이며 아흘루 수파(Ahl Suffah) 출신이다. 나는 사도와 함께 하루 밤을 지내면서 몸을 닦기 위한 물과 화장실 용물을 갖다 드리고 했다. 어느 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보렴.” 나는 대답했다. “천국으로 당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분께서 또 물으셨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나는 대답했다. “오직 당신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많이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Muslim).

١٠٧ - الثالث عشر : عن أبي عبد الله - وَيُقَالُ : أَبُو عَبْدِ الرَّحْمَنِ -
ثَوْبَانَ مَوْ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عَلَيْكَ بِكَثْرَةِ السُّجُودِ ، فَإِنَّكَ لَنُ تَسْجُدَ اللَّهَ
سَجْدَةً إِلَّا رَفَعَكَ اللَّهُ بِهَا دَرَجَةً ، وَحَطَّ عَنْكَ بِهَا خَطِيئَةٌ » .
رَوَاهُ مُسْلِمٌ

10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우반(Sauban)이 전하고 있다. “추가예배를 위해 많이 엎드리시오. 한 번 엎드릴 때마다 한 단계씩 여러분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요 한 가지씩의 죄가 떨어질 것입니다.” (Muslim).

١٠٨ - الرابع عشر : عن أبي صَفْوَانَ عَبْدِ اللَّهِ بْنِ بُسَيْرٍ الْأَسَدِيِّ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غَيْرَ النَّاسِ مَنْ طَالَ
عُمُرُهُ وَحَسُنَ حَمَلُهُ » ، رَوَاهُ التِّرْمِذِيُّ ، وَقَالَ : حَدِيثٌ حَسَنٌ .

10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비 사프완 압둘라(Abi Safwan Abdullah bin Busr Al-Aslami)가 전하고 있다. "축복 받은 사람이란 장수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Tirmizi).

١٠٩ - الخامس عشر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غَابَ عَنِّي أَنَسُ بْنُ النَّفَرِ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قِتَالِ بَدْرٍ ،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غِيبْتَ عَنِّي أَوَّلَ قِتَالٍ قَاتَلْتَ الْمُشْرِكِينَ ، لَتَيْنِ اللَّهُ أَشْهَدَنِي قِتَالَ الْمُشْرِكِينَ لَيُبْرِنَ اللَّهُ مَا أَمْنَعُ . فَلَمَّا كَانَ يَوْمُ أَحَدٍ انْكَشَفَ الْمُسْلِمُونَ ، فَقَالَ : اللَّهُمَّ اعْتَدِرْ لِي بِكَ بِمَا مَنَعَ هَؤُلَاءِ - بِعَنِّي أَصْحَابَهُ - وَأَبْرَأُ إِلَيْكَ بِمَا مَنَعَ هَؤُلَاءِ - بِعَنِّي الْمُشْرِكِينَ - ثُمَّ تَقَدَّمَ فَاسْتَقْبَلَهُ سَعْدُ بْنُ مُعَاذٍ ، فَقَالَ : يَا سَعْدُ بْنُ مُعَاذٍ الْهَنَةُ وَرَبُّ الْكَعْبَةِ ، إِنِّي أَجِدُ رِيحَهَا مِنْ دُونِ أَحَدٍ . قَالَ سَعْدٌ : فَمَا اسْتَطَعْتُ يَا رَسُولَ اللَّهِ مَا مَنَعَ ! قَالَ أَنَسٌ : فَوَجَدْنَا بِهِ بَضْعًا وَتَمَانِينَ خَرَبَةً بِالسَّبَبِ ، أَوْ طَعْنَةً بِرُمْحٍ ، أَوْ رَمْبَةً يَسْتَهْمُ ، وَوَجَدْنَاهُ قَدْ قُتِلَ وَمَثَلَ بِهِ الْمُشْرِكُونَ فَمَا حَرَقَهُ أَحَدٌ إِلَّا أَخَذَهُ بِيَتَانِهِ . قَالَ أَنَسٌ : كُنَّا نَرَى أَوْ نَنْظُرُ أَنَّ هَذِهِ الْآيَةَ تَزَلَّتْ فِيهِ وَتِي أَشْبَاهِهِ : مِنَ الْمُؤْمِنِينَ رِجَالٌ صَدَقُوا مَا عَاهَدُوا اللَّهَ عَلَيْهِ [الْأَحْزَابُ : ٢٣] إِلَى آخِرِهَا . مَضَى عَلَيْهِ

109.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나의 삼촌 아나스 빈 나드르(Anas bin Al-Nadr)는 바드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다. 그는 사도님께 이렇게 말했다. "사도여, 당신이 참여한 이교들과의 첫 번째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교들과 싸울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흐드 전투 날 무슬림측은 분명히 패배하였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주여, 무슬림들이 처신했던 것 그리고 이교도들이 침투하여 왔을 때 분열되었던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싸아드(Sa'ad bin Mu'az)를 만나 이

렇게 말했다. “무아즈, 우흐드 아닌 곳으로부터 천국의 냄새가 나오.” 싸아드가 말했다. “사도여, 저는 그의 기사도 정신을 묘사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조카 아나스 빈 말리크가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서 칼에 찔린 상처, 화살과 창에 찔려서 입은 상처들을 80군데 이상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하였습니다. 이교도들은 그의 시체를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갈기갈기 토막을 내어놓아서 어느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의 누이가 그의 손톱을 보고 알아냈습니다.” 아나스가 말했다. “우리는 다음의 꾸란 절이 그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알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맹세를 다 하는 자가 있으며 아직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결심을 바꾸지 아니 하노라.】 (33:23) (Bukhari and Muslim).

۱۱۰ - السادس عشر: عن أبي مسعود عَقْبَةَ بْنِ عَمْرِو الْأَنْصَارِيِّ الْبَ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لَمَّا تَزَكَّتْ آيَةُ الصَّدَقَةِ كُنَّا نَحْمِلُ عَلَى ظُهُورِنَا . فَجَاءَ رَجُلٌ فَتَصَدَّقَ بِشَيْءٍ كَثِيرٍ فَقَالُوا : مُرَاهُ ، وَجَاءَ رَجُلٌ آخَرُ فَتَصَدَّقَ بِصَاعٍ فَقَالُوا : إِنَّ اللَّهَ لَغَنِيٌّ عَنْ صَاعٍ هَذَا ! فَتَزَكَّتِ الَّذِينَ يَكْتُمُونَ الْمُطْرُومِينَ مِنَ الْمُؤْمِنِينَ فِي الصَّدَقَاتِ وَالَّذِينَ لَا يَحِدُونَ إِلَّا جُهْدَهُمْ [التوبة : ۷۹] . مَعْنَى عَلَيْهِ

110. 아부 마스우드 우끄바(Abu Mas'ud bin 'Amr Al-Ansari Al-Badri)가 전하고 있다. 이슬람세에 관한 계시가 내려졌을 때 우리는 자선할 것을 별기 위해 물건을 등에 얹고 나르곤 하였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량의 물건을 자선으로 내놓자 위선자들은 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몇 파운드의 종려나무 열매를 자선으로 내놓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놓은 종려나무 열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음 내용의 계시가 내려졌다. 【믿는 자들 중에 자선을 베푸는 자들과 노동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서 흠집을 찾는 위선자들이 있노라.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롱에 대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니 그들에게는 참혹한 징벌이 있을 것이 라】 (9:79) (Bukhari and Muslim).

١١١ - السابع عشر : عن سعيد بن عبد العزيز ، عن ربيعة بن يزيد ، عن أبي إدريس الخولاني ، عن أبي ذرٍّ جندب بن جندادة ،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ما يرويه عن الله تبارك وتعالى أنه قال : « يا عبادي إني حرمت الظلم على نفسي وجعلته بينكم محرماً فلا تظالموا ، يا عبادي كلُّكم ضالٌّ إلا من هديتُه ، فاستهدوني أهدكم ، يا عبادي كلُّكم جائعٌ إلا من أطعته ، فاستطعموني أطعمكم ، يا عبادي كلُّكم عارٍ إلا من كسوته ، فاستكسوني اكسكم ، يا عبادي إنكم مخطئون بالليل والنهار وأنا أغفر الذنوب جميعاً ، فاستغفروني أغفر لكم ، يا عبادي إنكم لن تبُلغوا ضري فتضرُّوني ، ولن تبُلغوا نقمي فتنتقموني ، يا عبادي لو أن أولكم وآخركم ، وأنسكم وجنكم ، كانوا على اتقى قلب رجلٍ واحدٍ منكم ما زاد ذلك في ملكي شيئاً ، يا عبادي لو أن أولكم وآخركم وأنسكم وجنكم كانوا على أفجر قلب رجلٍ واحدٍ منكم ما نقص ذلك من ملكي شيئاً ، يا عبادي لو أن أولكم وآخركم وأنسكم وجنكم قاموا في صعيد واحد ، فسألوني فأعطيتُ كلَّ إنسانٍ مسألته ، ما نقص ذلك مما عندي إلا كما ينقص الخبث إذا دُخِلَ البحرُ ، يا عبادي إنما هي أعمالكم أحصيها لكم ، ثم أوفيكُم رباًما ، فمن وجد خيراً فليحمد الله ، ومن وجد غير ذلك فلا يلو من إلا نفسه » . قال سعيد : كان أبو إدريس إذا حدث بهذا الحديث جثا على ركبته

رواه مسلم . وروينا عن الإمام أحمد بن حنبل رحمه الله قال : ليس لأهل الشام
حديث أشرف من هذا الحديث

111. 싸이드(Sa'id bin Abdulaziz)가 라비아(Rabi'a bin Yazid)가 전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또 라비아는 아비 이드리스(Abi Idris Al-Khawlani)가 전한 것을 인용하고 있으며, 아비 이드리스는 아부 자르르 준둡(Abu Zarr Jundub bin Junadah)이 전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들이여, 내가 나에 대한 억압을 금지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도 금지하였으니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지 말라.

나의 종들이여, 내가 인도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너희 모두가 방황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인도됨을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나의 종들이여, 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수여받은 자들 외에는 너희 모두가 굶주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나의 종들이여, 나로부터 입을 옷을 수여받은 자들 외에는 너희 모두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입을 옷을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입을 옷을 줄 것이다.

나의 종들이여, 너희가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으되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내게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두를 용서할 것이다.

나의 종들이여, 너희 모두가 나를 해치려하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너희가 해악을 입을 것이요 나를 이롭게 하려 하여도 나를 이롭지 않게 못할 것이며 오히려 너희가 나로부터 이로움을 받을 것이다.

나의 종들이여, 너희 가운데 처음 온 자와 가장 나중에 온 자 그리고 인간과 진 모두가 너희들 중 가장 마음이 경건한 사람처럼 경건하다 해도 나의 왕국을 조금도 증가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종들이여, 너희 가운데 처음에 온 자와 가장 나중에 온 자 그리고 인간과 진 모두가 너희 가운데 가장 마음이 사악한 사람처럼 사악하다 하더라도 나의 왕국을 조금도 감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종들이여, 너희 가운데 처음에 온 자와 가장 나중에 온 자 그리고 인간과 진 모두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 내게 구원한다 하여도 나는 각자에게 그가 요구한 것을 주나 나에게는 감소된 것이 없으니 그것은 마치 바늘을 바다에 넣었다가 들어냈을 경우보다 감소되는 것이 없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실로 내가 너희를 위해 계산하는 것은 너희의 업적으로 내가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상하니 내세에서 좋은 것을 발견한 자는 알라 하나님만을 찬미할 것이요 그 외의 것을 발견한 자는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비난해서는 아니 되니라.” (Muslim).

싸이드는 말했다. 아부 이드리스 카울라니는 이 언행록(Hadith)을 전할 때마다 그는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제 12장 황혼기의 선행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أَوْ لَمْ تُعَمِّرْكُمْ مَا يَتَذَكَّرُ فِيهِ مَنْ تَذَكَّرَ وَجَاءَكُمْ
النَّذِيرُ [فاطر : ٣٧]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안에서 숙고할 충분한 삶을 주지 아니 했더뇨? 또한 너희에게 경고자도 왔었느니라...】 (35:37)

١١٢ - وَأَمَّا الْأَحَادِيثُ فَلِلْأَوَّلِ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أَعَدَّ اللَّهُ لِي أَمْرِي أَخْرَجَ أَجَلَهُ حَتَّى يَلْقَى سِتِّينَ سَنَةً » رَوَاهُ الْبُخَارِيُّ

11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이 60이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용서를 하여 주시느니라.” (Bukhari).

١١٣ - الثَّانِي : عَنْ ابْنِ عَبَّاسٍ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كَا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يَدْخُلُنِي مَعَ أَشْيَاخٍ يَدْرُسُونَ ، فَكَأَنَّهُمْ يَعْصِمُونَهُمْ وَجَدَنِي فِي نَفْسِهِ فَقَالَ : لِمَ يَدْخُلُ هَذَا مَعَنَا وَلَكِنَّا أَبْنَاءُ مِثْلِهِ؟ فَقَالَ عُمَرُ : إِنَّهُ مِنْ حَيْثُ عَلِمْتُمْ! فَدَعَانِي ذَاتَ يَوْمٍ فَأَدْخَلَنِي مَعَهُمْ ، فَمَا رَأَيْتُ أَنَّهُ دَعَانِي يَوْمَئِذٍ إِلَّا لِيُرِيَهُمْ قَالَ : مَا تَقُولُونَ فِي قَوْلِ اللَّهِ تَعَالَى : إِذَا جَاءَ نَصْرُ اللَّهِ وَالْفَتْحُ؟ [الفتح : ١] فَقَالَ بَعْضُهُمْ : أَمِيرُنَا نَحْمَدُ اللَّهَ وَنَسْتَغْفِرُهُ إِذَا نَصَرَنَا وَفَتَحَ عَلَيْنَا . وَسَكَتَ بَعْضُهُمْ فَلَمْ يَقُلْ شَيْئًا . فَقَالَ لِي : أَكْذَلِكَ تَقُولُ يَا ابْنَ عَبَّاسٍ؟ فَقُلْتُ : لَا . قَالَ : فَمَا تَقُولُ؟ قُلْتُ : هُوَ أَجَ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علمته له قال : إذا جاء نصرُ اللهِ والفتحُ وذلك علامةُ أجلك
 فسبح بحمد ربك واستغفره إنه كان تواباً [الفتح : ٣] فقال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 ما أعلم منها إلا ما تقول . رواه البخاري

113.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우마르(Umar)는 바드르 전투에 참여한 어른들의 자리에 나를 끼어주셨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임 교우들이 분개하면서 말했다. ‘우마르는 왜 우리 자식들 나 이 또래에 불과한 그를 우리 회의에 들어오도록 하지?’ 우마르가 그들에 말했다. ‘그는 지식의 본산이요(사도 가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그들과 함께 회의에 나를 초청했다. 나는 그가 단순히 나의 능력과 지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알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가 오면】 (110:1) 라는 꾸란 절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그들 중에 일부가 대답했다. 본 절 안에는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승리를 안겨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용서를 간구해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한편 일부는 침묵만 지키고 아무 말이 없었다. 우마르가 나에게 말했다. ‘이븐 압바스! 내가 말한 것에 너는 동의하니?’ 나는 아니라고 했다. 내가 해야 할 말에 관하여 그가 물기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가 오면이란 의미는 사도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지요.’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참으로서 알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니라.】 (110:3) 우마르가 이븐 압바스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Bukhari).

١١٤ - الثالث : 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ما صلى رسول الله
 صل الله عليه وسلم صلاةً بعد أن نزلت عليه (إذا جاء نصرُ اللهِ والفتحُ)
 إلا يقول فيها : سُبْحَانَكَ رَبَّنَا وَبِحَمْدِكَ ، اللَّهُمَّ اغْفِرْ لِي ، مثنى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في الصحيحين عنها :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كثِرُ أنْ

يَقُولُ فِي رُكُوعِهِ وَسُجُودِهِ : « سُبْحَانَكَ اللَّهُمَّ رَبَّنَا وَبِحَمْدِكَ ،
اللَّهُمَّ اغْفِرْ لِي ، يَتَأَوَّلُ الْقُرْآنَ .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كثِرُ أَنْ يَقُولَ قَبْلَ
أَنْ يَمُوتَ : « سُبْحَانَكَ اللَّهُمَّ وَبِحَمْدِكَ ، أَسْتَغْفِرُكَ وَأَتُوبُ إِلَيْكَ » .
قالت عائشة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ما هذه الكلمات التي أراك أخذتها
تقولها ؟ قال : جعلت لي علامة في أمي إذا رأيتها قلنتها إذا جاء نصر الله
والفتح إلى آخر السورة .
وفي رواية له :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كثِرُ مِنْ قَوْلٍ :
« سُبْحَانَ اللَّهِ وَبِحَمْدِهِ . أَسْتَغْفِرُ اللَّهَ وَأَتُوبُ إِلَيْهِ » . قالت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 أراك تُكثِرُ مِنْ قَوْلٍ : سُبْحَانَ اللَّهِ وَبِحَمْدِهِ ، أَسْتَغْفِرُ اللَّهَ
وَأَتُوبُ إِلَيْهِ ؟ فقال : « أَخْبَرَنِي رَبِّي أَنِّي سَأَرَى عَلَامَةً فِي أُمِّي فَكَذَا
رَأَيْتُهَا أَكثَرَتْ مِنْ قَوْلٍ : سُبْحَانَ اللَّهِ وَبِحَمْدِهِ ، أَسْتَغْفِرُ اللَّهَ وَأَتُوبُ
إِلَيْهِ ، فَقَدْ رَأَيْتُهَا : (إِذَا جَاءَ نَصْرُ اللَّهِ وَالْفَتْحُ) فَتَبَّحْ مَكَّةَ ،
(وَرَأَيْتَ النَّاسَ يَدْخُلُونَ فِي دِينِ اللَّهِ أَنْفُسًا) فَتَبَّحْ بِحَمْدِ رَبِّكَ
وَأَسْتَغْفِرْهُ إِنَّهُ كَانَ تَوَّابًا » .

114.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꾸란 나스르(Surat Al-Nasr) 장이 계시된 후 사도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다음 문구를 암송하셨다. “주여,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소서.” (Bukhari).

부카리(Bukhari)와 무슬림(Muslim)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꾸란의 지시대로 허리굽힘(Ruku')과 엎드림(Sujud)에서 다음 문구를 자주 반복하셨다. “주여, 홀로 찬양받으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소서.”

무슬림(Muslim)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사망하기 전에 다음 문구를 많이 읽으셨다. “주여,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당신에게 관용을 간구하며 당신에게 회개합니다.” 아

이샤가 말했다. “사도여, 제가 당신으로부터 들은 새로운 문구는 무엇인가요?” 사도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슬람 공동체와 관련한 징조를 보게 될 텐데 내가 그 징조를 볼 때 알라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자주 언급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간구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이미 그 징조를 보았어요. 알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가 온다는 것은 바로 메카의 정복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공동체로 집단을 이루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증거이지요. 알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가 도래하면 많은 사람들이 폐지어 이슬람교에 들어오게 되나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께 관용을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분께서는 관용을 베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١١٥ - الرابع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إن الله عز وجل تابع الوحي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بل وفاته ، حتى توفي أكثر ما كان الوحي . متفق عليه

115.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사도의 사망 전 몇 년까지 알라 하나님께서는 보다 빈번하게 계시를 내리셨다. (Bukhari and Muslim).

١١٦ - الخامس : عن جاب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بُعِثْتُ كُلُّ عَبْدٍ عَلَى مَا مَاتَ عَلَيْهِ ، رَوَاهُ مُسْلِمٌ

11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인간 각 개인은 그가 죽은 상태로 부활됩니다." (Muslim).

제 13장 다양한 선행의 길

قال الله تعالى: وَمَا تَفْعَلُوا مِنْ خَيْرٍ فَكَانَ اللهُ بِهِ عَلِيمٌ [البقرة: ٢١٥]
 وقال تعالى: وَمَا تَفْعَلُوا مِنْ خَيْرٍ يَعْلَمْهُ اللهُ [البقرة: ١٩٧] وقال
 تعالى: فَ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خَيْرًا يَرَهُ [الزلزلة: ٧] وقال تعالى:
 مَنْ عَمِلَ صَالِحًا فَلِنَفْسِهِ [الجمعة: ١٥] والآيات في الباب كثيرة
 وأما الأحاديث فكثيرة جداً ، وهي غير منحصرة ، فنذكر طرفاً منها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너희가 자선으로 베푸는 것에 관하여 알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215) […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니라 …] (2:197) [티끌만한 선을 행한 자도 그것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 (99:7) [좋은 일들을 실천한 자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 …] (45:15)

١١٧ - الأول : عن أبي ذر جندب بن جناد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لت يا رسول الله ، أيُّ الأعمالِ أفضلُ ؟ قال : « الإيمانُ باللهِ ، والجهادُ في سبيله » . قلتُ : أيُّ الرقابِ أفضلُ ؟ قال : « أنفسُها عندَ أهلِها ، وأكثرُها تمناً » . قلتُ : فإنَّ كَمْ أفعلُ ؟ قال : « تُعينُ صانعاً أو تُصنعُ لا تُغرقُ »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أَرَأَيْتَ إنْ ضَعُفْتُ عَنْ بَعْضِ الْعَمَلِ ؟ قال : « تَكُنْ شَرَكاً حَتَّى تَمُوتَ فَإِنَّهَا صَدَقَةٌ مِنْكَ عَلَى نَفْسِكَ » ،
 متفق عليه

117. 아부 자르르 준둡(Abu Zarr Jundub bin Junanah)이 전하고 있다. 사도에게 어떤 것들이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나고 묻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성전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주인이 가장 좋아하고 그것의 가격이 가장 비싼 자 중에 있는 자이지요.” 돈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돕거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만일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그것도 당신을 위한 자선이지요.” (Bukhari and Muslim).

١١٨ - الثاني : عن أبي ذرٍّ أيضاً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يُصْبِحُ عَلَى كُلِّ سُلَامَةٍ مِنْ أَحَدِكُمْ صَدَقَةٌ ، فَكُلُّ تَسْبِيحَةٍ صَدَقَةٌ ، وَكُلُّ تَحْمِيدَةٍ صَدَقَةٌ ، وَكُلُّ تَهْلِيلَةٍ صَدَقَةٌ ، وَكُلُّ تَكْبِيرَةٍ صَدَقَةٌ ، وَأَمْرٌ بِالْمَعْرُوفِ صَدَقَةٌ ، وَنَهْيٌ عَنِ الْمُنْكَرِ صَدَقَةٌ . وَيُغْنِي عَنْ ذَلِكَ رَكْعَتَانِ يَرْكَعُهُمَا مِنَ الصُّبْحِ ، رواه مسلم

11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자르르 준둡(Abu Zarr Jundub bin Junanah)이 전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신체 각 부분은 자선을 해야 합니다.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Subhanllah)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지요,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Alhamdulillah)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지요,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La ilaha illallah)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지요, 알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Allahuakhbar)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지요, 선행을 권장하는 것(Amrun bilma'ruf)도 하나의 자선이며, 나쁜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Nahi anilmunkar)도 하나의 자선이지요, 일출 후에 일찍 행하는 두 번의 절(Raka'atani)도 이 모든 것들과 동일하지요.” (Muslim).

١١٩ - الثَّالِثُ عَنْهُ قَالَ : 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عُرِضَتْ عَلَيَّ أَعْمَالُ أُمَّي حَسَنَتُهَا وَسَيِّئُهَا ، فَوَجَدْتُ فِي حَسَنَاتِهَا أَعْمَالَهَا الْأَذَى بِمِطَاطٍ عَنِ الطَّرِيقِ ، وَوَجَدْتُ فِي مَسَاوِيءِهَا أَعْمَالَهَا النَّخَاعَةَ تَكُونُ فِي السَّجْدِ لَا تُدْفَنُ » ، رَوَاهُ مُسْلِمٌ

11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자르르 준둡(Abu Zarr Jundub bin Junanah)이 전하고 있다. “이슬람 공동체의 선행과 악행이 나에게 제시되었는데, 선행 중에 하나는 바른 길을 가는 행인에게 불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요 악행 중에 하나는 이슬람사원에서 가래를 뱉어내 묻지 않는 것입니다.” (Muslim).

١٢٠ - الرَّابِعُ عَنْهُ : أَنْ نَاسًا قَالُوا : يَا رَسُولَ اللَّهِ ، ذَهَبَ أَهْلُ الدُّثُورِ بِالْأُجُورِ ، يُصَلُّونَ كَمَا نُصَلِّي ، وَيَصُومُونَ كَمَا نَصُومُ ، وَيَتَصَدَّقُونَ بِفُغُولِ أَمْوَالِهِمْ . قَالَ : « أَوَلَيْسَ قَدْ جَعَلَ اللَّهُ لَكُمْ مَا تَصَدَّقُونَ بِهِ : إِنْ بَكَلْتَ تَسْبِيحَةً صَدَقَةً ، وَكُلْتَ تَكْبِيرَةً صَدَقَةً ، وَكُلْتَ تَحْمِيدَةً صَدَقَةً ، وَكُلْتَ تَهْلِيلَةً صَدَقَةً ، وَأَمَرَ بِالْمَعْرُوفِ صَدَقَةً ، وَنَهَى عَنِ الْمُنْكَرِ صَدَقَةً وَفِي بَضْعٍ أَحَدِكُمْ صَدَقَةً » ، قَالُوا : يَا رَسُولَ اللَّهِ أَبَاتِي أَحَدُنَا شَهْوَتُهُ ، وَيَكُونُ لَهُ فِيهَا أَجْرٌ ؟ ! قَالَ : « أَرَأَيْتُمْ لَوْ وَضَعَهَا فِي حَرَامٍ أَكَانَ عَلَيْهِ وَزْرٌ ؟ فَكُلْكَ إِذَا وَضَعَهَا فِي الْحَلَالِ كَانَ لَهُ أَجْرٌ » . رَوَاهُ مُسْلِمٌ .

120. 아부 자르르 준둡(Abu Zarr Jundub bin Junanah)이 전하고 있다. 일부 교우들이 사도에게 말했다. “사도여, 좋은 것은 부자들이 거의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배하고, 우리가 단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단식을 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자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자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알라 하나님이며 홀로 찬양 받으소서(Subhanillah)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요, 알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Allahuakhbar)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며, 알라 하나님이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Alhamdulillah)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고,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La ilaha illallah)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자선이지요. 선행을 권장하는 것(Amrun bilma'ruf)도 하나의 자선이며, 나쁜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Nahi anilmunkar)도 하나의 자선이지요.” 그들이 말했다. “사도여 우리 중에 성욕을 가진 자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시켰다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가 합법적으로 성욕을 충족했다면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지요.” (Muslim).

١٢١ - الخامس : عنه قال : قال ل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لم :
« لَا تَحْقِرَنَّ مِنَ الْمَعْرُوفِ شَيْئًا وَلَوْ أَنَّ تَلَقَّى أَخَاكَ بِوَجْهِ طَلِيقٍ »
رواه مسلم.

12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자르르 준둡(Abu Zarr Jundub bin Junanah)이 전하고 있다. “가장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것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기쁜 마음으로 형제를 만나는 것도 선행입니다.” (Muslim).

١٢٢ - السادس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كُلُّ سَلَامَةٍ مِنَ النَّاسِ عَلَيْكَ صَدَقَةٌ كُلُّ يَوْمٍ تَطْلُعُ فِيهِ الشَّمْسُ : تَعْدِلُ بَيْنَ الْاِثْنَيْنِ صَدَقَةٌ ، وَتُعِينُ الرَّجُلَ بِدَابَّتِهِ ، فَتَحْمِلُهُ عَلَيْهَا ، أَوْ تَرْفَعُ لَهُ عَلَيْهَا مَتَاعَهُ صَدَقَةٌ ، وَالْكَلِمَةُ الطَّيِّبَةُ صَدَقَةٌ ، وَبِكُلِّ خَطْوَةٍ تَمْشِيهَا إِلَى الصَّلَاةِ صَدَقَةٌ ، وَتُحِيطُ الْأَذَى عَنِ الطَّرِيقِ صَدَقَةٌ » متفق عليه

ورواه مسلم أيضاً من رواية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هُ خَلِقَ كُلَّ إِنْسَانٍ مِنْ بَنِي آدَمَ مَلَكٍ سِتِينَ وَثَلَاثَةَ مِائَةٍ ، فَمَنْ كَبَّرَ اللَّهَ ، وَحَمِدَ اللَّهَ ، وَهَمَّلَ اللَّهَ ، وَسَبَّحَ اللَّهَ وَاسْتَغْفَرَ اللَّهَ ، وَهَزَلَ حَجَرًا عَنْ طَرِيقِ النَّاسِ أَوْ شَوْكَةً أَوْ عَظْماً مِنْ طَرِيقِ النَّاسِ ، أَوْ أَمَرَ بِمَعْرُوفٍ أَوْ نَهَى عَنْ مُنْكَرٍ ، عَدَدَ السَّبْعِ وَالْثَلَاثَةِ ، فَكَانَ يُنْفِ بِتَوَكُّدٍ وَكَدٍّ زَحْزَحَ نَفْسَهُ مِنَ النَّارِ » .

12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자선은 신체 각 부분에서 나와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날 두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도 자선이며, 탈 것에 오르는 사람을 돕거나 그 위에 짐을 실어주는 것도 자선이지요. 좋은 말 한마디도 자선이며, 예배를 위해 걸어가는 발자국도 자선이요 길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도 자선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무슬림(Muslim)의 전언에서도 사도가 한 말을 아이샤가 전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360개의 관절로 창조되었습니다. 알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Allahuakhbar)라고 말하는 자,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Alhamdulillah)라고 말하는 자,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La ilaha illallah)라고 말하는 자,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Subhanllah)라고 말하는 자, 알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자(Astagfilullah),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인 돌 하나 또는 가시 하나 또는 뼈 조각 하나를 치우는 자, 선행을 권장하는(Amrun bilma'ruf)자, 나쁜 일을 못하도록 제지하는(Nahi anilmunkar)는 누구든 그런 행위의 숫자가 360 이상이면 지옥으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١٢٣ - السابع :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غَدَا إِلَى الْمَسْجِدِ أَوْ رَاحَ ، أَعَدَّ اللَّهُ لَهُ فِي الْجَنَّةِ نَزْلاً كُلَّمَا غَدَا أَوْ رَاحَ مَضَى عَلَيْهِ

12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

고 있다. “아침에 또는 저녁에 예배하기 위해 사원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든 알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١٢٤ - الثامن :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ا نَسَاهُ الْمُسْلِمَاتِ لَا تَحْفِرْنَ جَارَةً لِحَارَتِهَا وَلَوْ فِرْسِينَ شَاةٍ » متفق عليه

12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이여, 염소 정강이에 붙은 살만큼 아주 작은 것을 선물로 보내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시오.” (Bukhari and Muslim).

١٢٥ - التاسع :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لْإِيمَانُ بِيَضْعٍ وَسَبْعُونَ ، أَوْ بِيَضْعٍ وَسِتُّونَ شُعْبَةً : فَأَفْضَلُهَا قَوْلُ لَا إِلَهَ إِلَّا اللَّهُ ، وَأَدْنَاهَا إِمَاطَةُ الْأَذَى عَنِ الطَّرِيقِ ، وَالْحَبَاءُ شُعْبَةٌ مِنَ الْإِيمَانِ » متفق عليه

12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믿음에는 60종류 또는 70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믿음은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은 길목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겸손도 믿음의 한 부류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١٢٦ - العاشر :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بَيِّنَتَا رَجُلٍ يَمْنِي بِطَرِيقٍ اشْتَدَّ عَلَيْهِ الْعَطَشُ ، فَوَجَدَ بَيْتْرًا فَتَزَلَّ فِيهَا فَشَرِبَ ، ثُمَّ خَرَجَ فَإِذَا كَلْبٌ يَلْهَثُ بِأَكْلِ الشَّرَى مِنْ الْعَطَشِ ، قَالَ الرَّجُلُ : لَقَدْ بَلَغَ هَذَا الْكَلْبُ مِنَ الْعَطَشِ مِثْلَ الَّذِي كَانَ قَدْ بَلَغَ مِنِّي ، فَتَزَلَّ الْبَيْتْرَ فَمَلَأَ خُفَّهُ مَاءً ثُمَّ أَمْسَكَهُ بِيَمِيهِ ، حَتَّى رَقِيَ فَسَقَى الْكَلْبَ ، فَشَكَرَ اللَّهُ لَهُ فَغَفَرَ لَهُ ، قَالُوا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لَنَا فِي الْبَهَائِمِ أَجْرًا ؟ فَقَالَ : « فِي كُلِّ كَبِدٍ رَطْبَةٍ أَجْرٌ » متفق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للبخاري : « فَشَكَرَ اللَّهُ لَهُ فَغَفَرَ لَهُ ، فَأَدْخَلَهُ الْجَنَّةَ » .

وفي رواية لهما: «بَيْنَمَا كَلْبٌ يُطِيفُ بِرَكِيَّةٍ قَدْ كَادَ يَقْتُلُهُ الْعَطَشُ إِذْ رَأَاهُ بَغِيٌّ مِنْ بَغَايَا بَنِي إِسْرَائِيلَ، فَتَزَعَّتْ مَوْقَهَا فَاسْتَقَتْ لَهُ بِهِ، فَسَقَتْهُ فَعَفَّرَ لَهَا بِهِ»

12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길을 걷고 있던 한 사람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우물에 도착하여 그 안으로 내려가 물을 실컷 마신 후 밖으로 나왔을 때 갈증을 느낀 개 한 마리가 목을 축이기 위해 흠을 핥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 남자는 중얼거렸어요. ‘저 개도 내가 방금 전에 심한 갈증을 느꼈던 것처럼 저 개도 갈증이 심했나 보구나.’ 그래서 그는 다신 우물 안으로 내려가 가죽 물통에 물을 채워 물통을 입에다 물고 올라와 그 개에게 물을 주었어요.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감사해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지요.” 사도께서 질문을 받았다. “저희도 동물들을 보살펴주면 보상을 받게 됩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살아 있는 모든 생물체에 대한 보살핌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지요.”

부카리의 전언은 알라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감사하시어 그의 천국 입성을 허락하셨다고 끝을 맺고 있다.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심한 갈증을 느낀 개 한 마리가 우물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성질이 고약한 유대인 한 여성이 그녀의 가죽 신발을 우물에 넣어 물을 떠올려서 그 개에게 물을 주었지요.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١٢٧ - الْحَنَادِي عَشَرَ: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قَدْ رَأَيْتُ رَجُلًا يَتَقَلَّبُ فِي الْجَنَّةِ فِي شَجَرَةٍ قَطَعَهَا مِنْ ظَهْرِ الطَّرِيقِ كَانَتْ تُؤْذِي الْمُسْلِمِينَ » . رواه مسلم .

وفي رواية : « مَرَّ رَجُلٌ بِغُصْنِ شَجَرَةٍ عَلَى ظَهْرِ طَرِيقٍ فَقَالَ : وَاللَّهِ لَا تُحْيِيَنَّ هَذَا عَنِ الْمُسْلِمِينَ لَا يُؤْذِيهِمْ » ، فَأَدْخَلَ الْجَنَّةَ .

وفي رواية لها : « بَيْنَمَا رَجُلٌ يَمْشِي بِطَرِيقٍ وَجَدَ عُصْنَ شَوْكٍ عَلَى الطَّرِيقِ ، فَأَخْرَجَهُ فَشَكَرَ اللَّهَ لَهُ ، فَغَفَرَ لَهُ . »

12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천국에서 어슬렁거리는 한 사람을 보았지요. 그는 길가에 있는 나무를 절단하여 무슬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 사람이 길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나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무슬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나무를 절단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착한 생각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길 위에 가시덤불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지요.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١٢٨ - الثَّانِي عَشَرَ :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تَوَضَّأَ فَأَحْسَنَ الوُضُوءَ ، ثُمَّ أَتَى الْجُمُعَةَ ، فَاسْتَمَعَ وَأَنْصَتَ ، غُفِرَ لَهُ مَا بَيْنَهُ وَبَيْنَ الْجُمُعَةِ وَزِيَادَةُ ثَلَاثَةِ أَبْنَامٍ ، وَمَنْ مَسَّ الْحَصَا فَقَدْ لَغَا ، رَوَاهُ مُسْلِمٌ . »

12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예배를 위해 정성스럽게 몸을 닦고(Udu) 금요일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경청한 자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의 죄와 앞으로 3일간의 죄까지 용서를 받지만 설교 중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Muslim).

١٢٩ - الثَّلَاثَ عَشَرَ :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تَوَضَّأَ الْعَبْدُ الْمُسْلِمُ ، أَوْ الْمُؤْمِنُ فَغَسَلَ وَجْهَهُ خَرَجَ مِنْ وَجْهِهِ كُلُّ خُطِيئَةٍ نَظَرَ إِلَيْهَا بِعَيْنِهِ مَعَ الْمَاءِ ، أَوْ مَعَ آخِرِ قَطْرِ الْمَاءِ ، فَإِذَا غَسَلَ يَدَيْهِ خَرَجَ مِنْ يَدَيْهِ كُلُّ خُطِيئَةٍ كَانَ بَطَشَتْهَا يَدَاهُ مَعَ الْمَاءِ ، أَوْ مَعَ آخِرِ قَطْرِ الْمَاءِ ، فَإِذَا غَسَلَ رِجْلَيْهِ خَرَجَتْ كُلُّ خُطِيئَةٍ مَسَّتْهَا رِجْلَاهُ مَعَ الْمَاءِ أَوْ مَعَ آخِرِ قَطْرِ الْمَاءِ حَتَّى يَخْرُجَ نَقِيًّا مِنَ الذُّنُوبِ ، رَوَاهُ مُسْلِمٌ

12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이나 신앙인(Mumin)이 예배를 위해 세수를 하였다면 세수했던 물은 그의 눈이 보았던 모든 죄를 씻어 흘려보내고, 손을 씻었다면 손 씻었던 물은 그의 손이 저지른 모든 죄를 씻어 흘려보내며, 발을 씻었다면 발을 씻었던 물이 그의 발이 저지른 모든 죄를 씻어 흘려보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모든 작은 죄가 씻어진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Muslim).

١٣٠ - الرَّابِعَ عَشَرَ : عَنْهُ عَ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وَالْمَلَأَاتُ الْخَمْسُ ، وَالْجُمُعَةُ إِلَى الْجُمُعَةِ ، وَرَمَضَانُ إِلَى رَمَضَانَ
مُكْفَرَاتٌ لِمَا بَيْنَهُنَّ إِذَا اجْتَنِبْتَ الْكَبَائِرَ ، رَوَاهُ مُسْلِمٌ .

13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큰 죄만 저지르지 않고 예배시간에 맞추어 매일 다섯 차례 예배를 행한다면 금요일과 금요일 사이, 그리고 라마단과 라마단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작은 죄는 용서됩니다.” (Muslim).

١٣١ - الْخَامِسَ عَشَرَ :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لَا أَدُلُّكُمْ عَلَى مَا يَمْحُو اللَّهُ بِهِ الْخَطَايَا ، وَيَرْفَعُ بِهِ الدَّرَجَاتِ ؟ »
قَالُوا : بَلَى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 « إِسْبَاغُ الْوُضُوءِ عَلَى الْمَكَارِهِ
وَكَثْرَةُ الْخُطَا إِلَى الْمَسَاجِدِ ، وَانْتِظَارُ الصَّلَاةِ بَعْدَ الصَّلَاةِ ، فَذَلِكَ يُكْفَرُ
الرِّبَاطُ » رَوَاهُ مُسْلِمٌ .

13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사도여 그렇게 하여주세요.”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예배를 위해 몸을 씻고 자주 사원으로 가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났으면 다음 예배를 기다리시오. 이것은 알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다.” (Muslim).

۱۳۲ - السَّادِسَ عَشَرَ : عَنْ أَبِي وَاسِيٍّ الْأَشْعَ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صَلَّى الْبَرْدَيْنِ دَخَلَ الْجَنَّةَ » ،
متفق عليه

13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예배시간에 맞추어 아침예배(Saltulfazr)와 한낮예배(Salatulasr)를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۱۳۳ - السَّابِعَ عَشَرَ :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ذَا مَرَضَ الْعَبْدُ أَوْ سَافَرَ كُتِبَ لَهُ مِثْلُ مَا كَانَ يَعْمَلُ مُقِيمًا صَحِيحًا » ،
رواه البخاري .

13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의 종이 병에 걸렸을 때는 그가 건강한 상태에서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가 여행을 갔을 때는 집에 있을 때의 상태에서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Bukhari).

۱۳۴ - الثَّامَنَ عَشَرَ : عَنْ جَابِ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كُلُّ مَعْرُوفٍ صَدَقَةٌ » ، رواه البخاري ، ورواه مسلم
من رواية حذيفة رضي الله عنه .

13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모든 선한 행위는 자선입니다.” (Bukhari). 무슬림(Muslim)도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۱۳۴ - التَّاسِعَ عَشَرَ :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ا مِنْ مُسْلِمٍ يَتَغَرَّسُ غَرْماً إِلَّا كَانَ مَا أَكَلَ مِنْهُ لَهُ صَدَقَةٌ ، وَمَا سُرِقَ مِنْهُ لَهُ صَدَقَةٌ ، وَلَا يَزْرَعُ أَحَدٌ إِلَّا كَانَ لَهُ صَدَقَةٌ ، رَوَاهُ مُسْلِمٌ .
 وَفِي رِوَايَةٍ لَهُ : « فَلَا يَتَغَرَّسُ الْمُسْلِمُ غَرْماً ، فَبِئْسَ كُلُّ مِنْهُ إِنْسَانٌ وَلَا دَابَّةٌ وَلَا طَيْرٌ إِلَّا كَانَ لَهُ صَدَقَةٌ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
 وَفِي رِوَايَةٍ لَهُ : « لَا يَتَغَرَّسُ مُسْلِمٌ غَرْماً ، وَلَا يَزْرَعُ زَرْعاً ، فَبِئْسَ كُلُّ مِنْهُ إِنْسَانٌ وَلَا دَابَّةٌ وَلَا ثَمَرٌ إِلَّا كَانَتْ لَهُ صَدَقَةٌ ، وَزَوْبَاهُ جَمِيعاً مِنْ رِوَايَةِ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

13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이 심은 나무 열매를 새나 동물이 먹었다면 그것은 나무를 심은 자의 자선입니다. 도둑을 맞았어도 나무를 심은 자의 자선이며 그리고 분실을 하였어도 그것은 나무를 심은 자의 자선입니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무슬림이 심은 묘목을 사람이나 짐승 또는 새가 묘목의 일부를 뜯어먹었어도 그것은 부활의 날까지 그 묘목을 심은 자의 자선입니다.”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무슬림이 심은 식물이나 재배한 곡식을 사람이나 동물 등 다른 것이 먹었어도 그것은 심은 자의 자선입니다. 이 두 전언은 아나스(Anas)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۱۳۶ - الْعُشْرُونَ : عَنْهُ قَالَ : أَرَادَ بَنُو سَلَمَةَ أَنْ يَنْتَقِلُوا قُرْبَ الْمَسْجِدِ فَبَلَغَ ذَلِكَ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 لَهُمْ : « إِنَّهُ قَدْ بَلَغَنِي أَنَّكُمْ تُرِيدُونَ أَنْ تَنْتَقِلُوا قُرْبَ الْمَسْجِدِ ؟ ، فَقَالُوا :

نَعَمْ يَا رَسُولَ اللَّهِ قَدْ أَرَدْنَا ذَلِكَ، فَقَالَ: «بَنِي سَلِيمَةَ دَبَّارُكُمْ، تُكْتَسَبُ
أَنْفَارُكُمْ، دَبَّارُكُمْ، تُكْتَسَبُ أَنْفَارُكُمْ»، رَوَاهُ مُسْلِمٌ.
وَفِي رِوَايَةٍ: «إِنَّ بِكُلِّ خُطْوَةٍ دَرَجَةٌ»، رَوَاهُ مُسْلِمٌ. وَرَوَاهُ الْبُخَارِيُّ أَيْضًا
بِمَعْنَاهُ مِنْ رِوَايَةِ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136.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바니 살리마(Bani Salimah) 부족은 예언자 사원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예언자 사원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고 한 의도를 알고 싶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래요. 사도여,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사도께서 말했다. ‘바니 살리마 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머무시오. 여러분의 흔적들이 기록됩니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사원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들의 위상을 향상시킵니다. 부카리도 아나스 전언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

١٣٧ - الْحَادِي وَالْعُشْرُونَ: عَنْ أَبِي الْمُنْذِرِ أَبِي بِنِ كَعْبٍ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كَانَ رَجُلٌ لَا أَعْلَمُ رَجُلًا أَبْعَدَ مِنَ الْمَسْجِدِ مِنْهُ،
وَكَانَ لَا تُخَطِّئُهُ صَلَاةٌ قَتِيلَ لَهُ، أَوْ قَتَلَتْ لَهُ: لَوْ اشْتَرَيْتَ حِمَارًا
تَرْمِكُهُ فِي الظُّلُمَاءِ، وَفِي الرَّمْضَاءِ؟ فَقَالَ: مَا يَسُرُّنِي أَنْ مَتَرُنِي إِلَى
جَنْبِ الْمَسْجِدِ، إِنِّي أُرِيدُ أَنْ يُكْتَبَ لِي مَمَشَايَ إِلَى الْمَسْجِدِ،
وَرَجُوعِي إِذَا رَجَعْتُ إِلَى أَهْلِي،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دْ
جَمَعَ اللَّهُ لَكَ ذَلِكَ كُلَّهُ»، رَوَاهُ مُسْلِمٌ.
وَفِي رِوَايَةٍ: «إِنَّ لَكَ مَا احْتَسَبْتَ»، «الرَّمْضَاءُ»: «الْأَرْضُ
الَّتِي أَصَابَهَا الْخَرُّ الشَّدِيدُ».

137. 아부 문지르 우바이(Abu Munzir Ubayy bin K'ab)가 전하고 있다. 사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결코 예배에 빠지

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질문이 있었다. “어두울 때나 날씨가 더울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당나귀를 사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나의 집이 사원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원에 가고 또 그곳에서 돌아오는 걸음걸이가 보상으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하시었습니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덕망이 있는 모든 행위는 선한 행위로 기록이 됩니다.”

۱۳۸ - الثَّانِي وَالْعُشْرُونَ : عَنْ أَبِي مُحَمَّدٍ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لَ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رْبَعُونَ خَصْلَةً أَهْلًا مَنِجَّةٌ الْعَنْزِرُ ، مَا مِنْ عَامِلٍ يَعْمَلُ بِخَصْلَةٍ مِنْهَا رَجَاءً نَوَابِيهَا وَتَصَدِّقَ مَوْعُودِهَا إِلَّا أَدْخَلَهُ اللَّهُ بِهَا الْجَنَّةَ » رواه البخاري .

13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udullah bin 'Aas)가 전하고 있다. “40 종류의 덕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염소의 젖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어느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고 약속된 것을 확인한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도록 하실 것입니다.” (Bukhari)

۱۳۹ - الثَّالِثُ وَالْعُشْرُونَ : عَنْ هَدِيٍّ بْنِ حَاتِمٍ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اتَّقُوا النَّارَ وَلَوْ يَشِقُّ تَمْرَةٌ ، مَغْنً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لما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ا مِنْكُمْ مِنْ أَحَدٍ إِلَّا سَبَّكَلَّمُهُ رَبُّهُ لَيْسَ بَيْنَهُ وَبَيْنَهُ تَرْجُمَانٌ ، فَيَنْظُرُ أَيْمَنَ مِنْهُ فَلَا يَرَى إِلَّا مَا قَدَّمَ ، وَيَنْظُرُ أَشْأَمَ مِنْهُ فَلَا يَرَى إِلَّا مَا قَدَّمَ ، وَيَنْظُرُ بَيْنَ يَدَيْهِ فَلَا يَرَى إِلَّا النَّارَ يُلْقَاهُ وَجْهَهُ ، فَاتَّقُوا النَّارَ وَلَوْ يَشِقُّ تَمْرَةٌ ، فَمَنْ لَمْ يَجِدْ قَبِيلَكَلِمَةٍ طَبَّةٍ .

13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디(Adi bin Hatim)이 전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보호하시오. 종려나무 열매 하나의 일부분만 쥐도 자선입니다.” (Bukhari and Muslim).

아디가 전하고 있는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과 그의 대화에서 통역을 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각 인간은 그의 오른쪽을 보고는 오른쪽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를 볼 것이며, 그의 왼쪽을 보고서는 왼쪽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를 볼 것입니다. 그의 앞을 보고는 지옥의 불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불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 하나의 일부분만 쥐도 자선입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없다면 고운 말 한마디로도 가능합니다.”

١٤٠ - الرَّابِعُ وَالْعُشْرُونَ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أَفْهَقَ لَبْرَثَى عَنِ الْعَبْدِ أَنْ يَأْكُلَ الْأَكْلَةَ فَيَحْتَمِدَ عَلَيْهَا ، أَوْ يَشْرَبَ الشَّرْبَةَ فَيَحْتَمِدَ عَلَيْهَا ، رَوَاهُ مُسْلِمٌ »

14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알라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무엇인가를 마시면서 알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Muslim).

١٤١ - الْخَامِسُ وَالْعُشْرُونَ : عَنْ أَبِي مُوسَى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عَلَى كُلِّ مُسْلِمٍ صَدَقَةٌ ، قَالَ : أَرَأَيْتَ إِنْ لَمْ يَجِدْ ؟ قَالَ : « يَعْمَلُ بِيَدَيْهِ فَيَنْفَعُ نَفْسَهُ وَيَتَصَدَّقَ ، قَالَ : أَرَأَيْتَ إِنْ لَمْ يَسْتَطِعْ ؟ قَالَ : « يُعِينُ ذَا الْحَاجَةِ الْمَلْهُوفَ ، قَالَ : أَرَأَيْتَ إِنْ لَمْ يَسْتَطِعْ قَالَ : « يَأْمُرُ بِالْمَعْرُوفِ أَوْ الْخَيْرِ ، قَالَ : أَرَأَيْتَ إِنْ لَمْ يَفْعَلْ ؟ قَالَ : « يُنْسِكُ عَنِ الشَّرِّ فَلِئَلَّا صَدَقَةٌ ، مَتَّفَقٌ عَلَيْهِ . »

14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 각자는 자선을 해야만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 두 손으로 일하고 얻은 것 중에서 일부는 자선을 해야 합니다.” 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 대한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가난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 대한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도 자선입니다.” (Bukhari and Muslim).

제 14장 경제적인 신앙생활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طه ما أنزلنا عليك القرآن ليتشتتى [طه : ٨١] وقال
تعالى : يريد الله بكم اليسر ولا يريد بكم العسر [البقرة : ١٨٥]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함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에게 고생을 시키려함이 아니라.】 (20:2) 【...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편안함을 원하지 어려움은 원하지 않으시니라 ...】 (2:185)

١٤٢ - 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دخل
عَلَيْهَا وَعِنْدَهَا امْرَأَةٌ قَالَ : مَنْ هَذِهِ ؟ قَالَتْ : هَذِهِ ثَلَاثَةٌ تَذَكَّرُ مِنْ
مَلَائِكَةٍ قَالَ : وَمَنْ عَلَيْكُمْ ؟ بِمَا تُطِيقُونَ ، فَوَافَقَ لَا يَمْلِكُ اللَّهُ حَتَّى
تَعْمَلُوا ، وَكَانَ أَحَبُّ الدِّينِ إِلَيْنَا مَا دَاوَمَ صَاحِبُهُ عَلَيْهِ . متفق عليه .

142.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내가 한 여성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사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저 여성은 누구냐고 물으시기에 예배를 많이 보는 바로 그 여성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녀를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요. 당신이 쉽게 할 수 만큼 정도만 예배하면 되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칠 정도로 예배를 요구하지 않아요. 알라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Bukhari and Muslim).

١٤٣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جَاءَ ثَلَاثَةٌ رَهْطٍ إِلَى بُيُوتِ
أَزْوَاجِ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يَسْأَلُونَ عَنْ عِبَادَةِ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لَمَّا أَخْبِرُوا كَانَتْهُمْ تَغَالُوهَا وَقَالُوا : ابْنُ نَحْنُ مِ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دْ غُفِرَ لَهُ مَا تَقَدَّمَ مِنْ ذَنْبِهِ وَمَا تَأَخَّرَ قَالَ
 أَحَدُهُمْ : أَمَّا أَنَا فَأَصْلِي اللَّيْلَ أَبَدًا : وَقَالَ الْآخَرُ : وَأَنَا أَصُومُ الدَّهْرَ
 وَلَا أَفْطِرُ ، وَقَالَ الْآخَرُ : وَأَنَا أَعْتَزِلُ النِّسَاءَ فَلَا أَتَزَوَّجُ أَبَدًا ، فَجَاءَ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لَيْهِمْ فَقَالَ : « أَنْتُمْ الَّذِينَ قُلْتُمْ كَذَا وَكَذَا ؟ !
 أَمَّا وَاللَّهِ إِنِّي لَا أَخْشَاكُمْ لِلَّهِ وَأَتَّقَاكُمْ لَهُ لَكِنِّي أَصُومُ وَأَفْطِرُ ، وَأَصْلِي
 وَأَرْفُدُ ، وَأَتَزَوَّجُ النِّسَاءَ . فَمَنْ رَغِبَ عَنِّي سُنَّتِي فَلَيْسَ مِنِّي . »
 متفق عليه .

143.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세 사람이 사도의
 가정을 찾아와 사도의 일상적인 예배생활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똑
 같다는 것을 통보받은 그들은 예배생활이 똑같다면 자신들의 관심사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사도와 자신들 사이에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분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태만과 부족
 함을 용서받았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선언했다. “나는 앞으로 밤중
 내내 예배를 할 거야.”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단식을 할 거야.”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여자를 멀
 리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을 거야.” 얼마 후 사도께서 그들에
 게 와 질문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데 잘 들
 으세요. 나는 여러분 모두보다 알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여러분 보
 다는 그분에 대한 나의 의무가 신경이 쓰입니다. 나는 단식을 하고 또
 깨뜨립니다. 밤에 예배하고 역시 잠도 자지요. 여자와 결혼도 하구요.
 이것이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이러한 나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자는 나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١٤٤ - و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هَلِكَ الْمُتَنَطِعُونَ » ، قَالَتَا ثَلَاثًا ، رَوَاهُ مُسْلِمٌ

14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종교생활에 지나친 사람들은 파괴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 (Muslim).

١٤٥ - عَنْ أَبِي مَرْيَ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 الدِّينَ بُنْيَانٌ ، وَلَنْ يُشَادَّ الدِّينُ إِلَّا غَلَبَهُ ، فَسَدُّوا وَقَارِبُوا وَأَبْشِرُوا ، وَاسْتَعِينُوا بِالْغَدْوَةِ وَالرَّوْحَةِ وَشَيْءٍ مِنَ الدَّلْجَةِ » رَوَاهُ الْبُخَارِيُّ
وفي رواية له : « سَدُّوا وَقَارِبُوا وَاعْبُدُوا وَرَوْحُوا ، وَشَيْءٌ مِنَ الدَّلْجَةِ : الْقَصْدُ الْقَصْدُ تَبَلَّغُوا . »

14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종교생활은 편안해야 합니다. 종교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되고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실천해야 합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밤에 추가예배를 통하여 알라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십시오.” (Bukhari).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적당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육체적 건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밤에 예배 하되 적당해야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١٤٦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دَخَ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مَسْجِدَ فَلَمَّا حَبَلَ مَمْدُودٌ بَيْنَ الْيَأْرِيَتَيْنِ فَقَالَ : « مَا هَذَا الْحَبْلُ ؟ » قَالُوا : هَذَا حَبْلٌ لِرَيْتَبٍ ، فَلَمَّا فَتَرَتْ تَعَلَّقَتْ بِهِ . فَ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حَلُّوهُ ، لِيُصَلَّ أَحَدُكُمْ نَسَاطَتَهُ ، فَلَمَّا فَتَرَتْ فَكَبَّرَ قَدْ » مَضَى عَلَيْهِ .

146.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사원에 오셨을 때 두 기둥 사이에 걸려있는 밧줄을 보시고서 그 밧줄이 팽팽하게 걸려있느냐는 사도의 질문에 교우들이 대답했다. “이것은 예배 중

에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이납이 매어놓은 것뿐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 밧줄을 푸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만 예배하시오. 피곤 할 때는 휴식을 취하시오.” (Bukhari and Muslim).

۱۴۷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نَعَسَ أَحَدُكُمْ وَهُوَ يُصَلِّي ، فَلْيَرْقُدْ حَتَّى يَذْهَبَ عَنْهُ النَّوْمُ ،
فَإِنْ أَحَدَكُمْ إِذَا صَلَّى وَهُوَ نَائِمٌ لَا يَدْرِي لَعَلَّهُ يَذْهَبُ بِسُتُورِهِ
فَيَسُبُّ نَفْسَهُ ، مَغْفُورٌ عَلَيْهِ . »

14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예배 도중에 깊은 잠이 오거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야합니다. 졸리는 상태에서 예배를 계속한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는커녕 저주스러운 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Bukhari and Muslim).

۱۴۸ - وعن أبي عبد الله جابر بن سمرة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 كُنْتُ
أُصَلِّي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صَّلَوَاتِ ، فَكَانَتْ صَلَاتُهُ قَصْدًا وَخَطْبَتُهُ
قَصْدًا ، رَوَاهُ مُسْلِمٌ . »

148. 아부 압둘라 자베르(Abu Abdullah Jabir bin Samur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종종 사도와 함께 예배를 하였는데 사도의 예배와 설교는 적당했다. (Muslim).

۱۴۹ - وعن أبي جعفرٍ وَهْبِ بْنِ عَبْدِ اللَّ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أَخْبَ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يْنَ سَلْمَانَ وَأَبِي الدَّرْدَاءِ ، فَرَأَى سَلْمَانُ أَبَا
الدَّرْدَاءِ ، فَرَأَى أُمَّ الدَّرْدَاءِ مُنْبَدِّلَةً فَقَالَ : مَا شَأْنُكَ ؟ قَالَتْ : أَخْوَلُكَ
أَبُو الدَّرْدَاءِ لَيْسَ لَهُ حَاجَةٌ فِي الدُّنْيَا فَجَاءَ أَبُو الدَّرْدَاءِ فَصَنَعَ لَهُ
طَعَامًا ، فَقَالَ لَهُ : كُلْ فَإِنِّي صَائِمٌ ، قَالَ : مَا أَنَا بِأَكْلٍ حَتَّى تَأْكُلَ ،

فَأَكَلَتْ ، فَلَمَّا كَانَ اللَّيْلُ ذَهَبَ أَبُو الدَّرْدَاءِ يَقُومُ فَقَالَ لَهُ : نَمَّ فَنَامَ ،
ثُمَّ ذَهَبَ يَقُومُ فَقَالَ لَهُ : نَمَّ ، فَلَمَّا كَانَ مِنْ آخِرِ اللَّيْلِ قَالَ سَلْمَانَ :
قُمْ الْآنَ ، فَصَلِّ بِنَا جَمِيعًا ، فَقَالَ لَهُ سَلْمَانُ : إِنَّ لِرَبِّكَ عَلَيْكَ حَقًّا ،
وَأَنَّ لِنَفْسِكَ عَلَيْكَ حَقًّا ، وَلِأَمْلِكَ عَلَيْكَ حَقًّا ، فَاعْطِ كُلَّ ذِي
حَقٍّ حَقَّهُ ، فَأَتَ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ذَكَرَ ذَلِكَ لَهُ ، فَ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هَذَا صَدَقَ سَلْمَانُ ، رَوَاهُ الْبُخَارِيُّ .

149. 아부 주하이파 와합(Abu Juhaifah Wahab bin Abdullah)이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쌀만(Salman)과 아부 다르다(Abu Darda)를 의형제로 맺어주셨다. 어느 날 쌀만이 아부 다르다가 보고 싶어 찾아갔을 때 그의 아내 움무 다르다(Ummu Darda)가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안부를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의 형제 아부 다르다는 세상과 담을 쌓고 종교생활에만 빠져있어요.”

얼마 후 아부 다르다가 돌아와 쌀만을 위해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식 중이라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쌀만이 대답했다. “당신이 먹지 아니하면 나도 먹지 않겠소.” 이리하여 아부 다르다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었다. 아부 다르다는 예배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쌀만이 잠을 자자고 하자 그도 그렇게 하였다. 잠시 후 아부 다르다가 예배하기 위해 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쌀만과 함께 잠을 자야했다.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쌀만이 말했다. “예배시간이니 일어나자고.” 두 사람은 함께 예배하였다. 그리고 쌀만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분명히 가장의 의무가 있어요. 당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요. 당신은 각자에게 당신의 의무를 다해야 해요.”

두 사람은 사도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쌀만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Bukhari).

١٥٠ - وعن أبي محمد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أخبرن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ني أقول : والله لأصومنَّ النهارَ ، ولأقومنَّ
 الليلَ ما عشت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نت الذي تقول
 ذلك ؟ فقلت له : قد فلتته بأبي أنت وأمي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 « فإنيك
 لا تستطيع ذلك ، فصم وأفطر ، وتم وقم ، وصم من الشهر ثلاثة أيام
 فإن الحسنة بعشر أمثالها ، وذلك مثل صيام الدهر » قلت : فإني
 أطيق أفضل من ذلك قال : فصم يوماً وأفطر يومين ، قلت : فإني
 أطيق أفضل من ذلك ، قال : « فصم يوماً وأفطر يوماً ، فذلك صيام
 داود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هو أعدل الصيام » . وفي رواية : « هو أفضل
 الصيام » فقلت : فإني أطيق أفضل من ذلك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ا أفضل من ذلك » ولأن أكون قبلت الثلاثة الأيام التي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حب إلي من أهلي ومالي .

وفي رواية : « ألم أخبر أنك تصوم النهار وتقوم الليل ؟ » قلت : بلى
 يا رسول الله قال : « فلا تفعل : صم وأفطر ، وتم وقم » فإن لجسدك
 عليك حقاً ، وإن لعينيك عليك حقاً ، وإن لزورك عليك حقاً ، وإن
 لشهرك عليك حقاً ، وإن بحسبك أن تصوم في كل شهر
 ثلاثة أيام ، فإن لك بكل حسنة عشر أمثالها ، فإن ذلك صيام
 الدهر ، فشددت فشددي عليّ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إني أجد قوةً ، قال :
 « صم صيام نبي الله داود ولا تزدد عليك » قلت : وما كان صيام داود ؟
 قال : « نصف الدهر » فكان عبد الله يقول بعد ما كبر : يا ليتني
 قبلت رخصة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في رواية : « ألم أخبر أنك تصوم الدهر ، وتقرأ القرآن كل
 ليلة ؟ » فقلت : بلى يا رسول الله ، ولم أرد بذلك إلا الخير ،
 قال : « فصم صوم نبي الله داود ، فإنه كان أعبد الناس ، وأقرأ »

الْقُرْآنَ فِي كُلِّ شَهْرٍ، قُلْتُ : يَا نَبِيَّ اللَّهِ إِنِّي أُطِيقُ أَفْضَلَ مِنْ ذَلِكَ ؟
 قَالَ : « فَافْرَاهُ فِي كُلِّ عِشْرِينَ »، قُلْتُ : يَا نَبِيَّ اللَّهِ إِنِّي أُطِيقُ أَفْضَلَ
 مِنْ ذَلِكَ ؟ قَالَ : « فَافْرَاهُ فِي كُلِّ عَشْرٍ »، قُلْتُ : يَا نَبِيَّ اللَّهِ إِنِّي أُطِيقُ
 أَفْضَلَ مِنْ ذَلِكَ ؟ قَالَ : « فَافْرَاهُ فِي كُلِّ سَبْعٍ وَلَا تَزِدْ عَلَى ذَلِكَ »،
 فَتَعَدَّدْتُ فَتَعَدَّدَ عَلَيَّ، وَكَأَلَا لِ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كَ لَا تَذَرِي
 لِعَمَلِكَ يَطُولُ بِكَ عُمْرُهُ » قَالَ : فَصِرْتُ إِلَى الَّذِي قَالَ لِ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لَمَّا كَبُرْتُ وَدِدْتُ أَنِّي كُنْتُ قَبِلْتُ رِخْصَةً نَبِيَّ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في رواية : « وَإِنْ لِي وَلَدِيكَ عَلَيْكَ حَقًّا » وفي رواية : « لَا صَامَ مَنْ
 صَامَ الْآبَاءَ ثَلَاثًا . وفي رواية : « أَحَبُّ الصِّيَامِ إِلَى اللَّهِ تَعَالَى صِيَامُ دَاوُدَ ،
 وَأَحَبُّ الصَّلَاةِ إِلَى اللَّهِ تَعَالَى صَلَاةُ دَاوُدَ : كَانَ يَتَامُ يُصَفِّ الْأَيْلُ ،
 وَيَتَمُومُ ثَلَاثَةً ، وَيَتَامُ سُدُسَةً ، وَكَانَ يَصُومُ يَوْمًا وَيُفْطِرُ يَوْمًا ، وَلَا
 يَغِيرُ إِذَا لَاقَى . »

وفي رواية قَالَ : أَنْكَحْتَنِي أَبِي امْرَأَةً ذَاتَ حَسَبٍ ، وَكَانَ
 يَتَعَاهَدُ كَنَّتُهُ - أُمِّي : امْرَأَةً وَلَدِي - فَيَسْأَلُهَا عَنْ بَعْلِهَا ، فَتَقُولُ
 لَهُ : نَعَمْ الرَّجُلُ مِنْ رَجُلٍ لَمْ يَطْلُ لَنَا فِرَاشًا وَلَمْ يُفْتَشْ لَنَا كَنَّتَهُ
 مُنْذُ أَتَيْتَاهُ . فَلَمَّا طَالَ ذَلِكَ عَلَيْهِ ذَكَرَ ذَلِكَ 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 : « الْفَقِي بِهِ ، فَلَقِيْتُهُ بَعْدَ ذَلِكَ فَقَالَ : « كَيْفَ تَصُومُ ؟ » قُلْتُ
 كُلَّ يَوْمٍ ، قَالَ : « وَكَيْفَ تَحْنِمُ ؟ » قُلْتُ : كُلَّ لَيْلَةٍ ، وَذَكَرَ نَحْوَ
 مَا سَبَقَ - وَكَانَ يَقْرَأُ عَلَيَّ بِمَنْزِلِ أَهْلِ السَّبْعِ الَّذِي يَقْرؤُهُ ، بِعَرِضِهِ
 مِنَ النَّهَارِ لِيَكُونَ أَخَفَ عَلَيْهِ بِاللَّيْلِ ، وَإِذَا أَرَادَ أَنْ يَنْقَوِيَ أَفْطَرَ
 أَبَا وَأَحْصَى وَمِثْلَهُنَّ كَرَاهِيَةً أَنْ يَشْرَكَ شَيْئًا فَارَقَ عَلَيْهِ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كُلُّ هَذِهِ الرِّوَايَاتِ صَحِيحَةٌ مُنْظَمَةٌ فِي الصَّحِيحَيْنِ وَكَثِيرٌ مِنْهَا
 فِي أَحَدِهِمَا .

150. 아부 무함마드 압둘라(Abu Muhammad Abdullah bin 'Amr bin 'Aas)가 전하고 있다. 내가 평생 동안 낮 동안에 단식하고 밤 중 내내 예배를 하겠다고 맹세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사도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요?” 나는 대답했다. “사도여, 저의 부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까 싶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요. 단식을 하겠지만 깨뜨리게 될 것이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한 달에 3일간 단식하십시오. 그리하면 선행의 보상이 10배가 될 것이요. 그것은 한 달 동안 단식하는 것과 같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평생 동안 단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나는 말했다. “저는 건강해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루 단식하고 이틀은 단식을 깨뜨리시오.” 나는 말했다. “저는 건강해서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루걸러 단식을 해봐요. 예언자 다윗도 그렇게 하였으며 그것이 가장 균형 있는 단식입니다.”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단식입니다.” 나는 말했다. “저는 건강해서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나이가 들자 압둘라는 한 달에 삼일 간 단식하라는 사도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재물이나 자식들보다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당신이 매일 낮에 단식하고 밤 중 내내 예배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이요?” 나는 대답했다. “사도여,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단식하되 깨뜨리고 잠을 자고 예배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몸대로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고, 당신의 눈은 눈대로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고 당신의 손님은 손님대로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소. 한 달에 3일 동안만 단식하면 충분해요. 하나의 덕목은 10개의 가치를 창출함으로 이것은 한 달 동안 단식한 분량이 되고 이것은 평생 동안의 단식을 의미하지요.” 압둘

라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고된 훈련을 시키고 싶었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 고달프게 만든 원인이었소.” 나는 말했다. “사도여, 단식을 자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예언자 다윗의 단식을 따르되 초과하지는 마시오.” 나는 예언자 다윗의 단식이 어떠했는지 물었고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절반의 단식만 하시오. 하루 단식하고 하루는 단식을 깨뜨리시오.” 노인이 된 압둘라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도께서 말씀하신 충고를 받아들여 단식과 예배를 적당히 행하였다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전언은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나는 당신이 매일 단식을 하고 밤 중 내내 꾸란을 읽는다는 소식을 접했소.” 나는 대답했다. “사도여,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단지 축복이 되는 것만을 했을 뿐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자 다윗의 단식을 따르시오. 그는 가장 열성적인 알라 하나님의 종으로 한 달 동안에 꾸란을 완전히 암기하였소.” 나는 말했다. “사도여, 저는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열흘 동안에 꾸란을 암기하십시오.” 나는 말했다. “사도여, 저는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에 꾸란을 암기하되 그 전에는 끝내지 마시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 사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장수의 운명을 누릴지 알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사도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수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서야 나는 사도께서 말씀하신 충고를 따라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당신의 자식도 당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소.” 사도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전언이 있다. “평생 단식을 한 사람은 단식을 전혀 아니한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

또 다른 전언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식은 바로 예언자 다윗의 단식이요 알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이지요. 밤 절반은 잠을 자고 밤의 삼분의 일은 일어나 예

배(Tahajjud)하고 나머지 밤의 육분의 일은 잠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루걸러 단식을 하곤 했지요. 그는 적과 마주쳤을 때 결코 항복한 적이 없었어요.

또 다른 전언이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존경받는 가문의 한 여성과 결혼시켜 주셨었어요. 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남편에 대한 소식을 물었을 때 그는 남자 중의 남자라고 대답하곤 하었어요. 그는 결혼한 후 줄곧 아내와 잠자리도 함께하지 않았고 성생활도 갖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압둘라의 아버지는 이 문제를 사도와 의논하였고 사도께서는 아버지에게 나를 데려오라고 하셨다. 나는 사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사도께서 내가 얼마나 자주 단식을 하는지 질문하셨고 나는 매일 단식한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는 꾸란 전체를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고 물으시기에 하루 저녁에 다 읽는다고 대답하였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압둘라는 밤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에게 꾸란 전체의 칠분의 일 정도만 읽기 연습을 시켰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심을 강화하기 위해 며칠 동안 단식을 깨뜨렸다. 그는 사도의 전통을 지키기를 싫어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싫어하여 그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전언은 모두 사실이며 일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부카리(Bukhari)와 무슬림(Muslim)이 전하고 있다고 이맘 나와위(Imam Nawawi)가 언급하고 있다.

١٥١ - وعن أبي ربيعٍ حنظلة بن الربيع الأُسديّ الكاتب أحد كتاب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لقيتني أبو بكر رضي الله عنه فقال : كيف أنت يا حنظلة ؟ قلتُ : نافتق حنظلة ! قال : سبحان الله ما تقول ؟ ! قلتُ : نكُونُ عِنْدَ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ذَكِّرُنَا بِالْجَنَّةِ وَالنَّارِ كَأَنَّا رَأَيْنَا عَيْنَ ، فَلَمَّا خَرَجْنَا مِنْ عِنْدِ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افَسْنَا الْأَزْوَاجَ وَالْأَوْلَادَ وَالضُّبُعَاتِ نَسَبًا كَثِيرًا . قال أبو

بَكَرَ رَضِيَ اللَّهُ عَنْهُ : فَوَافَقَ إِنَّا لَنَلْقَى مِثْلَ هَذَا ، فَانْطَلَقْتُ أَنَا وَأَبُو
بَكَرَ حَتَّى دَخَلْنَا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لْتُ : نَافَقَ حَنْظَلَةُ
يَا رَسُولَ اللَّ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وَمَا ذَاكَ ؟ »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نَكُونُ عِنْدَكَ تُذَكِّرُنَا بِالنَّارِ وَالْجَنَّةِ كَأَنَّا رَأَيْ الْعَيْنِ ،
فَلِذَا خَرَجْنَا مِنْ عِنْدِكَ عَافَيْنَا الْأَزْوَاجَ وَالْأَوْلَادَ وَالضَّيْعَاتِ نَسِينَا
كَثِيرًا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وَالَّذِي نَفْسِي بِيَدِهِ لَوْ
تَدُومُونَ عَلَى مَا تَكُونُونَ عِنْدِي وَفِي الذِّكْرِ لَصَافَحْتُكُمْ الْمَلَائِكَةُ
عَلَى فُرُشِكُمْ وَفِي طُرُقِكُمْ » ، وَلَكِنْ يَا حَنْظَلَةُ سَاعَةً وَسَاعَةً
ثَلَاثَ مَرَّاتٍ ، رَوَاهُ مُسْلِمٌ

151. 아비 리브이 한잘라(Abi Rib'i Hanzala bin Rabi Al-Usaidi)가 전하고 있다. 그는 사도 서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부 바크르 시디끼가 나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였다. “한잘라, 어떻게 지내요?” 나는 대답했다. “한잘라는 위선자로 돌아섰어요.” 아부 바크르가 말했다. “맙소사, 지금 무어라고 말하는 거요?” 나는 대답했다. “사도께서 우리 앞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을 떠나 아내와 자식들과 분주한 생활을 보내고 땅을 일구고 과수원을 돌보느라 사도의 충고들을 거의 다 잊었어요.” 아부 바크르가 말했다.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똑 같은 현상이라네.” 그 후 두 사람이 사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잘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도여, 한잘라는 위선자로 변했어요.” 사도께서 그에게 질문하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나는 말했다. “저희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떠나 아내와 자식들과 분주한 생활을 보내고 땅을 일구고 과수원을 돌보느라 사도의 충고들을 거의 다 잊었어요.”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맹세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알

라 하나님을 상기하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침대에 있건 또는 길을 걷고 있건 간에 천사들이 내려와 여러분과 악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잘라, 그런 상황은 때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사도께서는 이 말을 세 번 반복하셨다. (Muslim).

۱۵۲ - و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بَيْنَمَا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خْطُبُ إِذَا هُوَ بِرَجُلٍ قَائِمٍ ، فَسَأَلَ عَنْهُ فَقَالُوا : أَبُو إِسْرَائِيلَ نَذَرَ أَنْ يَقُومَ فِي الشَّمْسِ وَلَا يَقْعُدَ ، وَلَا يَسْتَظِلَّ وَلَا يَتَكَلَّمَ ، وَيَصُومَ فَ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رُّوهُ فَلْيَتَكَلَّمْ وَلْيَسْتَظِلَّ وَلْيَقْعُدْ وَلْيُتِمِّمْ صَوْمَهُ » ، رواه البخاري

152.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설교 중에 모두가 앉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도께서 그가 누구냐고 물으시자 아부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는 태양 별을 쏘이면서 바닥에 앉지도 않거나 그늘을 찾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난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가서 말을 시키고 그들로 가서 앉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의 단식은 완성하도록 두시오.” (Bukhari).

제15장 덕행과 신앙생활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أَلَمْ يَأْنِ لِلَّذِينَ آمَنُوا أَنْ تَخْشَعَ قُلُوبُهُمْ
لِدِكْرِ اللَّهِ وَمَا نَزَلَ مِنَ الْحَقِّ وَلَا يَكُونُوا كَ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مِنْ
قَبْلُ فَطَالَ عَلَيْهِمُ الْأَمَدُ فَقَسَتْ قُلُوبُهُمْ [الحديد: ١٦] . وقال تعالى :
وَقَفَّيْنَا بِعِيسَى ابْنِ مَرْيَمَ وَآتَيْنَاهُ الْإِنْجِيلَ وَجَعَلْنَا فِي قُلُوبِ الَّذِينَ
اتَّبَعُوهُ رَأْفَةً وَرَحْمَةً وَرَهَابَانِيَّةً ابْتَدَعُوهَا مَا كَتَبْنَاهَا عَلَيْهِمْ
إِلَّا ابْتِغَاءَ رِضْوَانِ اللَّهِ فَمَا رَعَوْهَا حَقَّ رِعَايَتِهَا [الحديد: ٢٧] ، وقال
تعالى : وَلَا تَكُونُوا كَالَّذِينَ تَقَصَّتْ غَزَايَاهُمْ مِنْ بَعْدِ قُوَّةٍ أَنْكَاثًا [النمل: ٩٢] ،
وقال تعالى : وَاعْبُدُوا رَبَّكُمُ حَتَّىٰ يَأْتِيَكُمُ الْيَقِينُ [الحجر: ٩٩]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이 알라 하나님을 사모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계시된 진리에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아니 하였느뇨? 전에 성서를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그들 중에 마
음이 굳어진 많은 사악한 자들처럼 되지 않아야 할 때가 되지 아니 하
였느뇨?】 (25:16)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그들을 뒤따르도록 하고 그
에게 복음서를 내렸으며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
비를 내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알라 하나님이 묘사하지 아니한 그들만
을 위한 수도생활을 생각해 내어 알라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라 했
을 뿐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
(25:27) 【...약속을 깨뜨린 자를 비유하사 실을 단단하게 짠 후 굳게
감은 다음 그것을 흐트러 놓은 여자와 같다 하셨노라. 너희는 한 민족
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하려고 너희의 맹세를 기만하느뇨 ...】
(16:92) 【확실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대는 주님만을 경배하라.】
(15:99)

١٥٣ - وعن عمر بن الخطاب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نَامَ عَنْ حِزْبِهِ مِنَ اللَّيْلِ ، أَوْ عَنْ شَيْءٍ مِنْهُ فَتَرَاهُ مَا بَيْنَ صَلَاةِ الْفَجْرِ وَصَلَاةِ الظُّهْرِ ، كُتِبَ لَهُ كَأَنَّمَا قَرَأَهُ مِنَ اللَّيْلِ ، رَوَاهُ مُسْلِمٌ »

153.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밤에 또는 잠으로 인하여 자의적 예배(Qiyamullail)를 잊었다면 다음 날 새벽예배(Al-Fazr)와 정오예배(Al-Zuhr) 사이 어느 때라도 그것을 행하면 동일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Muslim).

١٥٤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ل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ا عَبْدَ اللَّهِ لَا تَكُنْ مِثْلَ فُلَانٍ ، كَانَ يَقُومُ اللَّيْلَ فَتَرَكَ قِيَامَ اللَّيْلِ ، مَتَّقْ عَلَيْهِ »

15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Amr bin 'Aas)가 전하고 있다. “압둘라, 누구처럼 되지 마시오. 그는 자의적 예배(Qiyamullail)를 하기위해 밤중에 일어나곤 했는데 얼마 후에는 계속 하지 못했어요.” (Bukhari and Muslim).

١٥٥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ا فَاتَتْهُ الصَّلَاةُ مِنَ اللَّيْلِ مِنْ وَجَعٍ أَوْ غَيْرِهِ ، صَلَّى مِنَ النَّهَارِ ثِنْتَيْ عَشْرَةَ رَكْعَةً ، رَوَاهُ مُسْلِمٌ .

155.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병환 등으로 인해 밤에 임의예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낮 동안에 12라카의 예배를 드리곤 했지요. (Muslim).

제16장 사도의 전통 준수

قاله الله تعالى : وَمَا آتَاكُمُ الرَّسُولُ فَخُذُوهُ وَمَا نَهَاكُمْ عَنْهُ
 مَانْتَهُوا [الحشر: ٧] ، وقال تعالى : وَمَا يَنْطِقُ عَنِ الْهَوَى . إِنْ هُوَ
 إِلَّا وَحْيٌ يُوحَى [النجم: ٣ ، ٤] ، وقال تعالى : قُلْ إِنْ كُنْتُمْ تُحِبُّونَ
 اللَّهَ فَاتَّبِعُونِي يُحْبِبْكُمُ اللَّهُ وَيَغْفِرْ لَكُمْ ذُنُوبَكُمْ [آل عمران: ٣١]
 وقال تعالى : لَقَدْ كَانَ لَكُمْ فِي رَسُولِ اللَّهِ أُسْوَةٌ حَسَنَةٌ لِمَنْ كَانَ
 سَرَجُو 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الأحزاب: ٢١] ، وقال تعالى : فَلَا وَرَبِّكَ
 لَا يُؤْمِنُونَ حَتَّى يُحَكِّمُوكَ فِيمَا شَجَرَ بَيْنَهُمْ ثُمَّ لَا يَجِدُوا فِي أَنْفُسِهِمْ
 حَرَجًا مِمَّا قَضَيْتَ وَيُسَلِّمُوا تَسْلِيمًا [النساء: ٦٥] ، وقال تعالى :
 فَإِنْ تَنَازَعْتُمْ فِي شَيْءٍ فَرُدُّوهُ إِلَى اللَّهِ وَالرَّسُولِ [النساء: ٥٩] ،
 قال العلماء : مَعْنَاهُ إِلَى الْكِتَابِ وَالسُّنَّةِ . وقال تعالى : مَنْ يُطِيعِ
 الرَّسُولَ فَقَدْ أَطَاعَ اللَّهَ [النساء: ٨٠] وقال تعالى : وَإِنَّكَ لَتَهْدِي إِلَى
 صِرَاطٍ مُسْتَقِيمٍ [الشورى: ٥٢] ، وقال تعالى : فَلْيَحْذَرِ الَّذِينَ
 يُخَالِفُونَ عَنْ أَمْرِهِ أَنْ تُصِيبَهُمْ فِتْنَةٌ أَوْ يُصِيبَهُمْ عَذَابٌ أَلِيمٌ
 [النور: ٦٣] ، وقال تعالى : وَادْكُرْنَ مَا يُتْلَى فِي بُيُوتِكُنَّ مِنْ آيَاتِ
 اللَّهِ وَالْحِكْمَةِ [الأحزاب: ٣٤] والآياتُ فِي الْبَابِ كَثِيرَةٌ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그리고 사도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수락하되 사도가 금기한 것은 삼가라 ...】 (59:7) 【자신의 욕망
 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계시라.】
 (53:3-4) 【일러 가로되 너희가 알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의 죄를 사하
 여 주실 것이니라. ...】 (3:31) 【진실로 알라 하나님의 사도는 알라 하

나눔과 내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 자 이니라.】(33:21)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케 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자들이라 할 수 없노라.】(4:65) 【믿는 자들이여 알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도와 너희 가운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에 분쟁이 있을 경우 알라 하나님과 사도에게 위탁하라. 너희가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선이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이라.】(4:59) 【사도에게 순종하는 자 곧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만일 돌아선 자 있더라도 나는 그대를 그들에 대한 감시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4:80) 【...그대는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라.】(42:52) 【...그러므로 알라 하나님의 계명에 거역한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에게 시련과 고통스러운 징벌이 이를 것이라.】(24:63) 【너희들의 가정에서 알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낭송되는 것을 상기하라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섬세히 아시는 분이시라.】(33:34)

۱۵۶ - فالأول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دَعَوْنِي مَا تَرَكْتُكُمْ : إِنَّمَا أَمْلِكُ مَنْ كَانَ قَبْلَكُمْ كَثْرَةً سُؤَالِهِمْ ، وَاخْتِلَافُهُمْ عَلَى أَنْبِيَائِهِمْ ، فَإِذَا تَهَيَّيْتُكُمْ عَنْ شَيْءٍ فَاجْتَنِبُوهُ ، وَإِذَا أَمَرْتُكُمْ بِأَمْرٍ فَأَتُوا مِنْهُ مَا اسْتَطَعْتُمْ » مَقْنَعٌ عَلَيْهِ

15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사안들에 관한 질문들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여러분보다 앞서 왔던 민족들이 망한 원인 중에는 불필요한 많은 질문들과 예언자들에 관한 무례한 견해차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호히 피할 것이요 내가 하라고 한 것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١٥٧ - الثانی : عَنْ أَبِي تَجِيحٍ الْعِرْبَاضِ بْنِ سَارِيَ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 وَعَظَّ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وْعِظَةً بَلِيغَةً وَجَلَّتْ مِنْهَا الْقُلُوبُ وَذَرَقَتْ مِنْهَا الْعُيُونُ ، فَقُلْنَا : يَا رَسُولَ اللَّهِ كَأَنَّهَُا مَوْعِظَةُ مُرَدِّعٍ فَأَوْصَيْنَا . قَالَ : « أَوْصِيكُمْ بِتَقْوَى اللَّهِ ، وَالسَّمْعِ وَالطَّاعَةِ وَإِنْ تَأَمَّرَ عَلَيْكُمْ عَبْدٌ ، وَإِنَّهُ مَنْ يَعِشْ مِنْكُمْ فَسَيَرَى اخْتِلَافًا كَثِيرًا . فَعَلَيْكُمْ بِسُنِّي وَسُنَّةِ الْخُلَفَاءِ الرَّاشِدِينَ الْمُهَدِّدِينَ : عَضُّوا عَلَيْهَا بِالنَّوَاجِدِ ، وَلِبَاسِكُمْ وَمُحَدَّثَاتِ الْأُمُورِ فَإِنَّ كُلَّ بِدْعَةٍ ضَلَالَةٌ »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

157. 아부 나지흐 이르바디(Abu Najih Al-Irbad bin Sari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알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어넣으셨다. 우리는 그분에게 이번 설교는 마치 마지막 충고처럼 들리는데 충고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 다음으로 올 지도자들에게, 비록 그가 노예출신이 되더라도 경청하고 복종하시오.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은 많은 견해 차이를 알게 될 것이요. 나의 전통(Sunnah)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요 또한 바르게 안내받은 나의 후계자 칼리프들의 전통도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과 전통들의 동아줄을 단단히 잡고 새로운 이설과 꾸며낸 교리들을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잘못된 길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Abu Dawood and Tirmizi).

١٥٨ - الثَّالِثُ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كُلُّ أُمَّتِي يَدْخُلُونَ الْجَنَّةَ إِلَّا مَنْ أَبَى » . قِيلَ : وَمَنْ يَأْبَى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 « مَنْ أَطَاعَنِي دَخَلَ الْجَنَّةَ ، وَمَنْ عَصَانِي فَقَدْ أَبَى » رواه البخاري .

15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나의 추종자들 모두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정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에게 질문하였다. “사도여,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도께서 설명하셨다. “나를 따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나를 거역한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Bukhari).

١٥٩ - الرَّابِعُ : عَنْ أَبِي مُسْلِمٍ ، وَقِيلَ : أَبِي إِيَّاسٍ سَلَمَةَ بْنِ عَمْرٍو
ابْنِ الْأَكْوَعِ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رَجُلًا أَكَلَ عِنْدَ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شِمَالِهِ فَقَالَ : « كُلْ بِيَمِينِكَ » قَالَ : لَا أَسْتَطِيعُ . قَالَ :
« لَا اسْتَطَعْتَ » مَا مَتَعَهُ إِلَّا الْكِبَرُ ، فَمَا رَفَعَهَا إِلَى فِيهِ رَوَاهُ مُسْلِمٌ

159. 아부 아야즈(Abu Ayaz)라고 불리는 아부 무슬림(Abu Muslim)이 전하고 있다. 사도 앞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사도께서 오른손으로 식사하라고 그에게 충고하자 그가 말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단순한 고집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손을 입으로 올리지 못했다. (Muslim).

١٦٠ - الْخَامِسُ : عَنْ أَبِي عَبْدِ اللَّهِ الثُّعْمَانِ بْنِ بَشِي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لَتُسَوَّنَ صُفُوفُكُمْ
أَوْ لَيُخَالِفَنَّ اللَّهُ بَيْنَ وُجُوهِكُمْ »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سَوِّي صُفُوفَنَا
حَتَّى كَأَنَّمَا يُسَوِّي بِهَا الْقِدَاحَ حَتَّى إِذَا رَأَى أَنَّا قَدْ عَقَلْنَا عَنْهُ
ثُمَّ خَرَجَ يَوْمًا ، فَقَامَ حَتَّى كَادَ أَنْ يُكَبَّرَ ، فَرَأَى رَجُلًا بِأَدْيَا صَدْرَهُ
فَقَالَ : « عِبَادَ اللَّهِ لَتُسَوَّنَ صُفُوفُكُمْ أَوْ لَيُخَالِفَنَّ اللَّهُ بَيْنَ وُجُوهِكُمْ » .

16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비 압둘라 누으만(Abi Abdullah Nu'man bin Bashir)이 전하고 있다. “예배할 때는 대열을 맞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이에 차별을 두실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무슬림(Muslim)의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마치

화살들을 고르게 하듯이 예배의 대열을 일직선으로 하라고 하셨다. 그 분께서는 일직선의 대열을 계속하여 강조하셨다. 어느 날 사원에 나가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예배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Allahu Akbar) 대열에서 어떤 사람의 배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의 종이며, 대열을 일직선으로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١٦١ - السَّادِسُ : عَنْ أَبِي مُوسَى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احْتَرَقَ بَيْتُ
بِالْمَدِينَةِ عَلَى أَهْلِهِ مِنَ النَّارِ، فَلَمَّا حَدَّثَ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شَأْنِهِمْ قَالَ : « إِنَّ هَذِهِ النَّارُ عَدُوٌّ لَكُمْ، فَلِذَا نِمْتُمْ فَطَافَتْهُمَا
عَنْكُمْ، وَتَفَقَّ عَلَيْهِ

161. 아비 무사(Abi Musa)가 전하고 있다. 메디나에서 밤중에 집 한 채가 불타면서 그 안의 가족들도 불타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잠자고 있을 때의 불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끄시오.” (Bukhari and Muslim).

١٦٢ - السَّابِعُ :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مَثَلَ مَا بَعَثَنِي اللَّهُ بِهِ مِنَ الْهُدَى وَالْعِلْمِ كَمَثَلِ غَيْثٍ أَصَابَ أَرْضًا
فَكَانَتْ مِنْهَا طَائِفَةٌ طَيِّبَةٌ، قَبِلَتِ الْمَاءَ فَأَنْبَتَ الْكَلَّا، وَالْعُشْبَ
الْكَثِيرَ، وَكَانَ مِنْهَا أَجَادِبُ أَمْسَكَتِ الْمَاءَ، فَتَفَقَّعَ اللَّهُ بِهَا النَّاسَ
فَفُتِرُوا مِنْهَا وَسَقَوْا وَزَرَعُوا. وَأَصَابَ طَائِفَةٌ مِنْهَا أُخْرَى، إِنَّمَا هِيَ
قَيْحَانٌ لَا تُمْسِكُ مَاءً وَلَا تُنْبِتُ كَلًّا. فَذَلِكَ مَثَلُ مَنْ فُقِعَ فِي دِينِ
اللَّهِ، وَتَفَقَّعَ بِمَا بَعَثَنِي اللَّهُ بِهِ، فَعَلِمَ وَعَلَّمَ، وَمَثَلُ مَنْ لَمْ يَرْفَعْ
بِذَلِكَ رَأْسًا، وَلَمْ يَقْبَلْ هُدَى اللَّهِ الَّذِي أُرْسِلْتُ بِهِ، وَتَفَقَّ عَلَيْهِ

16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비 무사(Abi Musa)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 알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침과 지식은

마치 대지에 떨어지는 비와 같습니다. 비의 일부는 바른 대지를 적시어 푸르고 신선한 채소들을 자라게 하고 또 다른 비의 일부는 모아져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요. 마시고, 눈에 물을 공급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요. 또 비의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보관되지요. 나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낸 종교에 관한 지식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지요. 그들 중에는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다른 부류로는 나를 통해서 보낸 알라 하나님의 지침과 안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Bukhari and Muslim).

۱۶۳ - الثَّامِنُ : عَنْ جَابِ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ثَلِي وَمَثَلُكُمْ كَمَثَلِ رَجُلٍ أَوْقَدَ نَارًا فَجَعَلَ الْجَنَادِبُ وَالْفَرَاشُ يَقَعْنَ فِيهَا وَهُوَ يَدْبُ بُهْنَ عَنْهَا وَأَنَا أَخَذْتُ بِحُجْرَتِكُمْ مِنَ النَّارِ ، وَأَنْتُمْ تَقْلَتُونِ مِنْ يَدَيَّ ، رَوَاهُ مُسْلِمٌ

16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나와 여러분은 불을 집혀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방들과 곤충들이 찾아들어 그 안에 떨어지고 그 불을 집힌 사람은 그것들이 그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는 바로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허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의 손으로부터 도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Muslim).

۱۶۴ - الثَّاسِعُ :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مَرَ بِلَتَعْقِ الْأَصَابِعِ وَالْمُصْحَفَةِ وَكَأَلْ : « إِنَّكُمْ لَا تَنْدَرُونَ فِي أَبْهَةِ الْبَرَكَةِ ، رَوَاهُ مُسْلِمٌ . وَفِي رَوَايَةٍ لَهُ : « إِذَا وَقَعَتْ لُعْنَةُ أَحَدِكُمْ ، فَلْيَتَّخِذْهَا فَلْيُطِمْ مَا كَانَ يَبْهًا مِنْ أَفَى ، وَلْيَتَّكِلْهَا ، وَلَا يَدْعُهَا لِلشَّيْطَانِ ، وَلَا يَمْسَحْ يَدَهُ بِالْمُنْدِيلِ حَتَّى يَلْتَقَى أَصَابِعَهُ ، فَإِنَّهُ لَا يَدْرِي فِي أَيِّ طَعَامِهِ الْبَرَكَةُ .

وفي رواية له : وإن الشَّيْطَانَ يَحْضُرُ أَحَدَكُمْ عِنْدَ كُلِّ شَيْءٍ مِنْ شَأْنِهِ حَتَّى يَحْضُرَهُ عِنْدَ طَعَامِهِ ، فَلِذَا سَقَطَتْ مِنْ أَحَدِكُمْ الْقُتْنَةُ فَلْيُبْطِ مَا كَانَ يَبْهَأُ مِنْ أَذَى ، فَلْيَبْأُ كُلَّهَا ، وَلَا يَدَّ عَنْهَا لِشَّيْطَانٍ

164.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은 후에는 손가락을 빨고 접시를 깨끗이 하라고 하셨다.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 음식의 어떤 부분이 축복받은 것인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Muslim).

무슬림(Muslim)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입의 음식이라도 땅에 떨어뜨렸다면 그것을 주워서 오물을 깨끗이 털어내고 먹어야 합니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사탄을 위한 것이 됩니다. 손가락에 묻은 음식을 빨기 전에는 수건으로 손을 닦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의 어느 부분이 축복받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무슬림(Muslim)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 밝히셨다. “사탄은 모든 일, 모든 경우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입의 음식이라도 땅에 떨어뜨렸다면 그것을 주워서 오물을 깨끗이 털어내고 먹어야 합니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사탄을 위한 것이 됩니다.”

١٦٥ - العائِشَةُ : عَنْ ابْنِ عَبَّاسٍ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قَامَ فِي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مَوْصِطَةٍ فَقَالَ : (يَا أَيُّهَا النَّاسُ إِنَّكُمْ تَحْشُرُونَ إِلَيَّ اللَّهُ تَعَالَى حَقًّا عَرَاةً غُرْلًا) (كَمَا بَدَأَ آدَمُ أَوَّلَ خَلْقِي نَعِيدُهُ وَهَذَا عَلَيْكُمْ إِنَّا كُنَّا فَاعِلِينَ) [الْأَنْبِيَاءُ : ١٠٣] أَلَا وَإِنَّ أَوَّلَ الْخَلَائِقِ يَكْنَى يَوْمَ الْقِيَامَةِ إِبْرَاهِيمُ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لَا وَإِنَّهُ سَيُجَاهِدُ بِرِجَالٍ مِنْ أُمَّتِي ، فَيُؤْخَذُ بِهِمْ ذَاتُ الشَّامِ ، فَأَقُولُ : يَا رَبِّ أَمْنَعَابِي ، فَيَقَالَ : إِنَّكَ لَا تَدْرِي مَا أَحَدُكُمْوَا بَعْدَكَ ، فَأَقُولُ كَمَا قَالَ الْعَبْدُ الصَّالِحُ : (وَكُنْتُ عَلَيْكُمْ شَهِيدًا مَا دُمْتُ فِيهِمْ) إِلَى قَوْلِهِ : (الْمَرْيُوزُ الْحَكِيمُ) [الْمَائِدَةُ : ١١٧ ، ١١٨] فَيَقَالَ لِي : إِنَّهُمْ لَمْ يَزَالُوا مُرْتَدِّينَ حَتَّى أَهْلَابِهِمْ مُنْدُ فَارَقَتْهُمْ ، مَتَّقْ عَلَيْهِ .

165.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설교하신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활되어 벌거벗은 채 알라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종이를 마는 것처럼 내가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을 상기하라. 내가 첫 번째 창조를 했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다시 창조할 것이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수행되노라】 (21:104)

조심하십시오. 제일 먼저 옷이 입혀질 분은 예언자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추종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지옥 근처 원편으로 불러나올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이들은 나의 교우들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후계자들이 새로운 이설을 만들어내었는지 그대는 모를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경건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알라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증거할 것입니다.” 【… 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저는 그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를 승천시키신 후에는 당신께서 그들을 감시하고 계셨으니 당신께서 모든 것 위에 증거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해도 그들은 당신의 종들이며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실로 당신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5:117-118) 그리고 나면 나에게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배교를 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١٦٦ - الْحَادِي عَشَرَ : عَنْ أَبِي سَعِيدٍ عَبْدِ اللَّهِ بْنِ مُغْفَلٍ،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تَهَيَّ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نِ الْخَدْفِ . وَقَالَ :
« إِنَّهُ لَا يَقْتُلُ الصَّيْدَ ، وَلَا يَنْكُحُ الْعَدُوَّ ، وَإِنَّهُ يُغْنَى الْعَيْنَ ، وَيَكْتَسِرُ
السِّنَّ » مَقْنَعٌ عَلَيْهِ
وفي رواية : أَنَّ قَرِيبًا لِابْنِ مُغْفَلٍ خَدَفَ ، فَتَنَاهَا وَقَالَ : إِ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تَهَيَّ عَنِ الْخَدْفِ وَقَالَ : « إِنَّهَا لَا تَصِيدُ صَيْدًا ، ثُمَّ عَادَ
فَقَالَ : أَحَدْتُكَ أَنَّ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تَهَيَّ عَنْهُ ، ثُمَّ عُدْتُ
تَخَدِفُ ؟ ! لَا أَكَلِمَتِكَ أَبَدًا

166. 아부 싸이드 압둘라(Abu Sa'id Abdullah bin Mughaffal)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은 사냥감을 적중시키지 못하고 적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도 못하며 눈과 이빨에 상처를 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압둘라(Abdullah bin Mughaffal)의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몇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적이 있었다. 누가 그에게 말했다. “사도께서는 그 방법을 금지하셨소. 그렇게 하면 사냥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남자는 귀담아듣지 않고 또 그렇게 하였다. 처음에 말했던 그가 말했다. “사도께서 그 방법을 금지하셨다고 당신에게 말했는데 당신은 아직껏 그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군요. 다시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소.”

١٦٧ - وعن عابِسِ بْنِ رَبِيعَةَ قَالَ : رَأَيْتُ عُمَرَ بْنَ الْخَطَّابِ ، رَضِيَ اللَّهُ عَنْهُ ، يَقْبَلُ الْحَجَرَ - يَعْنِي الْأَسْوَدَ - وَيَقُولُ : إِنِّي أَعْلَمُ أَنَّكَ حَجَرٌ مَا تَنْفَعُ وَلَا تَضُرُّ ، وَلَوْلَا أَنِّي رَأَيْتُ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يَقْبَلُكَ مَا قَبَّلْتُكَ مَتَّقْ عَلَيْهِ

167. 아비스(Abis bin Rabi')가 전하고 있다. 나는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카으바 신전에 있는 흑석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하나의 돌에 불과하여 유익하게 하고 해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사도께서 너에게 입맞춤만 하지 아니했다면 나도 너에게 절대로 입맞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Bukhari and Muslim).

제17장 신법 준수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فَلَا وَرَبِّكَ لَا يُؤْمِنُونَ حَتَّى يُحَكِّمُوكَ فِيمَا شَجَرَ بَيْنَهُمْ ثُمَّ لَا يَجِدُوا فِي أَنْفُسِهِمْ حَرَجًا مِمَّا قَضَيْتَ وَيُسَلِّمُوا تَسْلِيمًا [النساء : ٦٥] وقال تعالى : إِنَّمَا كَانَ قَوْلَ الْمُؤْمِنِينَ إِذَا دُعُوا إِلَى اللَّهِ وَرَسُولِهِ لِيَحْكُمَ بَيْنَهُمْ أَنْ يَقُولُوا سَمِعْنَا وَأَطَعْنَا وَأُولَئِكَ هُمُ الْمُفْلِحُونَ [النور : ٥١]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케 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자들이라 할 수 없노라.】 (4:65)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라 하나님과 사도에게 소환되어 심판을 받을 때 말할 것이라. 저희는 듣고 복종하였나이다. 저들이 바로 번영할 자들이라.】 (24:51)

١٦٨ - من أبي هريرة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لَمَّا نَزَلَتْ عَلَى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يَا أَيُّهَا النَّبِيُّ أَوْ أَتُخَفُّوهُ بِحُاسِبِكُمْ بِإِذْنِ اللَّهِ) الْآيَةَ [البقرة : ٢٨٤] اشْتَدَّ ذَلِكَ عَلَى أَصْحَابِ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أَتَوْا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ثُمَّ بَرَكُوا عَلَى الرُّكْبِ فَقَالُوا : أَيُّ رَسُولِ اللَّهِ كُلُّفْنَا مِنَ الْأَعْمَالِ مَا نَطِيقُ : الصَّلَاةَ وَالْجِهَادَ وَالْعِيَامَ وَالصَّدَقَةَ ، وَقَدْ أَنْزَلْتَ عَلَيْكَ هَذِهِ الْآيَةَ وَلَا نَطِيقُهَا . قَالَ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تُرِيدُونَ أَنْ تَقُولُوا كَمَا قَالَ أَهْلُ الْكِتَابِ بَيْنَ يَدَيْ قَبْلِكُمْ : سَمِعْنَا وَعَصَيْنَا ؟ بَلْ قُولُوا : سَمِعْنَا وَأَطَعْنَا غُفْرَانَكَ رَبَّنَا وَإِلَيْكَ الْمَصِيرُ » ، فَلَمَّا

اَفْتَرَا مَا الْقَوْمُ ، وَذَكَرَتْ بِهَا السِّتْنُهُمْ ، اَنْزَلَ اللهُ تَعَالَى فِي اِثْرِهَا :
 (اٰمَنَ الرَّسُوْلُ بِمَا اُنْزِلَ اِلَيْهِ مِنْ رَبِّهِ وَالْمُؤْمِنُوْنَ كُلُّ اٰمَنَ بِاللهِ
 وَمَلَائِكَتِهِ وَكُتُبِهِ وَرُسُلِهِ لَا نُفَرِّقُ بَيْنَ اَحَدٍ مِنْ رُسُلِهِ وَقَالُوا
 سَمِعْنَا وَأَطَعْنَا غُفْرَانَكَ رَبَّنَا وَابْنِكَ الصَّغِيرُ) فَلَمَّا فَعَلُوا ذَلِكَ
 نَسَحَهَا اللهُ تَعَالَى ، فَانْزَلَ اللهُ عَزَّ وَجَلَّ : (لَا يُكَلِّفُ اللهُ نَفْسًا اِلَّا
 وُسْعَهَا لَهَا مَا كَسَبَتْ وَعَلَيْهَا مَا اكْتَسَبَتْ ، رَبَّنَا لَا تُؤَاخِذْنَا اِنْ تَسَبَّحْنَا
 اَوْ اَخْطَاْنَا) قَالَ : نَعَمْ (رَبَّنَا وَلَا تَحْمِلْ عَلَيْنَا اِمْرًا كَمَا حَمَلْتَهُ
 عَلَيَّ الَّذِيْنَ مِنْ قَبْلِنَا) قَالَ : نَعَمْ (رَبَّنَا وَلَا تُحَمِّلْنَا مَا لَا طَاقَةَ لَنَا
 بِهِ) قَالَ : نَعَمْ (وَاعْفُ عَنَّا وَاهْنِمْ لَنَا وَارْحَمْنَا اَنْتَ مَوْلَانَا فَانصُرْنَا
 عَلَيَّ الْقَوْمِ الْكَافِرِيْنَ) قَالَ : نَعَمْ ، رواه مسلم

168.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사도에게 다음의 말씀이 계시되었다.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알라 하나님에게 속하며 너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밝히거나 숨기더라도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계산하시니라. 알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용을 베풀고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벌을 내리시니 알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실 권능을 갖고 계시니라.】 (2:284)

불안을 크게 느낀 추종자들이 사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도여, 저희에게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성전과 이슬람세 납부입니다. 지금 본 절이 당신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입니다.” 이에 사도께서 말했다. “전에 두 성서의 백성들이 말했던 것을 여러분도 말하고 싶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들었으나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었으니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용서를 간구합니다. 주여, 여정의 종점은 당신입니다.】 (2:285) 그들이 이절을 읽자 그들의 혀가 자연스럽게 따라하였고 뒤이어 알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셨다. 【나의 사도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었노라.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랬노라. 그들

모두는 알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을 믿었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사도들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듣고 복종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용서를 간구합니다. 주여, 여정의 종점은 당신입니다.】(2:285)

그들이 그렇게 하고나자 알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취소하시고 다음 계시를 내리셨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아니 하시니라. 인간은 그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것으로 대가를 받을 것이라. 주여, 망각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를 벌주지 마소서. 주여, 저희의 선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럼 저희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지우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2:286)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Muslim).

제18장 이설과 이단 금지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فَمَاذَا بَعْدَ الْحَقِّ إِلَّا الضَّلَالُ [يونس : ٣٢] وقال تعالى : مَا فَرَّطْنَا فِي الْكِتَابِ مِنْ شَيْءٍ [الأنعام : ٣٨] وقال تعالى : فَإِنْ تَنَازَعْتُمْ فِي شَيْءٍ فَرُدُّوهُ إِلَى اللَّهِ وَالرَّسُولِ [النساء : ٥٩] أي : الْكِتَابِ وَالسُّنَّةِ . وَقَالَ تَعَالَى : وَأَنْ هَذَا صِرَاطِي مُسْتَقِيمًا فَاتَّبِعُوهُ وَلَا تَتَّبِعُوا السُّبُلَ فَتَفَرَّقَ بِكُمْ عَنْ سَبِيلِهِ [الأنعام : ١٥٣] وقال تعالى : قُلْ إِنْ كُنْتُمْ تُحِبُّونَ اللَّهَ فَاتَّبِعُونِي يُحْبِبْكُمُ اللَّهُ وَيَغْفِرْ لَكُمْ ذُنُوبَكُمْ [آل عمران : ٣١] وَالآيَاتُ فِي الْبَابِ كَثِيرَةٌ مَعْلُومَةٌ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그 진리 외에는 모두가 허황된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 진리를 외면하겠느뇨.】 (10:32) 【... 나는 그 어떤 것도 성서에 빠뜨리지 아니했노라 ...】 (6:38) 【믿는 자들이여, 알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도와 너희 가운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에 분쟁이 있을 경우 알라 하나님과 사도에게 위탁하라. 너희가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선이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이라.】 (4:59)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나의 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따르되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그분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라. 이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사악한 것을 경계하라.】 (6:153) 【일러가로되 너희가 알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느니라.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3:31)

١٦٩ - عن عائشة ، رضي الله عنها ، قالت : قال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أَحْدَثَ فِي أَمْرِنَا هَذَا مَا لَيْسَ مِنْهُ فَهُوَ رَدٌّ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 مَنْ حَمَلَ حِمْلًا لَيْسَ عَلَيْهِ أَمْرُنَا فَهُوَ رَدٌّ ».

16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우리의 이슬람 종교에 이슬람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소개하려는 자 있다면 그는 반드시 배척되어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무슬림(Muslim)의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에 의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어떤 논리를 소개하려하는 자는 반드시 배척되어야 합니다.”

١٧٠ - وعن جابر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كان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إذا خطب أحمرَّتْ حِينَاهُ ، وَهَلَا صَوْتُهُ ، وَاشْتَدَّ غَضَبُهُ ، حَتَّى كَانَتْهُ مُنْذِرُ جَيْشٍ يَقُولُ : « صَبَّحَكُمْ وَمَسَّكُمْ » ، وَيَقُولُ : « بُعِثْتُ أَنَا وَالسَّاعَةُ كَهَاتَيْنِ » ، وَيَقْرَنُ بَيْنَ أَصْبُعَيْهِ ، السَّبَابَةَ وَالْوُسْطَى ، وَيَقُولُ : « أَمَّا بَعْدُ ، فَإِنَّ خَيْرَ الْحَدِيثِ كِتَابُ اللَّهِ ، وَخَيْرُ الْهَدْيِ هَدْيُ مُحَمَّدٍ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فَرُّ الْأُمُورِ مُحَدَّثَاتُهَا ، وَكُلُّ بِدْعَةٍ ضَلَالَةٌ » ، ثُمَّ يَقُولُ : « أَنَا أَوْلَى بِكُلِّ مُؤْمِنٍ مِنْ نَفْسِهِ . مَنْ تَرَكَ مَالًا فَلَا عَلَيْهِ ، وَمَنْ تَرَكَ دِينًا أَوْ ضِيَاءًا فَلَيْتَ وَعَلَيْهِ » ، رواه مسلم

170. 자베르(Jabir)가 전하고 있다. 설교하실 때 사도의 두 눈은 충혈이 되고 목청이 올라가며 분노가 더해지는 듯한 때가 있었다. 마치 적군에 대항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아침에 적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수도 있으며 혹은 저녁에 여러분을 향해 진격해 올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 말을 이었다. “나의 출현과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은 나의 두 손가락, 즉 집게손

가락과 중간손가락 사이처럼 함께 놓여있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은 알라 하나님의 책이요 가장 좋은 지침은 나 무함마드가 보여준 전통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이슬람에 새로운 요소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변화와 혁신으로 이설이며 방황입니다. 나는 무슬림 각각의 자신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슬림이 재산을 남긴다면 그것의 주인은 그의 가족이며 만일 그가 부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의 책임과 그의 부양가족의 보호는 나에게 있습니다.” (Muslim).

제19장 덕행과 선행의 장려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الَّذِينَ يَقُولُونَ رَبَّنَا هَبْ لَنَا مِنْ أَزْوَاجِنَا وَذُرِّيَّاتِنَا
فُرَّةً أَعْيُنٍ وَاجْعَلْ لَنَا لِمُنْتَقِينَ إِمَامًا [الفرقان : ٢٤] وقال تعالى :
وَجَعَلْنَاهُمْ أُمَّةً يَهْدُونَ بِأَمْرِنَا [الأنبياء : ٧٣]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손들을
주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
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라.】 (25:74)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나의 명
령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로 만들었노라 ...】 (21:73)

١٧١ - عَنْ أَبِي عَمْرٍو ، جَرِيرِ بْنِ عَبْدِ اللَّهِ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كُنَّا فِي صَدْرِ النَّهَارِ عِنْدَ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جَاءَهُ قَوْمٌ
عُرَاةٌ مُجْتَابِي الثَّمَارِ ، أَوْ الْعَبَاءِ ، مُتَقَلِّدِي السُّيُوفِ ، عَامَتُهُمْ مِنْ
مُضَرَ ، بَلَّ كُلُّهُمْ مِنْ مُضَرَ ، فَتَتَمَرَّرَ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لِمَا رَأَى بِهِمْ مِنَ الْفَاقَةِ ، فَدَخَلَ ثُمَّ خَرَجَ ، فَأَمَرَ بِلَالًا فَأَذَّنَ
وَأَقَامَ ، فَصَلَّى ثُمَّ خَطَبَ ، فَقَالَ : (يَا أَيُّهَا النَّاسُ اتَّقُوا رَبَّكُمُ الَّذِي
خَلَقَكُمْ مِنْ نَفْسٍ وَاحِدَةٍ) إِلَى آخِرِ الْآيَةِ : (إِنَّ اللَّهَ كَانَ عَلَيْكُمْ
رَقِيبًا) ، وَالْآيَةُ الْآخِرَى الَّتِي فِي آخِرِ الْخُشْرِ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وَلْتَنْظُرْ نَفْسٌ مَّا قَدَّمَتْ لِغَدٍ) تَصَدَّقَ رَجُلٌ مِنْ دِيَارِهِ
مِنْ دِرْهِمِهِ مِنْ ثَوْبِهِ مِنْ صَاعٍ بُرٍّ مِنْ صَاعٍ تَمْرِهِ ، حَتَّى قَالَ :
وَلَوْ بِشِقِّ تَمْرَةٍ ، فَجَاءَ رَجُلٌ مِنَ الْأَنْصَارِ بِصُرَّةٍ كَادَتْ كَفَّهُ تَعْجِيزُ
عَنْهَا ، بَلَّ قَدْ عَجَزَتْ ، ثُمَّ تَتَابَعَ النَّاسُ حَتَّى رَأَيْتُ كَوْمَيْنِ مِنَ
طَعَامٍ وَثِيَابٍ ، حَتَّى رَأَيْتُ وَجْهَ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يَتَهَلَّلُ

كَأَنَّهُ مَذْهَبَةٌ؛ فَقَالَ رَسُولُ اللَّهِ ﷺ : « مَنْ سَنَّ فِي
الْإِسْلَامِ سُنَّةً حَسَنَةً قَلَّهَ أَجْرُهَا ، وَأَجْرُ مَنْ عَمِلَ بِهَا مِنْ بَعْدِهِ
مِنْ غَيْرِ أَنْ يَنْقُصَ مِنْ أَجُورِهِمْ شَيْءٌ ، وَمَنْ سَنَّ فِي الْإِسْلَامِ سُنَّةً
سَيِّئَةً كَانَ عَلَيْهِ وِزْرُهَا وَوِزْرُ مَنْ عَمِلَ بِهَا مِنْ بَعْدِهِ مِنْ غَيْرِ
أَنْ يَنْقُصَ مِنْ أَجُورِهِمْ شَيْءٌ » رواه مسلم

171. 자리르(Jarir bin Abdullah)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사도와 함께 있을 때 거친 마포만을 걸친 몇 사람들이 사도를 찾아왔다. 그들 중에 일부는 두루마기 같은 복장에다 한쪽 편에 칼을 차고 있었다. 그들 대다수는 무다르(Mudar) 부족 출신이었다. 사도께서는 그들의 몸이 쇠약하고 굵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동요하셨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빌랄(Bilal)에게 예배시간을 알리라고 했다. 예배를 인도한 후 설교를 하였다.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 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도록 하셨노라. 너희가 너희의 권리를 요구하매 알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희를 낳아준 태아를 공경하라.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라.】 (4:1) 【믿는 자들이여,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각자 스스로가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숙고하라. 그리고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59:18)

그런 후 사도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선에의 동참을 촉구하셨다. 돈도 좋고, 옷이나 밀가루 또는 대추야자 열매 아니 그것의 반쪽이라도 좋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메디나 후원자 출신 한 사람이 무거운 가방 하나를 가져왔다. 사도는 무거워서 들 수도 없을 정도였다. 뒤를 이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선에 동참하였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일 정도였다. 나는 사도의 얼굴이 금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 사도가 말했다. “이슬람의 미덕의 전통을 소개한 자는 조

금도 줄어들지 않은 그에 대한 보상과 후에 그의 본을 받아 그렇게 행하는 자의 보상까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나쁜 전통을 소개하는 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후에 그의 본을 받아 그렇게 행하는 자의 대가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Muslim).

۱۷۲ - و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ليس من نفس تقتل ظلماً إلا كان على ابنِ آدم الأول كِفْلٌ
 من دميها لأنه كان أول من سنَّ القتل » مضاف عليه

172.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마스우드(Ibn Mas'ud)가 전하고 있다. “현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을 위해 아담의 장남 카인에게는 징벌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살인의 방법을 고안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제20장 덕행과 선행의 장려

قال تعالى : وَاذْعُ إِلَىٰ رَبِّكَ [القصص : ٨٧] وقال تعالى : اذْعُ إِلَىٰ سَبِيلِ رَبِّكَ بِالْحِكْمَةِ وَالْمَوْعِظَةِ الْحَسَنَةِ [النحل : ١٢٥] وقال تعالى : وَتَعَاوَنُوا عَلَىٰ الْبِرِّ وَاتَّقُوا [المائدة : ٢] وقال تعالى : وَلَتَكُنْ مِنْكُمْ أُمَّةٌ يَدْعُونَ إِلَى الْخَيْرِ [آل عمران : ٨٤]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라 ...】 (28:87)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주님의 길로 초대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대하라 ...】 (16:125) 【... 선행과 정의를 위해서로 협력하라 ...】 (5:2)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선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멀리하라 ...】 (3:104)

١٧٣ - وعن أبي مسعود عَقْبَةَ بْنِ عَمْرِو الْأَنْصَارِيِّ الْبَ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دَلَّ عَلَى خَيْرٍ فَلَهُ مِثْلُ أَجْرِ فَاعِلِهِ » ، رواه مسلم

173. 아부 마스우드 우끄바(Abu Mas'ud bin 'Amr Al-Ansari Al-Badri)가 전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유도한 사람은 그것을 행한 자의 보상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Muslim).

١٧٤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دَعَا إِلَى هُدًى كَانَ لَهُ مِنَ الْأَجْرِ مِثْلُ أُجُورِ مَنْ تَبِعَهُ لَا يَنْقُصُ ذَلِكَ مِنْ أُجُورِهِمْ شَيْئًا ، وَمَنْ دَعَا إِلَى ضَلَالَةٍ كَانَ عَلَيْهِ مِنَ الْإِثْمِ مِثْلُ آثَامِ مَنْ تَبِعَهُ لَا يَنْقُصُ ذَلِكَ مِنْ آثَامِهِمْ شَيْئًا » ، رواه مسلم

17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촉구한 자는 아무 것도 삭감되는 일 없이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보상을 받지요. 그러나 사람들을 나쁜 일로 유도하는 자에게는 아무 것도 삭감되는 일 없이 그것을 저지른 자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Muslim).

١٧٥ - وعن أبي العباس سهل بن سعد الساعد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يوم خيبر: «لأعطين الراية غدا رجلاً يفتح الله على يديه، يحب الله ورسوله، ويحبه الله ورسوله، فبات الناس يدوكون ليلتهم أيهم يعطاها. فلما أصبح الناس غدوا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لهم يرجو أن يعطاها، فقال: «أين علي بن أبي طالب؟» فقيل: «بارسول الله هو يشتكي عينيه». قال: «فأرسلوا إليه، فأتني به، فبصق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عينيه، ودعا له، فبرأ حتى كأن لم يكن به وجع، فأعطاه الراية». فقال علي رضي الله عنه: يا رسول الله أفاتيلهم حتى يكونوا مثلنا؟ فقال: «انفذت على رسلك حتى تنزل بساحتهم، ثم ادعهم إلى الإسلام، وأخبرهم بما يحب عليهم من حق الله تعالى فيه، فوالله لأن يهدي الله بك رجلاً واحداً خير لك من حمر النعم».

معنى عليه .

175. 아부 압바스 사흘(Abu Al-Abbas Sahl bin Sa'ad)이 전하고 있다. 카이바르 전투에서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내일은 내가 깃발을 한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요.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는 알라 하나님과 사도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에 따라 알라 하나님과 사도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 깃발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궁금해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사도에게로 모여들면서 자신이 그 깃발을 받는 명예를 갖고 싶어 했다. 사도께서 물으셨다. “알리(Ali bin Abi Talib)가 어디에 있지요?” 그러자 이런 말이 들려왔다. “그는 지금 눈이 아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사도께서 말했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알리가 나타났다. 사도는 그의 두 눈에 자신의 타액을 넣고 기도하였다. 그는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눈은 치료되었다. 그리고 사도는 그에게 깃발을 주었다. 그러자 알리가 말했다. “사도여, 그들이 우리처럼 무슬림이 될 때까지 그들에 대항해서 싸울까요?”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정상적인 너의 속도로 계속 행진하여 그들의 진지까지 가서 그곳에 진지를 친 후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라. 그리고 알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라.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알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네가 값비싼 많은 붉은 낙타들을 얻는 것보다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이 될 것이다.” (Bukhari and Muslim).

۱۷۶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ان فتى من أسلم 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إنني أريد الغزو وليس معي ما أجهز به ؟ قال : هات فلانا فإنه قد كان
تجهز فمرض ، فأتاه فقال : إ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رئك السلام
ويقول : أعطني الذي تجهزت به ، فقال : يا فلانة أعطني الذي
تجهزت به ، ولا تحبسي منه شيئا ، فوالله لا تحبسين منه شيئا
فبَارَكَ لَكَ فِيهِ . رواه مسلم

176.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바니 아슬람(Bani Aslam) 부족 출신의 한 젊은이가 사도를 찾아와 말했다. “사도여, 저는 성전에 참여하고 싶은데 성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가 대답하셨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 보시오. 그가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그 남자를 찾아가 말했다. “사도께서 나를 보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시면서 당신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여 둔 장비를 저에

게 넘겨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의 아내에게 성전을 위해 준비하여 둔 모든 장비를 나에게 넘겨주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당신이 아무 것도 돌려받지 않는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실 거요.” (Muslim).

제21장 선행에 대한 협력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تَعَاوَنُوا عَلَى الْبِرِّ وَالتَّقْوَى [المائدة : ٣] وقال تعالى :
وَالْعَصْرُ . إِنَّ الْإِنْسَانَ لَفِي خُسْرٍ .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تَتَوَاصَوْا بِالْحَقِّ وَتُؤْتَوْنَ بِالصَّبْرِ [العصر : ١-٣]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행과 정의를 위해 서로 협동하라...】 (5:2) 【흘러가는 세월을 두고 맹세하사 실로 모든 인간은 잃게 되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며 의로운 일을 행함에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고하고 인내하는 자들은 제외이니라.】 (103:1-3)

١٧٧ - عن أبي عبد الرحمن زيد بن خالد الجهن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جَهَّزَ غَازِيًا فِي سَبِيلِ اللَّهِ فَقَدْ
غَزَا » وَمَنْ خَلَّفَ غَازِيًا فِي أَهْلِهِ بِخَيْرٍ فَقَدْ غَزَا ، مَقْنُ عَلَيْهِ .

17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압두라흐만 자이드(Abu Abdurahman Zaid bin Khalid Al-Juhan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할 장비하나만 마련해 주어도 그 사람은 성전에 참전한 것과 같으며 참전 용사의 가족을 돌보아주는 사람도 그가 성전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١٧٨ - وعن أبي سعيد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بَعَثَ بَعْثًا إِلَى بَنِي لَيْحْيَانَ مِنْ هَذَيْلٍ فَقَالَ : « لِيَنْتَبِعَ مِنْ كُلِّ رَجُلَيْنِ أَحَدُهُمَا وَالْأَجْرُ بَيْنَهُمَا » ، رَوَاهُ مُسْلِمٌ .

178. 아부 싸이드 쿠드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후다일(Hudail) 출신의 바니 라이한(Bani Laihyan) 부족에 대항한 전투에 분대를 파견하면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남자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

람은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Muslim).

١٧٩ - و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لقي ركبا بالروحاء فقال : « من القوم ؟ » قالوا : المسلمون ،
 فقالوا : من أنت ؟ قال : رسول الله ، فرفعت إليه امرأة صبيًا فقالت :
 اهَذَا حج ؟ قال : « نعم ، ولك أجر » ، رواه مسلم

179.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라우하(Rauha) 지역
 에서 탈 것에 몸을 싣고 가는 일련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사도께서 질
 문하셨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저
 희들은 무슬림들인데 당신은 누구요?”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알
 라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여성이 아이를 앞으로 데
 려와 말했다. “이 아이도 순례를 가고 있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
 다. “그래요, 당신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Muslim).

١٨٠ - وعن أبي موسى الأشعري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ه قال : « الخازنُ المسلمُ الأمينُ الذي يُنقِذُ ما أمَرَ بهِ ، فيُعْطيه
 كاملاً موكراً ، طيبةً بهِ نفسهُ ، فبدّعهُ إلى الذي أمرَ له بهِ
 أحدُ المتصدين ، مثقُ عليه .

وفي رواية : « الذي يُعْطِي ما أمَرَ بهِ ، وضيّعوا المتصدقين ، يفتح
 القاف مع كسر النون على التفتيح ، وعكسه على الجنع وكلاماً صحيح .

18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성실하고 충실한 한 무슬림 회계원이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게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시사항을 집행한 후
 권리가 있는 관련자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선으로 베풀
 사람과 같습니다.”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시사항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양도하는 자도 역시 자선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2장 조언과 충고

قال تعالى : [إِنَّمَا الْمُؤْمِنُونَ إِخْوَةٌ] [الحجرات : ١٠] وقال تعالى
إِخْبَاراً مِنْ نُوحٍ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أَنْصَحُ لَكُمْ [الأعراف : ٦٢]
وَعَنْ هُودٍ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أَنَا لَكُمْ نَاصِحٌ أَمِينٌ [الأعراف : ٦٨].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
(49:10) 알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후드를 통하여 충고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충고하고...】 (7:62) 【...나는 너희를 위한 믿음직스러운 조원자라.】 (7:68)

١٨١ - فَأَلَوَّلُ: عَنْ أَبِي رُقَيْبَةَ تَمِيمِ بْنِ أَوْسٍ الدَّارِ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الدِّينُ النَّصِيحَةُ» ، قُلْنَا : لِمَنْ ؟ قَالَ
«لِلَّهِ وَلِكِتَابِهِ وَلِكُرْسِيِّهِ وَلِأَهْلِ الْمُسْلِمِينَ وَهَامَتِهِمْ» ، رَوَاهُ مُسْلِمٌ .

18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루카이야 타미(Abu Ruqaiyah Tamim bin Aws Al-Dari)이 전하고 있다. “믿음의 바탕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물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과 그분의 성서와 그분의 사도와 지도자들과 무슬림들을 위해서입니다.” (Muslim).

١٨٢ - الثَّانِي : عَنْ جَرِيرِ بْنِ عَبْدِ اللَّ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بَايَ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لَى إِقَامِ الصَّلَاةِ ، وَإِيتَاءِ الزَّكَاةِ ، وَالنَّصَحِ
لِكُلِّ مُسْلِمٍ . مَوْثُقٌ عَلَيْهِ

182. 자리르(Jarir bin Abdull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께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내며 각각의 무슬림들에게 충고하겠다고 맹세하였다.’ (Bukhari and Muslim).

١٨٣ - الثَّالِثُ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مِ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ا يُؤْمِنُ أَحَدُكُمْ حَتَّى يُحِبَّ لِأَخِيهِ مَا يُحِبُّ لِنَفْسِهِ » ، مَعْنَاهُ

18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무슬림이라 할 수 없습니다.” (Bukhari and Muslim).

제23장 덕행의 권장과 악행 금지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لَتَكُنْ مِنْكُمْ أُمَّةٌ يَدْعُونَ إِلَى الْخَيْرِ وَيَأْمُرُونَ بِالْمَعْرُوفِ وَيَنْهَوْنَ عَنِ الْمُنْكَرِ وَأُولَئِكَ هُمُ الْمُفْلِحُونَ [آل عمران: ١٠٤]
 وقال تعالى : كُنْتُمْ خَيْرَ أُمَّةٍ أُخْرِجَتْ لِلنَّاسِ تَأْمُرُونَ بِالْمَعْرُوفِ
 وَتَنْهَوْنَ عَنِ الْمُنْكَرِ [آل عمران : ١١٠] وقال تعالى : خَلَدِيَ الْعَقُورُ
 وَأَمْرٌ بِالْعُرْفِ وَأَعْرِضْ عَنْ الْجَاهِلِينَ [الأعراف : ١٩٩] وقال تعالى :
 وَالْمُؤْمِنُونَ وَالْمُؤْمِنَاتُ بَعْضُهُمْ أَوْلِيَاءُ بَعْضٍ يَأْمُرُونَ بِالْمَعْرُوفِ
 وَيَنْهَوْنَ عَنِ الْمُنْكَرِ [التوبة : ٧١] وقال تعالى : لُعِنَ الَّذِينَ كَفَرُوا
 مِنْ بَنِي إِسْرَائِيلَ عَلَى لِسَانِ دَاوُدَ وَعِيسَى ابْنِ مَرْيَمَ ذَلِكَ بِمَا عَصَوْا
 وَكَانُوا يَعْتَدُونَ، كَانُوا لَا يَتَنَاهَوْنَ عَنْ مُنْكَرٍ فَعَلُوهُ لَبِئْسَ مَا كَانُوا
 يَفْعَلُونَ [المائدة: ٧٩] وقال تعالى : وَقُلِ الْخَقُّ مِنْ رَبِّكُمْ فَمَنْ شَاءَ
 فَلْيُؤْمِنْ وَمَنْ شَاءَ فَلْيُكْفُرْ [الكهف : ٣٠] وقال تعالى : فَاصْدَعْ بِمَا
 تُؤْمَرُ [الحجر : ٩٤] وقال تعالى : (فَانجَيْنَا الَّذِينَ يَنْهَوْنَ عَنْ
 السُّوءِ وَأَخَذْنَا الَّذِينَ ظَلَمُوا بِعَدَابٍ بَئِيسٍ بِمَا كَانُوا يَفْسُقُونَ
 [الأعراف : ١٦٥] وَالْآيَاتُ فِي الْبَابِ كَثِيرَةٌ مَعْلُومَةٌ.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한 공동체가 되어 선행을 추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멀리하라. 실로 그들이 번성하는 자들이니라.】 (3:104)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 계율을 지키고 악을 멀리할 것이며...】 (3:110)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되 우매한 자들을 멀리하라.】 (7:199)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들은 선을 권유하고 악을 금하노라 ...】 (9:71)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다윗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혀를 통하여 저주 받았더라. 그들은 거역했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악을 단념치 아니 하였으므로 그들이 저지른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5:78-79)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의 보상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18:30) 【그러므로 그대가 명령받은 것을 선언하고 불신자들로부터 멀리하라.】(15:94)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된 교훈을 망각한 무리가 있었으니 나는 사악함을 멀리한 백성만을 구하고 죄지은 백성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엄한 징벌을 내렸노라.】(7:165)

١٨٤ - فالأول : عن أبي سعيد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مَنْ رَأَى مِنْكُمْ مُنْكَرًا فَلْيُغَيِّرْهُ بِيَدِهِ ، فَإِنْ لَمْ يَسْتَطِعْ فَبِلِسَانِهِ ، فَإِنْ لَمْ يَسْتَطِعْ فَبِقَلْبِهِ وَذَلِكَ أَضْعَفُ الْإِيمَانِ » رواه مسلم

184. 아부 싸이드 쿠드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손으로 그것을 막으시오. 만일 손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혀로 막고 손으로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록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이긴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막으시오.” (Muslim)

١٨٥ - الثاني : 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ا مِنْ نَبِيٍّ بَعَثَهُ اللَّهُ فِي أُمَّةٍ قَبْلِي إِلَّا كَانَ لَهُ مِنْ أُمَّتِهِ حَوَارِيُّونَ وَأَصْحَابٌ يَتَّخِذُونَ بَيِّنَتِهِ وَيَقْتَدُونَ بِأَمْرِهِ ، ثُمَّ إِذَا تَخَلَّفَ مِنْ بَعْدِهِمْ خُلُوفٌ يَقُولُونَ مَا لَا يَفْعَلُونَ ، وَيَقْعَلُونَ مَا لَا يُؤْمَرُونَ ، فَتَمَزَّ جَاهِدُهُمْ بِيَدِهِ فَهُوَ مُؤْمِنٌ ، وَمَنْ جَاهَدَهُمْ بِقَلْبِهِ فَهُوَ مُؤْمِنٌ ، وَمَنْ جَاهَدَهُمْ بِلِسَانِهِ فَهُوَ مُؤْمِنٌ . وَلَيْسَ وَرَاءَ ذَلِكَ مِنَ الْإِيمَانِ حَبَّةُ خَرْدَلٍ » رواه مسلم

18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마쓰우드(Ibn Mas'ud)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나 이전에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은 충실한 제자들

과 교우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지시와 전통을 지키고 준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후의 추종자들은 선임자들의 선례와는 다르게 말과 행동이 달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행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항하여 손으로 성전하는 자, 마음으로 성전하는 자, 혀로 성전하는 자, 모두가 신앙인(Muwmin)입니다. 이 밖에 믿음의 씨앗은 없습니다.” (Muslim).

۱۸۶ - الثالث : عن أبي الوليد عُبَادَةَ بْنِ الصَّامِتِ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بَابِعْ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لَى السَّبْعِ وَالطَّاعَةِ فِي الْعُسْرِ وَالْيُسْرِ ، وَالتَّخَفُّطِ وَالْمَكْرَهَةِ ، وَعَلَى أَثَرَةٍ مَكْتَبِنَا ، وَعَلَى أَنْ لَا نُنَازِعَ الْأَمْرَ أَمْزَ إِلَّا أَنْ تَرَوْا كُفْرًا بَوَاحًا عِنْدَكُمْ مِنْ اللَّهِ تَعَالَى فِيهِ بُرْهَانٌ ، وَعَلَى تَقُولَ بِالْحَقِّ "أَبْنَتْنَا كُنَّا لَا نَخَافُ فِي اللَّهِ لَوْمَةً لَا نَمُرُ ، مُتَقُونَ عَلَيْهِ

186. 아부 알왈리드 우바다(Abu Alwalid 'Ubadah bin Al-Samit)가 전하고 있다. 우리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싫을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도에게 경청하고 복종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지위를 착취하지 않으며 공개적인 불신앙이나 믿음을 방해하지 않는 한 지도자의 지시에 결코 반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께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허락을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으며, 저희는 알라 하나님을 위한 흑평과 질책이라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۱۸۷ - الرابع : عن النعمانِ بْنِ بَشِي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النَّبِيِّ صَلَّى عَلَيْهِ وَسَلَّمَ قَالَ : «مَثَلُ الْقَائِمِ فِي حُدُودِ اللَّهِ ، وَالْوَاقِعِ فِيهَا كَمَثَلِ قَدِ اسْتَهْمُوا عَلَى سَفِينَةٍ ، فَصَارَ بَعْضُهُمْ أَعْلَاهَا وَبَعْضُهُمْ أَسْفَلَهَا وَكَانَ الَّذِينَ فِي أَسْفَلِهَا إِذَا اسْتَقَوْا مِنَ الْمَاءِ مَرُّوا عَلَى مَنْ فَوْقَهُمْ فَعَالُوا : لَوْ أَنَّا خَرَقْنَا فِي تَصْيِينَا خَرَقًا وَلَمْ نُؤْذِرْ مَنْ فَوْقَنَا ، فَلِنْ تَرَكُوهُ وَمَا أَرَادُوا هَلَكُوا جَمِيعًا . وَإِنْ أَخَذُوا عَلَى أَيْدِيهِمْ نَجَوْا وَنَجَوْا جَنِبَ رَوَاهُ الْبُخَارِيُّ

18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누으만(Nu'man bin Bashir).이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와 이를 무시하는 자를 비유한다면 배에 승선하여 누가 갑판 위쪽을 차지하고 누가 갑판 아래쪽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추첨으로 결정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갑판 아래쪽에 있는 자들이 물을 기러오려면 갑판 위에 있는 자들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갑판 아래쪽에 구멍을 내도록 허락을 요구하나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신들도 구제되고 아래쪽에 있는 자들도 모두 구제됩니다.” (Bukhari)

١٨٨ - الخاميس : عَنْ أُمِّ الْمُؤْمِنِينَ أُمِّ سَلَمَةَ هِنْدِ بِنْتِ أَبِي أُمَيَّةَ حَدَّثَتْ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هُ قَالَ : « إِنَّهُ يُسْتَعْمَلُ عَلَيْكُمْ أَمْرٌ فَتَعْرِفُونَ وَتُشْكِرُونَ . فَمَنْ كَرِهَ فَقَدْ بَرِئَ ، وَمَنْ أَنْكَرَ فَقَدْ سَلِمَ ، وَلَكِنْ مَنْ رَضِيَ وَتَابَعَ ، قَالُوا : يَا رَسُولَ اللَّهِ أَلَا نُقَاتِلُهُمْ ؟ قَالَ : « لَا ، مَا أَقَامُوا فِيكُمْ الصَّلَاةَ » ، رَوَاهُ مُسْلِمٌ .

18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신앙인들의 어머니이자 사도의 아내인 움무 살라마 힌드(Umm Salamah bint Abi Umaiyah)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 중에서 이슬람법을 준수하는 자들과 이슬람법에 역행하는 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자를 혐오하는 자는 계산에서 면제될 것이요, 분개하는 자는 계산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자는 책임을 져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성전을 해야만 합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아니요.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Muslim).

١٨٩ - السَّادِسُ : عَنْ أُمِّ الْمُؤْمِنِينَ أُمِّ الْحَكَمِ زَيْنَبَ بِنْتِ جَحْشٍ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دَخَلَ عَلَيْهَا فَرِعَا يَقُولُ : « لَا إِلَهَ إِلَّا اللَّهُ ، وَبِئْسَ لِلنَّعَرَبِ مِنْ شَرٍّ قَدِ اقْتَرَبَ ، فُتِّحَ الْيَوْمَ مِنْ رَدْمٍ بِأَجُوجَ وَمَاجُوجَ مِثْلُ هَذِهِ ، وَحُلِّقَ بِأَصْبُعَيْهِ الْإِبْهَامِ وَالَّتِي تَلِيهَا . فَ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أَتَهْلِكُ وَفِينَا الصَّالِحُونَ ؟ » قَالَ : « نَعَمْ إِذَا كَثُرَ الْخَبَثُ » متفق عليه .

189. 신앙인들의 어머니이자 사도의 아내인 자이납(Zainab bint Jahash)이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사도께서 걱정이 많은 모습을 하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다가오는 있는 그 날 저주가 있을 거예요. 오늘 고그(Yawjuj)와 마고그(Mawjuj)를 제지하는 벽에 파열구가 만들어졌어요. 그 구멍은 이 크기라고 하면서 그분께서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 보이셨습니다.” 나는 질문을 했지요. “사도여, 아직 우리 중에는 덕망이 높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멸망하거나 피살되나요?” 사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부패와 악이 퍼지면 그렇게 되요.” (Bukhari and Muslim).

١٩٠ - السَّابِعُ : عَنْ أَبِي سَعِيدٍ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يَّاكُمْ وَالْجُلُوسَ فِي الطَّرِيقَاتِ ، فَقَالُوا : يَا رَسُولَ اللَّهِ مَا لَنَا مِنْ مَجَالِسِنَا بُدَّ ، نَتَحَدَّثُ فِيهَا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فَإِذَا أَبَيْتُمْ إِلَّا الْمَجْلِسَ فَأَعْطُوا الطَّرِيقَ حَقَّهُ ، قَالُوا : وَمَا حَقُّ الطَّرِيقِ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 « غَضُّ الْبَصَرِ ، وَكَفُّ الْأَذَى ، وَرَدُّ السَّلَامِ ، وَالْأَمْرُ بِالْمَعْرُوفِ ، وَالنَّهْيُ عَنِ الْمُنْكَرِ » متفق عليه .

19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싸이드 쿠드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길 가운데 앉지 마시오.” 이 말에 교우

들이 물었다. “사도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사안을 토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래도 앉지 마시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길은 길의 권리가 있습니다.” 길의 권리가 무엇이나고 교우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눈을 아래로 하고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치우며,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고, 선행을 장려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을 삼가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۱۹۱ - الثَّامِنُ : 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رَأَى خَاتَمًا مِيزَنَ ذَهَبٍ فِي يَدِ رَجُلٍ ، فَتَنَزَّعَهُ فَطَرَحَهُ وَقَالَ : « يَعْمِدُ أَحَدُكُمْ إِلَى جَمْرَةٍ مِنْ نَارٍ فَيَجْعَلُهَا فِي يَدِهِ ! ، فَقِيلَ لِلرَّجُلِ بَعْدَ مَا ذَهَبَ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خُذْ خَاتَمَكَ ، انْتَفِعْ بِهِ . قَالَ : لَا وَاللَّهِ لَا أَخْذُهُ أَبَدًا وَقَدْ طَرَحَ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رواه مسلم

191.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손가락에 금반지를 낀 남자를 보시고 그의 손에서 그 반지를 빼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손가락에 불타는 목탄 조각으로 만든 것을 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오.” 사도께서 자리를 떠나자 누가 그에게 금반지를 주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충고하였다. 그리자 그가 말하길,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요. 사도께서 던지신 반지이니 절대로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Muslim).

۱۹۲ - التَّاسِعُ : عَنْ أَبِي سَعِيدٍ الْمُسَدِّيِّ أَنَّ عَائِشَةَ بْنَ صَمْرُو رَضِيَ اللَّهُ عَنْهُ دَخَلَ عَلَى عُبَيْدِ اللَّهِ بْنِ زُبَايْرٍ فَقَالَ : أَيُّ بَنِي : إِنِّي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إِنَّ شَرَّ الرِّعَاءِ الْخُلَاطَةُ ، فَإِنَّكَ أَنْ تَكُونَ مِنْهُمْ . فَقَالَ لَهُ : اجْلِسْ فَإِنَّمَا أَنْتَ مِنْ نَخَالَةٍ أَصْحَابِ مُحَمَّدٍ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 : وَهَلْ كَانَتْ لَهُمْ نَخَالَةٌ ، إِنَّمَا كَانَتْ النِّخَالَةُ بَعْدَهُمْ وَفِي غَيْرِهِمْ !
رواه مسلم

192. 아부 싸이드 하산 바스리(Abu Sa'id Al-Hasan Al-Basri)가 전하고 있다. 아이즈('Aiz bin Amru)가 우바이둘라('Ubaidullah bin Zidyad)를 찾아가 말했다. '애야,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느니라.' "가장 나쁜 지도자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당신은 사도의 교우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분 같아요." 그가 말했다. "사도의 교우들 중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있었던가? 분명히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그 둘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 이후에 오게 될 거야." (Muslim).

١٩٣ - العَاشِرُ : عَنْ حُذَيْفَ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وَالَّذِي نَفْسِي بِيَدِهِ لَتَنَامُرَنَّ بِالْمَعْرُوفِ ، وَكَتَتَهُونَ عَنِ الْمُنْكَرِ ، أَوْ لَيُوشِكَنَّ اللَّهُ أَنْ يَبْعَثَ عَلَيْكُمْ عِقَابًا مِنْهُ ، ثُمَّ تَدْعُوهُ فَلَا يُسْتَجَابُ لَكُمْ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19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후다이파(Huzaifah)가 전하고 있다. "그분의 손 안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분께 맹세하지만, 여러분은 선행을 촉구하되 비난 받아야 할 일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도 수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Tirmizi)

١٩٤ - الْحَادِي عَشَرَ : عَنْ أَبِي سَعِيدٍ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أَفْضَلُ الْجِهَادِ كَلِمَةٌ عَدَلٍ عِنْدَ سُلْطَانٍ جَائِرٍ » ،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19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싸이드 쿠티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성전은 폭군 앞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Abu Dawood and Tirmizi).

١٩٥ - الثَّانِي عَشَرَ : عَنْ أَبِي عَبْدِ اللَّهِ طَارِقِ بْنِ شِهَابِ الْبَجَلِيِّ
الْأَحْمَسِ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جُلًا سَأَ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قَدْ
وَضَعَ رِجْلَهُ فِي الْعَرُزِ : أَيُّ الْجِهَادِ أَفْضَلُ ؟ قَالَ : « كَلِمَةٌ حَقٌّ عِنْدَ
سُلْطَانٍ جَائِرٍ ، رَوَاهُ النَّسَائِيُّ بِإِسْنَادٍ صَحِيحٍ .

195. 아부 압둘라 타리크(Abu Abdullah Tariq bin Shihab Al-Bajli Al-Ahmasi)가 전하고 있다. 한 남자가 낙타에 오르고 있는 사도에게 질문을 하였다. '가장 훌륭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폭군 앞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Nisai)

١٩٦ - الثَّالِثَ عَشَرَ : عَنْ ا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أَوَّلَ مَا دَخَلَ النَّفْسُ عَلَى بَنِي إِسْرَائِيلَ
أَنَّهُ كَانَ الرَّجُلُ يَلْقَى الرَّجُلَ فَيَقُولُ : يَا هَذَا اتَّقِ اللَّهَ وَدَعْ مَا تَصْنَعُ
فَإِنَّهُ لَا يَحِلُّ لَكَ ، ثُمَّ يَلْقَاهُ مِنَ الْغَدِ وَهُوَ عَلَى حَالِهِ ، فَلَا يَمْنَعُهُ
ذَلِكَ أَنْ يَكُونَ أَكِيلَهُ وَشَرِيبَهُ وَقَعِيدَهُ ، فَلَمَّا فَعَلُوا ذَلِكَ ضَرَبَ اللَّهُ
قُلُوبَ بَعْضِهِمْ بِبَعْضٍ ، ثُمَّ قَالَ : (لِمَنِ الَّذِينَ كَفَرُوا مِنْ بَنِي
إِسْرَائِيلَ عَلَى لِسَانِ دَاوُدَ وَعِيسَى ابْنِ مَرْيَمَ ذَلِكَ بِمَا عَصَوْا وَكَانُوا
يَعْتَدُونَ . كَانُوا لَا يَتَنَاهَوْنَ عَنْ مُنْكَرٍ فَعَلُوهُ لَبِئْسَ مَا كَانُوا
يَفْعَلُونَ . تَرَى كَثِيرًا مِنْهُمْ يَتَوَلَّوْنَ الَّذِينَ كَفَرُوا لَبِئْسَ مَا قَدَّمَتْ
لَهُمْ أَنْفُسُهُمْ) إِلَى قَوْلِهِ : (فَاسْفُوفَ) [المائدة : ٧٨ ، ٨١] ثُمَّ قَالَ :
« كَلَّا ، وَاللَّهِ لَتَأْمُرُنَّ بِالْمَعْرُوفِ ، وَلَتَنْهَوْنَ عَنِ الْمُنْكَرِ ، وَلَتَأْخُذْنَ
عَلَى يَدِي الظَّالِمِ ، وَلَتَأْطِرُنَّهُ عَلَى الْحَقِّ أَطْرًا ، وَلَتَقْصُرُنَّهُ عَلَى
الْحَقِّ قَصْرًا ، أَوْ لَيَضْرِبَنَّ اللَّهُ بِقُلُوبِ بَعْضِكُمْ عَلَى بَعْضٍ : ثُمَّ
لَيُلْعَنَنَّكُمْ كَمَا لَعَنَهُمْ » ،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هَذَا لَفْظُ أَبِي دَاوُدَ ، وَلَفْظُ التِّرْمِذِيِّ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مَّا
وَقَعَتْ بَنُو إِسْرَائِيلَ فِي الْمَعَاصِي نَهَتْهُمْ عُلَمَاؤُهُمْ فَلَمْ يَنْتَهُوْا ،

فَجَاءَ السُّوْمُ فِي مَجَالِسِهِمْ وَأَكَلُوهُمْ وَشَارَبُوهُمْ ، فَضَرَبَ اللَّهُ قُلُوبَ
بَعْضِهِمْ بِبَعْضٍ ، وَكَعَنَهُمْ عَلَى لِسَانِ دَاوُدَ وَعِيسَى ابْنِ مَرْيَمَ ذَلِكَ
بِمَا عَصَوْا وَكَانُوا يَعْتَدُونَ ، فَجَلَسَ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كَانَ
مُتَكِنًا فَقَالَ : «لَا وَالَّذِي نَفْسِي بِيَدِهِ حَتَّى تَأْطِرُوهُمْ عَلَى الْحَقِّ أَطْرًا» .

19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제일 먼저 손해를 볼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법행위를 삼가라고 말하고서 다음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불법적인 음식섭취나 불법착석 등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는 자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새까만 자들과 교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렇게 처신하는 자들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다음의 꾸란을 암송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다윗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혀를 통하여 저주 받았더라. 그들은 거역했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악을 단념치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대는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불신자들을 보호자로 삼는 것을 보리니 그들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며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니 그들은 징벌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그들은 알라 하나님과 사도와 그에게 계시된 것을 믿었어야 했고 그들은 또한 그들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아야 했거늘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거역하였노라.】 (5:78-81)

사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은 아니라.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여러분은 선행을 촉구하고 악을 금하며 박해자의 손을 제지하면서 그들에게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의 길을 건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소홀히 할 경우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 박해자들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징벌을 내릴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Abu Dawood and Tirmizi).

티르미지(Tirmizi)의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에 연류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성직자가 제지하였지만 그들은 무시하였고 성직자들조차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허용되지 않은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 다윗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지요. 알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전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베개에 기대고 계시던 사도께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손 안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분께 맹세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도록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١٩٧ - الرَّابِعَ عَشَرَ : عَنْ أَبِي بَكْرٍ الصِّدِّيقِ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يَا أَيُّهَا النَّاسُ إِنَّكُمْ تَتَفَرَّقُونَ هَذِهِ الْآيَةُ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عَلَيْكُمْ أَنْتَفُسُكُمْ لَا يَضُرُّكُمْ مَنْ ضَلَّ إِذَا اهْتَدَيْتُمْ) [النساء : ٨٥] وَإِنِّي
سَمِعْتُ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يَقُولُ : « إِنَّ النَّاسَ إِذَا رَأَوْا
الظَّالِمَ فَلَمْ يَأْخُذُوا عَلَى يَدَيْهِ أَوْشَكَ أَنْ يَعْتَمَهُمُ اللَّهُ بِعِقَابٍ مِنْهُ »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 والنسائي بأسانيد صحيحة .

197. 아부 바크르 시디끼(Abu Bakr Al-Siddiqi)가 말했다.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다음의 꾸란을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 자신들을 보호하라. 너희가 옳은 길을 따를 때 방황하는 자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니라...】 (5:105)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보고 그의 손을 제지하지 않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Abu Dawood, Tirmizi and Nisai).

제24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أَتَاْمُرُونَ النَّاسَ بِالْبِرِّ وَتَنْسَوْنَ أَنْفُسَكُمْ وَأَنْتُمْ
تَتْلُونَ الْكِتَابَ أَفَلَا تَعْقِلُونَ [البقرة : ٤٤] وقال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مَ تَقُولُونَ مَا لَا تَفْعَلُونَ كَبُرَ مَقْتًا عِنْدَ اللَّهِ أَنْ تَقُولُوا مَا لَا
تَفْعَلُونَ [الصف : ٢ ، ٣] وقال تعالى إِبْرَاهِيمَ عَنْ شُعْبٍ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مَا أُرِيدُ أَنْ أَمْلِكَكُمْ إِلَى مَا أَنهَاكُمْ عَنْهُ [هود : ٨٨]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행을 촉구하면서 너희 자신은
실천을 망각하고 있느냐?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냐? ...】
(2:44)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
냐? 너희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알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
장 혐오스러운 것이니라.】 (61:2-3) 예언자 슈아이브를 통해서 말씀하
시길, 【...너희에게 금기한 것을 내가 위반하지 아니하며...】 (11:88)

١٩٨ - وعن أبي زيد أسامة بن زيد بن حارثة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يَقُولُ : « يُؤْتَى بِالرَّجُلِ
يَوْمَ الْقِيَامَةِ فَيُلْقَى فِي النَّارِ ، فَيَتَذَلَّقُ أَقْتَابُ بَطْنِهِ ، فَيَدُورُ بِهَا
كَمَا يَدُورُ الْحِمَارُ فِي الرَّحَا ، فَيَجْتَمِعُ إِلَيْهِ أَهْلُ النَّارِ فَسَمْعُهُ :
يَا فُلَانُ مَا لَكَ ؟ أَلَمْ تَكُنْ تَأْمُرُ بِالْمَعْرُوفِ وَتَنْهَى عَنِ الْمُنْكَرِ ؟ » فَيَقُولُ :
بَلَى ، كُنْتُ أَمُرُّ بِالْمَعْرُوفِ وَلَا آتِيهِ ، وَأَنْهَى عَنِ الْمُنْكَرِ وَآتِيهِ » .

198. 아부 자이드 우사마(Abu Zaid Usamah bin Zaid Harisah)
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심
판의 날 끌려가 불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내장이
복부에서 튀어나오고 그는 당나귀가 밀방아를 돌리기 위해 빙빙 도는

것처럼 그 내장을 움켜쥐고 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친구들이 그를 맞이하며, ‘너 누구 아니니? 어떻게 된 일이야? 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촉구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아?’ 라고 물으면, ‘그래, 맞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행을 촉구하면서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했어.’ 라고 그는 대답할 것이라.” (Bukhari and Muslim),

제25장 기탁 받은 것은 주인에게로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إِنَّ اللَّهَ بِمَا مِرْكُمُ أَنْ تُؤَدُّوا الْأَمَانَاتِ إِلَىٰ أَهْلِهَا
[النساء : ٥٨] وقال تعالى : إِنَّا عَرَضْنَا الْأَمَانَةَ عَلَى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الْجِبَالِ فَأَبَيْنَ أَنْ يَحْمِلْنَهَا وَأَشْفَقْنَ مِنْهَا وَحَمَلَهَا الْإِنْسَانُ إِنَّهُ
كَانَ ظَلُومًا جَهُولًا [الأحزاب : ٧٢]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기탁물을 소유자들에게 환원토록 하셨으며...】 (4:58) 【나는 하늘과 땅과 산들에 믿음과 책임을 제시하였노라.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책임을 맡고서도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것의 결과를 무시하노라.】 (33:72)

١٩٩ - عَنْ أَبِي هُرَيْرَةَ ،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قَالَ : « آيَةُ الْمُنَافِقِ ثَلَاثٌ : إِذَا حَدَّثَ كَذَبَ ، وَإِذَا وَعَدَ أَخْلَفَ ، وَإِذَا أَؤْتُمِنَ خَانَ »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 « وَإِنْ صَامَ وَصَلَّى وَزَعَمَ أَنَّهُ مُسْلِمٌ » .

19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위선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노라. 말을 했다하면 거짓말 하고, 약속을 하고서 위반하고, 믿으면 배반하는 자라.” (Bukhari and Muslim).

그가 예배하고 단식을 하는 한 그는 무슬림으로 간주된다고 다른 전언은 언급하고 있다.

٢٠٠ - وَهْنُ حَدَّثَنَا بْنُ الْيَمَانِ . رَضِيَ اللَّهُ عَنْهُ ، قَالَ : حَدَّثَنَا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حَدِيثَيْنِ قَدْ رَأَيْتُ أَحَدَهُمَا ، وَأَنَا أَنْتَظِرُ الْآخَرَ : حَدَّثَنَا أَنَّ الْأَمَانَةَ تَزُكُّ فِي جَدْرِ قُلُوبِ الرِّجَالِ ، ثُمَّ تَزُكُّ

الْقُرْآنُ فَعَلِمُوا مِنَ الْقُرْآنِ ، وَهَلِمُوا مِنَ السُّنَّةِ ، ثُمَّ حَدَّثَنَا عَنْ رَجُلٍ الْأَمَانَةِ فَقَالَ : يَتَأَمُّ الرَّجُلُ النُّوْمَةَ فَتَنْقَبِضُ الْأَمَانَةُ مِنْ قَلْبِهِ ، فَيَنْظِلُ أَنْتَرَهَا مِثْلَ الْوَسْكِ ، ثُمَّ يَتَأَمُّ النُّوْمَةَ فَتَنْقَبِضُ الْأَمَانَةُ مِنْ قَلْبِهِ ، فَيَنْظِلُ أَنْتَرَهَا مِثْلَ أَنْتَرِ الْمَجْلَرِ ، كَجَمْرِ دَحْرَجَتِهِ عَلَى رَجْلَيْكَ ، فَتَنْقَطُ فَتَرَاهُ مُنْقَبِرًا وَلَيْسَ فِيهِ شَيْءٌ ، ثُمَّ أَخَذَ حَصَاةً فَدَحْرَجَهَا عَلَى رَجْلَيْهِ ، فَيُصْبِحُ النَّاسُ يَتَّبِعُونَ ، فَلَا يَكَادُ أَحَدٌ يُؤَدِّي الْأَمَانَةَ حَتَّى يَقَالَ : إِنْ فِي بَنِي فُلَانٍ رَجُلًا أَمِينًا ، حَتَّى يَقَالَ لِلرَّجُلِ : مَا أَجَلَدَهُ ، مَا أَظْرَقَهُ ، مَا أَهْفَكَهُ ! وَمَا فِي قَلْبِهِ مِنْ قَوْلٍ حَبَّةٍ مِنْ خَرْدَلٍ مِنْ إِيْمَانٍ . وَلَقَدْ أَتَى عَلَيَّ زَمَانٌ وَمَا أَبَالِي أَبْيَكُمُ بَابِعْتُ ، لَنْ كَانَ مُسْلِمًا لِبَرْدَتِهِ عَلَيَّ دِينُهُ ، وَلَنْ كَانَ نَصْرَانِيًّا أَوْ يَهُودِيًّا لِبَرْدَتِهِ عَلَيَّ مَسَاجِدِهِ ، وَأَمَّا الْيَوْمَ فَمَا كُنْتُ أَبَايَعُ مِنْكُمْ إِلَّا فُلَانًا وَفُلَانًا ، مَقْنَعٌ عَلَيْهِ .

200. 후다이파(Hudaifah bin Al-Yaman)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사실대로 들어난 것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뢰와 신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꾸란이 계시되었을 때 꾸란으로부터 그것에 관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전통(Sunnah)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그 신임이 마음에서 풀어지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임은 잠잘 때 그리고 잠에서 일어날 때 그것의 그림자만 마음에 남고 없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 남은 신임도 마음에 종기 같은 아주 작은 표식, 즉 불덩이가 발등에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것 같은 표식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끓어지면 하나의 상처만 남을 뿐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후 예언자께서 조약돌 하나를 주어 당신의 발등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상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신의 신용을 이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저런 말만 무성한 것 같습니다. 어

편 한 부족에는 믿을 자가 누구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등, 그와는 달리 세상사에 정통한 사람도 있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비록 신앙심은 씨알만큼도 없지만 그는 얼마나 영리하고 멋진 지적인가! 후대 이파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무슬림이었다면 그의 믿음이 충분한 보증이었고, 만일 그가 유대인이거나 크리스찬이었다면 그의 노력이 훌륭한 보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런 저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Muslim).

٢٠١ - وعن حَدِيثَةٍ ، وَأَبِي هُرَيْرَةَ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ا : قَالَ رَسُولُ اللَّهِ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جْمَعُ اللَّهُ ، تَبَارَكَ وَتَعَالَى ، النَّاسَ فَيَقُومُ الْمُؤْمِنُونَ حَتَّى تُزْلَفَ لَهُمُ الْجَنَّةُ ، فَيَأْتُونَ آدَمَ ، صَلَوَاتُ اللَّهِ عَلَيْهِ ، فَيَقُولُونَ : يَا أَبَانَا اسْتَفْتِنَا لَنَا الْجَنَّةَ ، فَيَقُولُ : وَهَلْ أَخْرَجْتُمْ مِنَ الْجَنَّةِ إِلَّا غَطِيثَةً أَبِيكُمْ ! لَسْتُ بِصَاحِبِ ذَلِكَ ، اذْهَبُوا إِلَى ابْنِي إِبْرَاهِيمَ خَلِيلِ اللَّهِ ، قَالَ : فَيَأْتُونَ إِبْرَاهِيمَ ، فَيَقُولُ إِبْرَاهِيمُ : لَسْتُ بِصَاحِبِ ذَلِكَ إِنَّمَا كُنْتُ خَلِيلًا مِنْ وَرَاءَ وَرَاءَ ، اعْمَدُوا إِلَى مُوسَى الَّذِي كَلَّمَهُ اللَّهُ تَكْلِيمًا ، فَيَأْتُونَ مُوسَى ، فَيَقُولُ : لَسْتُ بِصَاحِبِ ذَلِكَ ، اذْهَبُوا إِلَى عِيسَى كَلِمَةِ اللَّهِ وَرُوحِهِ فَيَقُولُ عِيسَى : لَسْتُ بِصَاحِبِ ذَلِكَ . فَيَأْتُونَ مُحَمَّدًا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يَقُومُ فَيُؤْذَنُ لَهُ ، وَتُرْسَلُ الْأَمَانَةُ وَالرَّحِمُ فَيَقُومَانِ جَنِبَتِي الصِّرَاطِ يَمِينًا وَشِمَالًا ، فَيَمُرُّ أَوْلَاكُمْ كَالْبَرْقِ ، قُلْتُ : يَا أَبِي وَأُمِّي ، أَيُّ شَيْءٍ كَثُرَ الْبَرْقُ ؟ قَالَ : « أَلَمْ تَرَوْا كَيْفَ يَمُرُّ وَيَرْجِعُ فِي طَرْفَةِ عَيْنٍ ؟ ثُمَّ كَثُرَ الرِّيحُ ، ثُمَّ كَثُرَ الطَّيْرُ ، وَأَشَدُّ الرِّجَالِ تَجَرُّي بِهِمْ أَعْمَالُهُمْ ، وَتَبْيِيكُهُمْ قَائِمٌ عَلَى الصِّرَاطِ يَقُولُ : رَبِّ سَلِّمْ سَلِّمْ ، حَتَّى تَعْجِزَ أَعْمَالُ الْعِبَادِ ، حَتَّى يَجِيءَ الرَّجُلُ لَا يَسْتَطِيعُ السَّيْرَ إِلَّا

زَحْفًا، وَفِي حَافَتِي الصَّرَاطِ كَتَلَابٍ مُعَلَّقَةٍ مَاءٌ مُرَّةٌ بِأَخْذِ مَنْ أَمَرَتْ بِهِ،
فَتَخَذُوهُنَّ نَاجٍ، وَمُكَرَّدَسٌ فِي النَّارِ، وَالَّذِي تَقْسُ أَبِي مُرَبْرَةِ بِيَدِهِ
إِنَّ قَعَرَ جَهَنَّمَ لَسَبْعُونَ خَرِيفًا. . رواه مسلم

20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후다이파(Hudaifah)와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집합시킬 심판의 날 믿는 자들은 천국 가까이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예언자 아담에게 접근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아담이 대답할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나가게 된 것은 네 아버지의 실수란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도와 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알라 하나님의 친구(Khailullah) 예언자 아브라함에게로 가보렴.’ 그리하여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니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그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자신은 단지 알라 하나님의 친구일 뿐이라고 매우 겸손하게 말하면서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언자 모세를 찾아가라고 조언할 것이다.

모세를 찾아가지만 그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 알라 하나님의 말씀(Kalimatullah)이요 그분의 혼(Ruhullah)이신 예수를 찾아가라고 할 것이다. 예수도 자신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무함마드를 찾아가다. 사도께서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중재를 허용하신다. 신임과 자비가 방출되고 그들은 시라트(Sirat;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이 건너야 할 다리)) 다리 우편과 좌편으로 선다.

‘너희 중에 첫 번째 단체는 번갯불처럼 그 다리를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질문한다. ‘저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분께서 말했다. ‘번갯불이 눈 깜박할 사이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런 다음 두 번째 단체는 바람처럼 그 다리를 지나갈 것이고, 세 번째 단체는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지나갈 것이며, 네 번째 단체는 달리

는 사람의 속도로 지나갈 것인데 차이점은 각자의 업적에 따른 것이라. 이때 여러분들의 예언자가 다리에 남아 서 있으면서 알라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할 것이라. '주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주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업적이 부족한 사람의 속도는 궁둥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려지고 또 느려질 것이라.

다리 양쪽 편으로 몇 개의 손잡이들이 걸쳐지며 알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손잡이가 그분께서 도와주고 싶은 자들을 붙잡으실 것이라. 손잡이에 걸린 자는 구제될 것이며 일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아부 후라이라의 생명이 달려있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길, 지옥의 깊이는 70년 동안 여행해서 이를 수 있는 거리만큼이나 깊습니다.' (Muslim).

٢٠٢ - وعن أبي حبيب - بضم الحاء المعجمة - عبد الله بن الزبير ،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 : لما وقف الزبير يوم الجمل دعاني فقلت : يا بني ، فقال : يا بني إنه لا يقتل اليوم إلا ظالم أو مظلوم ، وإني لا أراني إلا سأقتل اليوم مظلوماً ، وإن من أكبر همي لديني ، أفترى ديننا يعني من مالنا شيئاً ؟ ثم قال : يا بني بيع مالنا وأفض ديني ، وأوصي بالثلث ، وثلاثه لبني ، يعني لبني عبد الله بن الزبير ثلث الثلث . قال : فإن فضل من مالنا بعد قضاء الدين شيئا فثلثه لبنيك ، قال هشام : وكان ولد عبد الله قد وازى بعض بني الزبير حبيب وعباد ، وله يومئذ تسعة بنين وتسع بنات . قال عبد الله : فجعل بوصيني بدينه ويقول : يا بني إن عجزت عن شيئا منه فاستعين عليه بموالي . قال : فوالله ما دريت ما أراد حتى قلت : يا أبت من مولاك ؟ قال : الله . قال : فوالله ما وقعت في كربته من دينه إلا قلت : يا مولاي الزبير أفض عنه دينه ، فبفضيه . قال : فقتل الزبير ولم يدع ديناراً ولا درهماً إلا أرضين ، منها الغابة وإحدى

عَشْرَةَ دَارًا بِالْمَدِينَةِ ، وَدَارَتَيْنِ بِالْبَصْرَةِ ، وَدَارًا بِالْكُوفَةِ وَدَارًا بِمِصْرَ . قَالَ : وَإِنَّمَا كَانَ دِينُهُ الَّذِي كَانَ عَلَيْهِ أَنَّ الرَّجُلَ كَانَ يَأْتِيهِ بِالْمَالِ ، فَيَسْتَوْدِعُهُ إِيَّاهُ ، فَيَقُولُ الرَّبِيرُ : لَا وَلَكِنْ هُوَ سَلَفٌ إِنِّي أَخَشَى عَلَيْهِ الضَّيْعَةَ . وَمَا وَلِيَّ إِمَارَةً قَطُّ وَلَا جَبَابَةً وَلَا خِرَاجًا وَلَا شَيْئًا إِلَّا أَنْ يَكُونَ فِي غَزْوٍ مَعَ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وْ مَعَ أَبِي بَكْرٍ وَعُمَرَ وَعُثْمَانَ رَضِيَ اللَّهُ عَنْهُمْ ، قَالَ عَبْدُ اللَّهِ : فَحَسَبْتُ مَا كَانَ عَلَيْهِ مِنْ الدِّينِ فَوَجَدْتُهُ أَلْفِي أَلْفٍ وَمِائَتِي أَلْفٍ ! فَلَقِيَّ حَكِيمُ بْنُ حِزَامٍ عَبْدَ اللَّهِ بْنِ الرَّبِيرِ فَقَالَ : يَا ابْنَ أَخِي كَمْ عَلَى أَخِي مِنَ الدِّينِ ؟ تَكْتُمْتَهُ وَقُلْتَ : مِائَةُ أَلْفٍ . فَقَالَ حَكِيمٌ : وَاللَّهِ مَا أَرَى أَمْوَالَكُمْ تَسْعُ هَذِهِ ! فَقَالَ عَبْدُ اللَّهِ : أَرَأَيْتَ إِنْ كَانَتْ أَلْفِي أَلْفٍ ؟ وَمِائَتِي أَلْفٍ ؟ قَالَ : مَا أَرَأَيْتُمْ تَطِيقُونَ هَذَا ، فَإِنْ عَجَزْتُمْ عَنْ شَيْءٍ مِنْهُ فَاسْتَعِينُوا بِي . قَالَ : وَكَانَ الرَّبِيرُ قَدْ اشْتَرَى الثَّغَابَةَ بِسَبْعِينَ وَمِائَةِ أَلْفٍ ، فَبَاعَهَا عَبْدُ اللَّهِ بِأَلْفٍ أَلْفٍ وَسِتِّمِائَةِ أَلْفٍ ، ثُمَّ قَامَ فَقَالَ : مَنْ كَانَ لَهُ عَلَى الرَّبِيرِ شَيْءٌ فَلْيُؤَاغِبْنَا بِالثَّغَابَةِ ، فَأَتَاهُ عَبْدُ اللَّهِ بْنُ جَعْفَرٍ ، وَكَانَ لَهُ عَلَى الرَّبِيرِ أَرْبَعُمِائَةِ أَلْفٍ ، فَقَالَ لِعَبْدِ اللَّهِ : إِنْ شِئْتُمْ تَرَكْتُهَا لَكُمْ ؟ قَالَ عَبْدُ اللَّهِ : لَا ، قَالَ : فَإِنْ شِئْتُمْ جَعَلْتُكُمْهَا فِيمَا تَوْعَرُونَ إِنْ أَخَرْتُمْ ، قَالَ عَبْدُ اللَّهِ : لَا ، قَالَ : فَاقْطَعُوا لِي قِطْعَةً ، قَالَ عَبْدُ اللَّهِ : لَكَ مِنْ هَلُنَا إِلَى هَلُنَا . فَبَاعَ عَبْدُ اللَّهِ مِنْهَا ، فَقَفَى عَنْهُ دِينُهُ ، وَأَوْفَاهُ وَبَقِيَ مِنْهَا أَرْبَعَةُ أَسْهُمٍ وَنِصْفٌ ، فَقَدِمَ عَلَى مُعَاوِيَةَ وَحِنْدَةَ عَمْرُو بْنِ عُثْمَانَ ، وَالْمُنْذَرُ بْنُ الرَّبِيرِ ، وَابْنُ زَمْعَةَ . قَالَ لَهُ مُعَاوِيَةُ : كَمْ قُومَتِ الثَّغَابَةُ ؟ قَالَ : كُلُّ سَهْمٍ بِمِائَةِ أَلْفٍ قَالَ : كَمْ بَقِيَ مِنْهَا ؟ قَالَ : أَرْبَعَةُ أَسْهُمٍ وَنِصْفٌ ، فَقَالَ الْمُنْذَرُ بْنُ الرَّبِيرِ : قَدْ أَخَذْتُ مِنْهَا سَهْمًا بِمِائَةِ أَلْفٍ ، قَالَ عَمْرُو بْنُ عُثْمَانَ : قَدْ أَخَذْتُ مِنْهَا سَهْمًا بِمِائَةِ أَلْفٍ . وَقَالَ ابْنُ زَمْعَةَ : قَدْ أَخَذْتُ

سَهْمًا بِمِائَةِ أَلْفٍ ، فَقَالَ مُعَاوِيَةُ : كَمْ بَقِيَ مِنْهَا ؟ قَالَ : سَهْمٌ
وَنَصْفُ سَهْمٍ ، قَالَ : قَدْ أَخَذْتُهُ بِخَمْسِينَ وَمِائَةِ أَلْفٍ . قَالَ : وَبَاعَ
عَبْدُ اللَّهِ بْنُ جَعْفَرٍ نَصِيْبَهُ مِنْ مُعَاوِيَةَ بِسِتِّمِائَةِ أَلْفٍ . فَلَمَّا فَرَغَ
ابْنُ الرَّبِيعِ مِنْ قَضَاءِ دِينِهِ قَالَ : بَنُو الرَّبِيعِ : أَقْسِمُ بِبَيْنَتِنَا مِيرَانَتَنَا .
قَالَ : وَاللَّهِ لَا أَقْسِمُ بِبَيْنَتِكُمْ حَتَّى أَتَادِيَ بِالْمَوْسِمِ أَرْبَعَ سِنِينَ : أَلَا مَرَّ
كَانَ لَهُ عَلَى الرَّبِيعِ دَيْنٌ فَلَبَّائِنَا فَلَنَقْضِيَهُ . فَجَعَلَ كُلُّ سَنَةٍ
يُنَادِي فِي الْمَوْسِمِ ، فَلَمَّا مَضَى أَرْبَعُ سِنِينَ قَسَمَ بَيْنَهُمْ وَدَقَّ الثَّلَاثَ .
وَكَانَ لِلرَّبِيعِ أَرْبَعُ نِسْوَةٍ ، فَاصْطَبَ كُلُّ امْرَأَةٍ أَلْفَ أَلْفٍ وَمِائَتَا أَلْفٍ ،
فَجَمَعَ مَالَهُ خَمْسُونَ أَلْفَ أَلْفٍ وَمِائَتَا أَلْفٍ ، رَوَاهُ الْبُخَارِيُّ

202. 아부 쿠바이브 압둘라(Abu Khubaib Abdullah bin Zubair)가 전하고 있다. 이슬람력 36년 5월(Jumadalwula) 주바이르가 낙타전투에 참전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 나를 오라고 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하여 그분 옆에 서 있으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오늘은 침략자이건 피해자이건 피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피해자로서 분명히 피살될 것이다. 내가 많이 걱정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재산처분이란다. 나의 부채를 청산하고 나면 남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아들아, 나의 재물을 매각하여 나의 부채를 청산하여 주렴.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것이 있거든 3분의 1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구나. 그것의 3분의 1(즉 9분의 1)은 압둘라(Allah bin Zubair)에게, 그 후 남은 것 중에서 3분의 1은 너 압둘라의 자식들의 몫이니라.

히삼(Hisham)은 말하고 있다. 압둘라의 몇 자식들은 쿠바이브(Khubaib), 압바드(Abbad)와 그리고 주바이르(Zubair)의 자식들과 동년배였다. 주바이르는 9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다. 아버지는 자산처분을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아들아, 나의 부채를 청산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주인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렴.’ 나는 주인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이니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나 기도하

곤 하였습니다. ‘주바이르의 주인이시여, 그분의 부채를 청산하여 주소서.’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바이르는 순교하고 말았다. 그가 남긴 재산은 부동산 외에 현금 은 한 푼도 없었다. 일부는 가바(Ghabah)에, 집 열한 채는 메디나에, 집 두 채는 바스라(Basra)에, 집 한 채는 쿠파(Kufa)에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이집트에 있었다. 그의 부채는 어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돈을 위탁했을 때 혹시 그것을 분실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위탁을 거절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그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에게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무실도 마다하였고 세금징수원 사무실도 두지 않았다. 단지 그가 누린 명예는 사도를 따라 아부 바크르(Abu Bak r), 우마르(Umar) 그리고 우스만(Usman)과 함께 성전에 참여한 것 그리고 전리품 몫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부채목록을 준비했는데 부채금액은 2백 2십만 단위에 달했다. 하킴(Hakim bin Hizam bin Abdullah bin Al-Zubair)이 나를 보더니 물었다. ‘조카, 나는 나의 형제에게 얼마가 부채가 있지?’ 나는 사안의 현실 상황을 숨기면서, 2십만 단위라고 대답을 했더니 하킴이 말했다. ‘너의 자산으로 그 많은 것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나는 물었다. ‘부채 금액이 2백 2십만 단위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이 문제는 너의 능력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네. 만일 네가 부채의 일부분이라도 청산할 능력이 없거든 나의 도움을 청하게.’

주바이르는 가바에 있는 땅을 1백 7십만 단위로 구입했었고 압둘라는 그것을 1백 6십만 단위에 매각한 후 주바이르에게 청구할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가바로 와서 자기를 만나달라고 공고했다. 이븐 자으파르(Abdullah bin Ja 'far)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주바이르는 나에게 4십만 단위의 부채가 있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그 부채를 탕감해주겠소.’ 압둘라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탕감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븐 자으파르가 말했다. ‘만일 부채상환 기간의 연장을 원하면 연장시켜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압둘라가 말했다. ‘아니요. 저는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시 이븐 자으파르가 말했

다. ‘그럼 땅을 분할하여 주시오.’ 압둘라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땅을 떼어주고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였다.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고 나니 4.5시함(Siham) 넓이의 땅이 남았다.

그런 후 압둘라는 무아위야(Mu'wiyah) 통치자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는 아므르(Amr bin Uthman), 문지르(Munzir bin Zubair) 그리고 이븐 자므아(Ibn Zam'ah)가 있었다. 무아위야 통치자가 가바의 부동산 값을 얼마로 결정했느냐고 압둘라에게 물었다. 한 시함(Siham) 크기에 1십만 단위로 결정했다고 압둘라가 대답하자 남아 있는 땅은 얼마나 되느냐고 무아위야 통치자가 물었다. 4.5 시함 크기의 땅이 남아 있다고 하자 주바이르의 아들 문지르가 한 시함(Siham)에 4십 단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자 우스만의 아들 아므르와 이븐 자므아는 한 시함에 1십만 단위를 제의했다. 그러자 무아위야 통치자가 지금 남아 있는 땅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1.5 시함의 크기가 남았다고 압둘라가 대답했고 무아위야 통치자는 이 땅을 15십만 단위에 구매하였다. 그 후 자으파르의 아들 압둘라는 그의 몫을 무아위야 통치자에게 6십만 단위에 팔았다.

전언자는 계속해 전하고 있다. 자으파르의 아들 압둘라가 고인 주바이르로부터 받을 미상환 부채 대신에 주바이르의 아들 압둘라로부터 받은 땅은 6십만 단위로 무아위야 통치자에게 매각되어 2십만 단위의 이익이 생겼다. 주바이르의 아들 압둘라가 모든 부채를 청산했을 때 주바이르의 상속자들이 남은 유산을 자신들에게 분배하여 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주바이르의 아들 압둘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연속 네 번의 성지순례, 즉 4년 동안 공고하여 고인 주바이르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받아가라고 한 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부채를 청산할 때까지 남은 유산을 분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네 번의 성지순례 때마다 공고한 후 남은 유산을 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속자들에게 분배하였다. 주바이르는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각자에게 1백 20만 단위씩 돌아갔다. 주바이르의 총 부동산은 5천만 20만 디르함(Dirham)이었다. (Bukhari)

제26장 잔인함과 인색함 금지

قال الله تعالى: مَا لِلظَّالِمِينَ مِنْ حَمِيمٍ وَلَا شَفِيعٍ يُطَاعُ [غافر: ١٨]
وقال تعالى: وَمَا لِلظَّالِمِينَ مِنْ نَصِيرٍ [الحج: ٧١].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죄인들에게는 친구도 그리고 귀를 기울일 중재자도 없노라.】 (40:18) 【...저들 사악한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22:71)

٢٠٣ - وعن جابر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تَّقُوا الظُّلْمَ ، فَإِنَّ الظُّلْمَ ظُلُمَاتٌ يَوْمَ الْقِيَامَةِ ، وَاتَّقُوا الشَّعْ فَإِنَّ
الشَّعْ أَمْلَكَ مَنْ كَانَ قَبْلَكُمْ ، حَمَلَهُمْ عَلَى أَنْ سَقَوْا دِمَاءَهُمْ
وَاسْتَحَلُّوا مَحَارِمَهُمْ » رواه مسلم

20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베르(Jabir bin Abdullah)가 전하고 있다. “잔인한 행위와 부정한 행위를 피하시오. 잔인함과 부정함은 부활의 날 여러 가지 어둠으로 변합니다. 인색함을 피하시오. 인색함은 여러분 앞 세대를 멸망시켰습니다. 인색함은 그들을 피바다로 그리고 불법을 합법으로 유도하였습니다.” (Muslim).

٢٠٤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تَنُودُنَّ الْحَقُوقَ إِلَى أَهْلِهَا يَوْمَ الْقِيَامَةِ حَتَّى يُقَادَ لِلشَّاةِ الْجُلُحَاءُ
مِنْ الشَّاةِ الْقَرَنَاءُ » رواه مسلم

20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 모든 권리를 당사들에게 확실히 집행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뿔 달린 염소가 뿔 없는 염소에게 저지른 잘못까지도 시정하실 것입니다.” (Muslim).

٢٠٥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كُنَّا نَتَحَدَّثُ عَنْ حَجَّةِ
لُؤْدَاعٍ ، وَ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يْنَ أَظْهُرٍ ، وَلَا نَدْرِي مَا حَجَّةُ
لُؤْدَاعٍ ، حَتَّى حَمِدَ الل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أَشْنَى عَلَيْنَا ، ثُمَّ
ذَكَرَ الْمَسِيحَ الدَّجَالَ فَأُطْنِبَ فِي ذِكْرِهِ ، وَقَالَ : « مَا بَعَثَ اللهُ مِنْ
نَبِيٍّ إِلَّا أَنْذَرَهُ أُمَّتُهُ : أَنْذَرَهُ نُوحٌ وَالنَّبِيُّونَ مِنْ بَعْدِهِ ، وَإِنَّهُ إِنْ
يُخْرِجُ فِيكُمْ فَمَا خَفِيَ عَلَيْكُمْ مِنْ شَيْءٍ فَلَيْسَ بِخَفَى عَلَيْكُمْ ،
إِنْ رَبَّكُمْ لَيْسَ بِأَعْوَرَ ، وَإِنَّهُ أَعْوَرُ عَيْنِ الْيَمْنَى ، كَذَّابٌ عَيْنُهُ عَيْنَةُ
طَافِيَةٍ . أَلَا إِنَّ اللهَ حَرَّمَ عَلَيْكُمْ دِمَاءَكُمْ وَأَمْوَالَكُمْ ، كَحُرْمَةِ يَوْمِكُمْ
هَذَا ، فِي بِلَدِكُمْ هَذَا ، فِي شَهْرِكُمْ هَذَا ، أَأَهْلٌ بَلَّغْتُ ؟ » قَالُوا : نَعَمْ ، قَالَ :
« اللَّهُمَّ أَشْهَدُ ثَلَاثِينَ لَكُمْ ، أَوْ : وَيَحْكُمُ ، انْظُرُوا : لَا تَرْجِعُوا بَعْدِي
كُفَّارًا يَضْرِبُ بَعْضُكُمْ رِقَابَ بَعْضٍ » ، رَوَاهُ الْبُخَارِيُّ ، وَرَوَى مُسْلِمٌ بَعْضَهُ

205. 이븐 우마르(Ibn 'Umar)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사도께서 참석한 모임에서 우리는 고별순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사도께서 알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적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해 언급을 할 때까지는 우리는 고별순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은 추종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에 대항하라는 경고를 하여왔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여러분 중에서 나타난다면 그의 신분은 여러분에게 숨겨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오른쪽 눈은 외눈이지만 주님의 눈은 외눈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흉한 모습으로 변하여 부어오른 포도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오늘 이곳의 신성함과 이달의 신성함과 오늘 이날의 신성함처럼 신성시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교우들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이여, 저의 증인이 되어주소서.” 사도께서는 이 말을 세 번 반복하시고 다음의 말

로 결론을 맺었다. “다들 나를 보시오, 나 이후로 불신자로 돌아가지 마시오, 이제 나는 더 이상 서로 사람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٢٠٦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ظَلَمَ قِيدَ شِبِيرٍ مِنَ الْأَرْضِ طَوَّقَهُ مِنْ سَبْعِ أَرْضِينَ .
متفق عليه »

20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손바닥만큼의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일곱 개의 지구로 그의 목을 짓눌러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٠٧ - وعن أبي موسى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اللَّهَ لَيُكَلِّمُ الظَّالِمِينَ فَإِذَا أَخَذَهُ لَمْ يُفْلِتْهُ ثُمَّ قَرَأَ :
(وَكَذَلِكَ أَخْذُ رَبِّكَ إِذَا أَخَذَ الْفُرْقَى وَهِيَ ظَالِمَةٌ إِنَّ أَخْذَهُ أَلِيمٌ شَدِيدٌ) [هود : ١٠٢] متفق عليه »

20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그릇이 가득할 때까지 폭군에 대한 징벌을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갈 때는 그가 도주하게 두지 않고 다음의 꾸란을 읽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고을을 그렇게 벌하시니라. 실로 그분의 징벌은 가혹하고 준엄하시니라.】 (11:102) (Bukhari and Muslim).

٢٠٨ - وعن معاذ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بَعَثَنِ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 إِنَّكَ تَأْتِي قَوْمًا مِنْ أَهْلِ الْكِتَابِ ، فَأَدْعُهُمْ إِلَى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 وَأَنِّي رَسُولُ اللَّهِ ، فَإِنْ هُمْ أَطَاعُوا لِذَلِكَ ، فَأَعْلِمْنَهُمْ أَنَّ اللَّهَ قَدَرِ افْتَرَسَ عَلَيْهِمْ خَمْسَ صَنَوَاتٍ فِي كُلِّ يَوْمٍ وَلَيْلَةٍ ، فَإِنْ

هُمْ أَطَاعُوا لِيَذْكُ : فَأَعْلَيْنَهُمْ أَنْ اللَّهَ قَدِ افْتَرَضَ عَلَيْهِمْ صَدَقَةً
تُؤْخَذُ مِنْ أَغْنِيَانِهِمْ فَتُرَدُّ عَلَى فُقَرَائِهِمْ ، فَإِنْ هُمْ أَطَاعُوا لِيَذْكُ ،
فَلْيَأْكُ وَكَرَائِمِ أَمْوَالِهِمْ . وَأَتَقِ دَعْوَةَ الْمَظْلُومِ فَإِنَّهُ لَيْسَ بَيْنَهَا
وَبَيْنَ اللَّهِ حِجَابٌ ، مَتَّقِ عَلَيْهِ

208. 무아즈(Mu'az)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나를 예멘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심하시오, 성서의 백성들로 구성된 집단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알라 하나님께로 초청하여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알리시오. 그들이 따를 경우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에 다섯 차례의 예배를 강구하셨다고 가르치고 그들이 이에 응할 때는 부유한 자에게서 이슬람세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촉구하셨다고 이르시오. 그들이 이에 순응한다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슬람세로 취하지 마시오. 억압받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왜냐하면 억압받은 자의 호소와 알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٠٩ - وَعَنْ أَبِي حُمَيْدٍ عَبْدِ الرَّحْمَنِ بْنِ سَعْدٍ السَّاعِدِ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اسْتَعْمَ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رَجُلًا مِنْ الْأَزْدِ يُقَالُ لَهُ : ابْنُ
الْثَّبِيَّةِ عَلَى الصَّدَقَةِ ، فَلَمَّا قَدِمَ قَالَ : هَذَا لَكُمْ ، وَهَذَا أَهْدِي
لِئِي ، فَقَامَ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لَى الْمِنْبَرِ ، فَحَمِدَ اللَّهَ وَأَثْنَى
عَلَيْهِ . ثُمَّ قَالَ : « لَمَّا بَعَدُ فَإِنِّي اسْتَعْمِلُ الرَّجُلَ مِنْكُمْ عَلَى الْعَمَلِ
مِمَّا وَلَّانِي اللَّهُ ، فَيَأْتِيَنِي فَيَقُولُ : هَذَا لَكُمْ ، وَهَذَا هَدِيَّةٌ أَهْدِيَتْ
لِئِي ، أَفَلَا جَلَسَ فِي بَيْتِ أَبِيهِ أَوْ أُمِّهِ حَتَّى تَأْتِيَهُ هَدِيَّتُهُ إِنْ كَانَ
صَادِقًا . وَاللَّهِ لَا يَأْخُذُ أَحَدٌ مِنْكُمْ شَيْئًا يَغْيِرُ حَقَّهُ إِلَّا لَقِيَ اللَّهَ تَعَالَى ،
يَحْمِلُهُ يَوْمَ الْقِيَامَةِ ، فَلَا أَصْرَ قَنْ أَحَدًا مِنْكُمْ لِقَاءِ اللَّهِ بِحِمْلٍ بَعِيرٍ
لَهُ رَهَاءٌ ، أَوْ بَقْرَةٍ لَهَا خَوَارٌ ، أَوْ شاةٌ تَبْعَرُ ، ثُمَّ رَفَعَ يَدَيْهِ حَتَّى
رَوَى بَيَاضُ إِبْطِئِهِ فَقَالَ : « اللَّهُمَّ هَلْ بَلَغْتُ ، ثَلَاثًا مَتَّقِ عَلَيْهِ

209. 아부 후마이드 압두라흐만(Abu Humaid Abdurahman bin Sa'idi)이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아즈드(Azd) 부족 출신의 이븐 루트비야(Ibn Al-Lutbiyah)라고 하는 사람을 이슬람세금 징수자로 임명하셨다. 그가 메디나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만큼은 여러분의 것이고 이만큼은 제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선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께서 설교단으로 올라가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먼저 알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일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파견하였습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그가 이렇게 말했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저것은 그 일에 대한 대가의 선물입니다.’ 만일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가 부모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갈 것입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이 책임에 대하여 심판의 날 알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알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의 물건을 신고 끄꿍대는 낙타나, 음매하고 우는 소나 피를 흘리는 염소를 끌고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저드랑이가 보일 정도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여, 저는 당신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사도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 (Bukhari and Muslim).

٢١٠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كَانَتْ عِنْدَهُ مَظْلِمَةٌ لِأَخِيهِ ، مِنْ عِرْضِهِ أَوْ مِنْ شَيْءٍ ،
 فَلْيَتَحَلَّلْهُ مِنْهُ الْيَوْمَ قَبْلَ أَنْ لَا يَكُونَ دِينَارٌ وَلَا دِرْهَمٌ ، إِنْ كَانَ
 لَهُ عَمَلٌ صَالِحٌ أَخَذَ مِنْهُ بِقَدَرٍ مَظْلِمَتِهِ ، وَإِنْ لَمْ يَكُنْ لَهُ حَسَنَاتٌ
 أَخَذَ مِنْ سَيِّئَاتٍ صَاحِبِهِ فَحُمِلَ عَلَيْهِ ، رَوَاهُ الْبُخَارِيُّ »

21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이 무슬림 형제의 명예나 그 밖의 어떤 것에 손상을 주었다면 돈 한 톨 없는 거지가 되는 때가 오기 전 오늘 이 세상에 있

을 때 그의 용서를 받도록 하시오. 만일 가해자가 그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한다면 그가 저지른 죄만큼이 삭감될 것이요, 가해자가 그를 위해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가 가해자에게 더하여 질 것입니다.” (Bukhari).

۲۱۱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لْمُسْلِمُ مَنْ سَلِمَ الْمُسْلِمُونَ مِنْ لِسَانِهِ وَيَدِهِ ، وَالْمُهَاجِرُ مَنْ هَجَرَ مَا نَهَى اللَّهُ عَنْهُ » ، متفق عليه .

21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u Muhammad Abdullah bin 'Amr bin 'Aas)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은 말과 손으로 그의 형제 무슬림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주자란 알라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۲۱۲ - وعن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انَ عَلَى ثَقَ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رَجُلٌ يُقَالُ لَهُ 'كَبْرُكِرَةٌ' ، فَمَاتَ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هُوَ فِي النَّارِ » ، فَتَدَهَّبُوا يَنْتَظِرُونَ إِلَيْهِ فَوَجَدُوا عَبَاءَةً قَدْ غُلَّتْهَا

21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u Muhammad Abdullah bin 'Amr bin 'Aas)가 전하고 있다. 사도의 사물을 담당하고 있던 키르키라(Kirkirah)가 죽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지금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교우들이 원인을 확인하고자 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부적절한 망토 한 벌을 발견하였다. (Bukhari).

۲۱۳ - وعن أبي بزة - نَفِيعِ بْنِ الْحَارِثِ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 الزَّمَانَ قَدِ اسْتَدَارَ كَهَيْئَتِهِ يَوْمَ خَلَقَ اللَّهُ السَّمَوَاتِ وَالْأَرْضَ : السَّنَةُ اثْنَا عَشَرَ شَهْرًا ، مِنْهَا أَرْبَعَةٌ حُرُمٌ : ثَلَاثُ مُتَوَالِيَاتٍ : ذُو الْقَعْدَةِ ، وَذُو الْحِجَّةِ ، وَالْمُحَرَّمُ ، وَرَجَبٌ

مُضَرَّ الَّذِي بَيْنَ جُمَادَى وَشَعْبَانَ ، أَيُّ شَهْرٍ هَذَا ؟ ، قُلْنَا : اللَّهُ
وَرَسُولُهُ أَعْلَمُ ، فَسَكَتَ حَتَّى ظَنَنَّا أَنَّهُ سَيُسَمِّيهِ بِغَيْرِ اسْمِهِ ، قَالَ :
الْبَيْتَ ذَا الْحِجَّةِ ؟ قُلْنَا : بَلَى . قَالَ : فَتَأْيُ بَلَدٍ هَذَا ؟ ، قُلْنَا : اللَّهُ
وَرَسُولُهُ أَعْلَمُ ، فَسَكَتَ حَتَّى ظَنَنَّا أَنَّهُ سَيُسَمِّيهِ بِغَيْرِ اسْمِهِ . قَالَ :
وَالْبَيْتَ الْبَلَدَةَ ؟ ، قُلْنَا : بَلَى . قَالَ : فَتَأْيُ يَوْمٍ هَذَا ؟ ، قُلْنَا : اللَّهُ
وَرَسُولُهُ أَعْلَمُ . فَسَكَتَ حَتَّى ظَنَنَّا أَنَّهُ سَيُسَمِّيهِ بِغَيْرِ اسْمِهِ . قَالَ :
وَالْبَيْتَ يَوْمَ النَّحْرِ ؟ ، قُلْنَا : بَلَى . قَالَ : وَفَلَنَ دِمَاءُكُمْ وَأَمْوَالِكُمْ
وَأَعْرَاضُكُمْ عَلَيْكُمْ حَرَامٌ ، كَحُرْمَةِ يَوْمِكُمْ هَذَا فِي بَلَدِكُمْ هَذَا
فِي شَهْرِكُمْ هَذَا ، وَتَسْتَلْقُونَ رَبَّكُمْ فَيَسْأَلُكُمْ عَنْ أَعْمَالِكُمْ ، أَلَا
فَلَا تَرْجِعُوا بَعْدِي كُفَّارًا يَضْرِبُ بَعْضُكُمْ رِقَابَ بَعْضٍ ، أَلَا لِيُبَلِّغَ
الشَّاهِدُ الْغَائِبَ ، فَلَعَلَّ بَعْضَ مَنْ يَبْلُغُهُ أَنْ يَكُونَ أَوْعَى لَهُ مِنْ
بَعْضٍ مَنْ سَمِعَهُ ، ثُمَّ قَالَ : أَلَا هَلْ بَلَّغْتُ ، أَلَا هَلْ بَلَّغْتُ ؟ ، قُلْنَا :
نَعَمْ . قَالَ : وَاللَّهِ أَشْهَدُ ، وَتَقَى عَلَيْهِ .

21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바크르 누파이(Abu Ba kr Nufai' bin Haris)가 전하고 있다. '시간은 알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우주를 창조하던 날 그랬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년은 열 두 달이며 그 중 4개월은 신성한 달이요 그 중에서도 11월(Dhulqa'ad), 12월(Dhulhajj) 그리고 1월(Muharram) 3개월은 이어져 있고 주마다(Jumada) 달과 샤으반(Sha'aban) 달 사이에 놓여 있으며 무다르(Mudar) 부족에게 가장 신성한 라잡(Rajab) 달이 있습니다. 그런 후 사도께서 물으셨다. '이것은 무슨 달이지요?' 우리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과 사도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잠시 침묵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이 달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물으셨다. '이것은 둘하지(Dhulhajj) 달이 아니지요?' 우리는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물으셨다. '이 고을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우리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과 사도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잠시 침묵을 지키시기에 우리

는 이 달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물으셨다. ‘이곳은 신성한 고을이 아니지요?’ 우리는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물으셨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우리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과 사도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잠시 침묵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이 날에 새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날이 신성하고 이 달이 신성하고 이 고을이 신성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도 신성합니다. 여러분이 알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세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이후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는 불신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알리시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 메시지를 직접 접한 자들보다 기억을 더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두 번 물으셨다. ‘여러분들에게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지요?’ 우리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했다. ‘알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증인이 되어 주소서.’

۲۱۴ - وعن أبي أمية إياس بن ثعلبة الخارث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اقْتَطَعَ حَقَّ امْرِئٍ مُسْلِمٍ بِسَيْمِهِ فَقَدْ أَوْجَبَ اللَّهُ لَهُ النَّارَ ، وَحَرَّمَ عَلَيْهِ الْجَنَّةَ » ، فقال رجل : « وَإِنْ كَانَ بِرَسُولِ اللَّهِ ؟ » فقال : « وَإِنْ قَضِيًّا مِنْ أَرَاكَ » .
رواه مسلم

21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우마마 이야스(Abu Umamah Iyas bin Sa'alb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자를 불지옥에 들게 하여 천국을 차단하셨습니다.” 한 교우가 질문했다. ‘사도여,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숲속의 막대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Muslim).

٢١٥ - وعن عدي بن عتب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من استعملناه منكُم على عملٍ نكتمنا مَخِيطًا فما فوقه ، كان غُلُولًا يأتي به يوم القيامة » فقال رجلٌ أسودٌ من الأنصار ، كأنه أنظر إليه ،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اقبل عني عملك ، قال : « ومالك ؟ » قال : سمعتك تقول كذا وكذا ، قال : « وأنا أقوله الآن : من استعملناه على عملٍ فليجيء بقليله وكثيره . فما أوتي منه أخذ ، وما نهي عنه انتهى » رواه مسلم .

215. 아디(Adiyy bin 'Umair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만일 그가 바늘 하나만큼 또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속인다면 그의 행위는 횡령으로 그는 부활의 날 그것을 토해 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안사리(Al-Ansari) 출신의 피부가 검은 한 남자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로 말을 꺼냈다. ‘사도여, 저에게 주어진 그 임무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사도께서 어떤 일이냐고 질문자에게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방금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공직에 임명된 자는 많은 혹은 아무리 작은 것이든 그가 맡은 임무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받아도 좋은 허용된 것이 있고 자제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Muslim).

٢١٦ - وعن عمر بن الخطاب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لما كان يوم حبيَّر أقبل نفرٌ من أصحاب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وا : فلان شهيد ، وفلان شهيد ، حتى مرُّوا على رجلٍ فقالوا : فلان شهيد . ف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كلاً إنني رأيته في النارِ في بردةٍ غلَّها - أو عباءة - » رواه مسلم

216.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카이바르

(Khaibar)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있었던 일로 교우 몇 명이 사도를 찾아와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그들이 죽은 자 옆을 지나가면서 그도 역시 순교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가 흠친 시트나 망토를 걸치고 불지옥에 있는 그를 보았어요.” (Muslim).

٢١٧ - وعن أبي قتادة الخارث بن ربعي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ه قام فيهم ، فذكر لهم أن الجهاد في سبيل الله والإيمان بالله أفضل الأعمال ، فقام رجل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أرأيت إن قتلت في سبيل الله ، فكفر عني خطيائي ؟ فقال ل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نعم إن قتلت في سبيل الله وأنت صابر محتسب ، مقبل غير مدبر ، ثم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كيف قلت ؟ قال : أرأيت إن قتلت في سبيل الله ، فكفر عني خطيائي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نعم وأنت صابر محتسب ، مقبل غير مدبر . إلا الدين فإن جبريل قال لي ذلك ، رواه مسلم .

217. 아부 까타다 하리스(Abu Qatadah Al-Harith bin Ribi)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교우들에게 설교하셨다.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위한 성전이 가장 훌륭한 업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질문했다. ‘사도여, 제가 만일 알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다면 제가 지은 죄들이 용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요. 만일 당신이 알라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고 내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도께서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보라고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하였다. ‘제가 만일 알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다면 제가 지은 죄들이 용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만일 당신이 알라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고 내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가 말이 끝나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채는 갚면되지 않는다고 방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알려왔습니다.” (Muslim).

٢١٨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أَتَدْرُونَ مَا الْمُفْلِسُ ؟ » ، قَالُوا : الْمُفْلِسُ فِينَا مَنْ لَا دِرْهَمَ لَهُ وَلَا مَتَاعَ . فَقَالَ : « إِنَّ الْمُفْلِسَ مِنْ أُمَّتِي مَنْ بَاتَ يَتَوَمَّ الْقِيَامَةَ بِصَلَاةٍ وَصِيَامٍ وَزَكَاةٍ ، وَيَبْتَائِي قَدْ شَتَمَ هَذَا ، وَقَذَفَ هَذَا ، وَأَكَلَ مَالَ هَذَا ، وَسَفَكَ دَمَ هَذَا ، وَضَرَبَ هَذَا ، فَيُعْطَى هَذَا مِنْ حَسَنَاتِهِ ، وَهَذَا مِنْ حَسَنَاتِهِ . فَإِنْ فُتِنَتْ حَسَنَاتُهُ قَبْلَ أَنْ يَغْفِي مَا عَذَبَهُ . أَخَذَ مِنْ غَطَايَاهُمْ فَطَرَحَتْ عَلَيْهِ ، ثُمَّ طُرِحَ فِي النَّارِ »
رواه مسلم

218.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교우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은 극빈자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우들이 대답했다. ‘극빈자란 돈도 땀 한 톨 없고 재산도 갖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사도께서 설명을 하셨다. “나의 공동체에서 말하는 극빈자란 예배를 잘하고 단식을 지키며 이슬람세 납부를 충실히 하여 부활의 날 좋은 업적을 갖고 오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어떤 자들을 비난하기도 하였고 어떤 자들에 대항하여 혈투기도 하였고 타인의 물건을 갈취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자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가 남긴 선행의 일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의 좋은 일이 부족하다면 피해자의 죄와 실수는 그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는 불지옥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Muslim).

٢١٩ - وعن أم سلمة رضي الله عنها .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مَا أَنَا بَشَرٌ . وَإِنَّكُمْ تَخْتَصِمُونَ إِلَيَّ ، وَلَعَلَّ بَعْضَكُمْ أَنْ يَكُونَ الْخَنَ يَحُجَّتِهِ مِنْ بَعْضٍ ، فَأَقْضِي لَهُ يَنْحَرُ مَا أَسْمَعُ ، فَمَنْ

فَضَبْتُ لَهُ بِحَقِّ أَخِيهِ فَإِنَّمَا أَقْطَعُ لَهُ قِطْعَةً مِنَ النَّارِ ، مَنُفَقٌ عَلَيْهِ

21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움무 살라마(Umm Salamah)가 전하고 있다. “정말 나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위해 나에게 논쟁을 합니다. 토론에 능숙한 자는 자신의 사안을 그럴 듯하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에게 유익하도록 그 사안을 결정합니다. 만일 내가 그 사안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유익하도록 결정한다면 나는 그에게 불지옥의 일부 외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٢٠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نْ يَزَالَ الْمُؤْمِنُ فِي فُسْحَةٍ مِنْ دِينِهِ مَا لَمْ يُصِيبْ دَمًا حَرَامًا ، رواه البخاري .

22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불법에 의해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한 신앙인은 안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Bukhari).

٢٢١ - وعن خَوْلَةَ بِنْتِ عَامِرٍ الْأَنْصَارِيَّةِ ، وَهِيَ امْرَأَةُ حَمْزَةَ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قالت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إِنَّ رِجَالًا يَتَخَوَّضُونَ فِي مَالِ اللَّهِ يَغْيِرُ حَقَّ ، فَكَلَهُمُ النَّارُ يَوْمَ الْقِيَامَةِ ، رواه البخاري

221. 사도의 삼촌 함자(Hamza)의 아내인 카울라(Khaulah bint 'Amir Al-Ansariyah)가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라 하나님의 재산, 즉 공금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심판의 날 불지옥의 운명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Bukhari).

제27장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مَنْ يُعْظَمْ حُرُمَاتِ اللَّهِ فَهُوَ خَبِيرٌ لَهُ عِنْدَ رَبِّهِ
[الحج : ٣٠] وقال تعالى : وَمَنْ يُعْظَمْ شَعَائِرَ اللَّهِ فَإِنَّهَا مِنْ تَقْوَى
الْقُلُوبِ [الحج : ٣٢] وقال تعالى : وَأَخْفِصْ جَنَاحَكَ لِلْمُؤْمِنِينَ
[الحجر : ٨٨] وقال تعالى : مَنْ قَتَلَ نَفْسًا بِغَيْرِ نَفْسٍ أَوْ فَسَادٍ فِي
الْأَرْضِ فَكَأَنَّمَا قَتَلَ النَّاسَ جَمِيعًا ، وَمَنْ أَحْيَاهَا فَكَأَنَّمَا أَحْيَا النَّاسَ
جَمِيعًا [المائدة : ٣٢]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알라 하나님의 계명이라. 누구나 알라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들을 영광되게 하는 자에게는 그를 위한 축복이 있으며...】 (22:30) 【그것은 언급된 대로이니라. 알라 하나님의 성스러운 증표를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마음의 소산이라.】 (22:32) 【...믿는 자들을 위해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 (15:88)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법을 내렸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제하는 것과도 같다 하였노라...】 (5:32)

٢٢٢ - وعن أبي موسى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مُؤْمِنُ لِلْمُؤْمِنِ كَالْبُنْبَانِ يَشُدُّ بَعْضُهُ بَعْضًا ، وَشَبَّكَ بَيْنَ أَصَابِعِهِ . متفق عليه »

22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 사이의 형제애는 한 건물의 골조들과 같습니다. 이 골조가 저 골조를 받쳐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요.” 사도께서는 한 손의 손가락들을 다른 손의 것들과 교차하여 요점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Bukhari and Muslim).

۲۲۳ - و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مر في شئ من مساجدنا ، أو أسواقنا ، ومعه نبل فليبتئيك ، أو ليقتض على نصالها يكتفه أن يصيب أحدا من المسلمين منها بشئ » ، متفق عليه

22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비록 화살 하나일지라도 어떤 것을 소지하고 이슬람사원이나 시장 거리를 지나갈 때는 손바닥으로 그 화살을 단단히 붙잡거나 화살촉을 움켜쥐어서 어떤 무슬림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۲۲۴ - وعن النعمان بن بشي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ثل المؤمنين في توادهم وتراحمهم وتعاطفهم : مثل الجسد إذا اشتكى منه عضو تداعى له سائر الجسد بالسهر والحمى » ، متفق عليه

22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비 압둘라 누으만(Abi Abdullah Nu'man bin Bashir)이 전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의 한 부분이 아플 때 몸 전체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열병의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게 됩니다.” (Bukhari and Muslim).

۲۲۵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ب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حسن بن علي رضي الله عنهما ، وعنده الأقرع بن حابس ، فقال الأقرع : إن لي عشرة من الولد ما قبلت منهم أحدا . فنظر إلي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 من لا يرحم لا يرحم » ، متفق عليه

225.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외손자 하싼(Al-Hasan bin Ali)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 모습을 지

겨본 아끄라아(Al-Aqra)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10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데 어떤 자식에게도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۲۲۶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قَدِمَ نَاسٌ مِنَ الْأَعْرَابِ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وا : أَتُعَبِّلُونَا صِبْيَانَكُمْ ؟ قَالَ : « نَعَمْ » ، قَالُوا : لَكِنَّا وَاللَّهِ مَا نَقْبَلُ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وْ أَمْلِكُ إِنْ كَانَ اللَّهُ نَزَعَ مِنْ قُلُوبِكُمُ الرَّحْمَةَ ! » متفق عليه

226. 사도의 아내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아랍 유목민 몇 사람이 사도를 찾아와 자녀들에게 입맞춤을 하였느냐고 묻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입맞춤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도께서 말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앗아가셨다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Bukhari and Muslim).

۲۲۷ - وعن جرير بن عبد الل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لَا يَرْحَمُ النَّاسَ لَا يَرْحَمَهُ اللَّهُ » متفق عليه

22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리르(Jarir bin Abdulah)가 전하고 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۲۲۸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صَلَّى أَحَدُكُمْ لِلنَّاسِ فَلْيُخَفِّفْ ، فَإِنَّ فِيهِمُ الضَّعِيفَ وَالسَّقِيمَ وَالْكَبِيرَ . وَإِذَا صَلَّى أَحَدُكُمْ لِنَفْسِهِ فَلْيُطَوِّلْ مَا شَاءَ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 « وَذَا الْحَاجَّةِ » .

22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

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예배를 집전할 경우가 있거든 짧은 꾸란을 짧게 암기하시오. 뒤에 있는 사람 중에 허약자나 노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 혼자서 예배할 때는 가능한 긴 꾸란을 암기하시오.” (Bukhari and Muslim).

۲۲۹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إن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ليندع العمل ، وهو يحب أن يعمل به ، خشية أن يعمل به الناس فيفرض عليهم ، متفق عليه

229. 사도의 아내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어떤 일을 좋아하면서도 종종 그 일을 행하기를 피하셨다. 추종자들이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그들에게 의무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셨기 때문이다. (Bukhari and Muslim).

۲۳۰ - وَعَنْهَا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نهاهم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ن الوصال رحمة لهم ، فقالوا : إنك تواصل ؟ قال : إني لست كهنثيتكم ، إني أبيت يطعمني ربي ويسقيني ، متفق عليه

230. 사도의 아내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표시로서 교우들에게 지속적인 단식을 금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제의하였다. ‘사도님, 당신께서는 연속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밤에 주님께 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Bukhari and Muslim).

۲۳۱ - وعن أبي قتادة الخارث بن ربيع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إني لأقوم إلى الصلاة ، وأريد أن أطول فيها ، فأسمع بكاء الصبي ، فأتجوز في صلاتي كراهية أن أشق على أمه ، رواه البخاري

23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까타다 하리스(Abu Qatadah Haris bin Ribī)가 전하고 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일어나 오래 예

배하고 싶었으나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배시간을 단축시켰는데, 꾸란을 오래 암기하여 아이의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Bukhari).

۲۳۲ - وعن جُنْدُبِ بْنِ عَبْدِ اللَّ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صَلَّى صَلَاةَ الصُّبْحِ فَهُوَ فِي ذِمَّةِ اللَّهِ ، فَلَا يَطْلُبُكُمْ اللَّهُ مِنْ ذِمَّتِهِ بِشَيْءٍ ، فَإِنَّهُ مَنْ يَطْلُبُهُ مِنْ ذِمَّتِهِ بِشَيْءٍ يُدْرِكُهُ ، ثُمَّ يَكُفُّهُ عَلَى وَجْهِهِ فِي نَارِ جَهَنَّمَ » رَوَاهُ مُسْلِمٌ

23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준둡(Jundub bin Abdullah)이 전하고 있다. “이른 새벽에 예배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족함이 드러나면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Muslim).

۲۳۳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لْمُسْلِمُ أَخُو الْمُسْلِمِ ، لَا يَظْلِمُهُ ، وَلَا يُسْلِمُهُ ، مَنْ كَانَ فِي حَاجَةِ أَخِيهِ كَانَ اللَّهُ فِي حَاجَتِهِ ، وَمَنْ فَرَّجَ عَنْ مُسْلِمٍ كُرْبَةً فَرَّجَ اللَّهُ عَنْهُ بِهَا كُرْبَةً مِنْ كُرْبِ يَوْمِ الْقِيَامَةِ ، وَمَنْ سَتَرَ مُسْلِمًا سَتَرَهُ اللَّهُ يَوْمَ الْقِيَامَةِ » مَتَّفَقٌ عَلَيْهِ .

233.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은 다른 무슬림의 형제이므로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그를 적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다른 무슬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자가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도와준 무슬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십니다. 다른 무슬림의 어려움 하나를 제거하여 주는 자가 있다면 심판의 날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준 자의 어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다른 무슬림의 잘못을 덮어주는 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준 자의 잘못들을 덮어주십니다.

다.” (Bukhari and Muslim).

۲۳۴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مُسْلِمُ أَخُو الْمُسْلِمِ لَا يَخُونُهُ وَلَا يَكْذِبُهُ وَلَا يَخْذُلُهُ كُلُّ الْمُسْلِمِ عَلَى الْمُسْلِمِ حَرَامٌ حِرْضُهُ وَمَالُهُ وَدَمُهُ ، التَّقْوَى هُنَا . يَحْسَبُ امْرِئٌ مِنَ الشَّرِّ أَنْ يَحْقِرَ أَخَاهُ الْمُسْلِمَ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23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은 다른 무슬림의 형제입니다. 무슬림은 무슬림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 각자의 명예와 재산과 생명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바로 여기 마음에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극히 나쁜 짓입니다.” (Tirmizi).

۲۳۵ - رحم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ا تَحَاسَدُوا وَلَا تَنَاجَشُوا وَلَا تَبَاغَضُوا وَلَا تَدَابَرُوا وَلَا يَبِيعَ بَعْضُكُمْ عَلَى بَيْعِ بَعْضٍ ، وَكُونُوا عِبَادَ اللَّهِ إِخْوَانًا . الْمُسْلِمُ أَخُو الْمُسْلِمِ : لَا يَظْلِمُهُ وَلَا يَحْقِرُهُ وَلَا يَخْذُلُهُ . التَّقْوَى هُنَا - وَيُشِيرُ إِلَى صَدْرِهِ ثَلَاثَ مَرَّاتٍ - يَحْسَبُ امْرِئٌ مِنَ الشَّرِّ أَنْ يَحْقِرَ أَخَاهُ الْمُسْلِمَ . كُلُّ الْمُسْلِمِ عَلَى الْمُسْلِمِ حَرَامٌ دَمُهُ وَمَالُهُ وَحِرْضُهُ ، رواه مسلم .

23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 것이며, 공매 때 상대방에 대항해서 가격을 부추이지 말 것이며, 나쁜 마음을 품지 말 것이며,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제안하지 말고 모두가 알라 하나님의 종으로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슬림은 다른 무슬림의 형제입니다. 무슬림은 무슬림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함

은 바로 여기 마음에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극히 나쁜 짓입니다. 무슬림 각자의 명예와 재산과 생명은 신성합니다.” (Muslim).

۲۳۶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ا يُؤْمِنُ أَحَدُكُمْ حَتَّى يُحِبَّ لِأَخِيهِ مَا يُحِبُّ لِنَفْسِهِ ، مَتَّقْ عَلَيْهِ

23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무슬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무슬림이 아닙니다.” (Bukhari and Muslim).

۲۳۷ - و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نْصُرْ أَخَاكَ ظَالِمًا أَوْ مَظْلُومًا ، فَقَالَ رَجُلٌ : يَا رَسُولَ اللَّهِ أَنْصُرُهُ إِذَا كَانَ مَظْلُومًا أَرَأَيْتَ إِنْ كَانَ ظَالِمًا كَيْفَ أَنْصُرُهُ ؟ قَالَ : « تَحْجُزُهُ - أَوْ تَمْنَعُهُ - مِنَ الظُّلْمِ فَإِنَّ ذَلِكَ تَنْصُرُهُ ، رواه البخاري

23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박해자이건 또는 피해자이건 그가 무슬림이면 형제를 도우시오.” 한 교우가 질문했다. ‘사도여, 피해를 입은 무슬림 형제라면 돕겠습니다. 그런데 박해한 가해자를 제가 도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께서 대답했다. “부정과 박해를 못하도록 제지하십시오. 박해를 못하게 막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Bukhari).

۲۳۸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حَقُّ الْمُسْلِمِ عَلَى الْمُسْلِمِ خَمْسٌ : رَدُّ السَّلَامِ ، وَعِيَادَةُ الْمَرِيضِ ، وَاتِّبَاعُ الْجَنَائِزِ وَإِجَابَةُ الدَّعْوَةِ ، وَتَخْنِيتُ الْعَاطِسِ ، مَتَّ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 حَقُّ الْمُسْلِمِ سِتٌّ : إِذَا لَقِيْتَهُ فَسَلِّمْ عَلَيْهِ ، وَإِذَا دَعَاكَ فَأَجِبْهُ ، وَإِذَا اسْتَنْصَحَكَ فَانْصَحْ لَهُ ، وَإِذَا عَطَسَ فَحَمِدِ اللَّهَ فَشَمِّتْهُ ، وَإِذَا مَرِضَ فَعُدْهُ ، وَإِذَا مَاتَ فَاتَّبِعْهُ ،

23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은 무슬림에게 다섯 가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1)인사 답례, (2)환자방문, (3)장례예배 참석과 고인을 위한 기도, (4)초청 수락, (5)그리고 재채기 한 사람이 알함두릴라(Alhamdulillah; 알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라고 말하면, 야르하무칼라(Yarhamukallah; 알라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무슬림(Muslim)의 전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무슬림에게는 여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1)무슬림을 만났을 때는 쌀람 알라이쿰(Salam Alaikum; 그대에게 평화가)으로 인사해야 하고, (2)초청받으면 수락해야 하고, (3)충고와 자문을 원하는 자 있으면 성실하게 자문을 하여 주고, (4)재채기 한 사람이 알함두릴라(Alhamdulillah; 알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라고 말하면, 야르하무칼라(Yarhamukallah; 알라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라고 응답하고, (5)환자를 방문하고, 그리고 (6)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의무입니다.

۲۳۹ - وعن أبي عمارة البراء بن عازب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أمر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سبع ، وتنهانا عن سبع . أمرتنا بعبادة المريد ، واتباع الجنائز ، وتنشيط العاطس ، وإبرار المقيم ، وتصير المظلوم ، وإجابة الداعي ، وإنشاء السلام . وتنهانا عن خواتيم أو نتحم بالذهب ، وعن شرب بالفضة ، وعن المباير الحمير ، وعن النفس ، وعن لبس الحرير والإستبرق والديبا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 وإنشاء الضالة في السبع الأول .

239. 아부 우마라 바라아(Abu 'Umarah Al-Baraa bin 'Azib)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일곱 가지를 명령하셨고 일곱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1)환자방문, (2)장례행렬 동참, (3)재채기 한 자에게 알라 하나님의 자비를 빌어주는 것,

(4)약속이행, (5)박해받은 자를 도와주는 것, (6)초청수락, (7)상호인사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금지하신 것은 (1)남성의 금반지 착용, (2)은잔 컵으로 음료수를 마시는 것, (3)붉은 실크로 만든 방석에 앉는 일, (4) 실크와 무명이 혼합된 천으로 만든 옷 착용, (5)순수 실크 옷 착용, (6) 반짝이는 옷의 착용, 그리고 (7)실크와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옷의 착용입니다. (Bukhari and Muslim).

제28장 무슬림의 부족한 점 감싸기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إِنَّ الَّذِينَ يُحِبُّونَ أَنْ تَشِيعَ الْفَاحِشَةُ فِي الَّذِينَ آمَنُوا لَهُمْ عَذَابٌ أَلِيمٌ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النور : ١٩]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에 관한 추문이 퍼뜨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것이라...】 (24:19)

٢٤٠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لا يَسْتُرُ عَبْدٌ عَبْدًا فِي الدُّنْيَا إِلَّا سَتَرَهُ اللهُ يَوْمَ الْقِيَامَةِ ، رواه مسلم

24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현세에서 무슬림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자의 부족함은 알라 부활의 날 알라 하나님께서 감싸주실 것입니다.” (Muslim).

٢٤١ - و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كُلُّ أَمْنِي مُعَافَى إِلَّا الْمُجَاهِرِينَ ، وَإِنْ مِنْ الْمُجَاهِرَةِ أَنْ يَعْمَلَ الرَّجُلُ بِاللَّيْلِ عَمَلًا ، ثُمَّ يُصْبِحُ وَقَدْ سَتَرَهُ اللهُ عَلَيْهِ فَيَقُولُ : يَا فُلَانُ عَمِلْتُ الْبَارِحَةَ كَذًّا وَكَذًّا ، وَقَدْ بَاتَ يَسْتُرُهُ رَبُّهُ ، وَيُصْبِحُ يَكْشِفُ سِتْرَهُ اللهُ عَنْهُ ، مُتَقَى عَلَيْهِ

241.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노골적으로 퍼트리려는 자들을 제외한 나의 모든 추종자들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노골적인 행위란 알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밤의 일을 아침에 일어나, ‘나는 어

제 밤에 누구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행위, 그리고 주님께서 가려주신 것을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노골적인 행위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٤٢ - و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زَنَتِ الْأَمَةُ فَتَبَيَّنَ زِنَاهَا فَلْيَجْلِدْهَا الْحَدَّ ، وَلَا يُقْرَبْ عَلَيْهَا ، ثُمَّ إِنْ زَنَتِ الثَّانِيَةَ فَلْيَجْلِدْهَا الْحَدَّ وَلَا يُقْرَبْ عَلَيْهَا ، ثُمَّ إِنْ زَنَتِ الثَّلَاثَةَ فَلْيَبْعِمْهَا وَكَوْ بِحَبْلٍ مِنْ شَعْرٍ ، مَتَّقِ عَلَيْهِ

24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만일 하녀의 간통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녀는 당연히 태형의 벌을 받아야하나 비난받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간통을 했어도 동일한 벌만 받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까지 간통을 했다면 머리카락 하나의 가격을 받고서라도 그녀는 팔려 가야합니다.” (Bukhari and Muslim).

٢٤٣ - وعنه قال : أَنِّ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رَجُلٍ قَدْ شَرِبَ خَمْرًا قَالَ : « اضْرِبُوهُ » قَالَ أَبُو هُرَيْرَةَ : فَمِنَّا الضَّارِبُ بِيَدِهِ ، وَالضَّارِبُ بِنَعْلِهِ ، وَالضَّارِبُ بِتَوْبِهِ . فَلَمَّا انْتَصَرَفَ قَالَ بَعْضُ الْقَوْمِ : أَخْرَأَكَ اللَّهُ قَالَ : « لَا تَقُولُوا هَكَذَا لَا تُعِينُوا عَلَيْهِ الشَّيْطَانُ » ، رَوَاهُ الْبُخَارِيُّ

243.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만취한 사람이 사도 앞에 서자 사도께서는 그에게 회초리를 가하라고 하셨다. 아부 후라이라가 말하고 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그를 손으로 때리고, 일부는 신발로 때리고 그리고 일부는 옷으로 때렸다.’ 그가 떠나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이며, 그를 창피하게 하여주소서.’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사탄이 그를 지배하는 그런 말은 삼가야 합니다.” (Bukhari).

제29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배려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أَفْعَلُوا الْخَيْرَ لَعَلَّكُمْ تُفْلِحُونَ** [الحج : ٧٧]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영하리라.] (22:77)

٢٤٤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وَالْمُسْلِمُ أَخُو الْمُسْلِمِ لَا يَظْلِمُهُ وَلَا يُظْلَمُهُ . مَنْ كَانَ فِي حَاجَةِ أَخِيهِ
كَانَ اللَّهُ فِي حَاجَتِهِ ، وَمَنْ فَرَّجَ عَنْ مُسْلِمٍ كُرْبَةً فَرَّجَ اللَّهُ عَنْهُ بِهَا
كُرْبَةً مِنْ كُرْبٍ يَوْمَ الْقِيَامَةِ ، وَمَنْ سَتَرَ مُسْلِمًا سَتَرَهُ اللَّهُ يَوْمَ
الْقِيَامَةِ ، متفق عليه

244.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우마르(Umar bin Al-Khattab)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은 다른 무슬림의 형제이므로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그를 적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다른 무슬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가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도와준 무슬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십니다. 다른 무슬림의 어려움 하나를 제거하여 주는 자가 있다면 심판의 날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준 자의 어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다른 무슬림의 잘못을 덮어주는 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준 자의 잘못들을 덮어주십니다.” (Bukhari and Muslim).

٢٤٥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نَفَسَ عَنْ مُؤْمِنٍ كُرْبَةً مِنْ كُرْبِ الدُّنْيَا ، نَفَسَ اللَّهُ
عَنْهُ كُرْبَةً مِنْ كُرْبِ يَوْمِ الْقِيَامَةِ ، وَمَنْ بَسَّرَ مَغْشَرًا بِسَرِّهِ بَسَّرَ اللَّهُ
عَلَيْهِ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 وَمَنْ سَتَرَ مُسْلِمًا سَتَرَهُ اللَّهُ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

وَاللهُ فِي عَوْنِ الْعَبْدِ مَا كَانَ الْعَبْدُ فِي عَوْنِ أَخِيهِ ، وَمَنْ سَلَكَ طَرِيقًا
 يَبْتَغِي فِيهِ عِلْمًا سَهَّلَ اللهُ لَهُ طَرِيقًا إِلَى الْجَنَّةِ . وَمَا اجْتَمَعَ قَوْمٌ فِي
 بَيْتٍ مِنْ بُيُوتِ اللهِ تَعَالَى ، يَتْلُونَ كِتَابَ اللهِ ، وَيَتَذَكَّرُونَ أَمْرَهُ بَيْنَهُمْ
 إِلَّا أَتَتْهُمْ مَلَائِكَةُ السَّكِينَةِ ، وَهَبَتْ لَهُمُ الرِّحْمَةَ ، وَحَقَّقَتْ لَهُمُ
 الْمَلَائِكَةُ ، وَذَكَرَهُمُ اللهُ فِيمَنْ عِنْدَهُ . وَمَنْ بَطَأَ بِهِ عَمَلُهُ كَمْ
 يُسْرِعُ بِهِ نَسَبُهُ ، رَوَاهُ مُسْلِمٌ

24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무슬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자가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 그의 불행을 제거하여 주실 것이며, 타인의 고초를 덜어주는 자가 있다면 현세와 내세에서의 그의 고초를 제거하여 주실 것이며, 무슬림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자가 있다면 현세와 내세에서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알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돕는 자를 계속하여 도우실 것입니다. 지식을 찾아 길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국 가는 길을 편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알라 하나님의 집인 사원에 모여 꾸란을 암기하고 공부하는 자들은 평안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날개를 펴서 그들을 감싸 줄 것이요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감싸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천사들과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행함에 느린 자는 그의 혈통이 그것을 서두르지 않는 자입니다.” (Muslim).

제30장 선행을 위한 건의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مَنْ يَشْفَعْ شَفَاعَةً حَسَنَةً يَكُنْ لَهُ نَصِيبٌ مِنْهَا
[النساء : ٨٥]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행을 위해 건의하는 자에게 그
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며...】 (4:85)

٢٤٦ - وعن أبي موسى الأشع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ا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ا أتاه طالب حاجة أقبل على جلسائه فقال : « اشفعوا
نؤجرُوا وَيَنْفِخِ اللهُ عَلَى لِسَانِ نَبِيِّهِ مَا أَحَبُّ مَغْ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 « مَا شَاءَ » .

246. 아부 무사 아쉬아리(Abu Musa Al-Ash'ari)가 전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여 사도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다. “당신의 사정을 건의하시오. 알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리실 것
이요 사도의 입을 통해서 알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는 바를 말하게
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٤٧ - و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في قصة بَرِيرَةَ وَزَوْجِهَا . قال :
قالَ لَنَا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تَوَرَّاجَعْتُمُ ؟ » قَا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تَاَمَّرْنِي ؟ قال : « إِنَّمَا أَشْفَعُ » قَالَتْ : لَا حَاجَةَ لِي فِيهِ . رواه البخاري

247.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부라이라
(Burairah)와 그녀의 남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사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사도여, 이 말씀은 당신의 건의인가요? 아니면 명령이십
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단지 건의할 뿐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그 남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ukhari).

제31장 화해 조성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لا خَيْرَ فِي كَثِيرٍ مِنْ نَجْوَاهُمْ إِلَّا مِنْ أَمْرٍ بِصَدَقَةٍ
أَوْ مَعْرُوفٍ أَوْ إِصْلَاحٍ بَيْنَ النَّاسِ [النساء : ١١٤] وقال تعالى : وَالصُّلْحُ
خَيْرٌ [النساء : ١٢٨] وقال تعالى : فَاتَّقُوا اللَّهَ وَأَصْلِحُوا ذَاتَ بَيْنِكُمْ
[الأفقال : ١] وقال تعالى : إِنَّمَا الْمُؤْمِنُونَ إِخْوَةٌ فَأَصْلِحُوا بَيْنَ أَخَوِيكُمْ
[الحجرات : ١٠]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속삭이는 비밀 이야기 속
에는 축복이 없으나 자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또는 사람들 간에 평화를
중재하는 대화는 제외라...】 (4:114) 【...화해가 최선의 방책이라...】
(4:128)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라...】 (8:1)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 그러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 사이를 화해
시키라...】 (49:10)

٢٤٨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كُلُّ سُلَامَى مِنَ النَّاسِ عَلَيْهٍ صَدَقَةٌ كُلُّ يَوْمٍ تَطْلُعُ فِيهِ
الشَّمْسُ : تَعْدِلُ بَيْنَ اثْنَيْنِ صَدَقَةٌ ، وَتُعِينُ الرَّجُلَ فِي دَابَّتِهِ
فَتَحْمِلُهُ عَلَيْهَا ، أَوْ تَرْفَعُ لَهُ عَلَيْهَا مَتَاعَهُ صَدَقَةٌ . وَالْكَلِمَةُ
الطَّيِّبَةُ صَدَقَةٌ ، وَبِكُلِّ خَطْوَةٍ تَمْشِيهَا إِلَى الصَّلَاةِ صَدَقَةٌ ، وَتُمْبِطُ
الْأَذَى عَنِ الطَّرِيقِ صَدَقَةٌ ، وَتُغْنِي عَنْهُ

24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태양이 떠오르는 날마다 모든 사람은 자선을 해야 합니다. 적대관
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에 공정한 화해를 조성하는 것도 자선이며, 탈 것에
오르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짐을 올려주는 것도 자선이며, 친절함 한 마디

도 친절이며, 예배를 위해 사원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도 자선이며, 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는 것도 자선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۲۴۹ - وعن أمّ كلثوم بنت عتبة بن أبي مخط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ليسَ الكذابُ الذي يُصلِحُ بينَ النَّاسِ فيتنسِي خَيْراً ، أو يقولُ خَيْراً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مسلمٍ زيادة ، قالت : ولمْ أسمعْهُ يَرْتَحِصُ في شيءٍ بما يقولُهُ النَّاسُ إلا في ثلاثٍ ، تعني : الحربَ ، والإصلاحَ بينَ النَّاسِ ، وحديثَ الرَّجلِ امرأتهُ ، وحديثَ المرأةِ زوجها .

249. 움무 쿨쑤(Umm Kulsum bint Uabah bin Abi Muait)은 사도로 부터 들은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자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유발시키거나 좋은 것을 말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Bukhari and Muslim).

무슬림(Muslim) 전언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나는 사도께서 다음의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경우는 바로 전쟁에서, 평화를 조성할 때, 그리고 남편의 아내와의 대화 및 아내의 남편과의 대화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۲۵۰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سمع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صوتَ خَصُومٍ بِالبَابِ عَالِيَةً أَصَوَاتُهُمَا ، وإذا أَحَدُهُمَا يَسْتَوْضِعُ الآخرَ وَيَسْتَرْفِعُهُ في شيءٍ ، وَهُوَ يَقُولُ : « وَاللهِ لا أفعلُ ، فَخَرَجَ عَلَيْهِمَ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 أبينَ المُتَأَلِّي عَلَى اللهِ لا بفعلُ المعروف ؟ » فقال : أنا يا رسولَ الله ، فلهُ أيُّ ذلكَ أَحَبُّ . متفقٌ عليه

250.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문 밖에서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한 사람이 그가 빚지고 있는 부채를 경감해달라고 채권자에게 애걸하면서 좀 친절하게 대하여

달라고 했다. 채권자가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없소.’ 이때 사도께서 문 밖으로 나가 물었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겠다고 알라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이 누구요?” 채권자가 말했다. ‘사도여, 제가 그랬습니다. 채무자를 위해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٥١ - وعن أبي العباس سهل بن سعد الساعد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بلغه أن بني عمرو بن عوف كان بينهم شر، فخرج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صلح بينهم في أناس معه، فحبس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حانت الصلاة، فجاء بلال إلى أبي بك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فقال: يا أبا بكر إ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د حبس، وحانت الصلاة، فهل لك أن تؤم الناس؟ قال: نعم إن شئت، فأقام بلال الصلاة، وتقدم أبو بكر فكبر وكبر الناس، وجاء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مشي في الصفوف حتى قام في الصف، فأخذ الناس في التصفيق، وكان أبو بكر رضي الله عنه لا يلتفت في صلاجه، فلما أكفرت الناس التصفيق التفت، فإذ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أشار إلي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رفع أبو بكر رضي الله عنه يده فحمد الله، ورجع القهقري وراه حتى قام في الصف، فتقدم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صلى للناس، فلما فرغ أقبل على الناس فقال: «أيها الناس ما لكم حين نأبكم شي في الصلاة أخذتم في التصفيق؟ إنما التصفيق للنساء. من نأبه شي في صلاجه فليقل: سبحان الله، فإنه لا يسمعه أحد حين يقول: سبحان الله، إلا التفت. يا أبا بكر: ما منعك أن تخطي بالناس حين أشرت إليك؟ قال أبو بكر: ما كان ينبغي لابن أبي قحافة أن يخطي بالناس بين يد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تفق عليه

251. 아부 압바스 사흘(Abu Abbas bin Sa'd Al-Sa'i)이 전하고 있다. 바니 아르루(Bani 'Amru) 가문과 이븐(Ibn 'Awf) 가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도께서는 몇 명의 교우들을 대동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러 나가셨다. 분쟁을 해결하신 후 그들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다. 이력저력하는 동안에 예배시간이 되었고 빌랄(Bilal)이 아부 바크르(Abu Bakr)에게 가서 말했다.

‘사도께서 그곳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시간입니다. 당신께서 예배를 집전하시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바란다면 그렇게 하지요.’ 빌랄이 예배시간을 알리자 아부 바크르가 앞으로 나가 ‘알라후 아크바르(Allah Akbar)’ 문구를 암기하자 사람들이 후렴을 하였다. 바로 그때 사도께서 도착하여 예배 줄을 헤치고 맨 앞줄에 섰다. 사람들이 사도가 왔다는 것을 아부 바크르에게 알리기 위해 손바닥을 쳤다. 이때까지 아부 바크르는 예배 집전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바닥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손뼉 소리가 더해지자 아부 바크르는 사도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에게 그 위치에서 예배를 계속 집전하라는 표시를 하셨다. 그러나 아부 바크르는 그의 두 손을 올리고 알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뒤로 물러나 자기 줄에 섰다. 그러자 사도께서 앞으로 나가 예배를 집전하셨다.

예배가 종료되자 교우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씀하셨다.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넓은 허벅지에 손바닥을 치지요? 허벅지에 손바닥을 치는 것은 여성들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 중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스부하날라(Subhanallah; 알라 하나님 이여, 홀로 찬양받으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 내가 당신에게 예배를 계속 집전하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사도가 계시는데 아부 꾸하파(Abu Quhafah)의 아들 아부 바크르가 예배를 집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Bukhari and Muslim).

제32장 약자와 빈자에 대한 축복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أَصْبِرْ نَفْسَكَ مَعَ الَّذِينَ يَدْعُونَ رَبَّهُمْ بِالْغَدَاةِ
وَالْعَتَمَةِ يُرِيدُونَ وَجَهَهُ وَلَا تَعْدُ عَيْنَاكَ عَنْهُمْ [الكهف : ٢٨]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는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과 함께하되 허식에 불과한 현세의 삶을 원하여 그대의 눈이 그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18:28)

٢٥٢ - عن حَارِثَةَ بْنِ وَهَبٍ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أَلَا أُخْبِرُكُمْ بِأَهْلِ الْجَنَّةِ ؟ كُلُّ ضَعِيفٍ
مُتَضَعِّفٍ . لَوْ أَقْسَمَ عَلَى اللهِ لِأَبْرَةٍ أَلَا أُخْبِرُكُمْ بِأَهْلِ النَّارِ ؟ كُلُّ
عُتْلٍ جَوَاطٍ مُسْتَكْبِرٍ ، مُتَّقٍ عَلَيْهِ

25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리사(Haritha bin Wahb)가 전하고 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전해줄까요? 모든 약자와 멸시를 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맹세하는 자 있다면 그 분께서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갈 운명인지 전해줄까요? 무식한 자와 뻔뻔스러운 자와 거만하고 오만한 자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٥٣ - وعن أَبِي الْعَبَّاسِ سَهْلٍ بْنِ سَعْدٍ السَّاعِدِ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مَرَّ
رَجُلٌ عَلَ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 لِرَجُلٍ عِنْدَهُ جَالِسٍ : « مَا رَأَيْتُكَ
فِي هَذَا ؟ » قَالَ : رَجُلٌ مِنْ أَشْرَافِ النَّاسِ ، هَذَا وَاللهِ حَرِيٌّ إِنْ خُطِبَ
أَنْ يُنْكَحَ . وَإِنْ شَقَّ أَنْ يُشَقَّ . فَسَكَ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ثُمَّ مَرَّ رَجُلٌ آخَرُ ، فَقَالَ لَ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ا رَأَيْتُكَ فِي

هذا ؟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هذا رجلٌ من فقراء المسلمين هذا حرٌّ إن
خُطِبَ أن لا يُنكحَ ، وإن شُفِعَ أن لا يُشَفَّعَ ، وإن قال أن لا يُسَمَّعَ
لِقَوْلِ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هذا خيرٌ من ميلء الأرض
مثل هذا » متفقٌ عليه

253. 아부 압바스 사흘(Abu Alabbas Sahl bin Sa'ad Al-Sa'idi)
이 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사도 옆을 지나갔다. 이때 사도께서 자리를
함께 했던 교우에게 물으셨다. “방금 이 길로 지나간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 교우가 대답했다. ‘가문이 좋은 집안
의 출신이지요. 그가 어떤 여성에게 청혼한다면 그 청혼이 수락되고,
그가 권고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사도는 침묵을 지키셨다.

이때 다른 사람이 지나갔다. 사도께서 질문하셨다. “이 사람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했다. ‘사도여, 이 사람은 가난한
무슬림 출신이지요. 그가 어떤 여성에게 청혼한다면 그 청혼이 거절되
고, 그가 권고를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말을 하면 듣
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난한 무슬림은
당신이 방금 칭찬한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Muslim).

٢٥٤ - وعن أبي سعيد الخ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حتجبت الجنة والنار فقالت النار : في البهَّارون والمتكبرون ،
وقالت الجنة : في ضعفاء الناس ومساكينهم ، فقضى الله بينهما :
إنك الجنة رَحِمْتِي أَرْحَمُ بِكَ مَنْ أَشَاءَ ، وإنك النار عَذَابِي أَعْدَبُ
بِكَ مَنْ أَشَاءَ ، وَكَلَيْتُكُمَا عَلَيَّ مِلْؤُهَا » رواه مسلم

25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싸이드 쿠드리(Abu Sa'id
Al-Khudri)가 전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지
옥이 말을 꺼냈다. ‘나에게로는 폭군들과 거만한 자들이 올 것이
요.’ 이에 천국이 말했다. ‘나에게로는 약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
들이 올 것이요.’ 이 토론을 듣고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천국이요 나의 자비라. 너를 통하여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내릴 것이라. 그리고 너는 징벌의 장소로 지옥이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라. 너희 두 곳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나의 의무이니라.’ (Muslim).

٢٥٥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هُ لَبَيَاتِي الرَّجُلُ السَّمِينُ الْعَظِيمُ يَوْمَ الْقِيَامَةِ لَا يَزِنُ حِينَئِذٍ جَنَاحُ
 بَعُوضَةٍ ، مِثْقَالِ عِلْبَةٍ »

25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부활의 날 몸이 비대한 위대한 인물이 알라 하나님 앞에 오게 되나 알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가치는 모기의 날개 하나만도 못할 것이니라.” (Bukhari and Muslim).

٢٥٦ - وعنه أَنَّ امْرَأَةً سَوْدَاءَ كَانَتْ تَقُمُّ الْمَسْجِدَ ، أَوْ شَابَا ،
 فَفَقَدَهَا ،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سَأَلَ عَنْهَا أَوْ عَنْهُ ،
 فَقَالُوا : مَاتَ . قَالَ : « أَفَلَا كُنْتُمْ أَذْتَنُمُونِي ، فَكَأَنْتُمْ صَعَرُوا
 أَمْرَهَا ، أَوْ أَمْرَهُ ، فَقَالَ : « دُلُّونِي عَلَى قَبْرِهِ ، فَدَلُّوهُ فَصَلَّيْ عَلَيْهَا ،
 ثُمَّ قَالَ : « إِنَّ هَذِهِ الْقُبُورَ مَمْلُوءَةٌ ظُلُمَةً عَلَى أَهْلِهَا ، وَإِنَّ اللَّهَ تَعَالَى
 يُنَوِّرُهَا لَهُمْ بِصَلَاتِي عَلَيْهِمْ » ، مِثْقَالِ عِلْبَةٍ

256.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피부가 새까만 한 여성이 사원을 돌보는 일이 있었다. 사원을 위해 봉사한 그녀를 보지 못한 사도께서 어느 날 그녀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 소식을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알리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축소하려하였습니까? 고인의 무덤으로 나를 안내하여 주시오.” 무덤을 보자마자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무덤들은 알려져 있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나의 기도를 받아들여 그 안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٥٧ - و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رَبُّ أَشْعَثَ مَدْفُوعٍ بِالْأَبْوَابِ لَوْ أَقْسَمَ عَلَى اللَّهِ لَأَبْرَهُ » ، رواه مسلم .

25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형클어진 머리를 하여 많이 불안해 보이고, 문전에서 밀려나 모멸을 당하는 자들이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Muslim).

٢٥٨ - وعن أسام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قُمْتُ عَلَى بَابِ الْجَنَّةِ ، فَلِذَا حَامَةٌ مِنْ دَخَلَهَا الْمَسْكِينُ ، وَأَصْحَابُ الْجَدِّ يَجْبُسُونَ ، غَيْرَ أَنَّ أَصْحَابَ النَّارِ قَدْ أُمِرَ بِهِمْ إِلَى النَّارِ . وَقُمْتُ عَلَى بَابِ النَّارِ فَلِذَا حَامَةٌ مِنْ دَخَلَهَا النِّسَاءُ ، مَضَى عَلَيْهِ

25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사마(Usamah bin Zaid)가 전하고 있다. “승천(Miraj)의 날 밤에 나는 천국 문 앞에 서서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자들은 그곳의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런 후 사람들은 지옥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 넣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지옥 문전에 서서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٢٥٩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مْ يَتَكَلَّمْ فِي الْمَهْدِ إِلَّا ثَلَاثَةٌ : عِيسَى ابْنُ مَرْيَمَ ، وَصَاحِبُ جُرَيْجٍ ، وَكَانَ جُرَيْجٌ رَجُلًا عَابِدًا ، فَاتَّخَذَ مَوْتَمَةً فَكَانَ فِيهَا ، فَأَتَتْهُ أُمُّهُ وَهُوَ يُصَلِّي فَقَالَتْ : يَا جُرَيْجُ ، قَالَ : يَا رَبُّ أُمِّي وَصَلَّيْ . فَأَقْبَلَ عَلَى صَلَاتِهِ فَانْصَرَفَتْ . فَلَمَّا كَانَ مِنَ الْغَدِ أَتَتْهُ وَهُوَ يُصَلِّي ، فَقَالَتْ : يَا جُرَيْجُ ، قَالَ : أَيُّ رَبِّ أُمِّي وَصَلَّيْ . فَأَقْبَلَ عَلَى صَلَاتِهِ ، فَلَمَّا كَانَ مِنَ الْغَدِ أَتَتْهُ وَهُوَ يُصَلِّي فَقَالَتْ : يَا جُرَيْجُ ، قَالَ : أَيُّ رَبِّ أُمِّي وَصَلَّيْ ، فَأَقْبَلَ عَلَى صَلَاتِهِ ، فَقَالَتْ : اللَّهُمَّ لَا تُؤَيِّنْهُ حَتَّى

يَنْظُرُ إِلَى وُجُوهِ الْمُؤْمِنَاتِ . فَتَذَكَّرَ بَنُو إِسْرَائِيلَ جُرْيِمًا وَعِبَادَتَهُ ،
وَكَانَتْ امْرَأَةٌ بَغِيًّا يَتَمَتَّلُ بِحُسْنِهَا ، فَقَالَتْ : إِنْ شِئْتُمْ لَا فَنِيَتُهُ ،
فَتَعَرَّضَتْ لَهُ ، فَلَمْ يَلْتَفِتْ إِلَيْهَا ، فَأَتَتْ رَاعِيًا كَانَ يَأْوِي إِلَى
صَوْمَعَتِهِ ، فَأَمَكَّنَتْهُ مِنْ نَفْسِهَا فَوَقَعَ عَلَيْهَا . فَحَمَلَتْ ، فَلَمَّا
وَلَدَتْ قَالَتْ : هُوَ مِنْ جُرَيْجٍ ، فَأَتَوْهُ فَاسْتَنْزَلُوهُ وَهَدَمُوا صَوْمَعَتَهُ ،
وَجَعَلُوا بِضَرْبُونَهُ ، فَقَالَ : مَا شَأْنُكُمْ ؟ قَالُوا : زَنَيْتَ بِهِدِهِ الْبَغِيَّةُ
فَوَلَدَتْ مِنْكَ . قَالَ : أَبْنِ الصَّبِيَّ ؟ فَجَاؤُوا بِهِ . قَالَ : دَعُونِي حَتَّى
أُصَلِّيَ . فَصَلَّى ، فَلَمَّا انْصَرَفَ أَتَى الصَّبِيَّ فَطَعَنَ فِي بَطْنِهِ وَقَالَ :
يَا غُلَامُ مَنْ أَبُوكَ ؟ قَالَ : فُلَانُ الرَّاعِي ، فَأَقْبَلُوا عَلَى جُرَيْجٍ يَقْبَلُونَهُ
وَيَتَمَسَّحُونَ بِهِ وَقَالُوا : نَبِيِّ لَكَ صَوْمَعَتَكَ مِنْ ذَهَبٍ ، قَالَ :
لَا ، أَعِيدُوهَا مِنْ طِينٍ كَمَا كَانَتْ ، فَعَمَلُوا . وَبَيْنَمَا صَبِيٌّ يَرْفَعُ مِنْ
أُمِّهِ ، فَمَرَّ رَجُلٌ رَاكِبٌ عَلَى دَابَّةٍ فَارِهَةٍ وَشَارَةِ حَسَنَةٍ ، قَالَتْ أُمُّهُ :
اللَّهُمَّ اجْعَلْ ابْنِي مِثْلَ هَذَا ، فَتَرَكَ اللَّذِي وَأَقْبَلَ الْبَنِي فَتَنَظَرَ إِلَيْهِ
فَقَالَ : اللَّهُمَّ لَا تَجْعَلَنِي مِثْلَهُ ، ثُمَّ أَقْبَلَ عَلَى تَدْيِيهِ فَجَعَلَ يَرْتَضِعُ ،
فَكَانَتْ أَنْظَرُ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هُوَ يَحْكِي أَرْضِياعَهُ بِأَصْبَعِهِ
السَّبَّابَةِ فِي فِيهِ ، فَجَعَلَ يَمُصُّهَا ، قَالَ : « وَمَرُّوا بِجَارِيَةٍ وَهُمْ
يَضْرِبُونَهَا وَيَقُولُونَ : زَنَيْتِ سَرَقْتَ ، وَهِيَ تَقُولُ :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 . قَالَتْ أُمُّهُ : اللَّهُمَّ لَا تَجْعَلْ ابْنِي مِثْلَهَا ، فَتَرَكَ
الرَّضَاعَ وَتَنَظَرَ إِلَيْهَا فَقَالَ : اللَّهُمَّ اجْعَلَنِي مِثْلَهَا ، فَهَنَالِكَ تَرَا جَعِمَا
الْحَدِيثُ فَقَالَتْ : مَرَّ رَجُلٌ حَسَنُ الْمَيَّةِ فَقُلْتُ : اللَّهُمَّ اجْعَلْ ابْنِي
مِثْلَهُ فَقُلْتُ : اللَّهُمَّ لَا تَجْعَلَنِي مِثْلَهُ ، وَمَرُّوا بِهِدِهِ الْأُمَةِ وَهُمْ
يَضْرِبُونَهَا وَيَقُولُونَ : زَنَيْتِ سَرَقْتَ ، فَقُلْتُ : اللَّهُمَّ لَا تَجْعَلْ ابْنِي
مِثْلَهَا فَقُلْتُ : اللَّهُمَّ اجْعَلَنِي مِثْلَهَا ؟ قَالَ : إِنْ ذَلِكَ الرَّجُلُ كَانَ جَبَّارًا
فَقُلْتُ : اللَّهُمَّ لَا تَجْعَلَنِي مِثْلَهُ ، وَإِنْ هَذِهِ يَقُولُونَ لَهَا زَنَيْتِ ، وَلَمْ تَزِنْ
وَسَرَقْتَ ، وَلَمْ تَسْرِقْ ، فَقُلْتُ : اللَّهُمَّ اجْعَلَنِي مِثْلَهَا ، مَغْنً عَلَيْهِ

25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바니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요람에서 이야기 한 자는 단지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있고, 신앙심이 깊고 수도원을 세워 그곳에서 은퇴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주라이즈(Juraij)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와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의 어머니와 저의 기도가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의 어머니가 와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주여, 저의 어머니와 저의 기도가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셋째 날에도 그를 찾아와 불렀습니다. 그는 또 알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저의 어머니와 저의 기도가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는 창녀들의 얼굴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이리하여 주라이즈와 그의 신앙생활은 유명해졌고 바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의 주요 화제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미모가 뛰어난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주라이즈가 스캔들에 휩싸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였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라이즈의 수도원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목동에게 접근하여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녀는 그 아이가 주라이즈의 아들이라고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라이즈를 찾아와 그를 끌어내고 수도원을 파괴하며 그를 구타하였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주라이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창녀와 간통을 하여 당신의 아이를 낳았소.’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아이를 데려오자 그가 말했다. ‘지금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 혼자만 있게 하여 주시오.’ 그는 기도를 마치고 그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를 그의

무릎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동 모모입니다.’ 그러자 바니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주라이즈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를 위해 축복을 기원하며 말했다. ‘우리가 금으로 수도원을 세워주겠소.’ 주라이즈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모습처럼 흙으로 지어주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유아였다. 살이 찌고 잘 생긴 말을 탄 한 남자가 지나갔다. 그는 멋진 옷을 입고 있었다. 이때 어머니가 말했다. ‘주여, 저의 아들도 이 남자처럼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고 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알라 하나님여, 저를 이 남자처럼 만들지 마소서.’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돌려 다시 젖을 빨았다. 나는 사도를 보고 있었다. 그분께서는 집게손가락을 입에 넣고서 젖 먹이는 시범을 보이셨다. 그는 계속했다. 몇 사람들이 한 하녀 옆을 지나가면서 간통을 하고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서 때렸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알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여 그분만이 나의 가장 훌륭한 보호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를 하였다. ‘주여, 저의 아들이 이 하녀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때 아이는 젖을 떼고 그 젊은 여자를 쳐다보고 말했다. ‘주여, 저를 이처럼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잘 생긴 사람이 지나갔다. 나는 기도하였다. ‘알라 하나님여, 저의 아이가 그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소서.’ 아이가 말했다. ‘주여, 그 남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몇 사람들이 하녀를 데리고 가면서 간통을 하고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서 때렸다. 어머니가 기도했다. ‘주여 저의 아들이 그녀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자 아이가 말했다. ‘주여, 주여, 제가 그녀처럼 되게 하여 주소서.’ 아이가 말했다. ‘저 남자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주여, 제가 그 남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 하녀에 대해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간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건을 훔쳤다고 했지만 그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 하나님여, 저를 그녀처럼 만들어주소서!’ (Bukhari and Muslim)

제33장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اعْفِصْ جَنَاحَكَ لِلْمُؤْمِنِينَ [الحجر : ٨٨]** وقال
تعالى : **وَاصْبِرْ نَفْسَكَ مَعَ الَّذِينَ يَدْعُونَ رَبَّهُمْ بِالْغَدَاةِ وَالْعَشِيِّ
يُرِيدُونَ وَجْهَهُ وَلَا تَعْدُ عَيْنَاكَ عَنْهُمْ تُرِيدُ زِينَةَ الْحَيَاةِ الدُّنْيَا
[الكهف : ٢٨]** وقال تعالى : **فَأَمَّا الْيَتِيمَ فَلَا تَقْهَرْ وَأَمَّا السَّائِلَ فَلَا
تَنْهَرْ [الضحى : ٩ ، ١٠]** وقال تعالى : **أَرَأَيْتَ الَّذِي يُكَذِّبُ بِالْدِّينِ
فَإِنَّ الَّذِي يَدْعُ الْيَتِيمَ وَلَا يَحْضُرْ عَلَى طَعَامِ الْمِسْكِينِ [الماعون : ٣]**.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믿는 자들을 위해 그대의 날개
를 낮추라.】 (15:88) 【그러므로 그대는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간구하
는 자들과 함께하되 허식에 불과한 현세의 삶을 원하여 그대의 눈이 그
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알라 하나님을 염원하지 아니하고 자
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18:28) 【그러므로 고
아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며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93:9-10) 【그대는 내세를 부정하는 자를 알았느냐? 그는 고아를 학
대하고 불우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라.】 (107:1-3)

٢٦٠ - عن سعد بن أبي وقاص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نَّا 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سِنَّةَ نَقَرٍ ، فَقَالَ الْمُشْرِكُونَ لِ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اطْرُدْ
هَؤُلَاءِ لَا يَحْتَرِثُونَ عَلَيْنَا ، وَكُنْتُ أَنَا وَابْنُ مَسْعُودٍ وَرَجُلٌ مِّنْ
هَذَيْلٍ وَبِلَالٌ وَرَجُلَانِ لَسْتُ أَسْمِيهِمَا ، فَوَقَعَ فِي نَفْسِ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ا شَاءَ اللهُ أَنْ يَقَعَ فَحَدَّثَ نَفْسَهُ ، فَأَنْزَلَ اللهُ تَعَالَى :
(وَلَا تَطْرُدِ الَّذِينَ يَدْعُونَ رَبَّهُمْ بِالْغَدَاةِ وَالْعَشِيِّ يُرِيدُونَ وَجْهَهُ)
[الأنعام : ٥٢] رواه مسلم**

260. 싸우드(S'ad bin Abi Waqqas)가 전하고 있다. 우리 여섯 명이 사도와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사도께서 다신론자(Mushrik)들에게 이슬람을 제의하자 그들이 사도에게 요구했다. ‘이들을 제거하여 이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주소.’ 그 여섯 사람은 나를 비롯해 이븐 마스우드(Ibn Mas'ud), 후자일(Huzail) 부족 출신의 한 사람, 빌랄(Bilal),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두 사람이었다. 사도의 마음에 알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느꼈다. 사도는 명상에 잠겼고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계시를 내렸다.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추방하지 말라. 그들은 알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노라...】 (6:52)

٢٦١ - وعن أبي هُبَيْرَةَ عَائِدِ بْنِ عَمْرِو بْنِ الْمُزَنِيِّ وَهُوَ مِنْ أَهْلِ بَيْتَةِ الرُّضْوَانِ رَضِيَ اللَّهُ عَنْهُ . أَنَّ أَبَا سُفْيَانَ أَتَى عَلَى سَلْمَانَ وَصُهَيْبٍ وَبِلَالٍ فِي تَغْيِيرٍ فَقَالُوا : مَا أَخَذْتَ سَيْوْفُ اللَّهِ مِنْ عَدُوِّ اللَّهِ مَا أَخَذَهَا ، قَالَ أَبُو بَكْرٍ رَضِيَ اللَّهُ عَنْهُ : أَنْتُمْ تَقُولُونَ هَذَا لِشَيْخِ قُرَيْشٍ وَسَبْدِمِهِ ؟ فَأَتَ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أَخْبَرَهُ فَقَالَ : يَا أَبَا بَكْرٍ لَعَلَّكَ أَغَضَبْتَهُمْ ؟ لَتَيْنِ كُنْتَ أَغَضَبْتَهُمْ لَقَدْ أَغَضَبْتَ رَبَّكَ ؟ فَأَتَاهُمْ فَقَالَ : يَا إِخْوَتَاهُ أَغَضَبْتُكُمْ ؟ قَالُوا : لَا ، يَغْفِرُ اللَّهُ لَكَ يَا أَخِي . وَرَوَاهُ مُسْلِمٌ

261. 아부 후라이라 아이즈(Abu Hurairah Aiz bin Amr Al-Muzani)가 전하고 있다. 그는 후데이비아(Hudaibiyah)에서 리드완 맹세(Ridwah;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맹세)에 동참한 한 사람이다. 아부 수피안(Abu Sufyan)이 살만(Salman)과 수하이브(Suhaib)와 빌랄(Bilal)에게 왔을 때 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알라 하나님의 겸으로 적들에게 원한을 갚았습니다.’ 아부 바크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꾸라이쉬 부족의 최고 어른에게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부 바크르는 사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아부 바크르, 아마도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소. 만일 당신이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님을 화나게 만든 것이요.” 아부 바크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 말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형제여,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Muslim).

٢٦٢ - وعن سهل بن سع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نَا وَكَافِلُ الْيَتِيمِ فِي الْجَنَّةِ هَكَذَا » ، وَأَشَارَ بِالسَّبَّابَةِ وَالْوُسْطَى ، وَفَرَّجَ بَيْنَهُمَا . رواه البخاري

26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흘(Sahl bin Sa'ad)이 전하고 있다. “나와 그리고 고아를 돌보는 자는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연결하여 공간을 두어 가리키셨습니다. (Bukhari).

٢٦٣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كَافِلُ الْيَتِيمِ لَهُ أَوْ لِيُغَيِّرَهُ أَنَا وَهُوَ كَهَاتَيْنِ فِي الْجَنَّةِ » ، وَأَشَارَ الرَّأْيِي وَهُوَ مَالِكُ بْنُ أَنَسٍ بِالسَّبَّابَةِ وَالْوُسْطَى . رواه مسلم

26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나와 그리고 고아를 돌보는 자는, 그와 관련이 있던 또는 낯선 사람이던 간에 이 두 사람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리크(Malik bin Anas) 전언가가 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으로 가리켰다. (Muslim).

٢٦٤ - و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يْسَ الْمِسْكِينُ الَّذِي تَرُدُّهُ التَّمْرَةُ وَالْثَمَرَتَانِ ، وَلَا اللَّقْمَةُ وَاللَّقْمَتَانِ إِنَّمَا الْمِسْكِينُ الَّذِي يَتَعَفَّفُ . »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في « الصحيحين » : « لَيْسَ الْمِسْكِينُ الَّذِي يَطْشِفُ عَلَى النَّاسِ تَرُدُّهُ اللَّقْمَةُ وَاللَّقْمَتَانِ ، وَالْتَّمَرَةُ وَالْتَمَرَتَانِ ، وَلَكِنَّ الْمِسْكِينَ الَّذِي يَجِدُ غِنًى يَغْنِيهِ ، وَلَا يَفْطِنُ يَدَهُ فَيَتَصَدَّقَ عَلَيْهِ ، وَلَا يَقُومُ فَيَسْأَلُ النَّاسَ . »

26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자와 불우한 자란 종려나무 열매하나 또는 두개, 또는 한입 또는 두입 정도로 돌려보내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가난해도 구걸을 자제하는 자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부카리(Bukhari)와 무슬림(Muslim)의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난한 자란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걸하는 자나 종려나무 열매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한입 또는 두입 정도로 돌려보내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축적하지 않는 자, 동냥을 하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밝히지 않는 자, 그리고 구걸하기 위해 서 있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٢٦٥ - و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سَّامِيُّ عَلَى الْأَرْزَلَةِ وَالْمِسْكِينِ كَالْمُجَاهِدِ فِي سَبِيلِ اللَّهِ ، وَأَحْسَبُهُ قَالَ : « وَكَاتِلِغِيمِ الَّذِي لَا يَفْتَنُّ ، وَكَاتِلِغِيمِ لَا يَفْطِرُ ، مَتَّقُ عَلَيْهِ

26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나이 든 여성들과 불우한 자들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열사(Mujahid)와 같습니다.” 전언가는 사도께서 다음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자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피곤해 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٢٦٦ - و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شَرُّ الطَّعَامِ طَعَامُ الْوَكِيمَةِ ، يَمْتَنِعُهَا مَنْ يَتَّقِيهَا ، وَيُدْعَى إِلَيْهَا مَنْ يَتَابَعُهَا ، وَمَنْ كَمَّ يُجِيبُ الدَّهْوَةَ ، نَقَدْتُ عَصَى اللَّهِ وَرَسُولَهُ ، رواه مسلم
وفي رواية في الصحيحين عن أبي هريرة من قوله : « يَتَشَرَّ الطَّعَامُ طَعَامُ الْوَكِيمَةِ يَدْعَى إِلَيْهَا الْأَغْنِيَاءُ وَيَتْرَكَ الْفُقَرَاءُ ، .

26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가장 나쁜 음식은 오고 싶으나 초대받지 않고 온 사람에게 제공된 결혼잔치의 음식과, 가고 싶지 않은데 초대되어 온 사람에게 제공된 결혼잔치의 음식입니다. 초대받고서 오지 않는 자는 알라 하나님과 사도를 거역한 것입니다.” (Muslim).

부카리(Bukhari)와 무슬림(Muslim)의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장 나쁜 음식은 부자만 초청된 잔치의 음식입니다.”

٢٦٦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عَالَ جَارَيْتَيْنِ حَتَّى تَبْلُغَا جَاءَ يَوْمَ الْقِيَامَةِ أَنَا وَهُوَ كَهَاتَيْنِ » وَضَمَّ أَصَابِعَهُ . رواه مسلم

26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성숙할 때까지 두 여자를 양육한 자는 심판의 날 나와 그가 두 손가락과 같이 함께할 것입니다.” (Muslim).

٢٦٨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دَخَلْتُ عَلَى امْرَأَةٍ وَمَعَهَا ابْنَتَانِ لَهَا تَسَالُ ، فَلَمْ تَجِدْ عِنْدِي شَيْئًا غَيْرَ تَمْرَةٍ وَاحِدَةٍ ، فَأَعْطَيْتُهَا إِيَّاهَا فَتَقَسَّمَتْهَا بَيْنَ ابْنَتَيْهَا وَلَمْ تَأْكُلْ مِنْهَا ، ثُمَّ قَامَتْ فَخَرَجَتْ ، فَدَخَ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عَلَيْنَا ، فَأَخْبَرْتُهُ فَقَالَ : « مَنْ ابْتُلِيَ مِنْ هَذِهِ الْبَنَاتِ بِشَيْءٍ فَأَحْسَنَ إِلَيْهِمْ كُنَّ لَهُ سِنْرًا مِنَ النَّارِ » متفق عليه

268.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한 여인이 두 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와 그들을 위해 무엇을 요청했다. 그때 나는 종려나무 열매하나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것을 두 쪽으로 나누어 두 딸에게 주고 자기 자신은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그런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사도가 왔을 때 나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말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딸들을

양육하면서 딸들에게 잘 해준 자는 그녀들이 불지옥을 막아주는 방패
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٦٩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جاءني مسكينٌ تحمِلُ
ابنتَينِ لها ، فأطعمتهُ ثلاثَ تمراتٍ ، فأعطتْ كُلَّ واحدةٍ مِنْهُمَا
تمرَّةً ورَقَعَتْ إلى فِيهَا تمرَّةً لتأْكُلَهَا ، فاستطعمتهُ ابنتَاهَا ، فشَقَّتْ
التمرَّةَ الَّتِي كَانَتْ تُرِيدُ أَنْ تأْكُلَهَا بَيْنَهُمَا ، فأعجبني شأنُهَا ،
فذكرْتُ الَّذِي صنَعَتْ لِ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 إِنَّ اللَّهَ قَدْ
أَوْجَبَ لَهَا بِهَا الْجَنَّةَ ، أَوْ أَعْتَقَهَا بِهَا مِنَ النَّارِ » رواه مسلم

269.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한 가난한 여성이 두 딸을 데
리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세 개의 종려나무 열매를 주었다.
두 개는 두 딸에게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하나는 그녀가 먹고 싶어 했다.
두 딸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머지 하나를 두 쪽
으로 쪼개 각 딸에게 주었다. 나는 그녀가 취한 행동을 보고 많은 인상을
받고 이 모든 사항을 사도에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
셨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천국은 그녀의 것으
로 두시고 그것으로 지옥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Muslim).

٢٧٠ - وعن أبي شُرَيْحٍ خُوَيْلِدِ بْنِ عَمْرِو الْخُزَاعِ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لَّهُمَّ إِنِّي أَعْرُجُ حَقَّ الضَّعِيفِينَ الْبُيُوتِ
وَالْمَرْأَةِ » حديث حسن رواه النسائي بإسناد جيد

27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수라이흐 쿠와일리드(Abu
Shuraih Khuwilid bin Amr Al-Khuz'a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
나님이여 두 약자, 고아와 여성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난처하지 않게 하
여주소서.” (Nisai).

٢٧١ - وعن مُصْعَبِ بْنِ سَعْدِ بْنِ أَبِي وَقَّ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رَأَى
مَعْدًا أَنَّهُ لَهُ فَضْلٌ عَلَى مَنْ دُونَهُ ، فَ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هَلْ
تُنْصِرُونَ وَتَتَرُزْقُونَ إِلَّا بِضُعْمَائِكُمْ » ، رَوَاهُ الْبُخَارِيُّ . هَكَذَا مُرْسَلًا ،
فَإِنَّ مُصْعَبَ بْنَ سَعْدٍ تَابِعِيٌّ ، وَرَوَاهُ الْحَافِظُ أَبُو بَكْرٍ الْبَرْقَانِيُّ فِي صَحِيحِهِ
مُتَّصِلًا عَنْ مُصْعَبٍ عَنْ أَبِيهِ رَضِيَ اللَّهُ عَنْهُ .

271. 무스압(Mus'ab bin S'ad bin Abi Waqqas)이 전하고 있다.
싸아드는 이처럼 부유하지 못한 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
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도움을 받았으니 약자들을 도와
야합니다.” (Bukhari).

٢٧٢ - وعن أَبِي الدَّرْدَاءِ هُوَ يُ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ابْغُؤْنِي الضُّعَفَاءَ ، فَإِنَّمَا تُنْصَرُونَ ، وَتَتَرُزَّقُونَ
بِضُعْمَائِكُمْ » ، رَوَاهُ أَبُو دَاوُدَ . بِإِسْنَادٍ جَيِّدٍ .

272. 아부 다르다 우와이크(Abu Darda 'Uwaimir)가 사도로부
터 들은 것을 전하고 있다. “약자들 중에서 나의 기쁨을 찾으시오. 여
러분들은 도움을 받았으니 여러분 중에 약자가 있거든 그들을 도우시
오.” (Abu Dawood).

제34장 여성과 아내의 권리

قال الله تعالى: وَعَاشِرُهُمْ بِالْمَعْرُوفِ [النساء: ١٩] وقال تعالى: وَكَتَنُ
نَسْتَطِيعُوا أَنْ تَعْدِلُوا بَيْنَ النِّسَاءِ وَكَلَّ حَرَضْنُمْ فَلَا تَمِيلُوا كُلَّ الْمِيلِ
فَتَكْذَرُوهُنَّ كَالْعَلْفَةِ وَإِنْ تُصْلِحُوا وَتَتَّقُوا فَإِنَّ اللَّهَ كَانَ غَفُوراً رَحِيماً
[النساء: ١٢٩]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여성들에게 친절하라 ...】
(4:19) 【너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절대로 아내들을 공평하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한 부인에게 치우쳐 다른 부인들을 매달린 여인처럼
만들지 말라. 만일 너희가 화해하고 알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알라 하
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 것이라.】 (4:129)

٢٧٣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ستوصوا بالنساء خيراً ، فإن المرأة خلقت من ضلع ، وإن
أعوج ماني الضلع أعلاه ، فإن ذهبت تقيمه كسرته ، وإن تركته
لم يزل أعوج ، فاستوصوا بالنساء »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في الصحيحين : « المرأة كالضلع إن أقمتها كسرتها ،
وإن استمتعت بها ، استمتعت بقيتها عوج » .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 إن المرأة خلقت من ضلع ، لن تستقيم لك
على طريقته ، فإن استمتعت بها ، استمتعت بقيتها عوج ، وإن
ذهبت تقيمها كسرتها ، وكسرهما طلاقها » .

27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
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친절하시오. 여성은 휘어진 갈비뼈로 창조되
었으며 가장 휘어진 갈비뼈는 위부분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

을 곧게 펴려고 할 때 그것을 부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두면 휘어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친절 하시오.” (Bukhari and Muslim).

부카리(Bukhari)와 무슬림(Muslim)의 전언에는 다른 내용이 언급 되어 있다. “여성은 하나의 갈비뼈와 같아서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곧 게 펴려고 할 때 그것을 부러트릴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으 려한다면 휘어진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Muslim)의 다른 전언에는 다음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여성은 휘어진 갈비뼈로 창조되었으므로 여러분은 그녀를 곧게 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녀를 곧게 펴려고 할 때 그녀를 부 러뜨리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۲۷۴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زَمْعَةَ رَضِيَ اللهُ عَنْهُ ، أَنَّهُ سَ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خْطُبُ ، وَذَكَرَ النَّافَةَ وَالَّذِي عَقَرَهَا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إِذَا انْبَعَثَ أَشْقَاهَا) انْبَعَثَ لَهَا رَجُلٌ عَزِيزٌ ، عَارِمٌ مَنِّعٌ فِي رَهْطِهِ ، ثُمَّ ذَكَرَ النِّسَاءَ ، فَوَعَّظَ فِيهِنَّ ، فَقَالَ : « يَعْزِيدُ أَحَدُكُمْ فَيَجْلِدُ امْرَأَتَهُ جَلْدَ الْعَبْدِ فَلَمَلَهُ يَفْضَّجِعُهَا مِنْ آخِرِ يَوْمِهِ ، ثُمَّ وَعَّظَهُمْ فِي ضَعِيفِهِمْ مِنْ الْفَرْطَةِ وَقَالَ : « لِمَ يَضْحَكُ أَحَدُكُمْ مِمَّا يَفْعَلُ ؟ » ، مَتَّفَقٌ عَلَيْهِ

274. 압둘라(Abdullah bin Zam'a)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께서 행한 연설을 들었다. 연설 중에 예언자 살레(Saleh)의 암낙타와 그 암 낙타를 살해한 자의 사건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들 중에 가장 사악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91:12). 이 말은 사무드 (Samud) 부족 출신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나타나 암 낙타의 다리를 잘라버린 사건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여성에 관하여 언 급하셨다. “여러분 중에 노예를 대하는 것처럼 아내를 구타하고 저녁 이 되면 동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 방귀를 끼는 어떤 사람 에 대해 웃는 사람들에게 충고하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왜 다

른 사람에게 대해 웃습니까?” (Bukhari and Muslim).

۲۷۵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ا يفرقة مؤمن مؤمنة إن كرهه خلقا رضي منها آخر » ،
أو قال : « غيره » ، رواه مسلم

27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남성 무슬림은 여성 무슬림에게 어떤 나쁜 마음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혹시 그 여성에게서 미운 점이 있다면 기쁨을 주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Muslim).

۲۷۶ - وعن عمرو بن الاحوص الجشم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ه سَ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حَجَّةِ الْوَدَاعِ يَقُولُ بَعْدَ أَنْ حَمِدَ الله تَعَالَى ، وَأَتَى مَلَبَةَ وَذَكَرَ وَوَعَدَ ، ثُمَّ قَالَ : « أَلَا وَاسْتَوْصُوا بِالنِّسَاءِ خَيْرًا ، فَإِنَّهُنَّ عَوَانٌ عِنْدَكُمْ لَيْسَ تَمْلِكُونَ مِنْهُنَّ شَيْئًا غَيْرَ ذَلِكَ إِلَّا أَنْ يَأْتِيَنَّ بِفَاحِشَةٍ مُبَيَّنَةٍ ، فَإِنْ فَعَلْنَ فَاذْهَبُوا فِي الْمَنَاجِعِ ، وَاصْرِفُوهُنَّ عَضْرِبًا غَيْرَ مُبَرَّحٍ ، فَإِنْ أَطَعْتَكُمْ فَلَا تَبْغُوا عَلَيْهِنَّ سَبِيلًا ، إِلَّا أَنْ تَكُنَّ عَلَى نَيْسَابِكُمْ حَقًّا ، وَكَيْسَابِكُمْ عَلَيْكُمْ حَقًّا ، فَحَقُّكُمْ عَلَيْهِنَّ أَنْ لَا يُوْطِئَنَّ فُرُشَكُمْ مِنْ تَكَرُّهُنَّ ، وَلَا يَأْذَنَنَّ فِي بُيُوتِكُمْ لِمَنْ تَكَرَّهُنَّ ، وَلَا وَحَقُّهُنَّ عَلَيْكُمْ أَنْ تُحْسِنُوا إِلَيْهِنَّ فِي كِسْوَتِهِنَّ وَطَعَامِهِنَّ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276. 아므루('Amru bin Al-Ahwas Al-Jushami)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의 고별순례(Hajjatulwada'a) 연설을 들었다. 알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시더니 추종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잘 들으시오. 아내에게 친절하시오. 아내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이 여성들에 대하여 소유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녀들이 불미스러운 죄를 짓는다면 잠자리를 멀리하고 단 한번 가볍게 때려줄 수는 있으나 심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녀들이 순응한다면 여러분은 그녀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청구권도 갖지 못합니다. 잘 들으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권리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그녀와의 동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에게 아내가 있는 집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Tirmizi).

۲۷۷ - وعن معاوية بن حيد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لت يا رسول الله ما حق زوجة أحدنا عليه ؟ قال : « أن تطعمها إذا طعمت ، وتكسوها إذا اكتسيت ولا تغرب الوجه ، ولا تقبح ، ولا تهجر إلا في البيت حديث حسن رواه أبو داود

277. 무아위야(Mu'awiyah bin Haidah)가 전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먹는 것을 먹이고 네가 입는 옷을 입히며 아내의 얼굴은 절대로 때리지 마시오. 아내를 모욕해서도 안 되며 집 밖에서는 절대로 떨어져 있지 마시오.” (Abu Dawood).

۲۷۸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كمل المؤمنين إيماناً أحسنهم خلقاً ، وخياركم خياركم لنسائهم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

27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슬림은 훌륭한 품행을 지지고 있는 자요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를 가장 아끼는 자입니다.” (Tirmizi).

۲۷۹ - وعن إياس بن عبد الله بن أبي ذؤيب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لا تَضْرِبُوا إِمَاءَ اللَّهِ ، فَجَاءَ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 : ذَكِّرْنِ النِّسَاءَ حَتَّى أَزْوَاجِهِنَّ ، فَرَخَّصَ فِي ضَرْبِهِنَّ ، فَأُطِيفَ بِأَ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نِسَاءٌ كَثِيرٌ يَشْكُونَ أَزْوَاجَهُنَّ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 لَقَدْ أَطِيفَ بِأَلِ بَيْتِ مُحَمَّدٍ نِسَاءٌ كَثِيرٌ يَشْكُونَ أَزْوَاجَهُنَّ لَبْسَ أَوْلَئِكَ بِخِيَارِكُمْ ، رواه أبو داود بإسناد صحيح .

279. 이야스(Iyas bin Abdullah bin Abu Zubah)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알라 하나님의 여종들을 냉대하지 말라고 충고하셨다. 얼마 지나서 우마를 사도에게 가서 말했다.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너무 귀여울 뿐만 아니라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는 벌을 허용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여성들이 사도의 아내들을 찾아와 남편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여성들이 나의 아내들을 찾아와 남편들의 나쁜 대우에 대하여 불평하였습니다. 아내의 불만 대상이 된 남자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Abu Dawood).

۲۸۰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الدُّنْيَا مَتَاعٌ ، وَتَخْتَرُ مَتَاعِهَا الْمَرْأَةُ الصَّالِحَةُ ، رواه مسلم

28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Amru bin Al-'As)가 전하고 있다. “세상은 유용한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즐겁고 유용한 것은 훌륭한 아내입니다.” (Muslim).

제35장 남편의 권리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الرِّجَالُ قَوَّامُونَ عَلَى النِّسَاءِ بِمَا فَضَّلَ اللَّهُ بَعْضَهُمْ عَلَى بَعْضٍ وَبِمَا أَنْفَقُوا مِنْ أَمْوَالِهِمْ فَالصَّالِحَاتُ قَانِتَاتٌ حَافِظَاتٌ لِمَا حَفِظَ اللَّهُ لَكُمْ فِي أَنْفُسِكُمْ [النساء : ٣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알라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며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르고 남편 부재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4:34)

٢٨١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ذا دعا الرجل امرأته إلى فراشه فلم تأت به فبات غضباناً حبسها لعتنها الملايكة حتى تُصبيح ، متى عليه وفي رواية لها : إذا باتت المرأة هاجرةً فراش زوجها لعتننها الملايكة حتى تُصبيح ، وفي رواية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والذي نفسي بيده ما من رجل يدعو امرأته إلى فراشه فتأتى حلتبه إلا كان الذي في السماء ساعطاً حلتبها حتى يرضى عنها » .

28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침대로 초대할 때 아내가 이를 거절한다면 남편은 그녀에 대해 화를 품고 그날 저녁을 보내고 천사들은 아침까지 그녀를 저주합니다.” (Bukhari and Muslim).

부카리(Bukhari)와 무슬림(Muslim)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아내가 남편의 침대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을 때 천사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아내를 저주합니다.”

또 다른 전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생명이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남편이 침대로 초청했을 때 부인이 이를 거절했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 만족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 분께서 그녀에 대해 화를 내실 것입니다.”

٢٨٢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يضاً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ا يحيل لامرأة أن تصوم وزوجها شاهياً إلا بإذنه ، ولا تأذن في بيته إلا بإذنه ، متفق عليه وهذا لفظ البخاري

28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아내의 단식은 남편의 허락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의 허락없이 어떤 남자도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Bukhari and Muslim).

٢٨٣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كلُّكم راعٍ ، وكلُّكم مسؤولٌ عن رعيته ، والاميرُ راعٍ ، والرجلُ راعٍ على أهل بيته ، والمرأةُ راعيةٌ على بيتِ زوجها وولده ، وكلُّكم راعٍ ، وكلُّكم مسؤولٌ عن رعيته ، متفق عليه .

28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Ibn Umar)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 각자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치자도 보호자입니다. 남편은 가족의 보호자이며 여성은 남편과 자식에 대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Bukhari and Muslim).

٢٨٤ - وعن أبي علي طلق بن عل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دعا الرجلُ زوجته لحاجته فلتأنيبه وإن كانت على التثور . رواه الترمذي والنسائي وقال الترمذي . حديث حسن صحيح .

28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알리 딸ᄡ(Abu Ali Talq bin Ali)가 전하고 있다. “남편이 필요하여 아내를 부를 때 아내는 비록 빵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하더라도 남편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Tirmizi and Nisai).

٢٨٥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لَوْ كُنْتُ أَمِيرًا أَحَدًا أَنْ يَسْجُدَ لِأَحَدٍ لِأَمَرْتُ الْمَرْأَةَ أَنْ تَسْجُدَ
لِزَوْجِهَا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

28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누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Tirmizi).

٢٨٦ - وعن أم سلم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يُّمَا امْرَأَةٍ مَاتَتْ ، وَزَوْجُهَا عَنْهَا رَاضٍ دَخَلَتْ الْجَنَّةَ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حديث حسن .

28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움무 쌀라마(Umm Salamah)가 전하고 있다. “남편이 만족하고 있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녀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Tirmizi).

٢٨٧ - وعن معاذ بن جبل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ا تُؤْذِي امْرَأَةً زَوْجَهَا فِي الدُّنْيَا إِلَّا قَالَتْ زَوْجَتُهُ مِنْ الْحُورِ الْعِينِ
لَا تُؤْذِيهِ قَاتِلُكَ اللَّهُ ! فَإِنَّمَا هُوَ عِنْدَكَ دَخِيلٌ يُوْشِكُ أَنْ يُفَارِقَكَ
إِنَّمَا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حديث حسن .

28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무아즈(Muaz bin Jabal)가 전하고 있다. “아내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남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후르아인(Hurain) 출신의 동료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알라 하

나눔께 맹세하건대, 당신의 남편을 괴롭히지 마시오.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줄 것ियो. 왜냐하면 그는 나의 손님으로 곧 천국에서 우리와 합류하기 위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Tirmizi).

۲۸۸ - وعن أسامة بن زيد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ا تَرَكْتُ بَعْدِي فِتْنَةً هِيَ أَضَرُّ عَلَى الرِّجَالِ مِنَ النِّسَاءِ ، مَتَّقُوا
عَلَيْهِ

28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싸마(Usamah bin Zaid)가 전하고 있다. “나는 나 이후로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해악의 원인이 되는 시련을 더 적게 남길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제36장 아내와 가족을 위한 지출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هَلَى الْمَوْلُودَ لَهُ رِزْقُهُنَّ وَكِسْوَتُهُنَّ بِالْمَعْرُوفِ
 [البقرة : ٢٣٣] وقال تعالى : لِيُنْفِقَ ذُو سَعَةٍ مِنْ سَعَتِهِ وَمَنْ قُدِرَ
 عَلَيْهِ رِزْقُهُ فَلْيُنْفِقْ مِمَّا آتَاهُ اللَّهُ لَا بُكْلَفُ اللَّهُ نَفْسًا إِلَّا مِمَّا آتَاهَا
 [الطلاق : ٧] وقال تعالى : وَمَا أَنْفَقْتُمْ مِنْ شَيْءٍ فَهُوَ يُخْلِفُهُ
 [سبا : ٣٩]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아이와 아내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노라...】 (2:233) 【능력에 따라 지불하되 그의 능력이 한정된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푼 것 중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베푸신 것 이상의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아니 하시니라...】 (65:7) 【...너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분께서는 보상을 하시거늘...】 (34:39)

٢٨٩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دِينَارٌ أَنْفَقْتَهُ فِي سَبِيلِ اللَّهِ وَدِينَارٌ أَنْفَقْتَهُ فِي رَقَبَةٍ وَدِينَارٌ تَصَدَّقْتَ بِهِ عَلَى مِسْكِينٍ، وَدِينَارٌ أَنْفَقْتَهُ عَلَى أَهْلِكَ، أَعْظَمُهَا أَجْرًا الَّذِي أَنْفَقْتَهُ عَلَى أَهْلِكَ » رواه مسلم

28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라 하나님을 위해 바친 1디나르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한 1디나르와, 불우한 자들을 위해 자선한 1디나르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사용한 1디나르 중에서 가장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Muslim).

٢٩٠ - وعن أبي عبد الله ويقال له: أبي عبد الرحمن ثوبان بن يزيد
مو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فْضَلُ دِينَارٍ يُنْفِقُهُ الرَّجُلُ دِينَارٍ يُنْفِقُهُ عَلَى عِيَالِهِ ، وَدِينَارٍ يُنْفِقُهُ
عَلَى دَابَّتِهِ فِي سَبِيلِ اللَّهِ ، وَدِينَارٍ يُنْفِقُهُ عَلَى أَصْحَابِهِ فِي سَبِيلِ اللَّهِ »
رواه مسلم

290. 압두라흐만 싸우반(Abdurahman Sauban bin Yuhdud)이라 불리기도 한 아부 압둘라(Abu Abdullah)는 사도께서 해방시켜 준 노예출신으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돈은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이요, 알라 하나님을 위해 말에 사용한 것이요, 알라 하나님을 위해 사도의 교우들에게 사용한 돈도 훌륭하게 사용한 돈입니다.” (Muslim).

٢٩١ - وعن أم سلم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قلت يا رسول الله ، هل لي
أجرٌ في بيتي أبي سلمة أن أنفقَ عليهم ، ولستُ بتاركتهم مكدًا
ومكدًا إنما هم بيتي ؟ فقال : « نَعَمْ لَكَ أَجْرٌ مَا أَنْفَقْتَ عَلَيْهِمْ ،
منفقٌ عليه

291. 움무 쌀라마(Umm Salam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에게 질문하였다. ‘저의 첫 남편 아부 쌀라마의 아이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요? 이리 저리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들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당신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٢٩٢ - وعن سعد بن أبي وقاص رضي الله عنه في حديثه الطويل الذي
قدّمناه في أوّل الكتاب في باب النّبيّة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له : « وَإِنَّكَ لَنُ تُنْفِقَ نَفَقَةً تَبْتَغِي بِهَا وَجْهَ اللَّهِ إِلَّا أَجِرْتَ بِهَا حَتَّى
مَا تَجْعَلَ فِي فِي امْرَأَتِكَ » منفقٌ عليه

292. 싸우드(S'ad bin Abi Waqqas)는 의도(Niya)의 장 첫 장에 소개된 그의 긴 대화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을 위해 지출한 것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아내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준 것도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۲۹۲ - وعن أبي مسعود البَدْرِيِّ رضي الله عنه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أَنْفَقَ الرَّجُلُ عَلَى أَهْلِهِ نَفَقَةً يَحْتَسِبُهَا فَهِيَ لَهُ صَدَقَةٌ » متفق عليه

29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마스우드 바드리(Ibn Mas'ud Al-Badr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가족을 위해 지출할 때 그것은 자선으로도 간주됩니다.” (Bukhari and Muslim).

۲۹۳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كَفَى بِالْمَرْءِ إِثْمًا أَنْ يُضَيِّعَ مَنْ يَقُوتُ » حديث صحيح رواه أبو داود وغيره .
ورواه مسلم في صحيحه بِمَعْنَاهُ قَالَ : « كَفَى بِالْمَرْءِ إِثْمًا أَنْ يَبْخِشَ عَمَّنْ يَمْلِكُ قُوَّتَهُ » .

29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Amr bin Al-'As)가 전하고 있다. “도아주면서 그를 해치는 자는 죄인입니다.” (Abu Dawood).

무슬림(Muslim)의 전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먹을 것을 주다가 중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۲۹۴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مَا مِنْ يَوْمٍ يُصْبِحُ الْعِبَادُ فِيهِ إِلَّا مَلَكَانِ يَنْزِلَانِ ، فَيَقُولُ أَحَدُهُمَا : اللَّهُمَّ أَعْطِ مُنْفِقًا خَلَفًا ، وَيَقُولُ الْآخَرُ : اللَّهُمَّ أَعْطِ مُمْسِكًا تَلَفًا ،

متفق عليه

29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두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중 한 천사는, 알라 하나님이며, ‘베푼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돌려주소서.’ 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천사는, ‘알라 하나님이며, 인색한 자의 재물을 파괴하여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Bukhari and Muslim).

٢٩٦ - و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لْيَدُ الْعُلْيَا خَيْرٌ مِنَ الْيَدِ السُّفْلَى وَأَبْدًا يَمَنُ تَعُولُ ، وَخَيْرُ الصَّدَقَةِ مَا كَانَ عَنْ ظَهْرِ غِنًى ، وَمَنْ يَسْتَغْفِرْ ، يُعِفَّهُ اللَّهُ ، وَمَنْ يَسْتَغْفِرْ ، يُغْنِهِ اللَّهُ ، رواه البخاري

29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위의 손(주는 자의 손)은 아래의 손(받는 자의 손)보다 더 훌륭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베푸시오. 가장 좋은 자선은 남은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덕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풍요로움을 원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Bukhari).

제37장 축복받는 지출과 자선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لَنْ تَنَالُوا الْبِرَّ حَتَّى تُنْفِقُوا مِمَّا تُحِبُّونَ
[آل عمران : ٩٢] وقال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أَنْفِقُوا مِنْ طَيِّبَاتِ
مَا كَسَبْتُمْ وَمِمَّا أَخْرَجْنَا لَكُمْ مِنَ الْأَرْضِ وَلَا تَيَسَّمُوا الْخَبِيثَ مِنْهُ
تُنْفِقُونَ [البقرة : ٢٦٧]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지 않는 한 너희는 경건함을 얻을 수 없노라...】 (3:92)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얻는 좋은 양식 가운데서 그리고 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땅으로부터 거둬주신 것 가운데 좋은 것으로 자선을 베풀 것이며 너희가 눈을 감지 않고는 받지 아니하는 나쁜 것으로 베풀지 말라...】 (2:267)

٢٩٧ - 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كَانَ أَبُو طَلْحَةَ رَضِيَ اللَّهُ عَنْهُ أَكْثَرَ الْأَنْصَارِ بِالْمَدِينَةِ مَالًا مِنْ تَخْلٍ ، وَكَانَ أَحَبَّ أَمْوَالِهِ إِلَيْهِ بَيْرَحَاءَ ، وَكَانَتْ مُسْتَقْبِلَةَ الْمَسْجِدِ . وَ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دْخُلُهَا وَيَشْرَبُ مِنْ مَاءٍ فِيهَا طَيِّبٍ . قَالَ أَنَسٌ : فَلَمَّا نَزَلَتْ هَذِهِ الْآيَةُ : (لَنْ تَنَالُوا الْبِرَّ حَتَّى تُنْفِقُوا مِمَّا تُحِبُّونَ) قَامَ أَبُو طَلْحَةَ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اللَّهَ تَعَالَى أَنْزَلَ عَلَيْكَ : (لَنْ تَنَالُوا الْبِرَّ حَتَّى تُنْفِقُوا مِمَّا تُحِبُّونَ) وَإِنَّ أَحَبَّ مَالِي إِلَيَّ بَيْرَحَاءَ ، وَإِنَّهَا صَدَقَةٌ لِلَّهِ تَعَالَى أَرْجُو بِرَهَا وَذُخْرَهَا عِنْدَ اللَّهِ تَعَالَى ، فَضَعَهَا يَا رَسُولَ اللَّهِ حَيْثُ أَرَاكَ اللَّ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بَخِرْ ! ذَلِكْ مَالٌ رَّابِعٌ ، ذَلِكْ مَالٌ رَّابِعٌ ، وَقَدْ سَمِعْتُ
مَا قُلْتَ ، وَإِنِّي أَرَى أَنْ تَجْعَلَهَا فِي الْأَقْرَبِينَ » ، قَالَ أَبُو طَلْحَةَ : أَفْعَلُ
يَا رَسُولَ اللَّهِ ، فَقَسَمَهَا أَبُو طَلْحَةَ فِي أَقَارِبِهِ ، وَبَقِيَ عَمْرٌ . مُتَّفَقٌ عَلَيْهِ

297.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아부 탈하(Abu Talha)는 메디나 거주 후원자(Al-Ansari) 출신으로 종려나무 재배농장을 소유한 부자였다.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 중에서 바이라하(Bairaha) 농장을 가장 아끼고 좋아했다. 그것은 예언자 사원 바로 앞에 있었다. 사도께서는 이 정원을 찾아가 그곳의 달콤한 물을 마시곤 하셨다. 꾸란 3장 92절이 계시되었을 때 아부 탈하가 사도를 찾아가 물었다. ‘사도여, 본 절이 당신에게 계시되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산은 바이라하 농장인데 보상을 기대하면서 알라 하나님을 위해 기증하겠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당신께서 처분하셔도 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좋아요. 매우 유익한 재물이입니다. 나는 당신d; 한말을 잘 이해하였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 땅을 조카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탈하가 말했다. ‘사도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하는 그 땅을 조카들과 친척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Bukhari and Muslim).

제38장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أْمُرْ أَهْلَكَ بِالصَّلَاةِ وَاصْطَبِرْ عَلَيْهَا [طه : ١٣٢]**
 وقال تعالى :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قُوا أَنْفُسَكُمْ وَأَهْلِيكُمْ نَارًا**
[التحريم : ٦]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것에 인내하도록 하라...】 (20:132) 【믿는 자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
 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66:6)

٢٩٨ - 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أخذ الحسن بن علي رضي الله
 عنهما تمرًا من تمر الصدقة فجعلها في فيه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كُفْ كُفْ ، لِمَ يَهَا ، أَمَا عَلِمْتَ أَنَّا لَنَأْكُلُ الصَّدَقَةَ ٩١ ،**
مُتَّقِينَ عَلَيْهِ

وفي رواية : **« أَنَا لَا تَحِلُّ لَنَا الصَّدَقَةُ »** ، وقوله : **« كُفْ كُفْ ، يُقَالُ**
بِاسْتِكْثَانِ الْخَاءِ ، وَيُقَالُ بِكَتْمِهَا مَعَ التَّنْوِينِ وَهِيَ كَلِمَةُ زَجَرٍ لِلصَّبِيِّ عَنْ
الْمُسْتَفْذَرَاتِ ، وَكَانَ الْحَسَنُ رَضِيَ اللَّهُ عَنْهُ صَبِيًّا .

298.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하산
 (Al-Hasan bin Ali)이 어렸을 때 자선용 종려나무 열매 하나를 가져
 다 그의 입에 넣었다. 이것을 본 사도께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말씀하
 셧다. ‘알리에게 쿠크, 쿠크’ 하면서 뱉어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자선금과 자선물품을 손대지 않는다는 것
 을 너는 모르느냐?”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 가문이 자선금과
 자선물품에 손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٢٩٩ - وعن أبي حفص عمر بن أبي سلمة عبد الله بن عبد الأسد ربيب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كُنْتُ غُلَامًا فِي حَجْرٍ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كَانَتْ يَدِي تَطِيشُ فِي الصَّحْفَةِ ، فَقَالَ لِي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ا غُلَامُ سَمِّ اللَّهَ تَعَالَى ، وَكُلْ بِيَمِينِكَ ، وَكُلْ بِمَا بِيَدِكَ » ، فَمَا زِلْتُ تِلْكَ طِعْمَتِي بَعْدُ . متفق عليه .

299. 아비 하프스 우마르(Abi Hafs Umar bin Abi Salamah Abdullah bin Abdulasad)가 전하고 있다. 그는 움무 살라마(Umm Salamah)의 아들로 사도와 결혼하면서 데려온 전 남편의 자식이다. 나는 어렸을 때 사도의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음식그릇 속에 손을 넣어 음식을 가져다 먹곤 했었다. 이 모습을 본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에야,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개시하되 오른 손으로 그리고 네 앞에 있는 것부터 먹어라.” 이후부터 이것이 나의 식습관이 되었다. (Bukhari and Muslim).

٣٠٠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كُلُّكُمْ رَاعٍ ، وَكُلُّكُمْ مَسْئُولٌ عَنْ رَعِيَّتِهِ ، الْإِمَامُ رَاعٍ ، وَهُوَ مَسْئُولٌ عَنْ رَعِيَّتِهِ ، وَالرَّجُلُ رَاعٍ فِي أَهْلِهِ وَهُوَ مَسْئُولٌ عَنْ رَعِيَّتِهِ ، وَالْمَرْأَةُ رَاعِيَةٌ فِي بَيْتِ زَوْجِهَا وَهُوَ مَسْئُولَةٌ عَنْ رَعِيَّتِهَا ، وَالْخَادِمُ رَاعٍ فِي مَالِ سَيِّدِهِ وَهُوَ مَسْئُولٌ عَنْ رَعِيَّتِهِ ، فَكُلُّكُمْ رَاعٍ وَهُوَ مَسْئُولٌ عَنْ رَعِيَّتِهِ ، متفق عليه .

30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Ibn Umar)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 각자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치자도 보호자입니다. 남편은 가족의 보호자이며 여성은 남편과 자식에 대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۳۰۱ - وعن عمرو بن شعيب ، عن أبيه ، عن جد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رُّوا أَوْلَادَكُمْ بِالصَّلَاةِ وَهُمْ أَبْنَاءُ
سَبْعِ سِنِينَ ، وَأَضْرِبُوهُمْ عَلَيْهَا ، وَهُمْ أَبْنَاءُ عَشْرٍ وَتَرْفُقُوا بِبَنَاتِهِمْ فِي
الْمُضَاجِعِ » . حديث حسن رواه أبو داود بإسناد حسن .

301. 아르루('Amru bin Shuaib)는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에게 예배하도록 가르치되 나이 일곱 살이 되면 회초리를 드시오. 그리고 열 살이 되면서부터 남녀를 분리하여 잠을 재우시오.” (Abu Dawood).

۳۰۲ - وعن أبي ثريّة - سبرة بن معبد الجهن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عَلِّمُوا الصَّبِيَّ الصَّلَاةَ لِسَبْعِ سِنِينَ ،
وَأَضْرِبُوهُ عَلَيْهَا ابْنَ عَشْرِ سِنِينَ » . حديث حسن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وقال حديث حسن .

وَلَقَدْ أَنَا دَاوُدَ : « مَرُّوا الصَّبِيَّ بِالصَّلَاةِ إِذَا بَلَغَ سَبْعَ سِنِينَ » .

30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비 수라이야 사브라(Abi Suraiyah Sabrah bin Ma'abad Al-Juhni)가 전하고 있다. “사내아이 일곱 살이 되거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열 살이 되어 예배에서 실수할 때는 벌을 내리시오.” (Abu Dawood and Tirmizi).

아부 다우드(Abu Dawood)가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식의 나이 일곱 살이 되면 예배하라고 하시오.”

제39장 이웃의 권리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اعْبُدُوا اللَّهَ وَلَا تُشْرِكُوا بِهِ شَيْئًا وَيَالِ الْوَالِدِينَ إِحْسَانًا وَيَذَرِ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اكِينَ وَالْجَارَ ذِي الْقُرْبَىٰ وَالْجَارَ الْجُنُبَ وَالصَّاحِبَ بِالْجُنُبِ وَأَبْنَ السَّبِيلِ وَمَا مَلَكَتْ أَيْمَانُكُمْ** [النساء : ٣٦]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
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
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의
오른 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4:36)

۳۰۳ - وعن ابن عمر و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ا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ا زَالَ جِبْرِيلُ يُوصِينِي بِالْجَارِ حَتَّى ظَنَنْتُ أَنَّهُ سَيُورَّثُهُ »** ، متفق عليه

30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Ibn Umar)와 아이사(Aisaha)가 전하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웃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치 그가 상속자의 일원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۳۰۴ - وعن أبي ذ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ا أَبَا ذَرٍّ إِذَا طَبَخْتَ مَرَقَةً ، فَأَكْثِرْ مَاءَهَا ، وَتَعَاهَدْ جِيرَانَكَ »** . رواه مسلم .

وفي رواية له عن أبي ذرٍّ قال : إن خليل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وصاني : **« إِذَا طَبَخْتَ مَرَقًا فَأَكْثِرْ مَاءَهُ ، ثُمَّ انْظُرْ أَهْلَ بَيْتِكَ مِنْ جِيرَانِكَ ،**

فَأَصَابَهُمْ مِنْهَا بَعْرُوفٌ .

30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다르르(Abu Darr)가 전하고 있다. “아부 다르르, 국을 만들 때 물을 좀 더 붓고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시오.” (Muslim).

아부 다르르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나의 친구 사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국을 요리할 때는 물을 많이 부으시오. 그리고 당신 이웃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 그들에게도 국물을 나누어주시오.”

٣٠٤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وَاللَّهِ لَا يُؤْمِنُ ، وَاللَّهِ لَا يُؤْمِنُ ، وَاللَّهِ لَا يُؤْمِنُ ! » قِيلَ : مَنْ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 « الَّذِي لَا يَأْمَنُ جَارَهُ بَوَائِقِهِ ! » ، مِثْقَ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لمسلم : « لَا يَدْخُلُ الْجَنَّةَ مَنْ لَا يَأْمَنُ جَارَهُ بَوَائِقِهِ ، « الْبَوَائِقُ » : الْغَوَائِلُ وَالشُّرُورُ .

30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의 신앙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온전한 무슬림이 아니에요.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냐고 질문하자 사도가 대답하셨다. “이웃의 불상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 이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무슬림(Muslim)의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웃의 불상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 이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٣٠٥ - و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ا نِسَاءَ الْمُسْلِمَاتِ

لَا تَخْفَيْنَ جَارَةً بِلِحَافِهَا وَكُتُوفِئِنَّ شَاةٍ ، مِثْقَ عَلَيْهِ .

30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이여, 염소의 정강이 살 한 조각을 선물로

보낸 이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시오.”
(Bukhari and Muslim).

۳۰۷ - و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ا يمتنع جارٌ جاره أن
يغريَ خشبَةً في جدارِهِ ، ثمَّ يَقُولُ أبو هريرة : مَالِي أَرَاكُمْ عَنْهَا
مُعْرِضِينَ ! وَاللهِ لَا زَمِينَ بَيْنَ أَكْتَافِكُمْ . متفقٌ عليه .

30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이웃은 이웃의 담벽에 나무 서까래를 놓은 것을 막지 않습니다.” 역시 아부 후라이라가 덧붙여 전하고 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۰۸ - و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ا يُوْذِي جَارَهُ ، وَ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كْرِمْ ضَيْفَهُ ، وَ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قُلْ
خَيْرًا أَوْ لَيْسَ كُنْتُ ، متفقٌ عليه

30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손님을 존경하며,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좋은 말을 하여주거나 침묵을 지킵니다.” (Bukhari and Muslim).

۳۰۹ - وعن أبي شُرَيْبَةَ الْخُزَاعِ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حْسِنْ إِلَى جَارِهِ ، وَ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كْرِمْ ضَيْفَهُ ، وَ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قُلْ خَيْرًا أَوْ لَيْسَ كُنْتُ ، رواه مسلم بهذا اللفظ ،
وروى البخاري بعضه

30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슈라이흐 쿠자이(Abu Shuraih Al-Khuzai)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이웃에게 친절해야하고,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손님을 존경해야 하며,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좋은 말을 하여주거나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۳۱۰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قلت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لي جارَين ، فلي أتيهما أهدي ؟ قال : « إلى أقربيهما منك بآبٍ » رواه البخاري

310.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에게 물었다. ‘사도여, 저에게 두 이웃이 있는데 어느 쪽 이웃에게 선물을 보내야 합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당신 집 문에서 가까운 쪽 이웃이 먼저입니다.” (Bukhari).

۳۱۱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خَيْرُ الْأَصْحَابِ عِنْدَ اللَّهِ تَعَالَى خَيْرُهُمْ لَصَاحِبِيهِ ، وَخَيْرُ الْجِيرَانِ عِنْدَ اللَّهِ تَعَالَى خَيْرُهُمْ لَجَارِهِ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31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llah bin 'Umar)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친구는 그의 동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자이며, 알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이웃은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Tirmizi).

제40장 효도와 친척간의 유대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وَاعْبُدُوا اللَّهَ وَلَا تُشْرِكُوا بِهِ شَيْئًا وَبِالْوَالِدَيْنِ إِحْسَانًا
وَبِذِ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اكِينِ وَالْجَارِ ذِي الْقُرْبَى وَالْجَارِ الْجُنُبِ
وَالصَّاحِبِ بِالْجَنبِ وَابْنِ السَّبِيلِ وَمَا مَلَكَتْ أَيْمَانُكُمْ [النساء : ٣٦]
وقال تعالى : وَاتَّقُوا اللَّهَ الَّذِي تَسَاءَلُونَ بِهِ وَالْأَرْحَامَ [النساء : ١]
وقال تعالى : وَالَّذِينَ يَصِلُونَ مَا أَمَرَ اللَّهُ بِهِ أَنْ يُوصَلَ الآية [الرعد : ٢١]
وقال تعالى : وَوَصَّيْنَا الْإِنْسَانَ بِوَالِدَيْهِ حُسْنًا . [العنكبوت : ٨]
وقال تعالى : وَقَضَى رَبُّكَ أَنْ لَا تَعْبُدُوا إِلَّا إِيَّاهُ وَبِالْوَالِدَيْنِ إِحْسَانًا
إِمَّا يَبْلُغَنَّ عِندَكَ الْكِبَرَ أَحَدُهُمَا أَوْ كِلَاهُمَا فَلَا تَقُلْ لَهُمَا أَفْ
وَلَا تَنْهَرَهُمَا وَقُلْ لَهُمَا قَوْلًا كَرِيمًا . وَاخْنِصْ لَهُمَا جَنَاحَ الذُّلِّ مِنْ
الرَّحْمَةِ وَقُلْ رَبِّ ارْحَمْهُمَا كَمَا رَبَّيْتَانِي صَغِيرًا [الإسراء : ٢٤ : ٢٣]
وقال تعالى : وَوَصَّيْنَا الْإِنْسَانَ بِوَالِدَيْهِ حَمَلَتْهُ أُمُّهُ وَهْنًا عَلَى وَهْنٍ
وَفِصَالُهُ فِي عَامَيْنِ أَنْ اشْكُرْ لِي وَلِوَالِدَيْكَ [لقمان : ١٤]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
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
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의
오른 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알라 하나님은 오만
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4:36) 【사람들이여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신 주님을 공경하라...】 (4:1) 【이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말씀 한 것에 동참하고...】 (13:21) 【나는 부
모에게 효도하라고 인간에게 명하였노라...】 (29:8) 【주님께서 명을
내리셨노라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을 멀리 하거나 대꾸하지 말고 고운 말을 쓰라. 그리고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해 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17:23-24) 【나는 모든 인간에게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어머니는 잉태하고 이 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31:14)

۳۱۲ - عن أبي عبد الرحمن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سألت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ي العمل أحب إلى الله تعالى ؟ قال : الصلاة على رقتيها ، قلت : ثم أي ؟ قال : و بر الوالدين ، قلت : ثم أي ؟ قال : الجهاد في سبيل الله ، متفق عليه

312. 아부 압두라흐만 압둘라(Abu Abdurahman 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에게 물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는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۱۳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لا يجزي ولدٌ والداً إلا أن يعبدَهُ مملوكاً ، فبِعْتَرِيهِ ، فَبِعْتَرِيهِ ، رواه مسلم

31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아버지가 노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을 구입한 후 해방시키지 않는 한 자식은 아버지의 애정과 사랑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Muslim).

۳۱۴ - وعنه أيضاً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كْرِمْ صَبْفَهُ ، وَ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صِلْ رَحِمَهُ ، وَمَنْ كَانَ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فَلْيَقُلْ خَيْرًا أَوْ لِيَصْنُتْ » متفق عليه

314.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손님을 대접해야 하고,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부모와 친척들과 함께 해야 하고, 알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좋은 말을 하여주거나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۳۱۵ - و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اللَّهَ تَعَالَى

خَلَقَ الْخَلْقَ حَتَّى إِذَا فَرَغَ مِنْهُمْ قَامَتِ الرَّحِمُ ، فَقَالَتْ : هَذَا مَقَامُ الْعَائِدِ بِكَ مِنَ الْقَطِيعَةِ ، قَالَ : نَعَمْ أَمَا تَرْضَيْنَ أَنْ أَصِلَ مَنْ وَصَلَكَ ، وَأَقْطَعَ مَنْ قَطَعَكَ ؟ قَالَتْ : بَلَى ، قَالَ : فَذَلِكَ لَكَ ، ثُمَّ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قْرَءُوا إِن شِئْتُمْ : (فَهَلْ عَسَيْتُمْ إِنْ تَوَلَّيْتُمْ أَنْ تُفْسِدُوا فِي الْأَرْضِ وَتَقَطَّعُوا أَرْحَامَكُمْ . أُولَئِكَ الَّذِينَ لَعَنَهُمُ اللَّهُ فَأَصَمَّهُمْ ، وَأَعَمَّى أَبْصَارَهُمْ) [محمد : ۲۲ ، ۲۳] متفق عليه

وفي رواية للبخاري : فقال الله تعالى : « مَنْ وَصَلَكَ ، وَصَلْتُهُ ، وَمَنْ قَطَعَكَ ، قَطَعْتُهُ »

31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자 자궁(혈연관계)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것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보호를 구하는 곳입니까?’ 알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 하노라. 그대를 붙잡고 있는 그에게 내가 친절할 것이요, 그대와 단절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와 단절할 것이니라. 그대는 만족하겠느냐?’ 자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만족합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를 위한 장소라.’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음의 꾸란 절을 읽으시오. 【너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고 혈연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알라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그들은 귀머거리가 되고 눈이 멀게 될 것이니라.】 (47:22-23)

۳۱۶ - وعنه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جاء رجل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من أحق الناس بحسن صحابتي؟ قال : أمك ، قال : ثم من؟ قال : أمك ، قال : ثم من؟ قال : أمك ، قال : ثم من؟ قال : أبوك ، مضى عليه .
وفي رواية : يا رسول الله من أحق بحسن الصحبة؟ قال : أمك ، قال : ثم أمك ، ثم أمك ، ثم أبوك ، ثم أدنك أدنك .

316.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한 남자가 사도를 찾아와 질문했다. ‘사도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한 예우와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다음으로는 누구냐는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냐는 질문에 사도는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사람이 또 물었다.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다. ‘사도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한 예우와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께서 대답했다. “당신의 어머니요, 그 다음에도 당신의 어머니며, 그 다음에도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척이며 그 다음에도 가까운 친척입니다.”

۳۱۷ - و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رَغِمَ أَنْفٌ ، ثُمَّ رَغِمَ أَنْفٌ ، ثُمَّ رَغِمَ أَنْفٌ ، مَنْ أَدْرَكَ أَبَوَيْهِ عِنْدَ الْكِبَرِ ، أَحَدُهُمَا أَوْ كِلَاهُمَا ، فَلَمْ يَدْخُلِ الْجَنَّةَ » رواه مسلم

31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부모 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를 알게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Muslim).

۳۱۸ - وعنه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جلاً 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لي قرابةً صلهم وبفطعموني ، وأحسن إليهم ويسئنون إلي ، وأحلم عنهم ويجهلون علي ، فقال : لئن كنت كما قلت ، فكأنما تسفهم المل ، ولا يزال معك من الله ظهير عليهم ما دمت على ذلك رواه مسلم

318.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사도를 찾아와 물었다. ‘사도여, 저에게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와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들은 저를 냉대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는데 그들은 저를 무시합니다.’ 사도께서 말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라면 당신은 그들에게 뜨거운 재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도울 것이요 그들의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۱۹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أَحَبَّ أَنْ يُبْسَطَ لَهُ فِي رِزْقِهِ ، وَيُنْسَأَ لَهُ فِي أَثَرِهِ ، فَلْيَصِلْ رَحِمَهُ » متفق عليه

31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양식이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친척들에게 베풀어야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۳۲۰ - وعنه قال : كَانَ أَبُو طَلْحَةَ أَكْثَرَ الْأَنْصَارِ بِالْمَدِينَةِ مَالًا مِنْ تَخْلٍ ، وَكَانَ أَحَبَّ أَمْوَالِهِ إِلَيْهِ بَيْرَحَاءُ ، وَكَانَتْ مُسْتَقْبِلَةَ الْمَسْجِدِ ، وَ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دْخُلُهَا ، وَيَشْرَبُ مِنْ مَاءِ فِيهَا طَيِّبٍ ، فَلَمَّا نَزَلَتْ هَذِهِ الْآيَةُ : (لَنْ تَنَالُوا الْبِرَّ حَتَّى تُنْفِقُوا مِمَّا تُحِبُّونَ) [آل عمران : ۹۲] قَامَ أَبُو طَلْحَةَ إِ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إِنَّ اللَّهَ تَبَارَكَ وَتَعَالَى يَقُولُ : (لَنْ تَنَالُوا الْبِرَّ حَتَّى تُنْفِقُوا مِمَّا تُحِبُّونَ) وَإِنْ أَحَبَّ مَالِي إِلَيَّ بَيْرَحَاءُ ، وَإِنَّهَا صَدَقَةٌ لِلَّهِ تَعَالَى ، أَرْجُو بَرَّهَا وَذُخْرَهَا عِنْدَ اللَّهِ تَعَالَى ، فَصَعَمَهَا يَا رَسُولَ اللَّهِ حَيْثُ أَرَاكَ اللَّ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بَخْر ! ذَلِكَ مَالٌ رَابِعٌ ، ذَلِكَ مَالٌ رَابِعٌ ! وَقَدْ سَمِعْتُ مَا قُلْتَ ، وَلَئِنْ أَرَى أَنْ تَجْعَلَهَا فِي الْأَقْرَبِينَ ، فَقَالَ أَبُو طَلْحَةَ : أَفْعَلُ يَا رَسُولَ اللَّهِ ، فَفَعَمَهَا أَبُو طَلْحَةَ فِي أَقْرَبِهِ وَبَنِي عَمِّهِ . مَعْقُوقٌ عَلَيْهِ

320.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아부 탈하(Abu Talha)는 메디나 거주 후원자(Al-Ansari) 출신으로 종려나무 재배농장을 소유한 부자였다.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 중에서 바이라하(Bairaha) 농장을 가장 아끼고 좋아했다. 그것은 예언자 사원 바로 앞에 있었다. 사도께서는 이 정원을 찾아가 그곳의 달콤한 물을 마시곤 하셨다. 꾸란 3장 92절이 계시되었을 때 아부 탈하가 사도를 찾아가 물었다. ‘사도여, 본 절이 당신에게 계시되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산은 바이라하 농장인데 보상을 기대하면서 알라 하나님을 위해 기증하겠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당신께서 처분하셔도 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좋아요. 매우 유익한 재물

입니다. 매우 유익한 재물입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잘 이해하였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 땅을 조카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딸하가 말했다. ‘사도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딸하는 그 땅을 조카들과 친척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Bukhari and Muslim).

۳۲۱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أقبل رجلٌ إلى نبيِّ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قال : أبايعُكَ عَلَى الْمِجْرَةِ وَالْجِهَادِ ابْتِغَاءَ الْأَجْرِ مِنَ اللَّهِ تَعَالَى . قال : « فَهَلْ لَكَ مِنْ وَالِدَيْكَ أَحَدٌ حَيٌّ ؟ » قال : نَعَمْ . بَلْ كِلَاهُمَا قال : « فَتَبْتَغِي الْأَجْرَ مِنَ اللَّهِ تَعَالَى ؟ » قال : نَعَمْ . قال : « فَارْجِعِي إِلَى وَالِدَيْكَ ، فَأَحْسِنِ صُحْبَتَهُمَا ، مَتَّقِي عَلَيْهِ وَهَذَا لَقَطٌ مُسْلِمٌ . »
وفي روايةٍ بَلَمَّا : جَاءَ رَجُلٌ فَاسْتَأْذَنَهُ فِي الْجِهَادِ فَقَالَ « أَحْيَى وَالِدَاكَ ؟ » قال : نَعَمْ ، قال : « فَتَبْتَغِي أَجْرَهُمَا ؟ »

321. 압둘라(Abdullah bin 'Amr bin 'Aas)가 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사도를 찾아와 질문하였다. ‘저는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주하여 알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할 것을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부모 중 한 분이 라도 생존해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예, 두 분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다시 사도께서 질문하셨다.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원합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님에게로 돌아가 두 분을 잘 모십시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한 사람이 사도를 찾아와 성전 동참을 허락하여달라고 하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부모가 생존해 있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부모를 위해 성전하십시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성전과 같습니다.”

۳۲۲ - وعن غ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بَسَ الْوَاصِلُ بِالْمُكَافِ ، وَلَكِنَّ الْوَاصِلَ الَّذِي إِذَا قَطَعْتَ رَحِمَهُ وَصَلَهَا ، رواه البخاري .

32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이샤(Aisah)가 전하고 있다. 자궁(혈육)은 알라 하나님의 권자에 걸려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나와 단절한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와 단절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۲۳ - وعن عائشة قالت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الرَّحِمُ مُعَلَّقَةٌ بِالْعَرْشِ تَقُولُ : مَنْ وَصَلَنِي ، وَصَلَهُ اللهُ ، وَمَنْ قَطَعَنِي ، قَطَعَهُ اللهُ ، متفقٌ عليه

323.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이샤(Aisha)가 전하고 있다. “자궁, 즉 혈육의 관계는 알라 하나님의 권자에 걸려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 나와 붙잡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을 것이요 나와 단절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그와 단절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۲۴ - وعن أم المؤمنين ميمونة بنت الحارث رضي الله عنها أنها أعتقت وكبدته . وتنتاذ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لما كان يومها الذي بدور عكبتها فيه ، قالت : أشعرت بأمر رسول الله أنني أعتقت وكبدتي ؟ قال : « أوقعت ؟ » ، قالت : نعم . قال : « أما إنك لو أعطيتها أخوالك كان أعظم لآجرك » ، متفقٌ عليه

324. 사도의 아내이자 신앙인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마이무나(Maimunah bint Al-Harith)가 전하고 있다. 그녀는 사도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녀 노예 여성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켰다. 사도가 그녀의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사도에게 말했다. ‘사도여, 제가 하녀 노예 여성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사도가 말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아내가 대답하자 사도가 말했다. “괜찮

아요. 만일 당신의 외삼촌들에게 주었다면 더 큰 보상이 있었을 것이요.” (Bukhari and Muslim).

۳۲۵ - وعن أسماء بنت أبي بكر الصديق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ت :
 قَدِمْتُ عَلَى أُمِّي وَهِيَ مُشْرِكَةٌ فِي عَهْدِ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اسْتَفْتَيْ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لْتُ : قَدِمْتُ عَلَى أُمِّي وَهِيَ
 رَاغِبَةٌ ، أَفَأَصِلُ أُمِّي ؟ قَالَ : « نَعَمْ صِلِي أُمَّكَ » متفق عليه .

325. 아스마(Asma'a bint Abu Bakr Siddiq)가 전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때까지 나의 어머니는 무슬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나는 사도에게 여쭙어보았다. ‘친정어머니가 저를 보기 위해 오셔서 무엇을 부탁해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사도께서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드리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۳۲۶ - وعن زينب الثقفية امرأة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وعنها قالت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تَصَدَّقْنَ بِأَمْشَرِ النِّسَاءِ
 وَلَوْ مِنْ حُلِيِّكُنَّ » قالت :. فَرَجَعْتُ إِلَى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فَقُلْتُ لَهُ : إِنَّكَ
 رَجُلٌ خَفِيفُ ذَاتِ الْبَدَنِ وَإِ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دْ أَمَرَنَا
 بِالصَّدَقَةِ فَأَتَيْهِ ، فَاسْأَلْهُ ، فَإِنْ كَانَ ذَلِكَ يُجْزِي عَنِّي وَإِلَّا صَرَفْتُهَا
 إِلَى غَيْرِكُمْ . فَقَالَ عَبْدُ اللَّهِ : بَلَى أَتَيْهِ أَنْتِ ، فَاذْأَمْرًا
 مِنَ الْأَنْصَارِ بِيَابِ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حَاجَتِي حَاجَتُهَا ، وَ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دْ أَلْقَيْتُ عَلَيْهِ الْمَهَابَةَ ، فَخَرَجَ عَلَيْنَا بِلَالٌ ،
 فَقُلْنَا لَهُ : أَن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أَخْبِرْهُ أَنَّ امْرَأَتَيْنِ بِالْبَابِ
 نَسْأَلَانِكَ : « تُجْزِي الصَّدَقَةُ عَنْهُمَا عَلَى أَزْوَاجِهِمَا وَعَلَى أَبْنَائِهِمَا فِي
 حُجُورِهِمَا ؟ وَلَا تُخْبِرُهُ مَنْ نَحْنُ » ، فَدَخَلَ بِلَالٌ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ی اللہ علیہ وسلم : فَسَأَلَهُ ، فَقَالَ لَهُ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مِنْ هُمَا ؟ »
 قَالَ : امْرَأَةٌ مِنَ الْأَنْصَارِ وَزَيْنَبُ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أَيُّ الزَّيْنَبِ هِيَ ؟ » قَالَ : امْرَأَةُ عَبْدِ اللَّهِ ، فَ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هُمَا أَجْرَانِ : أَجْرُ الْقَرَابَةِ وَأَجْرُ الصَّدَقَةِ » ، مَتَّفِقٌ عَلَيْهِ

326. 압둘라(Abdullah bin Mas'ud)의 아내 자이납 싸까피야(Zainab Al-Saqafiya)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한 여성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성들이여, 자선하십시오. 가진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장식품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남편(압둘라 빈 마스우드)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가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사도께서 우리에게 자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말했다. ‘존엄하신 그분을 찾아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도 자선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되는지 여쭙어보시오.’ 그래서 나는 사도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나 먼저 메디나 출신(Ansari)의 한 여성이 나와 똑같은 이유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둘은 존엄하고 장엄하신 분의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있는 동안에 빌랄(Bilal)이 대문으로 나오기에 그에게 부탁했다. ‘두 여인이 와서 그들이 남편이나 또는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고아들에게 베풀어도 자선이 되는지 사도에게 여쭙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빌랄이 사도에게 가서 그 질문을 전했다. 그러자 사도께서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셨다. 한 사람은 메디나 출신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이납이라는 여성이라고 빌랄이 대답하자, 자이납이 누구냐고 사도께서 물으셨다. 압둘라의 아내라고 빌랄이 대답하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그 둘은 두 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는 친척들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요 다른 하나는 자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۲۷ - وعن أبي سفيانٍ صحابيٍّ بنِ حربٍ رضي الله عنه في حديثه الطويل في قصة هيرقل أن هيرقل قال لأبي سفيان : فماذا بتأمركم به ؟

يَعْتَقِي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قُلْتُ : يَقُولُ : « اعْبُدُوا اللَّهَ وَحْدَهُ ،
وَلَا تُشْرِكُوا بِهِ شَيْئًا ، وَاتْرُكُوا مَا يَقُولُ آبَاؤُكُمْ » ، وَيَأْمُرُنَا بِالصَّلَاةِ ،
وَالصَّدَقِ ، وَالْعَقَابِ ، وَالصَّلَاةِ ، مُتَّفَقٌ عَلَيْهِ .

327. 아부 수피안 사크르(Abu Sufiyan Sakhr bin Harb)가 로마의 통치자 헤라클리우스와 나눈 그의 긴 대화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헤라클리우스가 수피안에게 물었다. ‘당신의 예언자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그 어떤 사람도 그분과 연계시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조들의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고 진실을 말하며 순결을 지킬 것이요 친척들 간에 우애있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۳۲۸ - وعن أبي ذر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كُمْ سَتَفْتَحُونَ أَرْضًا يَذْكُرُ فِيهَا الْقِيرَاطُ » ،
وفي رواية : « سَتَفْتَحُونَ مَصْرًا وَهِيَ أَرْضٌ يُسَمَّى فِيهَا الْقِيرَاطُ ،
فَاسْتَوْصُوا بِأَهْلِهَا خَيْرًا ، فَإِنَّ لَكُمْ ذِمَّةً وَرَحِمًا » ،
وفي رواية : « فَإِذَا افْتَتَحْتُمُوهَا ، فَأَحْسِنُوا إِلَى أَهْلِهَا ، فَإِنَّ لَكُمْ ذِمَّةً
وَرَحِمًا » أَوْ قَالَ « ذِمَّةً وَصِهْرًا » ، رواه مسلم

32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다르르(Abu Dharr)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은 곧 끼라트 (Qirat)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은 곧 끼라뜨(Qirat)라 불리는 이집트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을 잘 보살피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받을 친족관계(Dhimmah)가 성립되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곳을 정복하면

그곳의 주민들을 잘 보살피시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들은 보호받을 친족관계(Dhimmah) 또는 모계관계(Sahr)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Muslim).

*이집트인들을 친족관계로 본 것은 예언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이집트 출신 여성이며 사도 무함마드의 부인 마리아(Maryam)도 이집트 콥트 출신으로 사도의 아들 아브라함을 출산하였기 때문이다.

۳۲۹ - وعن أبي هريرة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لما نزلت هذه الآية :
 (وَأَنْذِرْ عَشِيرَتَكَ الْأَقْرَبِينَ) [الشعراء : ۲۱۴] دَعَ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رَيْشًا ، فَاجْتَمَعُوا فَعَمَّ ، وَخَصَّ وَقَالَ : « يَا بَنِي عَبْدِ شَمْسٍ ،
 يَا بَنِي كَعْبٍ بْنِ لُؤَيٍّ ، أَنْقِذُوا أَنْفُسَكُمْ مِنَ النَّارِ ، يَا بَنِي مُرَّةَ بْنِ كَعْبٍ ،
 أَنْقِذُوا أَنْفُسَكُمْ مِنَ النَّارِ ، يَا بَنِي عَبْدِ مَنَافٍ ، أَنْقِذُوا أَنْفُسَكُمْ
 مِنَ النَّارِ ، يَا بَنِي هَاشِمٍ أَنْقِذُوا أَنْفُسَكُمْ مِنَ النَّارِ ، يَا بَنِي عَبْدِ الْمُطَّلِبِ
 أَنْقِذُوا أَنْفُسَكُمْ مِنَ النَّارِ ، يَا فَاطِمَةُ أَنْقِذِي نَفْسَكَ مِنَ النَّارِ ، فَإِنِّي
 لَا أَمْلِكُ لَكُمْ مِنْ اللَّهِ شَيْئًا ، غَيْرَ أَنَّ لَكُمْ رَحِمًا سَابِلَهَا بَيْلَاهَا ،
 رَوَاهُ مُسْلِمٌ

329.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다. 【그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경고하라】 (26:214) 라는 계시가 내려졌을 때 사도께서 꾸라이쉬 부족을 소집하였다. 부족의 대표들과 부족민들이 한 곳에 모이자 사도께서 그들에게 말을 꺼냈다. “압두삼스(Abd Shams)의 후손들이여, 카압(Ka'ab bin Laiyi)의 자손들이여, 불지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보호하십시오. 무르라(Murrah bin Ka'ab) 불지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출하십시오. 압두마나프(Abd Manaf)의 자손들이여, 불지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출하십시오. 하심의 후손들이여, 불지옥으로부터

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출하시오. 압둘무탈립(Abdulmuttalib)의 자손들이여, 불지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보호하시오. 내 딸 파티마야, 불지옥으로부터 네 자신을 보호하여라. 심판의 날 나는 알라 하나님의 뜻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과 친척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저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Muslim).

۳۳۰ - وعن أبي عبد الله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جِهَاراً غَيْرَ سِرٍّ يَقُولُ : « إِنَّ آلَ بَنِي فُلَانٍ لَيَسُوْا بِأَوْلِيَائِي ، إِنَّمَا وَلِيِّيَ اللهُ وَصَالِحُ الْمُؤْمِنِيْنَ ، وَلَكِنْ لَهُمْ رَحْمٌ أَبْلُغُا بِيْلَاهَا ، « متفق عليه . وَاللَّفْظُ لِلْبُخَارِيِّ .

330. 아부 압둘라 아므루(Abu Abdullah 'Amru bin Al-'Aas)가 전하고 있다. 나는 사도께서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떤 사람의 자손들은 나의 친구들도 아니요 친척들도 아닙니다. 나의 보호자는 알라 하나님이고 친구는 덕망이 높은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친척 관계에 있으므로 나는 나의 임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۳۱ - وعن أبي أيوب خالد بن زيد الأنصاري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جلاً 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أخبرني بِعَمَلٍ يُدْخِلُنِي الْجَنَّةَ ، وَيُبَاعِدُنِي مِنَ النَّارِ . ف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تَعْبُدُ اللهَ ، وَلَا تُشْرِكُ بِهِ شَيْئاً ، وَتُعِمْ الصَّلَاةَ ، وَتُؤْتِي الزَّكَاةَ ، وَتَصِلُ الرَّحِمَ ، « متفق عليه

331. 아부 아이유프(Abu Ayub bin Khalid bin Zaid Al-Ansari)이 전하고 있다. 한 남자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사도여,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불지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에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분에게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며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친척들과 함께하시오.” (Bukhari and Muslim).

۳۳۲ - وعن سلمان بن عامر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ذا أفطرت أحدكم ، فليُفطر على تمر ، فإنه بركة » ، فإن لم يجد تمرًا ، فاللأء ، فإنه طهور » وقال : « الصدقة على المسكين صدقة ، وعلى ذي الرحم ثنتان : صدقة وصلة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

332.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찰람(Salman bin 'Amir)이 전하고 있다. “단식을 깨뜨릴 때는 종려나무 열매로 깨뜨리시오.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없을 경우에는 물로 단식을 깨뜨리시오. 물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우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의 자선에 불과하지만 친척에게 베푸는 것은 두 가지의 좋은 일로, 하나는 자선이요 다른 하나는 친척에 대한 배려입니다.” (Tirmizi).

۳۳۳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كانت تحتي امرأة ، وكنت أحبها ، وكان عمرُ يكرهها ، فقال لي : طلقها ، فأبيت ، فأنى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ذكر ذلك له ، فقا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طلقها » ، رواه أبو داود ، و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

333. 이븐 우마르(Ibn 'Umar)가 전하고 있다. 나는 나의 아내를 좋아하는데 나의 아버지는 싫어하여 나에게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거절하였다. 우마르가 이 소식을 사도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도께서 나에게 이혼하라고 하셨다. (Abu Dawood and Tirmizi).

۳۳۴ - وعن أبي الدرداء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جلاً أتاه فقال : إن لي امرأة وإن أسي تأمرني بطلاقها ؟ فقال :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الولدُ أو سبطُ أبوابِ الجنة ، فإن شئت ، فأضع ذلك الباب ، أو أحفظه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

334. 아부 다르다(Abu Darda)가 전하고 있다.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가 아내와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르다는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아버지는 천국의 가장 강한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면 그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Tirmizi).

۳۳۵ - وعن البراء بن عازب رضي الله عنهما ،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لْحَالَةُ بِمَنْزِلَةِ الْأُمِّ »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حسن صحيح

335.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아(Al-Bara bin 'Azib)가 전하고 있다. “외숙모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습니다.” (Tirmizi).

제41장 불효와 친척간의 단절 금지

قال الله تعالى : فَهَلْ عَسَيْتُمْ إِنْ تَوَلَّيْتُمْ أَنْ تُفْسِدُوا فِي الْأَرْضِ
وَتَقَطُّعُوا أَرْحَامَكُمْ أُولَئِكَ الَّذِينَ لَعَنَهُمُ اللَّهُ فَأَصَمَّهُمْ وَأَعَمَّى
أَبْصَارَهُمْ [محمد : ٢٢ ، ٢٣] وقال تعالى : وَالَّذِينَ يَنْقُضُونَ عَهْدَ اللَّهِ
مِنْ بَعْدِ مِيثَاقِهِ وَيَقْطَعُونَ مَا أَمَرَ اللَّهُ بِهِ أَنْ يُوصَلَ وَيُفْسِدُونَ فِي
الْأَرْضِ ، أُولَئِكَ لَهُمُ اللَّعْنَةُ وَلَهُمْ سُوءُ الدَّارِ [الرعد : ٢٥] وقال تعالى :
وَكَفَى رِبْكَ لَا تَعْبُدُوا إِلَّا إِيَّاهُ وَبِالْوَالِدَيْنِ إِحْسَانًا إِمَّا يَبُلُغْنِ حِينَئِذٍ
الْكِبَرَ أَحَدُهُمَا أَوْ كِلَاهُمَا فَلَا تَقُلْ لَهُمَا آفٌ وَلَا تُنْهَرُهُمَا وَقُلْ لَهُمَا
قَوْلًا كَرِيمًا وَانْخَفِضْ لَهُمَا جَنَاحَ الذُّلِّ مِنَ الرَّحْمَةِ وَقُلْ رَبُّ أَرْحَمُهُمَا
كَمَا رَبَّيَانِي صَغِيرًا [الإسراء : ٢٣ ، ٢٤]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고 혈연관계를 끊겠다는 것이냐? 그러한 자들에게는 알라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어 그들은 귀머저리가 되고 눈이 멀게 될 것이니라.】 (47:22-23) 【알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 이를 깨뜨리는 자와 함께하라고 하는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요 그들을 위해 비참한 거처인 지옥이 준비되어 있노라.】 (13:25) 【주님께서 명을 내리셨노라.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중에 한 분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대꾸하지 말고 고운 말을 쓰라.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해 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17:23-24)

۳۳۶ - وعن أبي بكرة نفع بن الحارث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لا أتيتكم يا كبراء الكبراء ؟ » - ثلاثاً - قلنا : بلى يا رسول الله : قال : « الإشرāk بالله ، وعقوقُ الوالدين ، وكان منكراً فجلس ، فقال : « ألا وقولُ الزور وشهادةُ الزور ، فما زال يكررها حتى قلنا : ليته سكت . مضم عليه .

336.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바크르 누파이(Abu Bakr Nufai bin Haris)가 전하고 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말하여 줄까요?” 우리는 대답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연계시키거나 비유하는 것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과 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 했으면 했는데 그분께서는 계속하여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셨다. (Bukhari and Muslim).

۳۳۷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و بن العاص رضي الله عنهما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الكبراء : الإشرāk بالله ، وعقوقُ الوالدين ، وقتل النفس ، واليمينُ الفموسُ » رواه البخاري

337.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Amru bin Al-'As)가 전하고 있다. “큰 죄 가운데는 알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연계시키거나 비유하는 것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과 살인과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Bukhari).

۳۳۸ - و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من الكبراء شتم الرجل والدَيْه ! » قالوا : يا رسول الله وهل يشتم الرجلُ والدَيْه !؟ قال : « نعم ، يَسُبُّ أبا الرجل ، فيسبُّ أباه ، ويسبُّ أمه ، فيسبُّ أمه ، مضم عليه
وفي رواية : « إن من أكبر الكبراء أن يلعن الرجلُ والدَيْه ! »

قِيلَ : يَا رَسُولَ اللَّهِ كَيْفَ يَتَنَعَّنُ الرَّجُلُ وَالِدَيْهِ ۚ قَالَ : يَتَّبِ أبا
الرجل ، فَيَتَّبِ أباهُ ، وَيَتَّبِ أمَّهُ ، فَيَتَّبِ أمَّهُ .

33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Amru bin Al-'As)가 전하고 있다.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속이거나 헐뜯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사도여, 어떻게 부모를 헐뜯을 수 있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요.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헐뜯한다면 후자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아버지를 헐뜯 것이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헐뜯한다면 후자는 그에 대응하여 그의 어머니를 헐뜯는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가장 큰 죄 가운데는 자신의 부모를 헐뜯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사도여, 어떻게 부모를 헐뜯을 수 있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요.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헐뜯한다면 후자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아버지를 헐뜯 것이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헐뜯한다면 후자는 그에 대응하여 그의 어머니를 헐뜯는 것입니다.”

۳۳۹ - وعن أبي محمد جُبَيْرِ بْنِ مُطْعِمٍ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لَا يَدْخُلُ الْجَنَّةَ قَاطِعٌ » ، قَالَ سَفِيَانُ فِي رَوَائِهِ : بَعَثَنِي : قَاطِعٌ رَحِيمٌ . مُتَّفَقٌ عَلَيْهِ

339.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무함마드 주바이르(Abu Muhammad Jubair bin Mut'im)가 전하고 있다. “친척과 단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۴۰ - وعن أبي عيسى المَخْزُومِيِّ بْنِ شُعْبَةَ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 اللَّهَ تَعَالَى حَرَّمَ عَلَيْكُمْ عُقُوقَ الْأُمِّهَاتِ ، وَمَنْعًا وَهَاتِ ، وَوَادَ الْبَنَاتِ ، وَكَرِهَ لَكُمْ قِيلَ وَقَالَ ، وَكَثْرَةَ السُّؤَالِ ، وَإِضَاعَةَ الْمَالِ ،

متفق عليه .

340.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이사 무기라(Abu Isa Mughirah bin Shu'bah)가 전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불효를 금지하셨고, 인색함과 타인의 재물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여아를 생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셨으며, 그리고 쓸데없는 말과 지나친 질문과 재물의 낭비를 싫어하십니다.” (Bukhari and Muslim).

제42장 부모 친구에 대한 예절

۳۴۱ - 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إن أبرَّ البرِّ أنْ يتَّصَلَ الرَّجُلُ وُدَّ أَبِيهِ . »

341.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Ibn 'Umar)가 전하고 있다. “가장 고상한 행위는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Muslim).

۳۴۲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دينار عن عبد الله 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رجلاً من الأعراب لقيهُ بطريق مكة ، فسَلَّمَ عَلَيْهِ عَبْدُ اللَّهِ بْنُ عُمَرَ ، وَحَمَلَهُ عَلَى حِمَارٍ كَانَ يَرْكَبُهُ ، وَأَعْطَاهُ عِمَامَةً كَانَتْ عَلَى رَأْسِهِ ، قَالَ ابْنُ دِينَارٍ : فَقُلْنَا لَهُ : أَصْلَحَكَ اللَّهُ إِنَّهُمْ الْأَعْرَابُ وَهُمْ يَرْضَوْنَ بِالْيَسِيرِ فَقَالَ عَبْدُ اللَّهِ بْنُ عُمَرَ : إِنَّ أَبَا هَذَا كَانَ وُدَّ لِعُمَرَ بْنِ الْخَطَّابِ رَضِيَ اللَّهُ عَنْهُ وَإِنِّي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 إنَّ أBRَّ البرِّ صِلَةُ الرَّجُلِ أَهْلَ وُدِّ أَبِيهِ . »

وفي روايةٍ عن ابن دينارٍ عن ابن عمرَ أَنَّهُ كَانَ إِذَا خَرَجَ إِلَى مَكَّةَ كَانَ لَهُ حِمَارٌ يَتَرَوَّحُ عَلَيْهِ إِذَا مَلَ رُكُوبَ الرَّاحِلَةِ ، وَعِمَامَةٌ يَشُدُّ بِهَا رَأْسَهُ ، فَبَيْنَا هُوَ يَوْمًا عَلَى ذَلِكَ الْحِمَارِ إِذْ مَرَّ بِهِ أَعْرَابِيٌّ ، فَقَالَ : أَلَسْتَ نُلَانِ بْنِ فُلَانٍ ؟ قَالَ : بَلَى . فَأَعْطَاهُ الْحِمَارُ ، فَقَالَ : ارْكَبْ هَذَا ، وَأَعْطَاهُ الْعِمَامَةَ وَقَالَ : اشْدُدْ بِهَا رَأْسَكَ ، فَقَالَ لَهُ بَعْضُ أَصْحَابِهِ : غَفَرَ اللَّهُ لَكَ أَعْطَيْتَ هَذَا الْأَعْرَابِيَّ حِمَارًا كُنْتَ تَرَوَّحُ عَلَيْهِ ، وَعِمَامَةً كُنْتَ تَشُدُّ بِهَا رَأْسَكَ ؟ فَقَالَ : إِنِّي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إِنَّ مِنْ أَبْرَارٍ أَنْ يَصِلَ الرَّجُلُ أَهْلَ وَدِّ أَبِيهِ بَعْدَ أَنْ يُوَكِّيَ ،
وإنَّ أَبَاهُ كَانَ صَدِيقًا لِ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 رَوَى هَذِهِ الرُّوَايَاتِ كُلَّهَا
مُسْلِمٌ

342. 압둘라 빈 디나르(Abdullah bin Dinar)가 압둘라 빈 우마르(Abdullah bin 'Umar)의 전언을 언급하고 있다. 압둘라 이븐 우마르가 메카로 가는 길목에서 유목민 출신의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인사하고서 타고 가던 당나귀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던 터번('Imamah)을 그 유목민에게 주었다. 압둘라 빈 디나르가 전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압둘라 빈 우마르여,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유목민들로 작은 것에도 만족할 텐데 왜 당신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을 베푸신가요?' 압둘라 빈 우마르가 대답했다. '이 사람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Umar bin Al-Khattab)의 친구였소.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소. "최상의 공덕은 아버지의 친구에게 친절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압둘라 빈 디나르(Abdullah bin Dinar)가 압둘라 빈 우마르(Abdullah bin 'Umar)의 전언을 언급하고 있다. 우마르 빈 압둘라가 메카에 여행을 갔을 때 낙타 타기가 피곤하여 타기에 간편한 당나귀를 타기도 하였으며 머리에는 터번을 둘렀다. 어느 날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한 유목민이 그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 유목민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 혹시 모씨의 아들 누구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압둘라 빈 우마르는 그에게 자기의 당나귀를 주면서 타고 가라고 했다. 그의 터번까지 벗어서 주면서 머리에 잘 두르라고 했다. 그의 몇 친구들이 압둘라 빈 우마르에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용을 베풀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유목민에게 당신이 타고 가던 당나귀를 기꺼이 주고 또 당신의 머리에 두른 터번까지 벗어 주었소.' 압둘라 빈 우마르가 말했다.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소.' "최상의 덕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

지의 친구 가족들에게 친절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Umar bin Al-Khattab)의 친구입니다.’ (Muslim).

۳۴۳ - وعن أبي أسيدٍ - بضم المزة وفتح السين - مالك بن ربيعة الساعد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بئنا نحن جلوسٌ عند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إذ جاءه رجلٌ من بني سُلَمةَ فقال : يا رسول الله هل بقي من برِّ أبوي شيءٍ أبرهما به بعد موتيهما ؟ فقال : نعم ، الصلاة عليهما ، والاستغفار لهما ، وإنفاذ عهدهما من بعدهما ، وصلة الرحم التي لا توصل إلا بهما ، وإكرام صديقهما ، رواه أبو داود

343. 아부 우사이드 말리크(Abu Usaid Malik bin Rabi'ah Al-Sa'idi)가 전하고 있다. 우리가 사도와 함께 자리를 함께하고 있을 때 바니 쌀라마(Bani Salamah) 출신의 한 남자가 사도를 찾아와 말했다. ‘사도여,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습니까?’ 사도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요, 할 일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두 분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부모님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부모의 친구들을 존경해야합니다.” (Abu Dawood).

۳۴۴ - و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ما غرتُ على أحدٍ من نساء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ا غرتُ على خديجة رضي الله عنها ، وما رأيتها قط ، ولكن كان يكثرُ ذِكْرُهَا ، ورُبُّمَا ذَبَحَ الشَّاةَ ، ثُمَّ يَقْطَعُهَا أَغْضَاءَ ، ثُمَّ يَبْعَثُهَا فِي صَدَائِقِ خَدِيْجَةَ ، فَرُبُّمَا قُلْتُ لَهُ : كَانَ لَمْ يَكُنْ فِي الدُّنْيَا إِلَّا خَدِيْجَةُ ! فيقول : إِنَّهَا كَانَتْ وَكَانَتْ وَكَانَ لِي مِنْهَا وَكَدٌّ ، مَضَى عَلَيْهِ .

وفي رواية وإن كان لَبَدَبُ الشَّاءِ ، فَبُهْدِي فِي خَلَائِلِهَا مِنْهَا
مَا يَسْتَعْمُونَ .
وفي رواية كَانَ إِذَا ذَبَحَ الشَّاءَ يَقُولُ : « أَرْسِلُوا بِهَا إِلَى أَصْدِقَائِهِ
خَدِيجَةَ » .
وفي رواية قَالَتْ : اسْتَأْذَنْتُ هَالَةَ بِنْتُ خُوَيْلِدٍ أُخْتُ خَدِيجَةَ عَلَى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عَرَفَ اسْتِئْذَانَ خَدِيجَةَ ، فَارْتَأَى
لِذَلِكَ فَقَالَ : « اللَّهُمَّ هَالَةُ بِنْتُ خُوَيْلِدٍ » .

344. 사도의 아내 아이샤(Aishah)가 전하고 있다. 나는 단 한번도 카디자(Khadijah)를 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녀만큼 부러운 사도의 아내는 없었다. 다른 부인들에 대한 부러움은 별로 크지 않았다. 사도께서 종종 그녀를 상기시키셨다. 염소 한 마리가 도살되었을 때 수족들을 잘라 카디자의 친구들에게 보냈다고 했다. 나는 가끔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이 세상에 카디자 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고상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녀에게서 아들 하나를 두었지요.” (Bukhari and Muslim).

다른 전언은 사도께서 염소를 도살할 때마다 변함없이 고기들을 그녀의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염소가 도살될 때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다. “그것의 일부를 카디자의 친구들에게 보내시오.”

카디자의 여동생 할라(Halah bint Khuwailid)가 사도에게 방에 들어가겠다고 양해를 구한 어떤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아내 카디자로 생각하고 마음이 무척 편안했다. 그런데 사도는 놀라 이렇게 말하셨다. “오! 알라 하나님여, 할라 처제 어서와요.”

۳۴۵ - وعن أنس بن مالك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خرجت مع جرير بن عبد الله البجلي رضي الله عنه في سفر ، فكان يخدمني قلت له : لا تفعل ، قال : إني قد رأيت الأنصار تصنع ب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شيئاً ألبت على نفسي أن لا أصحب أحداً منهم إلا خدمته .
متفق عليه

345. 아나스(Anas bin Malik)가 말하고 있다. 나는 자리르(Jarir bin Abdullah Bujali)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봉사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메디나 출신의 후원자들이 사도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았소. 나는 그때 마음으로 다 집혔소. 내가 만일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와 여행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소.’ (Bukhari and Muslim).

제43장 사도 가문에 대한 존경

قال الله تعالى : إِنَّمَا يُرِيدُ اللَّهُ لِيُذْهِبَ عَنْكُمُ الرِّجْسَ أَهْلَ
الْبَيْتِ وَيُطَهِّرَكُمْ تَطْهِيرًا . [الأحزاب : ٣٣] وقال تعالى : وَمَنْ يُعَظِّمْ
شَعَائِرَ اللَّهِ فَإِنَّهَا مِنْ تَقْوَى الْقُلُوبِ . [الحج : ٣٢] .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알라 하나님의 성스러운 증표를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마음의 소산이라.] (22:32)

٣٤٦ - وعن يزيد بن حبان قال : انطلقت أنا وحُصَيْنُ بْنُ سَبْرَةَ ،
وعمرُو بْنُ مُسْلِمٍ إِلَى زَيْدِ بْنِ أَرْكَمَ رَضِيَ اللَّهُ عَنْهُمْ ، فَلَمَّا جَلَسْنَا إِلَيْهِ
قَالَ لَهُ حُصَيْنٌ : لَقَدْ لَقِيتُ بِأَزِيدٍ غَيْرًا كَثِيرًا ، رَأَيْ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سَمِعْتُ حَدِيثَهُ ، وَفَزَوْتُ مَعَهُ ، وَصَلَّيْتُ خَلْفَهُ : لَقَدْ
لَقِيتُ بِأَزِيدٍ غَيْرًا كَثِيرًا ، حَدَّثَنَا بِأَزِيدٍ مَسَمِعْتُ مِ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يَا ابْنَ أَخِي وَاللَّهِ لَقَدْ كَبَّرْتَ سِنِي ، وَكَدُمَ هَدْيِي ،
وَمَسَيْتُ بِغَضِّ الَّذِي كُنْتُ أَحِبِّي مِ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فَمَا
حَدَّثْتُكُمْ ، فَاقْبَلُوا ، وَمَا فَلَا تُكَلِّفُونِيهِ ثُمَّ قَالَ : قَامَ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وْمًا فَبَيْنَا خَطِيئًا بِمَاؤُا بُدْعَى خُمًا بَيْنَ مَكَّةَ وَالْمَدِينَةِ ،
فَحَمِدَ اللَّهَ ، وَأَتَى حَلْبَةَ ، وَوَهَّظَ ، وَذَكَرَ ، ثُمَّ قَالَ : أَمَا بَعْدُ : أَلَا
أَيْهَا النَّاسُ ، فَلَمَّا أَنَا بِشَرِّ يَوْمِيكَ أَنْ يَأْتِيَ رَسُولُ رَبِّي فَأَجِيبَ ،
وَأَنَا تَارِكٌ لَكُمْ تَفْلَتِينَ : أَوْ لَمَّا كَتَابُ اللَّهِ ، فِيهِ الْهُدَى وَالنُّورُ ،
فَخُذُوا بِكِتَابِ اللَّهِ ، وَاسْتَمْسِكُوا بِهِ . فَحَثَّ عَلَى كِتَابِ اللَّهِ ، وَرَغَّبَ

فِيهِ نَمَّ قَالَ : وَأَهْلُ بَيْتِي أَذْكُرُكُمْ اللهُ فِي أَهْلِ بَيْتِي ، أَذْكُرُكُمْ اللهُ
فِي أَهْلِ بَيْتِي ، فَقَالَ لَهُ حُصَيْنٌ : وَمَنْ أَهْلُ بَيْتِي يَا زَيْدُ ، أَلَيْسَ
نِسَاؤُهُ مِنْ أَهْلِ بَيْتِي ؟ قَالَ : نِسَاؤُهُ مِنْ أَهْلِ بَيْتِي ، وَلَكِنْ أَهْلُ
بَيْتِي مَنْ حُرِّمَ الصَّدَقَةُ بَعْدَهُ ، قَالَ : وَمَنْ هُمْ ؟ قَالَ : هُمُ آلُ عَلِيِّ بْنِ
وَآلُ عَقِيلِ بْنِ ، وَآلُ جَعْفَرِ بْنِ ، وَآلُ حَبَّاسِ بْنِ قَالَ : كُلُّ هَؤُلَاءِ حُرِّمَ الصَّدَقَةُ ؟
قَالَ : نَعَمْ . رَوَاهُ مُسْلِمٌ .

وفي رواية : وَأَنَا نَارِي فَبِكُمْ تَقْلِبِينَ : أَحَدُهُمَا كِتَابُ اللهِ وَهُوَ
حَبْلُ اللهِ ، وَمَنْ اتَّبَعَهُ كَانَ عَلَى الْهُدَى ، وَمَنْ تَرَكَهُ كَانَ عَلَى ضَلَالَةٍ .

346. 야지드(Yazid bin Haiyan)가 전하고 있다. 나, 후세인(Husain bin Sabrah), 그리고 암루('Amru bin Muslim) 우리 셋이서 자이드(Zaid bin Arqam)를 찾아갔다. 자리를 함께 했을 때 후세인이 말을 꺼냈다. '자이드 어르신, 당신은 가까이서 있으면서 그분의 대화를 듣고, 그분과 함께 원정에 참여하고, 그 분 뒤에서 예배를 보는 등 많은 좋은 것들을 얻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당신은 많은 미덕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자이드 어른, 사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시오. 자이드가 말했다. '내 형제의 아들 조카여,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고리타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로부터 들은 것 가운데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대로 받아주고 기억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리고 하지마세요. 어느 날 메카와 메디나 사이에 있는 쿠마(Khuma) 오아시스에서 사도께서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신 후 알라 하나님의 보상과 그분의 징벌에 대한 경각심을 서두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나는 여러분과 닮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곧 주님의 사도가 올 것이며, 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남겨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알라 하나님의 책 꾸란(Quran)으로 이 안에는 복음

과 광명이 들어있으니 그 책을 단단히 붙잡고 그 내용을 준수하십시오.” 이 점을 크게 강조하면서 추종자들에게 그 책의 내용을 실천하도록 촉구한 후 다시 연설을 계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것은 사도의 가문(Ahlulbait)입니다. 나는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사도의 가문을 존경하십시오. 나는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사도의 가문을 존경하십시오.

이번에는 후세인이 말을 꺼냈다. ‘자이드 어른, 사도 가문의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사도의 부인들이 아닙니까?’ 자이드 어른이 대답했다. ‘그분의 아내들과 후원금 수령이 금지되어 있는 분들이 사도의 가문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후세인이 묻자 자이드 어른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알리(Ali)의 후손들과 아킬(Aqil)의 후손들과 자오파르(Ja'far)의 후손들과 압바스(‘Abbas)의 후손들입니다.’ 후세인이 또 물었다. ‘그들 모두도 후원금 수령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자이드 어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들으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를 남기겠소. 하나는 알라 하나님의 책으로 그것은 알라 하나님의 동아줄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며 그것을 버리는 자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۳۴۷ - وَمَنْزِلُ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 عَنْ أَبِي بَكْرٍ الصِّدِّيقِ رَضِيَ اللَّهُ عَنْهُ مَوْكُوفًا عَلَيْهِ أَنَّهُ قَالَ : ارْكَبُوا هِمْلًا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أَهْلِ بَيْتِهِ ،
رواه البخاري

347. 아부 바크르 시디끼(Abu Ba kr Al-Siddiqi)가 한 말을 그의 아들 우마르(Ibn 'Umar)가 전하고 있다. ‘사도의 가문을 존중하는 것은 곧 사도 무함마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Bukhari).

제44장 학자와 지식인 존경

قال الله تعالى: قُلْ هَلْ يَسْتَوِي الَّذِينَ يَعْلَمُونَ وَالَّذِينَ لَا يَعْلَمُونَ
إِنَّمَا يَتَذَكَّرُ أُولُوا الْأَلْبَابِ [الزمر: ٩].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러 가로되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냐? 실로 이해하는 자들은 교훈을 받아들이느라.】
(39:9)

۳۴۸ - وعن أبي مسعود عقبة بن عمرو البصري الأنصا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يَوْمُ الْقَوْمِ أَفْرَؤُهُمْ لِكِتَابِ اللَّهِ ،
فَإِنْ كَانُوا فِي الْقِرَاءَةِ سَوَاءً ، فَأَعْلَمُهُمْ بِالسُّنَّةِ ، فَإِنْ كَانُوا فِي السُّنَّةِ
سَوَاءً ، فَأَقْدَمُهُمْ هِجْرَةَ ، فَإِنْ كَانُوا فِي الْهِجْرَةِ سَوَاءً ، فَأَقْدَمُهُمْ
سِيئًا وَلَا يَزُومَنَّ الرَّجُلُ الرَّجُلَ فِي سُلْطَانِهِ ، وَلَا يَقْعُدُ فِي بَيْتِهِ عَلَى
تَكْرِمَتِهِ إِلَّا بِإِذْنِهِ » رواه مسلم .

وفي رواية له : « فَأَقْدَمُهُمْ سِلْمًا ، بَدَلِ سِيئًا » : أو إسلامًا .
وفي رواية : يَوْمُ الْقَوْمِ أَفْرَؤُهُمْ لِكِتَابِ اللَّهِ ، وَأَقْدَمُهُمْ قِرَاءَةً ،
فَإِنْ كَانَتْ قِرَاءَتُهُمْ سَوَاءً فَيَزُومُهُمْ أَقْدَمُهُمْ هِجْرَةَ ، فَإِنْ كَانُوا
فِي الْهِجْرَةِ سَوَاءً ، فَلْيَزُومَهُمْ أَكْبَرُهُمْ سِيئًا .

348.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마스우드 우크바(Abu Mas'ud 'Uqbah bin 'Amru Al-Badawi Al-Ansari)가 전하고 있다. “예배인 도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꾸란 낭송과 암송에 가장 능숙한 자입니다. 만일 그들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사도의 전통(Sunnah)에 대한 지

식을 갖춘 자이며, 그래도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초기 메카 이주자가 먼저이며, 그래도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는 집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Muslim).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연장자보다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자 중에서 가장 선임자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전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꾸란 암기와 낭송에 가장 정통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수준이라면 이주하여 온 자들 중에서 선임자가 이맘이 되며 그래도 모두가 동일하다면 최고 연장자가 이맘이 되어야 합니다.”

۳۴۹ - وعنه قال : كا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مْنَحُ مَنَّا كَيْفًا فِي الصَّلَاةِ وَيَقُولُ : « اسْتَوُوا وَلَا تَخْتَلِفُوا ، فَتَخْتَلِفَ قُلُوبُكُمْ ، لِيَكُنِّي مِنْكُمْ أَوْلُوا الْأَحْلَامِ وَالنَّهْيِ ، ثُمَّ الَّذِينَ يَلُوتُهُمْ » ، رواه مسلم

349. 아부 마스우드 우끄바(Abu Mas'ud 'Uqbah bin 'Amr Al-Badri Al-Ansari)가 전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사도께서 우리의 어깨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다. “불화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다를지라도 들쭉날쭉 서지 말고 일직선으로 줄을 서시오. 나이가 많고 지식층이 나 가까이에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수준의 사람들이 그들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수준의 사람들이 그들 가까이에 있게 하시오.” (Muslim).

۳۵۰ - وعن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يَكُنِّي مِنْكُمْ أَوْلُوا الْأَحْلَامِ وَالنَّهْيِ ، ثُمَّ الَّذِينَ يَلُوتُهُمْ ، ثَلَاثًا ، وَإِيَّاكُمْ وَهَبَشَاتِ الْأَسْوَاقِ » ، رواه مسلم

350. 압둘라(Abdullah bin Masud)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예배 때 나 가까이 있을 사람은 먼저 성인과 지식층이며 그리고 그들 가까이 있는 자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사도께서는 세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원에 있을 때는 흥분된 시장 사람들처럼 수다를 떨지 마시오.” (Muslim).

۳۵۱ - وعن أبي يحيى وقيل: أبي محمد سهل بن أبي حنمة - بفتح الحاء المهملة وإسكان التاء المثناة - الأنصاري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انطلقت عبد الله ابن سهل ومجبة بن مسعود إلى خيبر وهي يومئذ صلح، فتنفرتا، فأتى مجبة إلى عبد الله بن سهل وهو يتشخط في دمه قتيلًا، فذقتة، ثم قدم المدينة فأنطلق عبد الرحمن بن سهل ومجبة وحويفة ابنا مسعود إل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ذهب عبد الرحمن يتكلم فقال: «كبر كبر، وهو أحدث القوم، فسكت، فتكلمنا فقال: «أخلفون وتستحقون قتيلكم؟» وذكر تمام الحديث. متفق عليه عليه وسلم قال: «إن الله تعالى حرم عليكم عقوق الأمهات، ومنعاهن، ووأد البنات، وكره لكم قيل وقال، وكثرة السؤال، وإضاعة المال، متفق عليه .

351. 일명 아부 무함마드 사흘(Abi Muahammad Sahl bin Abi Hasmah)이라 불리는 아비 야히야가 전하고 있다. 압둘라(Abdullah bin Sahl)와 무하이사(Muhayysah bin Mas'ud)가 휴전 기간 중에 카이바르(Khaibar) 지역에 도착한 후 일을 찾아 서로 헤어졌다. 얼마 후 무하이사가 압둘라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죽어 피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매장하고 메디나로 돌아왔다. 압두라흐만(Abdurahman bin Sahl)과 마스우드의 두 아들 무하이사(Muhayysah)와 후와이사(Huwayysah)가 예언자를 찾아갔다. 그들 중에 화술이 가장 좋은 압두라흐만이 말을 꺼내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자가 말하시오. 압두라흐만은 나이가 가장 어

린 자요.” 그가 말을 멈추자 나머지 두 사람이 말을 시작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것에 맹세합니까?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정의를 요구합니까? 그리고 그 사건의 전모를 언급하셨다.” (Bukhari and Muslim).

۳۵۲ - وعن جابر رضي الله عنه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ان يجمع بين الرجلين من قتلت أحداً يقتل في القبر ، ثم يقول : أيهما أكثر أخذاً للقرآن ؟ ، فإذا أشير له إلى أحدهما قدمه في اللحد . رواه البخاري

352. 자베르가 전하고 있다. 우흐드 전투가 끝났을 때 예언자께서는 두 명의 순교자들을 합장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꾸란을 많이 암기하였습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자 그를 먼저 매장시키셨다. (Bukhari).

۳۵۳ - وعن ابن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ما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 « أراني في المنام أتسوكُ يسواك ، فجاءني رجلان ، أحدهما أكبر من الآخر ، فتناولت السواك الأصغر ، فقيل لي : كبر ، قد قمته إلى الأكبر منهما » رواه مسلم مُسنّداً والبخاري تعليفاً

353.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미스와크 칫솔로 나의 이빨을 닦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젊은이에게 미스와크 칫솔을 넘겨주자 연장자에게 주라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Bukhari and Muslim).

۳۵۴ - وعن أبي موسى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إن من إجلال الله تعالى لإكرام ذي الشئبة المسلم ، وحامل القرآن غير الغالي فيه ، والحقاني عنه » وإكرام ذي السلطان المقسط . حديث حسن رواه أبو داود

354. 아부 무사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중에는 노인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일, 꾸란을 암기하는 자와 꾸란을 해석하되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지 않는 자를 존중하는 일, 그리고 정직하고 공정한 통치자를 존경하는 일입니다.” (Abu Dawood).

۳۵۴ - وعن عمرو بن شعيب ، عن أبيه ، عن جده رضي الله عنهم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لَيْسَ مِنَّا مَنْ لَمْ يَرْحَمْ صَغِيرَنَا ، وَيَعْرِفْ شَرَفَ كَبِيرِنَا ، حَدِيثٌ صَحِيحٌ رَوَاهُ أَبُو دَاوُدَ وَالتِّرْمِذِيُّ ، وَقَالَ التِّرْمِذِيُّ : حَدِيثٌ حَسَنٌ صَحِيحٌ .
وفي رواية أبي داود « حَقَّ كَبِيرِنَا » .

355. 아므르('Amr bin Shuaib)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것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고 어른을 존중하는 않는 자는 우리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Abu Dawood and Tirmizi).

۳۵۶ - وعن مَيْمُونِ بْنِ أَبِي شَيْبَةَ رَحِمَهُ اللَّهُ أَ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مَرَّتْ بِهَا سَائِلٌ ، فَأَعْطَتْهُ كِسْفَةً ، وَمَرَّتْ بِهَا وَجُلُّ عَلَيْهِ نِيَابٌ وَهَيْئَةٌ ، فَأَقْعَدَتْهُ ، فَتَأَكَّلَ فَقِيلَ لَهَا فِي ذَلِكَ ؟ فَقَالَتْ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أَنْزِلُوا النَّاسَ مَنَازِلَهُمْ » رَوَاهُ أَبُو دَاوُدَ . لَكِنْ قَالَ : مَيْمُونٌ لَمْ يَذْكُرْ عَائِشَةَ .

وَقَدْ ذَكَرَهُ مُسْلِمٌ فِي أَوَّلِ صَحِيحِهِ تَعْلِيلًا فَقَالَ : وَذَكَرَ عَنْ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قَالَتْ : أَمَرَ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 نُنْزِلَ النَّاسَ مَنَازِلَهُمْ ، وَذَكَرَهُ الْحَاكِمُ أَبُو عَبْدِ اللَّهِ فِي كِتَابِهِ « مَعْرِفَةُ عُلُومِ الْحَدِيثِ » وَقَالَ : هُوَ حَدِيثٌ صَحِيحٌ .

356. 마이무나(Maimuna bin Abi Shabib)가 전하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이샤에게 자선을 베풀어달라고 구걸하자 그녀는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형편이 더 좋아 보이는 자가 자선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그를 불러 자리에 앉히고 옷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차별하여 대접한 이유를 묻자,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Abu Dawood).

٣٥٧ - وعن ابن عباس رضي الله عنهما قال : قَدِمَ عُبَيْدَةُ بْنُ حِصْنٍ ، فَتَزَلَّ عَلَى ابْنِ أَخِيهِ الْحُرِّ بْنِ قَيْسٍ ، وَكَانَ مِنَ النَّفَرِ الَّذِينَ يَدْنِيهِمْ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 وَكَانَ الْفُرَّاءُ أَصْحَابَ مَجْلِسِ عُمَرَ وَمُشَاوَرَتِهِ ، كَهَوْلًا كَانُوا أَوْ شُبَّانًا ، فَقَالَ عُبَيْدَةُ لابْنِ أَخِيهِ : يَا ابْنَ أَخِي لَكَ وَجْهٌ عِنْدَ هَذَا الْأَمِيرِ ، فَاسْتَأْذِنْ لِي عَلَيْهِ : فَاسْتَأْذَنَ لَهُ . فَأَذِنَ لَهُ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 فَلَمَّا دَخَلَ : قَالَ هِيَ يَا ابْنَ الْخَطَّابِ : فَرَأَى اللَّهَ مَا نَعْطِينَا الْجَزَلَ ، وَلَا نَحْكُمُ فِيْنَا بِالْعَدْلِ ، فَغَضِبَ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حَتَّى هَمَّ أَنْ يُوقِعَ بِهِ : فَقَالَ لَهُ الْحُرُّ : يَا أَمِيرَ الْمُؤْمِنِينَ إِنَّ اللَّهَ تَعَالَى قَالَ لِنَبِيِّ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خُذِ الْعَقْوَ وَأْمُرْ بِالْعُرْفِ وَأَعْرِضْ عَنْ الْجَاهِلِينَ) وَإِنْ هَذَا مِنَ الْجَاهِلِينَ . وَاللَّهِ مَا جَاوَزَهَا عُمَرُ حِينَ تَلَاهَا عَلَيْهِ ، وَكَانَ وَثَاقًا عِنْدَ كِتَابِ اللَّهِ تَعَالَى . رواه البخاري

357.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다. “우아이나(Yuainah bin Hisn)가 메디나에 와서 그의 조카 후르(Hurr bin Qais)에게서 머물렀다. 후르는 우마르(Umar)와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그가 주재하는 회의에 동참하는 명예도 가진 인물이었다. 꾸란을 암송하는 자들이 성인이거나 젊은이들을 불문하고 우마르의 회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우아이나가 후르에게 부탁을 했다. ‘사랑하는 조카여, 너는 신앙인들의 통치자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우아이나는 우마르에게 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카탐의 아들

우마르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우마르는 화가 치밀어 그를 구타하려고 했다. 이때 후르가 말했다. ‘신앙인들의 통치자여,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에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며 무지한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하셨습니다.(7:199). 이 분 후르는 무지한 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후르가 이 말을 되풀이 하자 우마르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알라 하나님의 책꾸란을 따랐다.” (Bukhari).

۳۵۸ - وعن أبي سعيدٍ سَمُرَةَ بْنِ جُنْدُبٍ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لَقَدْ كُنْتُ عَلَى عَهْدِ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غُلَامًا ، فَكُنْتُ أَحْفَظُ عَنْهُ ، فَمَا يَمْنَعُنِي مِنَ الْقَوْلِ إِلَّا أَنْ هَهُنَا رِجَالًا هُمْ أَسْنُ مِنِّْي . متفق عليه

358. 아부 싸이드 사무라(Abu Sa'id Samurah bin Jundub)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 생존시 나는 소년으로서 예언자의 전통을 기억해준 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ukhari and Muslim).

۳۵۹ - وعن أنس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 قال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مَا أَكْرَمَ شَابٌ شَبَّحًا لِسِنِّهِ إِلَّا قَبِيضٌ . اللَّهُ لَهُ مَنْ يُكْرِمُهُ عِنْدَ سِنِّهِ . رواه الترمذي وقال : حديث غريب .

359. 아나스(Anas bin Malik)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젊은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만 어른을 존경한다면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를 존경하는 자를 구속할 것입니다.” (Tirmizi).